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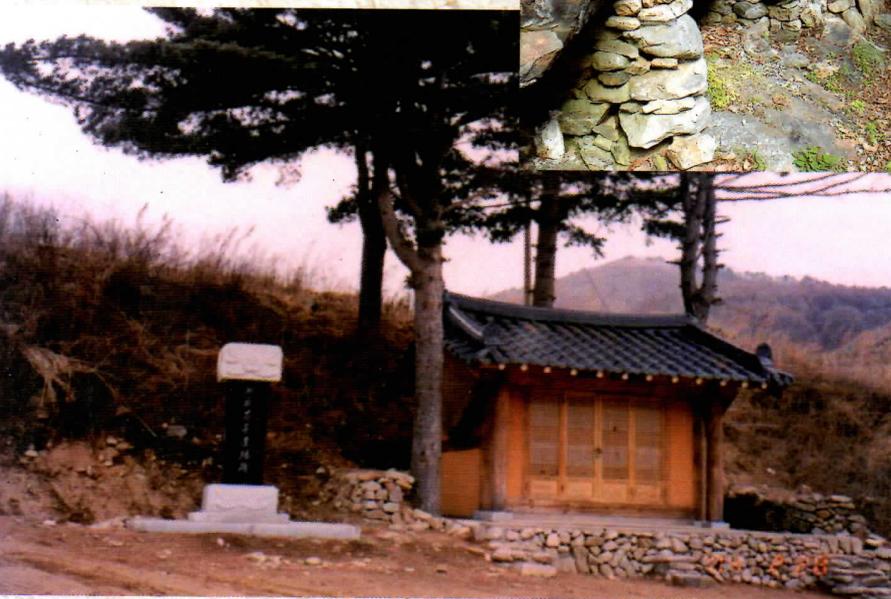


短
考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The Ritual Ceremony of Inje-gun People in Korea

이학주 지음



인
제
문
화
원

인제문화원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The Ritual Ceremony of Inje-gun People in Korea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The Ritual Ceremony of Inje-gun People in Korea

이학주 지음



인제문화원

발간사

하늘을 우러르는 사람에겐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끝이 어딘지 모를 하늘아래서 조그맣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에게 교만이란 사치일 것이 분명합니다.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또한 하늘에 봉헌할 손톱만큼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잠깐 머물렀다 떠나는 것이 사람이 누리는 하찮은 권력이고 지위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항상 그 곳에 떠 있는 채로 밝은 모양으로나 어두운 표정으로 우리 마음 속 양심을 살펴보라 합니다.

그 뜻이 어렵고 알기 힘들 때, 하늘을 바라 소망을 말하고 내일이 안녕하기를 비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늘에 대할 수 있는 조물주를 기리는 마음일 것입니다.

제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제당으로 남지 않는 이유는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가끔씩 스스로의 역할을 교만히 여기는 자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당당히 서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백 년을 이어 온 정신에 오늘 다시 한 번 두 손 모아 조그마한 정성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늘 아래 조금도 교만하지 않게,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서 제당에서 빌었던 크고 작은 소망들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제당 위에 올려 졌던 소중한 기원들을 다시금 생각하며 작은 책자로 면면히 내려 온 소망들을 모았습니다.

제당 앞에 놓는 것은 작은 책이지만 그 안의 소망은 우리네 살림살이가

앞으로도 수천 년을 찬란히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집필에 수고하신 이학주 교수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20.

인제문화원장 정 병 석

서문

인제군은 민속의 고장이다. 이 말은 필자가 인제의 마을신앙을 조사하면서 느낀 결론이다. 설악산, 대암산을 비롯해서 내린천, 인북천, 서화천은 인제의 민속을 살찌게 한 원동력이다. 인제사람들은 이러한 천연자원에 순종하고, 고향을 가꾸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자연과 더불어 자연인이 되어 있었다. 황태 껍질을 벗기고 밭가는 모습에서 21세기의 농촌은 볼 수 없었다. 자연인의 소박한 마음씨가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민속인 마을제사를 건강하게 전승하고 있었다.

그런 인제사람들의 삶을 마을신앙을 통해 채록할 수 있었던 필자는 행운아였다. 마을 어른이 이끄는 대로 아무 말 없이 제물을 준비하고, 마을의 안녕과 복락을 빌고 있는 젊은이들이 아름다웠다. 그들의 눈에는 고향을 지키고, 고향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들의 건강한 삶이 있는 한 인제의 농촌은 미래가 밝을 것이다.

어디를 가도 반갑게 맞아주고,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제보를 해 주신 여러 제보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산신당이 있는 곳까지 안내를 해주신 여러 어른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한다. 산신님과 서낭님께서 그들에게 복락을 내릴 것이다.

필자는 인제의 마을신앙을 채록하고 정리하면서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 인제사람들의 건강한 역사를 기록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지 못하는 인제사람들의 삶의 한 단면이다. 먼 훗날 인제의 후손들이 조상들이 살았던 삶의 장면을 보면서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을제사를 지내는 장면은 더 없이 훌륭한 생생한 삶의 역사이다.

이 책은 당사자가 아니면 감동을 받지 못하겠지만, 현장에서 마을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을 줄 것이다. 왜냐면 자신들의 삶이 아무런 포장 없이 진솔하게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을의 제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참가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한 번의 감동을 자아낼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앞으로 이 지역의 군지나 마을지를 편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을 확신한다. 또한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을을 새롭게 가꿀 문화콘텐츠나 스토리텔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방면의 연구자에게는 그야말로 보배와 같은 자료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필자에게는 보람도 상당히 크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여 더 많은 공력을 들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책을 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인제문화원 정병석 원장님과 백창현 사무국장님과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살면서, 필자를 쫓아 사진을 찍은 최종익 문화원 이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

이 책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있게 한 산신님, 서낭님, 용왕님, 김부대왕님, 박 대감님의 복 주심에 힘입은 것이다. 인제에 계시는 신령님이시여! 앞으로 더욱 인제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후손 없이 살면서도 생업에 힘썼고, 모든 재산을 아깝다 아니하고 마을을 위해 희사하고 돌아가신 무후자분들은 극락왕생하실 것을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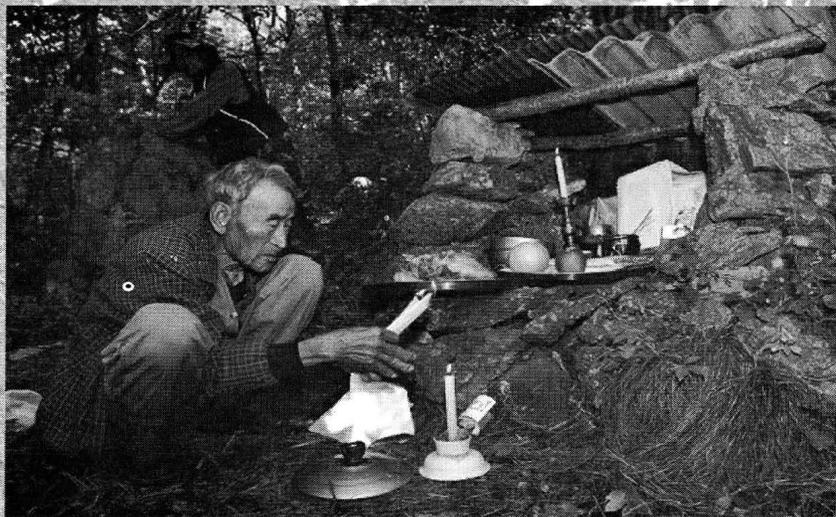
無偏書室에서 文來 李學周 書하다.

목 차

발간사	3
서문	5
제1장 인제지역의 마을제사 조사 필요성 및 방법	
1. 인제 마을제사 조사의 필요성	11
2. 조사 방법 및 범위	17
제2장 인제지역의 마을제사 조사 자료	
1. 인제읍 가야1리 송정리마을 <뒷골 서낭제와 산신제>	23
2. 인제읍 합강2리 <국사당 산신제와 느티나무제>	53
3. 기린면 현리 <박 대감 서낭제>	74
4. 기린면 서1리 3반 <물안골 산신제와 양지동 서낭제>	102
5. 남면 남전1리 <대마지골 산신제>	126
6. 남면 갑둔리 <소재골 산신제와 서낭제>	140
7. 북면 용대2리 4,5,6반 <매주골 산신제와 내가평 서낭제>	159
8. 북면 용대2리 2반 <아니오니 산신제>	178
9. 북면 한계1리 2반 <뒷골 새 산신제>	192
10. 상남면 방아다리 마을 <흙다리 산신제>	209
11. 상남면 김부리 <김부대왕제>	233
12. 서화면 서화1리 <99골 서낭제>	271
13. 서화면 천도2리 1.2반 <괴안골 산신제>	290
14. 기린면 현리 <기린면 무후제>	301
제3장 인제지역 마을제사의 활용방안과 과제	
1. 인제지역 마을제사의 활용방안	315
2. 인제군의 조사연구과제	323
참고문헌	328

제1장

인제지역의 마을제사
조사 필요성 및 방법



1. 인제 마을제사 조사의 필요성
2. 조사방법 및 범위

1. 인제 마을제사 조사의 필요성

인제군의 명칭은 오족현(烏足縣)·저족현(猪足縣)·희제(豨蹄)·오사회(烏斯回)·인제현(麟蹄縣) 등으로 불려왔다. 이는 대부분 멧돼지 발굽, 까마귀 발, 기린 발굽 등으로 풀이된다. 모두 동물의 발과 관련되어 있다. 왜 이런 지명이 있었을까? 그것은 인제의 형상이 그렇게 생겨서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영소(靈昭)와 서성현(瑞城縣)이라는 지명도 얻게 된다.¹⁾ 이는 신령스럽고 상서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인제의 인(麟)자는 기린이다. 이 기린은 과거에 신비스런 동물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인식했던 동물이다. 그래서 요즘 인제의 별칭으로 “하늘 내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게다가 까마귀는 일찍이 신화(神話) 새로 하늘에 닿는 신비로운 새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고조선과 고구려에서 삼족오(三足鳥)를 그려 표상으로 삼았던 것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렇다면 인제의 지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곧, 동물의 형상이 하나요, 하늘과 관련이 있는 신령스럽고 상서롭다는 이미지가 그 하나이다. 이는 곧, 하늘에 제사를 지낸 흔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헌에 나타나는 것을 지금은 찾을 수 없어 확고하게 증명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다. 곧, 멧돼지와 같은 동물은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쓰는 희생물이고, 까마귀는 그 매개자이며, 기린은 하늘에서 내려온 상서롭고 신령스런 상상의 동물인 것이다.

인제는 산천이 유달리 빼어났다. 설악산이며 대암산 등처럼 명산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내린천과 인북천과 서화천 같은 맑고 깨끗한 하천이 많다. 이 같은 산천(山川)은 우리 조상들이 살아가는 터전이며, 동시에 신앙의

1) 『인제읍지』(인제군, 1996), 19, 29쪽.

대상이었다. 인간은 유한하고 나약한데, 산천은 의구하고 신비하며 영험한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외경(畏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산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해서 산 정상에서 천제(天祭)를 지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²⁾ 그리고 물은 무엇이든 깨끗이 씻어주는 기능을 함으로 액막이를 위해서 재앙을 씻어내는 제사를 지내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어부식(魚鳧食)이다. 어부식은 그 해에 삼재가 들었든가 아이가 있는 집에서 정월대보름을 기해 물가에서 조밥을 해서 던지며 한 해의 무사고를 빌던 우리의 세시풍속이다.³⁾ 이러한 풍속은 인제와 같이 산천이 발달한 곳에서는 더욱 많았다. 인제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마을제사가 유달리 많이 전승하는 것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어느 지역의 관이나 다 제사를 지내며 고을의 안녕을 빌었는데, 그것은 사직단(社稷壇), 성황단(城隍壇), 여제단(厲祭壇)과 문묘(文廟)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제의는 인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인제에서는 그런 제사와는 다른 합강제(合江祭)를 매년 지낸다. 합강제는 내린천과 인북천이 합하는 지점인 중앙단(中央壇)에서 행해진다. 그 역사는 오래되었고, 한 동안 끊겼다가 지금은 인제군의 축제로 전승되고 있다. 합강제를 지내던 중앙단은 강원도의 중앙이기에 그 의미가 더했던 것이다. 『인제읍지』에는 중앙단에 대해서 “합강정 뒤에 있다. 예부터 도(道)의 중앙으로 한해(旱害)나 역질(疫疾)이 심하면 각 부(部)에서 이곳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⁴⁾ 라고 기록해 두었다. 이처럼 인제는 강원도의 중심이며, 중심이기에 우리 선조들이 중앙에 대해 가지는 믿음으로 인해 특별히 이곳에서 질병을 막고, 비를 내리게 해 달라고 기원했던 것이다. 그것도 민간 차원이 아닌 관청에

2) 인제군의 경우도 한계산성 안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천제단이 있다.

3) 이학주, “화천의 세시풍속 어부식에 대한 고찰”, 『강원민속학』21집(강원도민속학회, 2007), 279쪽.

4) 『인제읍지』, 앞의 책, 21쪽.

서 그 대표들이 모여서 지내는 제사였다.

인제의 동제(洞祭)는 다른 지역의 동제보다 다양하고, 역사가 오래며, 그 의미 또한 깊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이번에 조사한 마을제사에 따르면 김부대왕제와 박대감제, 무후제를 비롯하여 산신과 서낭신과 산천신 등처럼 아주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김부대왕제는 천 년 이상이나 제의가 행해지며, 박 대감제도 고려 말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제사이다. 그리고 무후제는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도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예기』에 그 편린들이 있으며, 『고려사』에도 무후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흔적이 보이며, 여제와 같은 제사는 무자귀신(無子鬼神)을 위한 제의이기도 하다. 특히, 『조선왕조실록』 경종조에는 궁중에서 무후(無後)한 대군(大君)·왕자(王子)·공주(公主)·후궁(後宮)을 위해서 수진궁(壽進宮)에서 제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⁵⁾

인제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마을제사는 산신제와 서낭(성황)제이다. 이 산신제는 이미 고조선의 단군왕검 시절부터 있었음을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볼 수 있다. 곧, 단군이 산신이 되어 갔다는 기록을 말한다.⁶⁾ 그리고 부여의 부루(夫婁)임금도 산천(山川)에 제사를 지내어 후사(後嗣)를 구했다고 한다.⁷⁾ 그리고 고구려의 산상왕(山上王)도 산천에 기도하여 후사를 보았다고 『삼국사기』에 전한다.⁸⁾ 이 같은 기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중국 정사 속 조선에 대한 기록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⁹⁾ 이처럼 우리의 산신 신앙은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 되었음을 각종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서낭은 산왕(山王)·선왕·서낭의 변화를 거쳤다고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서낭은 천신(天神)과 산신(山神)에서 왔다고 한다.¹⁰⁾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5) 이학주, 『강원도 무후제 조사 연구』(강원대중앙박물관, 2007), 253-264쪽.

6) 일연, 『삼국유사』, 이민수 역(을유문화사, 1986), 44쪽.

7) 위의 책, 58쪽.

8) 김부식, 『삼국사기』, 이병주 역(을유문화사, 1986), 296-7쪽.

9) 『국역 중국정사 조선전』(국사편찬위원회, 1986), 참조.

중국의 성황신(城隍神)이 도입 되면서 우리 고유의 서낭신이 성황신과 혼동 되어 전승하고 있다.

성황제는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제사를 지냈다는 흔적이 도처에 발견되고 있다. 그것이 나중에는 관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지내는 제사가 되었음을 각종 지리지와 도지와 읍지 등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1940년에 출간된 『강원도지』에도 보이는 것으로 봐서 없어진지가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다.¹¹⁾

우리나라에서 성황당에 관한 최고의 문헌 기록은 『고려사』 열전 제3의 기록이다. 안종(安宗) 왕욱(王郁)이 죽은 경종의 왕비 황보(皇甫) 씨와 정을 통한 죄를 얻어 성종(981~997)이 사수현(泗水縣)에 귀양을 보냈다. 황보 씨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현종이 된다. 현종이 사수현에 있는 아버지 왕욱을 찾아가 같이 지냈다. 때에 왕욱이 아들에게 금 한 주머니를 주면서 “내가 죽거든 이 금을 지관에게 주고 나를 이 고을 성황당(城隍堂) 남녘 귀룡동(歸龍洞)에 매장하게 하되 반드시 옆에서 묻게 하라.”고 하였다.¹²⁾ 이 기록에 따르면 10세기경에 이미 우리나라에 성황신앙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 곡성현조에 보면 “신승점은 죽어서 현의 성황신(城隍神)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다.¹³⁾ 신승점은 후삼국시대 견훤과 공산전투에서 싸우다가 왕건을 대신해 죽은 인물이다. 그때가 927년이니, 고려사의 기록보다 50년 이상 빠르다. 이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의 기록에 의하면 인제에서 지내는 <김부대왕제>는 성황신은 아니지만 그 역사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인제군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마을제사는 그 역사가 상당히 오

-
- 10) 김의숙, “서낭神攷”, 『강원인문논총』 2집(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126-8쪽.
 11) 『국역 강원도지』 <단사 조> (강원도, 2005), 579-584쪽.
 12) 『북역 고려사』 제8책(신서원, 1991), 81쪽. 김갑동에 의하면 성황에 관한 기록은 후삼국시대에 벌써 나타난다. 곧, 『삼국사기』 궁예전에 나타나나 이는 시중의 복잡한 거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 성황신앙에 대한 의미는 아니었다고 한다. 따라서 성황당 또는 성황신앙에 대한 기록은 위의 고려사 기록이 처음이라고 한다. 김갑동, 「고려시대의 성황신앙과 지방통치」, 『한국사연구』 74(한국사연구회, 1991), 4쪽.
 13)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9권, 곡성현조(민족문화추진회, 1969), 193쪽.

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다양성까지 지니고 있어서 그 가치는 상당히 높다.

또한 동제는 그 기능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박성석에 의하면 신성기능·화목단합기능·정치적 기능·축제기능을 가진다고 한다.¹⁴⁾ 실제로 필자가 인제군 마을제사 조사를 위해서 다녀 보면 이와 같은 기능이 모두 나타났다.

동제가 치러지는 기간은 신의 강림을 위해서 몸가짐을 조심하고, 제당을 청소하고, 금줄을 치면서 신성시공을 만들고 있었다. 왜냐면 신의 강림을 통해 인간의 소원을 말하고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무사고, 무병, 장수, 안녕, 풍요, 합격, 승진, 자식의 출생 등과 같은 소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동제를 통해서 하나의 대상을 생각하므로 마을 사람들은 화목단합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제사 준비를 하면서 돼지를 잡고 떡을 찌면서 함께 힘을 보태고 제사가 잘 치러지기를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기원하기 때문이다.

동제를 통해 결산을 하고, 새로운 마을의 지도자를 뽑기도 하고, 마을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기도 한다. 마을사람들이 남녀 누구나 참가하는 기간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마을의 이장이나 지도자는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동제의 최고점은 축제에 있다. 신을 강림시키고 흐드러지게 제물을 차리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논다. 어떨 때는 제당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제사가 끝나면 하루 종일 놀다가 오는 경우도 있다. 이때 노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중에 농악을 두드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신명나게 노는 모습은 우리 고대의 축제모습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인제의 마을제사는 이러한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동제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간혹 없어졌던 마

14) 박성석, 『한국의 민속』(영남서원, 1993), 100-2쪽.

을제사가 부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없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아니면 원래의 동제 기능을 잃고 문중의 제사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인제에서 대표적으로 변질된 경우는 <김부대왕제>와 <박대감제>이다. 이들은 마을에서 지내는 서낭제의 개념으로 마을의 중심에 우뚝 선 신앙의 표본이었다. 몸이 아파도 가서 빌고, 자식을 기원하면서도 빌고,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도 빌고, 복락을 빌기도 하는 등 마을 단체 제사와 개인의 제사가 지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 후손들보다도 마을의 신앙 대상으로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이들 두 사당과 제사는 문중제사로 전락했다.

또한 마을제사가 전승은 되는데 신격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누군지도 모르고 조상들이 지냈으니까 따라한다. 남면 남전리의 산신제는 5명의 여신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예단을 5개나 건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들 신이 왜 5명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는 전승 단절의 경우에 해당한다.

축문의 소실은 아주 큰 손실이다. 그 고장 고유의 축문에는 신격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기원 대상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축문이 없으면 더 이상 알 수 없게 된다. 이는 남전리의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인제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신심으로 믿고 따르던 마을제사가 변질되고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타깝기 한이 없다. 변질은 되더라도 기록을 해서 변화상이라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는 가끔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 인해서 마을제사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다.

하루 빨리 인제군에서는 인제군의 동제를 다른 시군들처럼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조사가 비록 어설플지라도 기록은 소중한 것이다.

2. 조사 방법 및 범위

인제군의 마을제사를 조사해서 한 권의 책으로 내고자 하여 실시한 조사 방법은 문헌조사와 현지조사 방법을 택하였다. 문헌조사는 현재까지 이 지역을 조사하여 서적으로 출간한 각종자료를 찾았다. 문헌조사는 인제지역의 마을제사가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거치지 않아서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 책에서 선택한 방법은 대체로 현지조사이다. 그래서 이 책에 실린 대부분의 내용은 필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제보자들에게 제보를 듣고 사진을 찍어서 넣었다.

문헌조사는 이미 조사한 자료를 찾아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 방면에 대한 식견만 있으면 가장 손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이점(利點)이 있다. 아울러 문헌의 연대순에 따라 자료의 변천과 역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반면에 현지조사는 지금 현재 전승하고 있는 자료를 채록한다는 점에서 현재성이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구연의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현장성을 지니고 있다. 현지조사는 기존에 없던 자료를 발굴하고, 있는 자료는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조사방법이다. 아울러 전승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사방법이다.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제의 경우는 문헌조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극히 드물었다. 왜냐하면 『한국의 마을제당』 같은 경우는 조사표를 마을에 보내서 마을의 이장이나 대표가 칸을 메워 보내오는 방식을 취했다. 그래서 조사표에 없는 사항은 채록을 할 수 없었다. 또 너무나 도식적이어서 마을제사에서 빚어지는 세세한 자료는 하나도 얻을 수 없었다. 이것도 모든 마을을 조사하는 방

법인 전수조사를 통했으면 그나마 마을제사의 상황에 대한 통계라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¹⁵⁾ 『인제군사』는 그야말로 피상적이다.¹⁶⁾ 게다가 새로 조사해서 쓴 것이 아니라, 『강원도사』에 기재된 내용을 베끼기만 했다.¹⁷⁾ 그나마 새로 조사해서 수록한 것은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이다. 6곳이 조사 되었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채록한 자료들이다.¹⁸⁾ 이처럼 인제는 현재 마을제사를 조사해 놓은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필자는 현지조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현지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각 마을의 이장과 노인회장의 전화번호를 입수하였다.
- ② 확보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마을제사 여부를 확인하였다.
- ③ 모든 마을을 다 할 수 없으므로 각 읍면에서 2마을씩 선정하였다. 북면 용대2리 2반의 경우는 워낙 특이해서 추가로 채록해 넣었다.
- ④ 선정방법은 비교적 마을제사가 잘 전승되는 지역을 우선하였다. 그리고 여러 동제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 다양성을 고려하였다. 그래서 기린면의 경우 무후제를 하나 더 추가 하였다.
- ⑤ 조사는 예비조사를 거치고, 마을제사의 현장을 직접 보고 조사 채록하는 방법을 취했다.
- ⑥ 조사장비는 녹음기 2대, 디지털카메라 1대, 노트, 볼펜을 사용하였다.
- ⑦ 조사팀은 3팀으로 나누었다. 총괄팀, 사진팀, 조사항목에 따른 수합팀이었다. 실제 업무 분담이 이뤄졌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⑧ 채록한 자료는 각각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절대적인 것은 제보자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랐다는 것이다. 뭔가 좀 부족할 경우 또 다른 제보자를 물색하여 제보를 받았다.

15) 『한국의 마을제당』 제2권, 강원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16) 『인제군사』(인제군, 1996).

17) 김의숙, “민속신앙”, 『강원도사』 전통문화 편(강원도, 1995).

18) 남근우·박신정, “인제군의 민속문화”,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한림대박물관, 1996).

⑨ 제보자는 그 마을제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과거에 제사를 주관했던 사람을 선정했다.

⑩ 기존의 문헌을 참고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⑪ 축문이나 한시와 같이 한문으로 된 자료는 독자의 이해를 위해서 필자가 모두 번역을 해서 실었다.

조사범위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제군 전 지역을 할 수 없어서 각 읍면에서 두 곳을 선정했다. 그래서 인제군은 6개 읍면으로 구성돼 있기에 12곳을 택했다. 그 중에 무후제는 지역과 상관없이 인제군의 제사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용대2리 2반의 〈아니오니 산신제〉를 더 하여 모두 14곳이 되었다.

이 조사 방법은 앞으로 우리나라 동제를 조사하고 정리하여 남기는데 좋은 귀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조사항목을 추려서 빼대만 실은 것이 아니라, 살과 피까지 모두 실어서 현장감을 살렸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서 그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곧, 민속의 특성인 전통성, 변화성, 현장성, 지역성, 시대성¹⁹⁾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 김의숙이창식, 『민속학이란 무엇인가』(북스힐, 2003), 47쪽.



제2장 인제지역의 마을제사 조사 자료



1. 인제읍 가야리 송정리 마을 <씻골 서낭제와 산신제>
2. 인제읍 합강2리 <국사당 산신제와 느티나무제>
3. 기린면 현리 <박 대감 서낭제>
4. 기린면 서리 3반 <물안골 산신제와 양지동 서낭제>
5. 남면 남전리 <대마지골 산신제>
6. 남면 갑둔리 <소재골 산신제와 서낭제>
7. 북면 용대2리 4,5,6반 <매주골 산신제와 내기평 서낭제>
8. 북면 용대2리 2반 <아니오니 산신제>
9. 북면 한계1리 <뒷골 새 산신제>
10. 상남면 방아다리 마을 <흙다리 산신제>
11. 상남면 김부리 <김부대왕제>
12. 서화면 서화리 <99골 서낭제>
13. 서화면 칠도2리 1,2반 <피안골 산신제>
14. 기린면 현리 <기린면 무후제>

1. 인제읍 가야1리 송정리마을

텃밭 서낭제와 산신제



가야1리 도로 옆에 세워진 조형물. 꽃밭에 장승, 돌탑, 지게와 돌탑을 오르는 개미가 보임.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09.8.4. 오전 10시~12시

2009.10.2. 오전 5시~12시. 음력 8월 14일.

조 사 지: 인제군 인제읍 가아1리 노인회장 댁

인제군 인제읍 가아1리 서낭당과 산신당

제 보 자: 전재순(남, 70) 인제읍 가아1리 송정리(전체적인 제보)

김운덕(남, 64) 인제읍 가아1리(수복 이후 제사지낸 제보)

한기봉(남, 52) 인제읍 가아1리(신수제보)

(2) 마을유래와 개관

가아1리의 소지명은 송정리, 텃골, 개면이, 탕관봉, 초당봉 등이 있다. 제사를 지내는 곳은 송정리 작은 텃골이다.

인제지역은 38선을 두고 한국전쟁이 나기 전 3년부터 교전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인제 남면을 경계로 남쪽은 국방군이 북쪽은 인민군 보안대와 대치하고 있었다. 가아리는 인민군이 통치를 하고 있었다.

생산품목은 산나물(떡취, 곰취 등), 장뇌삼, 송이, 잣, 고로쇠, 더덕 등이 많이 생산된다. 꼴이 좁고 토지가 적어서 살기가 쉽지 않은 마을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을 사람은 산에서 나는 생산물을 채취해서 생업에 보태고 있다.

이 마을은 비교적 단결이 잘 되는 마을이다. 노인들이 많은 마을이지만,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단결이 잘 되어 마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노인들은 자신의 생업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위해서 꽃길 가꾸기 등의 사업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마을에 가면 개미와 지게 등의 조형물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이 마을이 개면이 이기 때문이다. 곧 개면이는 개미를 뜻한다. 실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 마을은 개미모양이다. 그 때문에 이 마을을 개미산골마을이라 한다. 현재 가아2리 텃밭 서낭당과 산제당이 있는 곳은 개미허리 정도 된다. 가아2리는 개미 꼬리이다. 이 동네 사람들은 가아1리가 머리에 해당하므로 1리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2리가 편안히 먹고 산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2리는 무엇을 하든 잘 된다. 농어촌개발사업도 그 때문에 2리에만 좋은 시설이 돌아갔다고 한다. 가아리는 개미모양으로 마을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 길이가 12km라 한다. 그래서 마을의 홍보차원에서 개미 조형물을 만들어서 세웠다.

아울러 가아리에 신작로가 난 것은 한국전쟁 3년 전이다. 그때에 주로 사용하던 운반도구는 지게였다. 그래서 지게를 함께 조형물로 만들어 냈다. 나무를 해서 지게에다 짊어지고 인제읍에 가서 팔아 돈을 마련했고, 또 곡식을 지게에 지고 속초까지 가서 소금을 저 와서 먹었다. 소금은 1년에 두 번 저 날랐다.

이 마을에 종교분포는 다양하다. 이 마을에서 기독교 다니는 집은 10집 가량 된다. 마을에 50가구 정도 되는데, 10집이면 5분의 1정도 된다. 교회는 없고 원통까지 나가서 기도를 한다. 때가 되면 원통에 있는 교회에서 차를 갖고 와서 태우고 갔다가 태우고 온다.

대부분 사람이 마을제사에 참석을 하나,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마을 공동 일에는 종교를 떠나서 참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대부분 모든 걸 수용하고 있었다. 종교 여부를 떠나 화합이 잘 되는 마을이다.

2) 마을제사의 내용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가야1리는 서낭당과 산신당이 따로 있다.

가야1리의 마을제당은 마을의 가운데쯤에 있는 텃골로 올라가면 길 바로 옆 왼쪽에는 서낭당이 있고, 서낭당 맞은편 산으로 10여m정도 올라가면 산신당이 있다. 마을제당의 이름은 지명을 따서 '텃골 성황당과 산신당'이라고 한다. 텃골 옆에는 지당밭골과 제당골, 작은 텃골(고라뎡이)이 있다. 이 같은 지명이 있는 것을 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이곳에서 마을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서낭당은 길 바로 옆에 있는데 차들이 여기 와서 자주 들려간다고 해서 곁에다가 철망으로 울타리를 쳐놨다. 철망 안에는 서낭당집, 서낭목, 음식을 끓이는 화덕 위에 솥이 걸려있고, 소각장이 있다.

철망은 지난 해(2008) 가을에 설치했다. 이 울타리는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결부돼서 설치한 것이다.

예전 서낭당은 현재와 같이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지붕은 없이 돌담만 쌓아 놓았었다. 현재 있는 당집은 8년 전(2001)에 새로 지은 것이다. 이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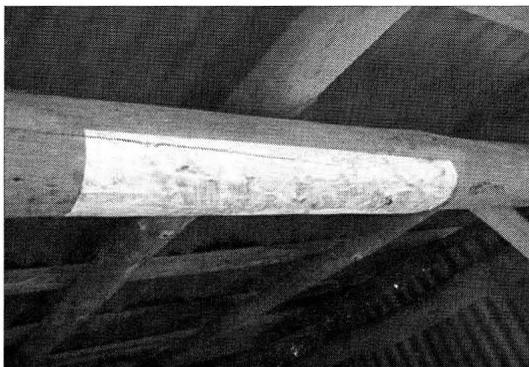
가야1리 서낭당. 서낭당집, 서낭목, 땀나무, 화덕에 걸쳐놓은 솥이 보임.



가야1리 텃골 서낭당 내부

을 지을 때 터를 잡아주고, 부적을 써주고, 날도 받고, 첫 제사를 지내준 사람은 경상도 대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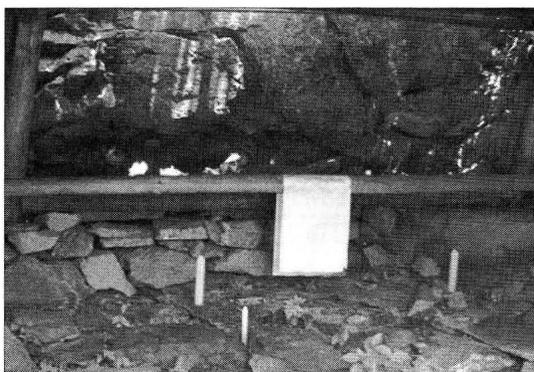
서낭당집은 안에 시멘트와 돌을 이용해서 단을 만들었고, 나무로 틀을 짜고 좌우는 함석으로 막았고, 지붕은 슬레이트를 사용했다. 당집 안에는 가로 지른 나무에 마을제사를 지내고 걸어놓은 예단으로 실타래와 한지가 있고, 그 옆에는 무당들이 정성을 들이고 걸어 두었다는 예단으로 오방색의 천이 있다. 천 옆에는 무당들이 쓰는 방울이 놓여있다. 바닥에는 제기(祭器)를 넣어두는 플라스틱 통이 놓여있다. 처마 나무에는 붉은 글씨로 부적을 써 붙였다. 부적의 의미는 잡귀가 범접치 말라는 것이다.



가야리 서낭당과 산신당 처마에 써 놓은 부적. 글씨가 비래서 알아보기 힘들.

서낭목은 고로쇠나무인데 한 300년 되었다.

산신당은 원래 현재 서낭당 옆에 있는 개울을 건너 산 밑에 있었는데, 장마 때 떠나려가서 이곳으로 옮겼다. 예전에는 돌을 조금 쌓아 두었을 뿐인데, 8년 전(2001)에 서낭당을 지을 때 산신당도 같이 지었다. 산신당의 모양은 서



가야리 산신당 내부

낭당의 모양과 같다. 풀이 무성하게 덮여 있어서 그 형체가 제대로 드러나

지 않았다. 산신당 입구 처마에는 붉은 글씨로 부적을 써 놓았다. 부적의 의미는 역시 잡귀가 범접치 말라는 것이다. 산신당은 아래에 있는 서낭당과 같은데 내부는 서낭당과 다르다. 커다란 바위를 뒤로하고, 돌로 제단을 쌓았다. 제단 위에는 가로로 나무막대를 하고 가운데에 한지를 접어서 걸어두었다. 제단 위에는 사용하다만 초 3자루가 꽂혀 있었고, 듁성듁성 풀이 돌아 있었다.

서낭당에서는 서낭신과 용왕신을 모시고, 산신당에서는 산신을 모신다. 여기 신은 모두 여신(女神)이다. 서낭당 신도 여신이고, 산신당 신도 여신이다.

2009년 8월 14일 제사를 지낼 때 제기함을 따로 만들었다. 제기함의 크기는 4면이 약 1.2m정도 되는데, 재질은 조립식 건물을 지을 때 벽면을 이루는 구조물이다. 미리 만들어 둔 것을 차에 싣고 와서 이곳에 설치했다. 제물을 준비하고 진설을 할 때 몇 명의 마을 사람이 서낭당 옆 공터에 땅을 고르고 터를 닦아서 제기함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제를 다 지내고 제기를 깨끗이 씻어서, 원래 제기함으로 쓰던 서낭당 안에 있던 플라스틱 통과 함께 새로 만든 제기함에다 넣었다. 그리고 자물쇠를 잠갔다.

(2) 마을제사의 준비

① 제의 날짜와 시간

제사는 일 년에 한번만 지내는데 날짜는 음력으로 8월 14일 아침 6시이다. 날짜를 명절 앞으로 잡은 것은 제사 지내고 그 고기를 가져가서 집에서 명절에 쓰고 먹으라는 의미이다. 왜냐면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날짜를 명절 앞으로 잡은 시기는 한국전쟁 후에 동네에서 마을제사를 지낼 때 당시 노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지금은 6시경에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4시경에 올라가서 준비를 하였다.

일찍 올라가는 것은 제당 앞에서 돼지를 잡아 손질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손질한 돼지를 사오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올라가지 않는다.

2009년 8월 14일에는 6시 10분에 집에서 출발해서 20분에 서낭당 앞에 도착했다. 그 후 약 1시간 정도 준비를 해서 7시가 조금 넘어서 제사를 지냈다. 서낭제를 지내고 나서 산신제를 지냈다. 산신제까지 끝나니 아침 10시 경은 되었다. 산신제를 지내고 내려와 음복을 하였다. 음복을 끝내고 집으로 향한 시간은 12시가 넘었다.

필자가 제보자에게 왜 3월3일과 9월9일에 마을제사를 많이 지내냐고 물었더니, 그날은 신이 하강하는 날이라서 그렇다고 하였다. 곧, 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날이라는 것이다.

여기 사람들은 매년 정월 보름이 되면 태백산 천제단에 가서 잔을 한잔 올리고 온다고 한다. 일 년에 두 번 가는 집도 있다.

② 제관과 도가선정

도가선정은 4~5일 전에 한다. 2008년 8월 14일에는 김성기라는 분이 제관으로 선정되어 초헌관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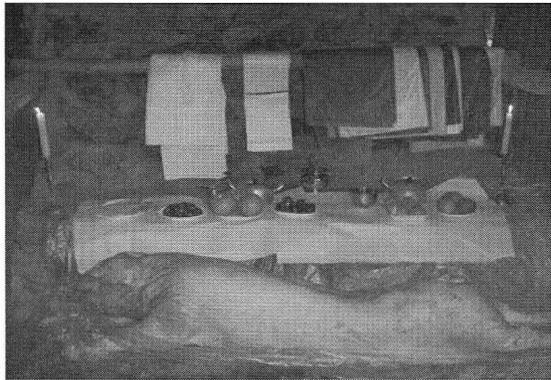
2009년 8월 14일에는 김가정(72, 남)이라는 분이 제관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제관을 선정할 때는 3~4사람 정도 물망에 올리는데 한 사람만 생기가 맞으면 그냥 한다. 생기를 맞추는 것은 요즘 2~3일 전에 한다.

③ 제비와 제물

제사비용은 집집이 1만 5천원 내지 2만 원 정도를 거두어서 사용한다. 2009년 8월 14일 제사에서는 1만 5천 원씩 거두었다.

제물은 돼지를 한 마리 쓴다. 돼지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배불리 먹고, 남는 것은 똑 같이 나누어 가져간다. 제사를 지내고 난

돼지머리는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이 가져간다. 돼지를 선정할 때는 특별히 가리는 것은 없다. 옛날에는 살아있는 돼지를 서낭당 앞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잡아 털을 깎고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그 앞에 술을 걸어 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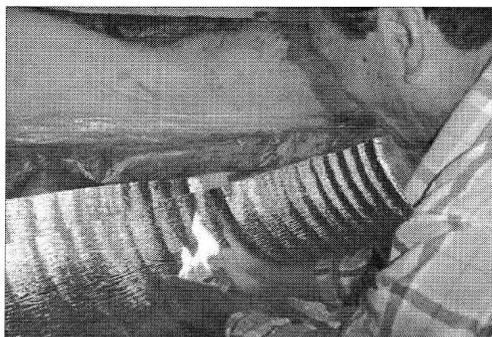
가야리 서낭당 진설 장면

삶아서 먹었다. 그런데 요즘은 오염된다고 돼지를 아무데서나 잡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잡지 않고 사다가 쓴다. 돼지를 살 때는 푸줏간에 가서 제사 지낼 것이니 잘 해서 한 마리 달라고 한다. 그러면 잡아서 털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서 준다. 돼지를 제물로 쓸 때는 통돼지를 쓴다. 암수로는 암돼지를 쓴다. 돼지를 서낭당 앞에서 잡지 않고 잡은 것을 사다 쓴 것은 한 3년 정도 되었다. 서낭당에 쓰는 돼지는 돼지라 하지 않고 '마리'라 한다. 그래서 마리 쓴다고 표현한다. 마리라고 한 것은 정성을 드릴 적에도 고운 말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돼지와 마리는 어감부터 다르다고 하였다.

제사그릇은 사다가 서낭당에 보관해 둔다. 제사를 지낼 때 갖다가 씻어서 쓰고, 다 지내고는 다시 씻어서 서낭당에 보관을 한다. 그릇을 보관하는 상자가 거기에 놓여있다. 이 그릇은 제사 지낼 때만 쓴다.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2009년 8월 14일 제사 때 그릇 도구함을 따로 만들어서 서낭당 옆에 두었다. 크기는 사방 1.2m 정도의 네모난 함이다. 아예 함을 만드는 곳에 부탁을 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모든 제사그릇은 깨끗이 씻어서 그 함에 보관했다.

메는 서낭당 앞에 가서 짓는다. 쌀을 가져가서 서낭당 옆에 흐르는 개울에서 쌀을 씻어서 안친다. 메를 짓는 용기는 새옹메를 쓴다. 예전에는 서낭

당 앞에 걸어놓은 화덕에서 나무를 때 메를 지었으나, 요즘은 가스렌지를 가져가서 사용한다. 메를 지을 때는 메가 다 될 때까지 절대로 뚜껑을 열어보지 않는다. 물이 넘치면 뚜껑 위에 물수건을 올려놓아서 넘치는 것을 막는다. 김이 나



가야리 서낭당 소지 올리는 모습

오는 것을 보고 메가 다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쌀을 안치고 뚜껑을 닫으면 제사상에 올릴 때까지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된다. 메는 세 개를 짓는다. 세 개를 짓는 것은 신이 세 명이기 때문이다. 세 명의 신은 용왕신, 산신, 서낭

신이다.

서낭당에는 서낭신과 용왕신을 모시고, 산신당에는 산신을 모신다. 그래서 제사를 차릴 때 서낭당에는 메를 두 그릇 쓰고, 산신당에는 메를 한 그릇 쓴다. 서낭당에는 돼지를 통째로 올리고, 산신당에 갈 때는 돼지머리를 잘라



가야리 산신당 진설 장면

서 가져가 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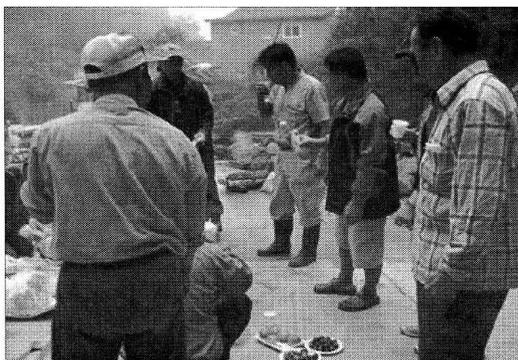
떡은 찌지 않는다.

과일은 삼실과를 올린다.

제주(祭酒)는 동동주를 두 병 사다가 쓴다. 먹을 술은 소주를 갖고 간다. 옛날에도 집에서 술을 담가서 가져가 썼다. 2009년 8월 14일에는 노인회장이 집에서 동동주를 담가서 소주 되 병 두 개를 가져가서 서낭제와 산신제

에 각각 한 병씩 쓰고 음복을 하였다. 아주 전통적인 술맛을 냈다. 이 술은 따로 팔지는 않고 마을제사를 지낼 때만 사용한다. 필자에게 한 병을 주기에 집에 가져가서 잘 먹었다.

따라서 제상에 올리는 제물은 돼지, 메, 과일, 술을 올리고, 양초 두 개와 향을 피운다.



음복장면 왼쪽에 있는 분이 제관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노인회장임

④ 제수준비

쌀은 쓰지 않던 것 중에 깨끗한 것을 따로 챙겨서 가져간다.

⑤ 금기방법

금줄은 하루 전에 서낭과 산신당에 가서 청소를 다하고 나서 친다. 금줄은 원새끼를 꼬아서 한지와 숯을 단다. 한지와 숯은 부정을 금하는 것이고, 원새끼는 잡귀가 범접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금줄은 부정한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도가집에는 치지 않고 서낭당과 산신당에만 둘러친다. 그래서 닭을 잡았다든가하는 것처럼 부정한 사람은 제사 때 참가하지 않는다.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은 제사가 끝나고 마을에 내려와서 음식을 먹을 때 같이 먹을 수 있다. 도가집도 조심해야 하는데 며칠 전부터 몸가짐이 며 음식이며 보는 것도 다 조심해야 한다. 초상집에 가셔도 안 되고, 달거리를 해도 안 된다.

도가집에서 음식을 할 때 옛날에는 합이라고 하여 입에다 한지를 접어서 물었다. 그러나 요즘은 하지 않는다. 아무리 조심해도 제물을 만들 때 침이 튀어 들어가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그냥 깨끗하게만 한다.

돼지를 쓸 때 부르는 명칭은 '마리'라고 한다.

초상집이나 부정한 것을 본 사람은 달만 바뀌면 괜찮다. 보통 일주일만 지나면 되는데, 달이 바뀌면 하루가 지나도 부정이 가시는 것이다. 지금은 세월이 변하면서 금기의 양상도 모두 바뀌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서 금방 효과가 나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해서 나쁜 것이 덜 생긴다는 생각해서 행하는 것이다. 나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은 일이 더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내면 기분이 좋다. 정성은 계속 이어가야지 어쩌다 한두 번 정성을 쏟는다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

(3) 마을제사의 진행

① 제의절차

제당 청소는 제의 하루 전에 가서 한다. 서낭당과 우물과 산신당 청소를 한다. 금줄도 제당 청소를 하고 나서 친다.

처음 조사 때 제주를 올리는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제보하였다. 곧, 초헌관은 이장이 하고, 아헌은 생기를 봐서 맞는 사람이 한다. 종헌은 노인회장이 나 청년회장이 한다. 집사는 노인회장이 한다. 축문은 노인회장이 고한다. 참가자는 한 20여 명 된다. 그런데 2009년의 제사에서는 제관이 혼자서 석 잔을 모두 올렸다. 아마도 뭔가 바뀐 것 같았다.

예전에는 제관이 혼자서 잔을 한 잔 올리고 축원을 하고 제사를 끝냈다. 그래서 마을제사라는 의미를 잘 느낄 수가 없었다. 이때 마을사람들은 모두 뒤에서 같이 나눠 먹을 음식준비를 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러다보니 마을

제사가 퇴색될 것 같아서 몇 년 전에 현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전재순 회장이 제안을 했다. 잔을 최소한 석 잔은 올려야 되지 않겠냐고, 집안에서 지내는 기제사도 석 잔을 올리는데 단 잔으로 끝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절을 하자고 해서 지금은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



제관(김가정)이 메를 짓기 위해 우물에서 쌀 씻는 장면

2009년 8월 14일에는 제관이 잔을 올리고, 축관이 축을 읊고, 축관이 소지를 올리면서 축원을 하고, 마을사람들이 와서 잔을 올리면서 모두 재배를 하였다.

복장은 따로 갖추지 않고 평소에 입던 옷으로 깨끗한 옷을 꼴라 입는다.

소지는 신께서 제물을 잘 받아 드셨냐고 올리고, 동네가 잘 되게 해달라고 올리고, 가가호호 잘 되게 해달라고 올린다. 올릴 때 축원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1리 2반에 사는 무슨 생 아무개가 올리는 소지올습니다. 1년 12달 365일 다 태평하게 해주시를 비웁니다. 백운이 등천하소서.'라는 식으로 한다. 소지를 올릴 때 보면 다 타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조금 남는 경우가 있다. 다 타서 올라가면 정성을 제대로 들였다고 한다. 조금 남는 것은 '자위'라 하는데 자위가 남으면 정성이 덜하다는 뜻이다. 자위가 남으면 소지를 한 번 더 올려준다.

고수레는 제물을 조금씩 떼어서 제당 옆에다 두고 술을 한 잔 준다. 이 고수레는 잡신들 먹으라는 뜻이다. 제물을 던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신체로 한지를 접어서 제당 안에다가 건다. 이 한지는 일 년에 한번 씩 바꾸어서 건다. 실은 지저분하므로 걸지 않는다. 한지는 제사지냈다는 표시이

다. 이 한지를 예단이라 한다. 옛날에는 천을 꿰어다가 했는데, 지금은 한지로 한다.

음복은 제사가 끝나면 초헌관부터 돌아가면서 한다.

음복을 하고서는 제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제당 앞에서 돼지고기를 불에 굽고, 술에다가 끓여 탕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는다. 탕에는 제사에 올렸던 메를 덜어 넣어서 같이 먹는다. 음복을 할 때 지나가던 사람들도 불러서 같이 먹도록 하였다.

2009년 8월 14일 제사에 참가한 사람은 15명 정도 되었다. 모두 남자만 참석하였다. 부정과 같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제사에 참석은 하지 않아도 경비를 내고 참여하는 사람은 올해의 경우 32집이었다. 여기 전부가 55집이다. 음복을 할 때 옆으로 지나가던 동네 여자 두 명이 같이 와서 돼지고기와 술을 나누어 먹었다.

② 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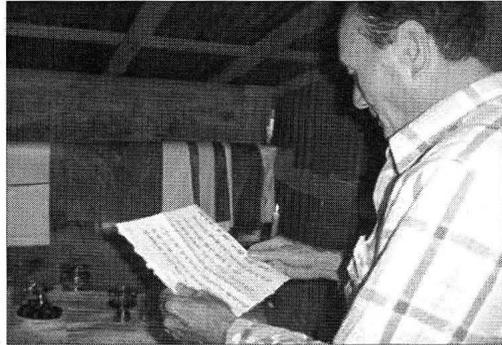
가아리 축문은 노인회장이 맡아서 작성한다. 필자가 축문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더니, 옆의 사진에 있는 것을 제시했다. 한글로 되어 있으며, 지낼 때마다 초헌관의 성명과 날짜를 바꿔 지낸다. 내용은 매년 같다. 사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적은 내용의 조사(助辭)가 있고 없고는 제보자의 구술에 의한 것이다.

제보자의 구술을 중심으로 내용을 옮겨 본다.

〈무자년(2008) 서낭제와 산신제축문〉

유세차 무자 일일진심
 8월 계묘삭 월월호월
 14日 연연혼연으로
 병진 유학 김성기
 재수소망 성황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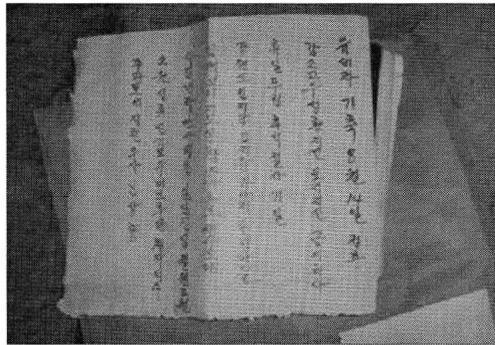
소원성취 감소고우
 토지지신 발원하오며
 금이처사 신기보우
 비모후관 휴일부림
 추석절사
 청작석수 주과포혜 지천우사
 신상향
 기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송정마을
 암택고이²⁰⁾ 지도동참
 가가호호 재수소망
 사업번창 만사형통²¹⁾



가아리 서낭제 고축장면

〈기축년(2009) 서낭제와 산신제 축문〉

유세차 기축 8월 14일 정묘²²⁾
 감소고우 성황지신 토지지신
 금이처사
 휴일부림 추석절사 기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송정마을
 암택고이 지도동참 가가호호 재수소망
 사업번창 만사형통 일일진심 월월호월
 소원성취 신기보우 비모후관 청작석수
 주과포에 지천우사 신상향



가아리 2009년 축문

한자를 한글로 쓰다 보니, 곳곳에 잘못 쓰인 곳(휴일부림→諱(휘)日復臨, 주과포에→酒果脯醢(혜))도 있고 알아 볼 수 없는 구절도 있다.

성황지신과 토지지신이 함께 있는 것으로 봐서 같은 축문을 서낭신에게

20) 암택고이라는 뜻이 뭐냐고 물었더니, 오늘 거기다가 제사지낸다는 뜻이라고 했다.

21) “신상향” 다음에 “기일-만사형통”까지는 뭐냐고 하니까. ‘신상향’에서 다 끝나는 데 따로 더 기원한다고 하였다.

22) 노인회장의 말이 축문에서 “초헌관 무슨 생 누구”가 빠졌다고 하였다.

도 지내고 산신에게도 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곳은 성황과 용왕과 산신을 함께 모신다고 했는데, 축문에는 용왕신이 빠져 있다.

전체적으로 조금 특이한 것을 볼 수 있다. 곧, 연월일 다음에 일일진심 월월호월 연연혼연이라는 글귀가 더 들어가고, 한글과 한자어구가 섞여 있으며, 신께 상향하고 나서 또 다시 기원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추석 전에 지낸다고 해서 추석절사라고 하였고, 감소고우 전에 성황지신을 먼저 고하고 감소고우라 하고 토지지신을 고한다.

예전에는 축문을 한자로 써서 고했는데, 현재 축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한글로 표기한다고 한다. 한동안 축문을 쓸 사람이 없어서 축원만 하다가 한 2년 전부터 다시 축을 써서 고하기 시작했다.

2008년과 2009년 축문에서 글자 배치 등에 있어 약간 다르다.

(4) 영험담

옛말에 “새로 새 법을 내지 말고, 옛날 옛 법을 내버리지 말라.”라고 했다. 옛날 선조가 하던 것을 안 하면 마음이 꺼림칙하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 그게 다 내 잘 살기 위해서 산제불공 드리는 것이지, 남 잘 살기 위해 산제불공 드리는 것이 아니다.

여기 마을제사에는 산에 다니는 심마니들이 많이 참석한다. 서낭당과 산신당에 제사를 올리면 재수가 좋다고 해서이다. 산삼을 캐게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와서 빌기도 한다.

이 서낭당에는 마을에서 지내는 제사 말고도 개인적으로 제사를 많이 지낸다. 그것은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곳에 와서 메를 지어놓고 빈다. 또 아들딸 잘 되게 해달라고 빌기도 한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다.

특히, 무당들이 많이 와서 하룻밤씩 자면서 정성을 드리고, 이곳에 오색

천과 방울을 걸어놓고 간다. 물어보면, 이곳에서 기도를 올리면 기를 잘 받아서 뭐든지 잘 된다고 한다.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3월 삼진날과 9월 중구일에 많이 한다.

옛날에는 서낭목을 건드렸다가 벌 받은 사람이 많았다. 몸이 아파서 눕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했다. 지금은 신도 많이 약해졌다.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다.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결산은 제사를 다 지내고 마을에 내려와서 한다. 가령, 거둔 돈이 60만원 이라면 그날 쓴 비용이 50만이다. 그러면 10만원은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 있다가 나중에 보태서 쓴다. 제사 비용은 그때그때 다르다. 내는 집들이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돼지 한 마리에 요즘 40만 원 정도 된다.

3) 마을제사의 특징

제사를 지낼 때 남녀가 같이 간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남자들이 하는데, 제사가 끝나면 여자들은 따로 축원을 하기도 한다. 외부인도 참가할 수 있다.

축문이 다른 지역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순서와 연월일 다음에 나오는 글귀와 신께 상향하고 나서 다시 축원을 첨부하였다.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사에 참여한다고 한다.

가아리의 마을제사는 그 전통이 무척 오래됐다. 제보자의 얘기로는 이 마을이 형성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됐을 때와 한국전쟁 때는 지내지 못했다. 왜냐면 이곳은 38선 이북에 속해서 인

민군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쟁 중에는 피란 다니느라 이 마을에 아무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53년도에 국군에 의해 수복되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다시 마을제사를 시작했다.



제보자: 전재순(남, 70) 가아리

이 마을에서 지내는 마을제사로 다른 것은 없다. 다만 십 년 전에 마을에서 장승을 세워서 장승제를 지낸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장승제는 1회에 그친 것으로 행사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마을신앙의 차원은 아니었다고 하겠다. 그때 세운 장승은 인제읍에서 가아리로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에 세워져 있다.

이 장승제를 지낼 때 돼지를 잡아 놓고, 실과 한지를 장승에 걸고, 마을의 안녕과 잘 살기를 기원하였다. 참가자는 군수를 비롯해서 군의원 등 이었다. 장승을 깎은 사람은 동네 청년들이다. 대장군과 여장군 두 기를 세웠다.

가아리에는 산신이 한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골마다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가아리에는 마을 별로 3군데서 지낸다. 1·2·3반 4반 6반이 지낸다. 5반만 지내지 않는다. 4반 6반 사람들은 3월 3일이나, 9월 9일에 지낸다. 1·2·3반은 8월 14일에 지낸다.

4) 2009년 8월 14일 가아리 마을제사 참관기

이 참관기는 위의 항목에서는 적을 수 없는 필자의 느낌과 자세한 절차를 기록하려고 마련하였다. 위의 내용과 중복되기도 한다.

2009년 음력 8월 14일(양력 10월 2일)에는 가아리 송정마을 마을제사에 필자가 참석했다. 추석 전날이라 바쁜 일정이지만 본서를 내기로 계획한 터

라 참관하기로 했다.

이날은 이 책을 내기 위해서 계획해 놓은 마을 중에 두 곳에서 제사를 지냈다. 한 곳은 가아리 송정마을이고, 또 한 곳은 상남의 방아다리 마을이었다. 두 곳 다 가서 취재를 하고 싶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상남의 방아다리 마을은 사진만 찍으라고 인제 문화원의 최종익 이사를 대신 보냈다. 왜냐면 방아다리 마을은 필자가 이미 한 차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방아다리마을은 일 년에 두 번을 지내는데 2003년 1월 14일에 함박눈을 맞으며 취재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동안의 변화상만 보면 되었다.

가아리리의 동제는 6시경에 지낸다고 해서 혹시 제사 현장을 보지 못할까 봐 춘천에서 새벽 3시 30분에 출발했다. 허둥대서 도착한 시간은 어둠이 아직도 짙게 깔린 5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다. 제당으로 올라가는 길목은 조용하기만 했다. 마을에서 만들어 놓은 이정표만 등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래도 그 이정표를 보니 반가웠다. 이정표에는 “산신당 가는 길”이라고 나무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낯익은 표지판이었다. 먼저 답사를 왔을 때 봤던 것이었다. 이곳이 이 마을의 중심인 것 같았다. 그곳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노인회장에게 전화를 걸기로 하였다.

그래서 가기로 언약한 전재순(남, 72) 노인회장에게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벌써 왔냐며 댁으로 오라고 하였다. 노인회장 댁에 갔더니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듯 아주 태평했다.

제물준비는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벌써 다 준비하여 차에 실어 놓았다고 하였다. 혹시 아침 일찍 제물 준비를 하면 현장을 취재해서 기록하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가아리 산신당 가는 길 이정표

제관이 오면 같이 가려고 기다린다고 했다. 그냥 기다리기 위해서 마을제사에 관해서 먼저 취재 때 물어보지 못한 것을 이것저것 물었다. 노인회장은 아주 자신 있게 뭐든지 대답을 했다.

한참을 기다려도 제관이 오지 않자 제당으로 바로 갔을 것이라며 가자고 했다. 노인회장은 제물을 실은 승합차를 타고 앞서고, 필자도 차를 타고 뒤를 따랐다. 마을 중간을 가로질러 계곡을 향해 들어갔다. 아직 어둠이 다가시지 않았고, 먼동이 터 오는지 계곡의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낭당 앞에 도착하니 벌써 마을의 젊은이들이 와서 황덕불(모닥불을 이 지역에서 일컫는 말)을 피워 놓고 청소를 하고 있었다. 나무는 그곳에 미리 준비해 뒀던 장작이었다. 노인회장 차가 도착하고 조금 있으니 김가정 제관이 도착하였다. 그리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었다.

제당 안에는 여름에 봤던 모습대로 있었다. 곧, 한지로 된 예단과 오색 천으로 된 예단이 같이 걸려 있었다. 오색 천으로 된 예단은 무당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걸어놓았다고 하였다. 전통종교인 무교(巫敎)가 서낭당 신앙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보는 장면이었다.

제당은 2년 전에 다시 신축을 했는데, 원래는 현재 있는 단풍나무 바로 앞에 있었다. 서낭당의 모양은 돌로 삼면을 쌓았고, 지붕을 엮어 놓았었다. 크기는 현재 만들어 놓은 제기함 정도였다.

제당 옆의 신수(神樹)는 까치박달나무이다. 수령은 300년이 넘는 것으로 마을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누군가 잘라가려고 톱질을 한 흔적이 선명하게 나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르지 못하고 말았다. 원래는 까치박달 앞에 있는 단풍나무가 산신당(제보자는 서낭당을 산신당이라고 말함)나무였는데, 단풍나무는 수령이 오래돼서 죽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음이 돌아 다시 자랐다. 단풍나무가 죽자 까치박달을 신수로 생각했다. 까치박달을 자르지 못한 것은 마을에서 산신당에 있는 나무는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자르다가 멈췄다고 한다. 이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자 신청을 했는데, 아직 조사를 나오지 않았다. 까치박달로 이렇게 수령이 오래된 것은 흔하지 않다고 하였다. 단풍이 아주 좋다고 한다. 나무를 자르려던 사람은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다. 다행히 다 자르지 않고 상처만 내고 말았기 때문이다. (신수 제보자: 한기봉(52) 가아리)

본격적으로 마을제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노인회장이 서낭당 안에 걸어두었던 실과 한지로 된 예단을 내리고 새로운 예단을 걸었다. 예단을 왜 거냐고 물으니, 예단이 신체(神體)라고 하였다. 그러니 예단이 신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예단은 신에게 드리는 선물로 알고 있다. 서낭당 안에는 시루나 흰 실, 혹은 한지를 접어놓거나 비단을 걸어 놓는다. 시루는 풍요로운 생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흰 실타래는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것이며, 한지나 비단을 접어놓은 것은 신에게 드리는 예단으로 인식한다.

서낭신과 용왕신과 산신은 모두 여신이라고 한다. 이곳에 여신이 자리하게 된 것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뜻에서 이다. 왜냐면 마을제사는 농경 의례이자 세시풍속의 하나로 여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산을 담당하는 여성이 마을의 신으로 상징되는 경우가 많다.

서낭당 안에 있던 제기함에서 제기를 꺼내서 다시 제당 우물에 가서 씻고, 제관은 메를 안쳤다. 메는 세 개를 준비했는데, 서낭신과 용왕신과 산신께 하나씩 올렸다. 메는 가스렌지를 가져와서 지었다. 옛날에는 나무불에 새옹메를 올려서 메를 지었다고 한다. 메를 지을 때 안에서 끓어 넘치자 뚜껑에다가 물을 조금씩 부었다. 찬물을 뚜껑에 부으면 끓어 넘치던 것이 말끔히 사라졌다. 뚜껑 위에는 주먹만한 돌을 올려놓아 뚜껑이 열리는 것을 방지했다.

아울러 준비해온 주과포를 제단에다 진설하고, 비닐을 제단 앞에 깔고 여럿이서 승합차에 실린 마리(통돼지)를 내려 제단에 놓았다. 마을제사에 쓰는 돼지와 같은 희생물은 마리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한다. 양초는 세 개를 올리는데 두 개는 제단 양쪽에 밝히고 한 개는 축관 옆에 켜 두었다. 의아해

했는데, 나중에 보니 축관 옆에 켜 두었던 양초는 소지를 사를 때 불을 붙이려고 한 것이었다.

도가를 따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회장이 온갖 제물을 다 준비했다. 마리부터 제주까지 모두 노인회장이 준비했다. 그 중에 제주는 특별히 마을제사를 위해서 노인회장이 집에서 동동주를 담가서 썼다. 이때 산신제에 가지고 온 제주는 플라스틱 되병 2개이다. 한 병은 서낭당에서 쓰고, 또 한 병은 산신당에서 썼다. 그리고 제를 지내고 남은 동동주는 음복을 하면서 다 같이 나눠 마셨다.



돼지 운반 장면

진설은 마리가 맨 앞에 놓였고, 다음 칸에 북어포, 대추, 배, 밤, 감, 사과를 놓았고, 다음 칸에는 메를 새옹채로 두 개, 물이 두 그릇, 향로가 놓였다. 그리고 양쪽에는 초에 불을 붙여 놓았다.

진설이 끝나자 제사가 시작되었다. 제사를 지낼 때 직접 참가하여 제주를 따르고 축을 고하고 소지를 올리는 사람은 제관과 노인회장이 모두 했다. 다른 사람들은 황덕불을 피운 곳에서 담소를 나누며 같이 나눠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사가 끝날 때 쯤 노인회장이 여기 와서 절을 하라고 하자, 이장을 비롯해서 모두 와서 절을 하였다.

제사 절치는 먼저 제관이 두 번 반 절을 올리고, 술을 반잔씩 따라서 술잔을 가시고, 다시 술을 두 잔을 따라 메 옆에 올렸다. 그 다음에 축관이 축을 고했다. 축을 고할 때는 아주 엄숙한 표정이었다. 축문은 한글로 써서 읊었다. 내용은 추석절사를 맞이해서 동네가 편안하고 번창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아주 꼭꼭 눌러쓴 품으로 봐서 정성을 많이 들였음을 알 수 있다.

축문을 읽은 사람은 집례를 맡은 노인회장이 축관을 겸했다. 축문에 초헌관 무슨 생 누구라는 구절이 빠졌다고 하였다.

축을 고하고 나서 절을 올렸다. 이어서 처음 올렸던 잔을 두 잔 모두 세 번에 걸쳐 가시었다. 빈 그릇에 수저를 올려



메 짓는 장면

놓았는데 새옹메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물에 적셔서 메에다가 찍었다. 젓가락은 앞에 있는 과일에다가 걸었다. 다시 절을 하고 술잔을 올린다. 올렸던 잔을 먼저는 왼쪽에다가 가셨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에다가 가셨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을 올렸다. 제관 혼자서 초헌 아헌 종헌을 다 올린다. 이후 침잔을 하였다. 침잔이 끝나고 나서 다시 절을 하였다. 제관의 절차가 끝나고 나서 노인회장이 절을 했다. 그 후에는 마을사람들이 와서 각자 절을 했다. 노인회장이 옆에서 술을 따르면서 집례를 하고 있었다. 혼자서 석 잔을 다 올리는 것은 좀 특이한 현상이었다. 일반적으로 기제사도 자손이 혼자일 때 행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곳에는 이장도 와 있고 노인회장도 있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도 제관이 혼자서 석 잔을 모두 올렸다. 이것은 이 마을의 관습인 것 같았다. 그것도 예전에는 단 잔으로 끝냈다고 하니 좀 변한 모습이다.

마을 사람들이 각자 와서 절을 하고 난 후 노인회장의 축원이 있었다. 아주 익숙한 모습이었다. 축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세차 남산보종 대동에 조선이요 강원도로 와서 이십육개 마련할 적에 황동건 구월이고 영세는 신우가야지 신우고을에서 소읍 십칠역을 마련할 제 한다 강원도로 잡아들어 인제로 잡아들어 가아리로 흘러나려 터전은 나랏님의 터전이요 끌로는 송정마을 아전이 없는데 다사 다름 아니오라 중년

에 8월 14일 이 정성을 올리오니 동네 분들이 맘에 먹고 뜻에 먹어 이 정성을 드릴 적에 만인간이 살다보니 누추한 일이 만사보서 할지라도 부정한 것은 부정염 일편으로 불비로서 하옵시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시고 나쁜 것은 거둬서 이 마을이 일 년 열두 달 삼백은 육십에 오일 과년은 열 석 달이 신에 가서라도 재수대통하고 마을이 병 안 나고 산에 가는 분은 산 재물을 얻게 하여주시고 운전하시는 분은 일 년 열두 달 삼백육십오일 무사고 운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농사짓는 분들은 대풍이 들어서 만사태평하게 지내달라고 이 정성을 드리오니 대성황지신님은 그저 잘 받으시고 내년 이맘때가 돌아오고 후년 이맘때가 돌아오고 이 세월이 다 같지라도 우리 송정마을이 사업번창하고 만사형통하도록 점지하여 주시옵소서.²³⁾

축원이 끝나고 나서는 소지를 올렸다. 소지축원은 먼저 길흉회복을 판단하는 소지를 올리고, 그리고 마을전체를 하고, 제관의 소지를 시작으로 마을제사에 기금을 낸 사람의 이름을 부추기면서 모두 했다. 기금을 낸 사람의 명단을 적어서 옆에 놓고 하였다. 소지를 올릴 때 각 집안의 일을 들추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하였다. 32가구 소지를 다 올리고 나니, 제관이 잘 받으셨는지를 아는 소지를 한 장 더 올리라고 해서 더 올렸다. 소지축원은 노인회장이 했다. 소지축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낭신께 길흉회복을 판단해 달라고 하는 소지축원〉

아! 미련한 인간이 무엇을 아오리까? 쇠술로 밥을 먹사오나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저 오늘 이 정성을 성황지신님이 달게 받자옵고 즐겨 받자하셔서 잘 응감하셨으면 소지 일 장으로 길흉회복을 판단해 달라고 소지를 올립니다. 잘 접수셨으면 소지 일 장이 하늘 승천하게 하여 주소서. 아~아~. 소지 일 장이 하늘 승천 하게 하여 주소서. 아~.

〈마을 전체 소지 축원〉

이것은 가가호호 소지올시다. 그저 어느 집안이고 막론하고 다 태평하고 일 년하고 삼백육십오일이 다 지나가도 다 재수 통하게 해 달라고 이 정성

²³⁾ 축원 내용을 필자가 녹음한대로 그대로 받아 적었는데 제대로 듣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곳이 있다.

을 드렸으니 소지일장으로 길흥지화복을 판단하고자 하오니 자위 두지 마시고 그저 짝 승천하여 주소서.

〈개인별 소지축원〉

가아1리 2반의 김가정이 소지올시다. 아-아. (이어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지를 올림)

〈개인별 소지 후에 올리는 축원〉

자, 소지가 자위 하나 안 두고 32가구의 소지가 다 잘 올라갔으니 그저 일년 열두 달 삼백육십오일 지나가더라도 만사형통하고 가족이 어느 집안 할 것 없이 다 번창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성황지신님.

〈서낭신이 잘 받으셨는지를 확인하는 소지 축원〉

성황지신님이 다 잘 받으시고 그저 무사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이 소지 일장으로 길흥화복을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아-.



서낭제 후 고수레 하는 장면

서낭당에서 소지가 끝나자, 제를 지내고 남은 술은 서낭당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뿌렸다. 이때 고수레를 하면서 메와 과일 등을 조금씩 한지에 싸서 서낭당 옆에 두고, 그 옆에다가 술을 부으면서 이 음식을 잡숫고 아무 탈 없게 해달라고 간단하게 축원을 했다.

고수레가 끝나고는 제관부터 음복을 돌아가면서 했다.

여기까지가 서낭당제사의 내용이다.



이어서 산신제를 지내러 산신당으로 제물을 들고 올라갔다. 산신당으로 갈 때는 모두 가지 않고 제관과 축관과 필자가 제물을 들고 운반하여 올라갔다. 이때 필자까지 3명이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각자 제물을 들고 갔다.

서낭당에서 산신당까지는 거리가 약 20여m정도 된다. 서낭당에서 오른쪽 산으로 향해서 가면된다. 산신당으로 올라가는 길은 청소가 잘 되어 있었다.

원래 이 산신당은 현재 서낭당의 왼쪽 개울 건너에 있었는데 홍수로 인해서 유실되어 현재의 위치에 새로 지었다. 예전 산신당은 돌로 쌓아 놓은 돌무더기 제단이었다고 한다. 당집을 따로 짓거나 하지 않고 산비탈에 위치해 두었다. 현재 산신당은 서낭당을 새로 지을 때 같이 했다. 당집의 재질은 서낭당과 마찬가지로 나무로 기둥과 서까래를 하고 그 위에 슬레이트로 지붕을 해서 었었다. 크기도 서낭당과 비슷한데 산에 있는 자연석을 뒤로 하고 돌로 제단을 쌓았다. 산신당 상단입구위에 흐릿해서 잘 알 수 없는 부적이 쓰여 있었다. 산신당에는 먼저 제사에 걸어 두었던 실과 한지로 된 예단이 걸려 있었다. 산신당 앞은 겨우 서너 사람이 절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산신당에 도착하자 노인회장은 산신당 안에 있는 타다만 양초 등을 거두어 청소를 하였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주변 청소를 할 때 제당 안에도 청소를 해야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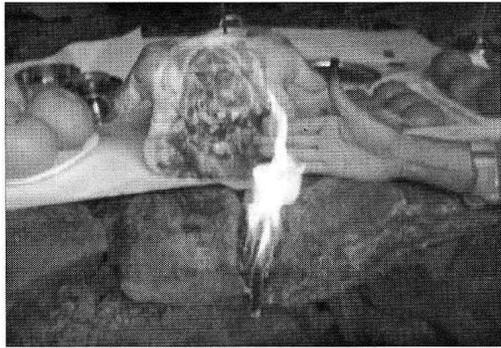
제의 차례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청소가 끝나고 노인회장이 한지로 된 예단을 걸었다. 올해는 실을 걸지는 않았다.

예단을 걸고 양쪽에다 양초를 밝혔다. 그리고 향을 피웠다. 메, 물, 포, 대추, 밤, 배, 감, 사과를 놓고 돼지머리를 올렸다. 돼지머리는 서낭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통마리를 놓았는데, 산신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머리만 잘라서 들고 와 올렸다. 그것이 여기 오랜 전통이라고 하였다. 제주는 집에서 담근 동동주를 썼다.

처음 제관이 배례를 하였다. 그리고 부복을 한 후 제주는 반잔을 따라 잔

을 가시고, 산신님 혼자이기에 한잔만 술을 올렸다. 다음은 축문을 읊었다. 축문은 서낭제를 지낼 때와 내용이 같은데 대상 신만 산신으로 바뀐다. 역시 축관은 노인회장이 했다. 축이 끝나고 다시 제관이 배례를 한다. 다시 두 번째 잔을 올린다. 그 후 메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물에다가 적신 다음 숟가락을 메에다 꽂았다. 제관이 다시 배례를 하고, 제주를 오른쪽에다 세 번에 걸쳐 부었다. 세 번째 종헌잔을 올린다. 산신제도 서낭제와 같이 제관 혼자서 초헌 아헌 종헌을 다 했다. 종헌을 한 후에는 침잔을 했다. 침잔을 할 때는 세 번에 걸쳐서 술을 따랐다. 그리고 제관이 다시 배례를 했다. 그리고 축관인 노인회장이 배례를 했다. 잔을 올리는 절치는 기제사를 지낼 때와 같았다.



산신제 소지 장면

노인회장이 배례를 하고 나서 소지를 올리면서 축원을 하였다. 소지는 산신님의 응감을 알아보면서 마을의 축원을 비는 소지와 마을 전 주민의 무사태평을 비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관이 갑자기 필자의 소지를 올려주라고 해서 필자가 잘 되게 바라는 소지를 올렸다. 감사합니다. 산신당에서는 세대주별 소지는 올리지 않았다.

〈산신님이 흠향하시고 잘 응감했는지를 판단하는 소지〉

일 년은 열두 달 삼백은 육십오일 파년은 열석 달이 지나가더라도 송정 마을 전 주민이 만사형통하고 전부 소망을 성취하게 매일 한 날 한 시 같이 건강하게 일 년 열두 달 지나가게 해 달라고 이 정성을 드렸으니 산신님은 그저 굽어 살피주시고 다음 해운이 돌아올 때까지 또 여러 해가 지나가고 수백 년이 지나가고 수십 년이 지나가도록 마을에 그저 우환도 없고 재난도 없게 도와 주십시오.

자~ 미련한 인생들이 무엇을 압니까? 그저 소지 일장으로 길흥화복을 판단하오니 소지 하늘 승천하소서~. 아 잘 올랐네.

〈전 주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축원하는 소지〉

일 년은 열두 달 삼백은 육십오일 우리 송정마을의 전 주민이 그저 안과태평하고

무사태평하게 잘 지내게 해달라고 축원을 드렸으니 이 소지일장으로 길흥지화복을 판단합니다. 미련한 인생이 무엇을 압니까? 그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몰아래로 소멸하시고, 오직 잘 되게 성찰해 주시옵소서~. 아~.



제사 후 돼지를 삶아 먹으면서 뒤뜰이 하는 장면

〈필자를 위한 소지〉

강원대학에서 멀리 이렇게 나와서 지도 동참하시고 자 고루고루 다 찾아다니시며 강원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학주 교수님입니다. 그저 운전하고 사해팔방 돌아다니시는데 그저 만사형통하고 일 년 열두 달 삼백육십오일 재수가 그저 좋게 해달라고 축원을 드리오니 굽어살펴주소사~. 이학주 교수님. 아, 잘 올랐습니다.

소지가 끝나고, 술을 산신당 옆에다가 부었다. 그리고 음복을 했다. 음복이 끝나고 제물을 조금씩 떼어서 한지에 싸서 제당 옆에 두었다. 고수레이다. 촛불은 끄지 않고 다 타도록 놔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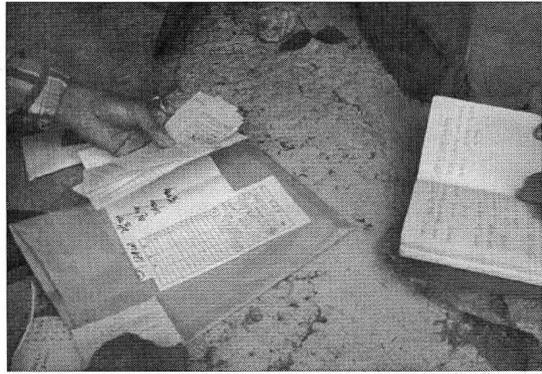
이로써 산신제는 모두 끝났다.



산신제를 끝내고 내려오니, 마을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서 나눠 먹고 있었다.

산신제를 지내고 내려와서 서낭당 옆에서 바로 결산을 하였다. 결산은 지

난 해 쓰고 남은 이월금하고 올해 금액을 합하여 제비로 들어간 비용을 빼서 금액이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계산했다. 이때 미리 와서 제당 주변의 청소를 한 사람을 사역인부라고 하는데 사역인부는 전재순, 김가영, 한기봉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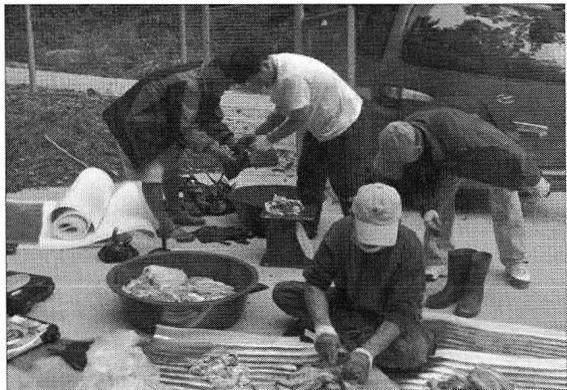


가이리 결산장면

분이다. 제물을 사는 데 들어간 비용은 정성지출비라고 한다. 수입은 참가호수 32농가× 1인 15,000원=480,000원이었다. 정성지출비에는 돼지가 35만원, 판넬박스(제기함) 180,000원, 쌀 6,500원, 소지종이 9,000원, 과일 등 나머지가 60,800원, 그릇 44,000원 합계가 650,300원-480,000원=-170,300원이다.

이후 다음 사역인부를 선정하고, 해야 할 일을 말했다. 사역인부는 제당 주변의 청소와 나무를 하고, 제기를 깨끗이 씻어 놓아야 한다고 하였다. 장부를 적을 사람을 선정하였다.

제를 지내고 먹고 남은 돼지는 32가구 모두 똑같이 나누었다. 저울을 갖고 와서 달아가면서 나누었다. 한 덩이가 남아서 필자에게 주므로 가져와서 잘 먹었다. 돼지머리는 관습으로 제관이 가져갔다. 남은 돼지고기는 마을회관에서 동네 할머니들하고 같이 나



제를 지내고 돼지고기를 나누는 장면

뉘 먹는다고 가져갔다.

정성들인 메는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노인회장이 비닐에 넣어서 가져갔다. 그랬더니 또 다른 한 사람도 메를 비닐에 넣어 가져갔다.

제사에 참가한 사람은 모두 16명이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 동네에 사는 여자 두 명이 와서 같이 먹었다.

제사가 끝난 시간은 오전 8시 20분이었다.

제사가 모두 끝나자 제사에 썼던 그릇을 옆의 개울에서 깨끗이 씻어서 새로 마련한 제기함에 차곡차곡 넣었다.

제물 진설을 준비하는 동안 새로 만든 제기함을 서낭당 옆에 설치했다. 제기함을 놓기 위해서 땅을 파고 고르는데 살모사 한 마리가 나왔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살모사를 멀리 시집보냈다. 뱀을 시집보내는 것은 다른 장소로 이동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기함은 크기가 사방 1.2m정도 되는데 제기를 넣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다. 제기함 재료는 조립식 건물을 지을 때 쓰는 벽면 재료였다. 썩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오랫동안 보존될 것 같았다.

이 마을의 마을제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최근에 당집을 지은 것과 함께 제기함을 설치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남달랐다.

제사를 준비하고 지내는 동안 함께 나눠 먹을 음식을 장만해야 하는데, 도살장의 실수로 돼지 내장을 보내오지 않아서 논란이 있었다.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이라서 웅당 돼지 몸통 속에 내장을 손질해서 넣어 두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없었다. 그래서 전화를 했으나 이른 아침이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누가 가서 가져오라고 하는 등의 말이 있다가 다들 그만 올해는 넘어가자고 했다.

〈가야리 송정마을 마을제사가 존속된 사연〉

여기 마을제사는 광복 후 38선으로 남북이 갈리면서 없어졌다. 왜냐면 이

곳은 북한 통치 구역이었고, 북한에서는 모든 종교 활동을 제한했기 때문이었다. 오로지 김일성 주체사상만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1945년부터 1951년 수복되기까지는 마을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그러나 몰래몰래 지내기도 했다고 한다.

수복이 되고나서 이 마을에 살던 신용흠이라는 분이 1955년에 마을제사를 지내자고 해서 재개되었다. 그분이 처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마을의 안녕을 위해 빌었다.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이 한동안 미신 타파한다고 해서 없었던 적도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지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을제사가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다. (제보자: 김운덕(64, 남) 가아리)

2. 인제읍 합강2리

국사당 산신제와 느티나무제



합강정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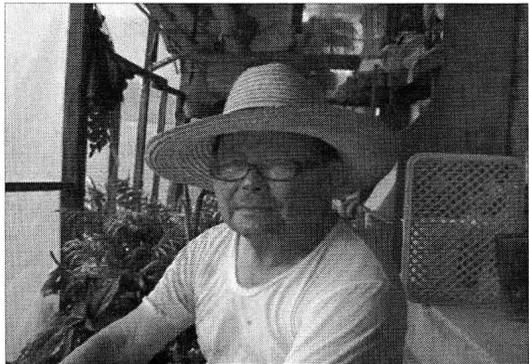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09년 7월 7일, 오후 2시~5시,
 2009년 10월 28일 오후 6시 45분
 조 사 지: 합강2리 3반
 제 보 자: 김록수(남, 77) 인제읍 합강2리 3반
 오진갑(남, 79) 인제읍 합강2리 3반
 이용만(남, 50) 인제읍 합강2리 7반

(2) 마을유래와 개관

합강리(合江里)는 상동 쪽에서 흐르는 내린천과 북면에서 흐르는 인북천이 합치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는 합강정(亭)이 있는데, 이곳이 강원도의 정중앙지역이다. 현재도 강원도의 정중앙이란 표석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곳에 중앙단(中央壇)이라는 제단이 있어서 가뭄이 들거나 괴질이 돌면 강원도의 모든 관원이 모여서 제례를 올리면서 가뭄을 해소하고 괴질이 사라질 것을 기원했다.



합강리 김록수 제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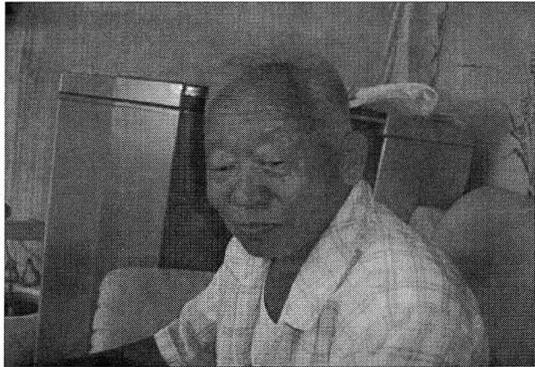
합강정에는 홍진포(洪津浦)에서 현몽으로 건져 올린 영험한 미륵이 있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원하여 자식을 얻었다고 한다. 자식을 기원

할 때 미륵의 코를 베어 삶아 먹으면 좋다고 하여 지금은 미륵의 코가 닳아 없어졌다. 합강정 보수 공사로 군청 마당에 옮겨두었다가 지금은 원래 위치에 갖다 놓았다.

합강2리 기룡산 밑에 우리나라 관혼상제의 전범으로 여겨지는 『사례편람』을 지은 도암 이재(李縉: 1680-1746)의 유허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군청 내에 있다. 한국전쟁 전까지는 비각도 있었으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각은 타버리고 비만 남아 있다.

인제군에서는 매년 가을에 합강제라는 축제 겸 종합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합강제를 할 때는 합강정 옆에 있는 중앙단에서 제례를 올리고 시작한다. 인제에서 가장 큰 축제 겸 문화제이다.

합강 2리 앞 강 건너에 있는 산은 천마(天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물을 먹는 형국이라고 옛 어른들이 얘기를 했다. 그래서 산 끝 자락을 마두(馬頭) 곧 말머리라고 한다. 그 때문에 이 지역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한다.(김록수)



합강리 오진갑 제보자

또 이산은 화산(火山)이라고도 한다. 화산이라서 불이 잘 난다고 했다. 그래서 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제사를 지내고는 소금을 봉지에 싸서 그 자리에 매달아 놓았다는 얘기가 있다. 소금은 화재를 방지하는 뜻으로 매단 것이다. 제보자가 칠나고부터는 하지 않았다. 제보자도 어렸을 때 동네 노인들한테 들은 얘기다.(오진갑)

현재 합강리는 3리까지 있다. 그 중 합강2리 노인회관 앞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600년 이상의 느티나무가 있다. 느티나무 앞에는 보호수 지정

안내판이 있고, 안내판에는 호랑이와 관련된 설화도 있다. 안내판에 의하면 이 느티나무는 합강수(合江樹)라고 하였다. 지금은 마을 공원의 역할을 하면서 서낭목으로 마을 사람들로 부터 치성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나무 중간에 보면 북어와 한지와 실타래를 걸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앞에는 제단까지 되어있다. 이 느티나무를 훼손하면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따른다고 하여 모두 조심한다. 원래 합강2리의 마을제당은 마을 뒷산에 있었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위치로 옮겼다. 이 느티나무를 위해서 인제군에서 사다리차를 가져와서 조경을 하고 나무주사도 맞힌다.

2) 마을제사의 내용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현재: 제사의 명칭은 합강2리의 ‘느티나무제사’ 또는 ‘농민제사’라고 한다. 원래 이 마을의 제사는 마을 뒤의 산인 국사당에서 지냈는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떠났다. 그래서 가까운 데로 옮기자고 하여 이곳으로 옮겼다. 이곳으로 옮긴지는 약 20여년 정도 된다. 옮기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 느티나무가 600년 정도 되니 영험하다고 하여 시작한 것이다. 이 느티나무는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보호수이다.

합강리에 농악대가 있다.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꽤 커졌다. 동네에서 농악에 필요한 모든 악기며 의복을 사 주었다. 이들은 2월 1일에 여기에서 풍악을 울리며 놀았다. 그때 농악대 사람들이 이 느티나무가 여기 합강리에서는 제일 큰 고목이고 하니, 여기서 신을 위하고 제사를 지내자고 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농악대가 느티나무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느티나무제사의 신은 여신(女神)이라고 한다. 신의 이름은 ‘거목신(巨木

神)이라고 보통 얘기한다. 당 이름은 없고, 그냥 도지정목이어서 깨끗하게 할 뿐 당을 따로 짓지 않아서 그냥 느티나무라고만 한다. 제단을 만든 것은 약 5년 정도 되었다. 그전에는 그



마을제당 느티나무(승江樹) 전경. 왼쪽에 보호수 안내판, 가운데 제단, 오른쪽은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사람.

냥 느티나무 앞에다가 제상을 놓고 제사를 지냈다. 지난해(2008년) 이곳에 보수를 많이 했다. 의자가 없던 것을 의자도 새로 만들었다.(김록수)

산신제가 없어지고 나서 느티나무제가 생겼다. 산신제가 없어진 것은 산에 올라가기가 번거롭고 하니 동네 느티나무에서 지내자고 하였다. 나무가 좋으니까 그랬다.(오진갑)

이 나무는 나무 밑 등에 굴이 풀려 아이들이 지나다닐 정도였다. 그곳은 이 나무 밑을 단장할 때 땅에 묻었다. 단오가 되면 이 나무에 그네를 매고 탔으며, 그 밑에서 각종 민속놀이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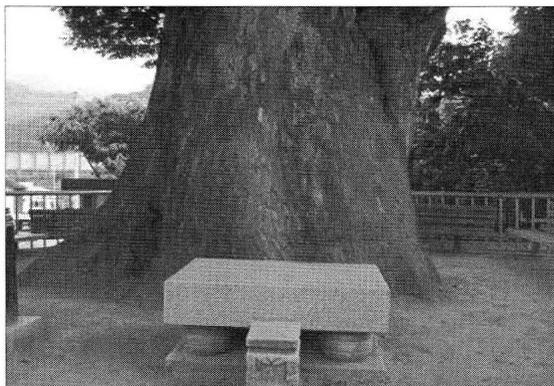
나무 밑에서 제를 지내고 소지를 올리고 소원을 빌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마을의 서낭 개념이 아니라 수호신의 개념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호신의 대우를 하기 위해서 서낭신처럼 소지를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수호신과 서낭신의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듯하다. 잘 알다시피 서낭신은 마을을 수호하는 신이다.

그리고 나무 밑에 몇 년 전 제단을 대리석으로 해서 만들었다. 제단을 만들어 놓았더니 무교(巫敎)인들이 와서 술과 떡을 놓고 가는 일이 빈번하다.

그렇게 놓고 간 제물은 마을 사람들이 다 치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제단의 크기가 작아서 제물을 다 올려놓지 못하는 불편이 있어서 현재 제단을 없애고 이동식 상을 제단으로 쓰려고 한다. 현재 제단을 없앨 때는 따로 제물을 차려 제사를 지내고 없애려고 한다.(이용만)

과거: 옛날 제사의 명칭은 ‘산신제’라고 했다. 당은 ‘산제당’이라고 했다. 산제당은 당집은 없고 큰 나무가 있는 곳에 돌로 단을 쌓아 놓았다. 그곳은 각 반별로 지냈는데 장소는 같은데 날짜만 달랐다. 장소는 현재 초등학교가 있는 뒷산 골짜기에 있었다. 골짜기 이름은 웃새목이와 아랫새목이다. 제당은 아랫새목이에 있었다.

보통 서낭당이라고도 하는데 서낭당이란 산신을 모신 집을 일컫는 말이다. 산신에 대한 인격신의 이름은 알 수 없고 그냥 산신령이라고 했다.(김록수)



느티나무 앞의 돌로 된 제단

제당은 아랫새목이에 있었다. 모양은 돌로 주위를 쌓고, 제단은 납작한 돌을 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지냈다. 제당 옆에 당목이 있는데 자작나무였다. 자작나무에 실타래와 한지를 걸었다. 자작나무를 당목으로 한 것은 제단 옆에 서 있기 때문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

우물과 제당의 거리는 한 30m 정도 되었다. 제당이 우물 위에 있었다. 우물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웅덩이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그 물로 제물도 준비하였다. 돼지를 잡을 때도 그 우물을 사용하였다.

제당 앞에는 5~60평 정도의 평평한 땅이 있었다. 그곳에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쓰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먹으면서 놀았다. 돼지는 술을 걸어 놓고 삶아서 나누어 먹었다.

산신에 대해 특별히 인격신으로 명명하는 것은 없고, 그저 산신이라고 했다. 그래서 마을 잘 지켜달라고 비는 것이다.(오진갑)

옛날 산신당이 없어진 것은 기독교 교회가 마을에 들어오고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제사에 참가하는 사람도 줄고, 기독교인과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왕래가 없이 반목을 하는 것 같아 마을회의를 거쳐서 없어진 것이다. 마을의 산신제시는 특정 종교라기보다는 마을의 한 문화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 마을제시는 마을의 고유한 문화로 봐야한다.(이용만)

(2) 마을제사의 준비

① 제의 날짜와 시간

현재: 현재 느티나무 제사는 2월 1일에 지내는데 농민의 날을 기념해서 시작한 것이다. 시간은 아침 10시경이다. 사람들이 아침에 노인회관에 대부분 모였다고 생각하면 제사를 시작한다.(김록수)

느티나무제는 산신제처럼 매년 날을 받지 않고 2월 1일로 정해 놓고 지낸다.(오진갑)

과거: 옛날 산신제는 매년 3월3일과 9월9일에 지냈다. 시간은 아침 일찍 첫 닭이 울기 전이다. 이렇게 일찍 가는 것은 부정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새벽 1시 조금 넘으면 벌써 모여들었다.

동네에서 지내는 것은 일 년에 두 번만 지냈지만, 개인은 수시로 가서 지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제를 잘 못 지냈다고 생각하여 지내고, 뭔가 기원

할 일이 있으면 가서 지냈다. 우환이 없어도 때만 되면 산신에게 메를 지어 놓고 개인으로 제를 지냈다.(김록수)

처음에는 날을 정하지 않고 음력 9월에 길일을 받아서 지냈다.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아침에 일찍이 했는데, 날이 새자마자 했다. 제사는 일 년에 한번만 지냈다. 합강리 사람만 가서 지냈다.(오진갑)

② 제관과 도가선정

현재: 제관을 선정하는 시기는 2월 1일 전에 해야 한다. 대개 읍장이 나오면 읍장이 제관을 하고, 이장은 전수 주선을 하기 때문에 이장이 원래 당연직으로 제관이 된다. 그래서 초헌은 읍장이 올리고, 아헌은 이장이 올리고, 종헌은 노인회장이 올린다. 축관은 그동안 제보자 김록수 씨가 한 2~3년간 해왔다.

도가는 마을에서 따로 정하지 않고 당연직으로 이장이 했다. 그런데 마을 회관이 있으니, 회관에서 하자고 해서 해마다 회관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있다.(김록수)

느티나무제는 동네 이장이 한다.(오진갑)

도가집은 따로 선정하지 않고, 깨끗한 사람을 도가로 시켜 마을회관에서 제물을 준비한다. 이때 부정한 사람은 도가를 할 수 없다.(이용만)

과거: 옛날 국사봉에서 지낼 때는 반별로 제사를 치렀기 때문에 반장이 제관이 되었다. 그러나 반장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였다. 보통 반장하고 개발위원장이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다.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인 도가는 깨끗한 사람을 선정했다. 도가를 선정할 때는 생기를 봐서 결정했다. 도가는 한 집만 선정하고, 봄가을로 매년 바뀌었다.(김록수)

옛날에는 제관을 선정할 때 부정 없는 사람으로 생기와 복덕을 봐서 했다. 날짜를 정한 후에 제관을 선정했다.(오진갑)

③ 제비와 제물

현재: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돈을 넣은 봉투를 갖다가 놓고 소원을 기원한다. 돈은 자기 마음대로 놓는다.

제물을 사오는 것은 모두 다른 곳에 주문을 한다. 떡도 떡집에 주문을 한다. 비용은 이장이 알아서 하는데 제사를 지낼 때 내는 기부금과 마을자금으로 한다. 따로 거두는 것은 없다.

제사를 지낼 때 돼지머리에 돈을 많이 끼우는데 그것은 모두 노인회관 운영자금으로 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돼지머리에 끼운다.

제사상에 올리는 제물은 돼지머리, 복어, 떡, 메, 과일(사과와 오이는 많이 놓는다) 등을 올린다. 메를 짓거나 떡을 찌 때 특별히 금기하는 것은 없다. 메와 떡은 노인회관 주방에서 모두 준비한다.(김록수)

제사비용은 따로 거두는 것은 없고, 마을기금에서 충당을 한다.(오진갑)

과거: 옛날에 3월3일에 지낼 때는 닭을 제물로 사용했고, 9월 9일에 지낼 때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사용했다. 도가가 음식을 만들 때는 목욕재계하고 했다. 아주머니들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웃에서 절대 도와줄 수가 없었다. 힘들어도 말은 사람 혼자서 해야 했다. 제물을 할 때 절대 누가 가서 볼 수도 없었다.

제비는 호당 500원 정도를 거두어서 사용했고, 닭도 집집이 한 마리씩 가져오라고 했다. 닭은 한 마리만 통째로 삶아서 올리고, 제사를 지낸 후 나머지 닭은 잡아먹으면서 하루 종일 놀았다. 돼지를 잡을 때는 호당 얼마씩 나누어서 비용을 충당했다. 돼지와 닭을 올리는 것은 옛날부터 해온 관습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한 것이다.

제사에는 돼지 머리만 올렸다. 나머지 고기는 먹고 나서 호당 얼마씩 나누었다. 그리고 주과포와 떡 한 시루와 메 한 냄비와 나물을 올렸다. 산신제는 떨어져 많이 해서는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했다. 포는 복어포를

쓰고, 과일에는 사과 배 밤 대추를 놓았다. 가을에는 과일을 여러 종류 놓지만, 봄에는 과일이 귀해서 잘 놓지 못했다. 메는 집에서 지어서 갔다. 새옹이라고 하는 냄비에 메를 짓는데, 한 냄비면 한 새옹이라고 했다. 떡은 백설기 또는 팔 시루떡을 했는데 도가에서 찌서 시루 찌로 가지고 올라갔다.

제주는 옛날에는 담가서 썼는데, 그 중간에 와서는 약주를 사서 썼다. 제주(祭酒)도 도가에서 만들어 가지고 갔다.

정화수는 제당 밑에 바위 밑에서 나는 샘물을 떠서 올렸다.(김록수)

제물은 떡 한 시루 찌서 올리고, 메는 쌀로 해서 짓고, 명태를 찌서 담고, 그리고 돼지고기는 머리만 올리고, 삼색 과일을 놓고 지냈다. 메는 제당 앞에서 남자들이 지었다. 떡은 도가집에서 찌서 지고 올라갔다. 제물로 닭은 올리지 않았다.

제주는 어렸을 때 보면 제당 앞에 땅을 파고 7일이나 10일 전에 묻었다. 묻었던 술은 제를 지낼 때 파내서 걸러 썼다. 그런데 근래에는 모두 도가집에서 술을 담갔다가 가져가서 썼다.

제사비용은 집집마다 거출을 했다. 집집마다 얼마씩 배정을 해서 돈을 거두어서 그 돈으로 제사를 지냈다.(오진갑)

옛날에는 집집마다 쌀을 거두어서 떡을 찌고 메를 지었다. 그리고 희생으로 통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남은 고기는 쌀을 낸 집이 똑 같이 나누어서 가져가 먹었다.(이용만)

④ 제수준비

현재: 제수는 이장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한다. 이장이 총 집사다.(김록수)

과거: 돼지며 모든 것은 도가에서 모두 알아서 했다. 보통 농사지은 것 중에 깨끗한 것을 골라서 썼다.(김록수)

산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옛날에는 구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장이라

고 하는데 그 사람이 했다. 돼지는 암돼지를 사와서 썼다.(오진갑)

⑤ 금기방법

현재: 느티나무제는 현재 따로 금하는 것은 없다. 음식도 제관 선정도 금하는 것은 특별히 없다. 도가는 마을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선정할 필요도 없다. 금줄도 치지 않는다.(김록수)

과거: 제사를 지낼 때는 금기하는 것이 많았다. 가령 여자와 잔 사람은 안 되었다. 반장이 당연히 제관이 되었으나 반장의 부인이 무슨 일이 있으면 할 수 없었다. 상가에 가면 안 되었다.

도가집에서는 금줄을 치고 음식을 장만했다. 음식을 만들 때는 누가 들여다 볼 수도 없었고, 같이 도울 수도 없었다. 금줄은 10일 정도 전부터 쳤는데, 그것은 부정한 사람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금줄은 원새끼에다 한지조각을 내서 매달아서 집 앞에 잘 보이는 곳에 걸었다. 원새끼를 끄는 것은 사불범접(邪不犯接)이라고 해서 잡귀가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금줄은 아기를 낳을 때 치는 것과 다르다. 아기 낳았을 때는 원새끼에 숯검정 솔가지 고추 같은 것을 치는데 산신제를 지낼 때는 원새끼에 한지조각만 꽂아 두었다.

제당에는 워낙 외딴 곳이라서 아무도 가지 않으므로 따로 금줄을 치지 않았다.

제당 청소는 도가에서 알아서 한다.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고 도가만 할 수 있었다.(김록수)

제관이 선정되면 선정된 사람은 절대로 부정한데 가지 않고 금기를 지켰다. 금줄은 원새끼를 파서 거기다가 문창호지를 올려서 그것을 군데군데 찢어서 제당 둘레에다가 쳤다. 음식 만드는 사람도 정결하게 몸가짐을 하였다.(오진갑)

(3) 마을제사의 진행

① 제의절차

현재: 인제읍장은 매년 참가해서 같이 제사를 지낸다. 마을 사람은 남녀 노소 누구나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

제를 지내기 전에 제당을 청소한다. 금줄은 치지 않는다.

제사를 진설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데, 초와 향은 예전과 같이 하고, 소지를 올리지는 않는다. 작년 그러께까지는 소지를 올렸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노인회에서 하지 않고 이장이 전부 주선을 하고 읍장도 오고 하나까 달라진 거다. 그래서 개인 소지를 올릴 수는 없다고 하였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 소지를 전부 올렸다. 지금 소지는 마을 소지를 올리는데 잘 잡수셨냐고 하며, 마을의 누구누구를 들추는데 개인별로 하지 않고 세대주별로 한다. 개인별로 하면 몇 백 명이 되므로 다 할 수가 없다.

참가 인원은 보통 4~50명 정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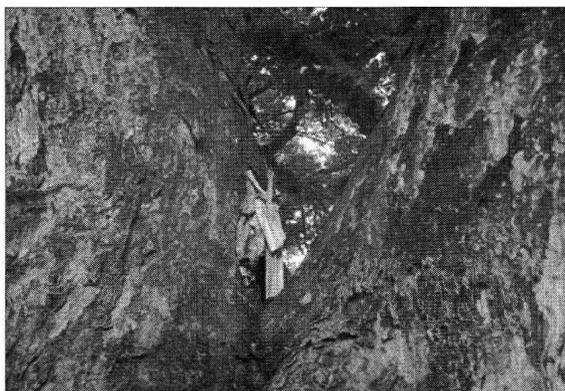
제사가 끝나면 음복을 한다. 음복은 노인회관에서 하지 따로 할 데가 없다. 그래서 제사가 끝나면 느티나무 옆에 있는 노인회관으로 모두 간다.

고수레는 제사가 끝나면 한지에 음식을 조금씩 찌서 느티나무에 건다. 쌀은 반드시 생쌀을 넣어야 한다. 한지에다가 생쌀과 제물 이것저것을 넣고 북어와 실타래를 같이 느티나무에 건다. 북어를 거는 것은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 포라는 의미에서 거는 것이다. 북어를 하는 것은 북어가 좋은 음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음식을 걸지 않고 반드시 북어를 건다.(김록수)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참가한 사람들이 음복을 한잔씩 하고, 남은 음식은 노인회관에 들어가서 다 같이 나누어 먹는다.

제사를 지낼 때 인제읍장은 반드시 참가한다.(오진갑)

제사 후에 소지를 집
집마다 올렸는데 지금
은 올리지 않는다. 원인
은 느티나무제는 마을
의 수호신을 제사하는
것인데, 소지를 올리면
마을의 서낭신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낭
신이 되면 안 되기 때문
에 소지를 올리지 않는
다.(이용만)



느티나무(합강수)에 걸린 포와 실과 한지

과거: 제당청소는 도가가 하루 전에 올라가서 주변까지 모두 청소를 했
다. 당일에는 한밤중에 일찍 제사를 지내려 산으로 올라가는데, 산 밑에는
여자들도 같이 갔다. 제당에는 음식한 사람과 반장하고 비는 사람하고 몇몇
만 올라간다. 제당 밑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놀았다. 마치 천렵처럼 하루를 보냈다.

현장에서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없고, 정화수만 떠서 올렸다. 현장에 도
착하면 제단에다 제물을 진설하였다. 초와 향도 이때 켜다. 축은 축관이 고
했다. 축은 한자로 돼 있다. 절을 할 때는 도가가 음식을 진설하고 처음 잔
(초헌)을 올렸다. 그다음에는 잘 비는 사람이 축원을 하고, 소지도 올렸다.

소지는 돈을 낸 사람으로 집집마다 다 올렸다. 소지 올릴 때 축원내용은
그저 일 년 신수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 소지는 몇 년 생 누구입니다.
금년 신수가 잘 나게 해달라고 빕니다. 신수가 좋을 지 나쁠 지는 이 소지
한 장으로 길흉을 가리겠으니, 잘 올라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식으로 한다.
소지가 잘 오르면 좋다고 하고, 잘 오르지 않으면 다시 올렸다.

고수레는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고수레는 어디 나가서 음식을 먹을 때 잡귀 같은 것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산제당에서는 하지 않는다. 다만 제당에는 한지에다가 모든 음식들을 조금씩 떼어서 썬 후 제당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 제당 나무에는 해마다 실도 걸고 한지도 걸어서 몇 개씩 되었다. 썬 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매달려 있었다. 한지는 따로 예단으로 걸지 않고 쌀과 모든 제물을 넣어서 같이 걸었다. 이때 실은 장수하라는 의미로 걸었다. 그래서 실을 명실이라고 하였다. 한지는 신령님을 모신 위패라고 하였다. 거기다가 음식을 넣어서 거는 것은 마을 사람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제보지는 고수레를 구별해서 이해하고 있었다.(김복수)

제당청소는 하루 전에 가서 했다. 제당 뿐 아니라 주변의 풀까지 모두 깎아서 깨끗하게 하였다.

초헌관은 이장이 하고 아헌과 종헌은 유력한 인사가 했고 축관은 한문깨나 하는 사람이 했다.

음복은 제사가 끝나면 제관과 참가자들이 나누어 먹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당 앞의 평평한 곳에 술을 걸어 놓고 잡은 돼지를 끓여서 먹고 놀다가 내려갔다. 돼지는 싸리나무에 꼬치로 꿰어서 하나씩 들고 먹었다.

소지는 처음에 마을 주민 전체를 개인별로 올렸다. ‘누구누구 소지올시다.’하면서 개인으로 다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세대주별로 올렸다.

제의에 참가하는 사람은 남자들이었다. 여자들도 더러 갔다. 보통 한 가구에 1~2명 정도 참석하였다. 보통 5~60명 정도 되었다.

제사 복장은 따로 하지 않고 평상복 중에서 깨끗한 옷을 입었다.

고수레는 제당에다가 음식을 조금씩 떼서 놓고 왔다.(오진갑)

② 축문

현재: 느티나무제사에도 축을 고한다. 축은 회관에 보관한다. 지금은 회장이 회관에 없기 때문에 축문을 볼 수 없다. 농번기라 회관에 가는 사람이

없다.(김록수)

필자는 이후 10월 25일에 김록수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축문을 부탁했다. 밭에서 콩을 털다가 나와 노인회장에게 연락을 해서 노인회관을 열어 함을 뒤졌으나 찾지를 못했다. 그래서 노인회장이 이장에게 부탁을 해서 준비를 해 놓겠다고 하였다. 10월 28일에 다시 노인회관에서 이장과 노인회장을 만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준비한 축문을 건네 받았다.

축문이 옛날에는 잘 준비되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한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한글로 써서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서 필자의 부탁을 받고 이용만 이장이 한글로 돼 있던 것을 한자로도 옮기고 또 번역까지 해서 주었다. 번역은 필자가 새로 하였다. 다음은 10월 28일 저녁에 이장으로 부터 건네받은 축문이다. 한자와 한글이 따로 있었는데 병기한다.

(원문)

維

유

歲次○○年二月○○朔初一日○○

세차○○년이월○○삭초일일○○

합강2里里長○○○

합강2리이장○○○

敢昭告于

감소고우

합강2里 守護之神

합강2리 수호지신

古木座下 擇日祭誠

고목좌하 택일제성

禍凶爲吉 雨順風調

화흉위길 우순풍조

五穀豐登 興農興商

오곡풍등 흥농흥상

天災不入 未然防止

천재불입 미연방지
 天佑神助 災殃氷消
 천우신조 재앙빙소
 日日安定 富貴榮華
 일일안정 부귀영화
 家和萬成 一致安過
 가화만성 일치안과
 祭誠祈願 吉運冀此
 제성기원 길운전차
 于神 尙
 우신 상
 饗
 향

(번역)

한 해가 지나 〇〇년 2월 1일이 되었습니다.
 합강2리 이장 〇〇〇는 감히 신령님께 고합니다.
 합강2리 수호신령님께서서는
 고목에 자리하십니다.
 날을 정하여 정성으로 제사를 모시니
 재앙과 흉함은 길함으로 바꾸시고
 비는 순하게 내리고 바람은 고르게 하소서.
 오곡을 풍성하게 올리니 농사와 장사가 흥하게 하시고
 자연재앙은 들지 말게 하시고 미연에 방지하게 하시고
 하늘이 돕고 신령님이 도와 재앙은 얼음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안정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가정은 화목하고 온갖 일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두 한 가지로 편하게 살도록 하소서.
 제사를 정성들여 지내고 기원하오니
 이 제사로 하여금 길한 운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에 신령님께 올리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축은 한자로 돼 있었다. 축관이 있어서 축을 고했다. 산제당은 축도

고했지만, 잘 비는 사람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때 축과 지금 느티나무 축은 내용이 다르다. 현재 산제당 축문은 없다.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김록수)

축은 산제당 축이 따로 있었다. 지금은 보관된 것이 없다. 한문으로 썼고, 내용은 동네의 안녕과 복을 빈다는 내용이었다.(오진갑)

(4) 영험담

현재: 옛날부터 제당의 나무는 아무도 꺾지 않는다. 사람들은 미신으로 좋지 않다고 하면 좀처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늘어져 있어도 손을 절대 대지 않는다. 죽은 나무가 땅에 떨어져도 만지지 않는다.

여기 느티나무에는 호랑이와 관련된 전설이 있다. 제보자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있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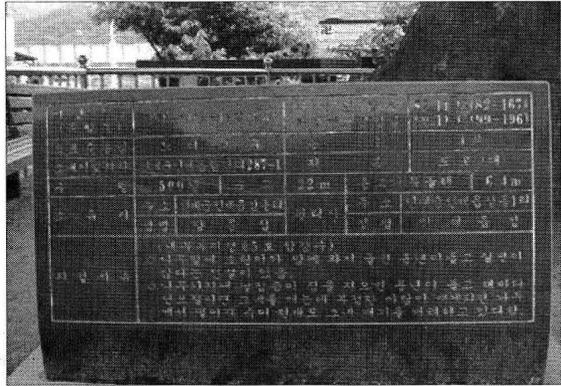
예, 여기 호랑이와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글썽 들은 얘기로는, 거 뭐 대나무(느티나무) 속에 궁글었어요. 궁글었는데 언제 한 번 불이 났어요. 누가 불을 싸냈는지 어졌는지 자연히 불이 나고 그 래가지고선. 그 뒤로 뭐 호랑이도 내려왔다 가고 그랬다고 하였어요. 호랑이를 직접 봤다는 사람은 없고, 그저 그렇다는 말이겠지요? 그게. 나도 그걸 믿지는 않아요. 호랑이가 왔다갔다는 말을. 그래서 그 안에 불이 났다고 하는데. 불이 난지도 얼마 안 됐어요. 저게 한 10 몇 년 밖에 안 됐어요. 호랑이가 여기 온 것은 이 느티나무가 원래 고목이라서 신이 있으니, 왔다 갔겠지요.(김록수)

고목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곳을 정비하면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지은 것이다.(오진갑)

느티나무가 아주 영험해서 썩은 나뭇가지를 떨어뜨릴 때 절대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낮에는 떨어뜨리지 않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밤에만 떨어뜨린

다. 이는 느티나무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옛날 단오에 그네 줄을 매던 사람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일이 있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부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절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무에 올라가서 그네를 매지 않는다.(이용만)



합강리 느티나무 보호수 지정과 유래

느티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면서 지정사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내무부 지정 65호 합강수)

- 나무 밑에 호랑이가 밤에 와서 울면 흉년이 들고 질병이 많다는 전설이 있음.
- 나뭇가지에 날짐승이 집을 지으면 풍년이 들고 해마다 단오절이면 그네를 매는데 부정한 사람이 매게 되면 나무에서 떨어져 죽어 현재도 그네 매기를 꺼려하고 있다함.

과거: 산신제를 지낼 때 한지와 실을 거는 나무는 그곳에서 가장 잘 생긴 나무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그 나무는 좀체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였다. 그 나무를 베면 '지골' 입는다고 해서 누구도 감히 가서 그 나무에 낫질을 못한다. 지골이라는 것은 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나무는 아주 흰칠하게 잘 자란다.

실제로 그런 적이 있다. 옛날에 지당나무 옆의 나뭇가지를 쳤다가 밤에 호랑이가 내려와서 동네에 있는 돼지 같은 짐승을 다 물어갔다고 한다. 아랫대니의 공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지당

의 나무는 아주 신성시해서 손도 대지 못했다.

평상시에도 지당 옆을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진다. 곧, 산신령님이 이 마을을 보호해 준다고 하였다.

산신제를 일 년에 두 번씩 지냈는데, 제를 지내고 나면 일단 마음으로 깨끗한 생각이 든다. 뭐든 잘 돼 나가고 한다. 행여나 일이 풀리지 않든가 불만족한 일이 있으면 제를 잘못 지냈다고 생각 되어 개인적으로 다시 가서 지냈다.

가끔 누가 진급을 한다든가 돈을 많이 번다든가 좋은 일이 생기면 산신님 덕분이라고 말을 하였다.

산신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낸다. 지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했다. (김록수)

특별히 좋았다는 것은 모르고 그저 일 년에 한 번씩 지내는 행사였다. (오진갑)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현재: 마을제사 운영은 노인회관에서 하다가 이제는 이장에게 넘겼다. 지금은 모두 이장이 알아서 한다.

과거: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장이 나서서 올해는 이렇게 지냈는데, 내년엔 더 잘 지내기 위해서는 돈도 좀 더 거두자라는 이야기를 한다.

비용은 이장이 관리한다. 반별로 해도 이장이 가지고 있다가 반에 나눠주는 식으로 하였다. 예전에는 문서로 해서 누가 얼마를 냈고, 얼마를 썼다는 기록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제사가 끝나면 바로 결산을 했다. 없어진 까닭은 제사를 차차 지내지 않음으로 해서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지냈는데, 차차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서 서류까지 없어진 것이다.

(김록수)

마을제사 운영은 모두 이장이 했다.(오진갑)

3) 마을제사의 특징

현재: 농악대의 농민제사가 발단이 되어서 동네에서 올리는 제사로 변했다.

느티나무에도 동제를 지낼 때 외에도 개인적으로 와서 새벽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많다. 집안에 뭐 일이 있다든가,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낮게 해달라고 느티나무 아래서 빈다. 각자 빌 때는 보통 메를 지어서 올리면서 빈다. 옛날에는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요즘은 들어보지 못했다. 남 보는 데서 요즘은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 옛날에는 아주 많았다. 보통 마을제당에 빌어서 낳았다는 얘기가 많다. 그때 빌어서 태어난 사람은 지금까지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았다.(김록수)

과거: 산제사를 지낼 때는 여자들도 같이 갔다. 그러나 산제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참가하지 못했다. 제사가 끝나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음식을 나눠먹으며 하루를 놀았다. 동네잔치나 마찬가지로였다.

마을제사를 반별로 지내므로 제사가 끝나고 같이 노는 것도 반 사람끼리 하였다.

여기는 장승과 돌탑 같은 다른 신앙은 없다. 예전에는 합강 부근에 더러 있는 것 같았으나 지금은 없다.(김록수)

4) 국사봉 산신제와 느티나무제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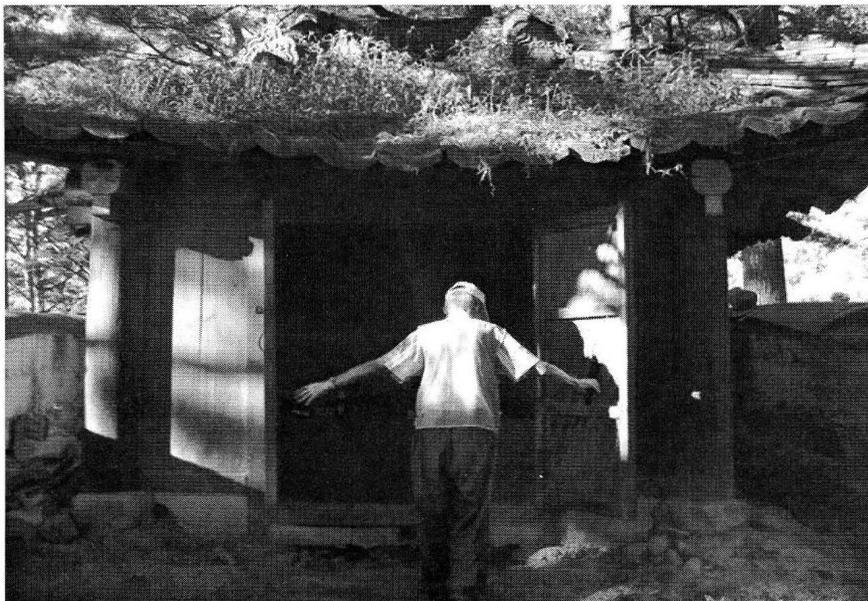
이 항목은 제보자의 제보로만 전적으로 서술하고, 필자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다.

산신제는 우리 마을 누구든 잘 되게 해달라고 지냈고, 느티나무제는 강원도 지정목이라 거목존신(巨木尊神)이라 해서 개인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 그래서 옛날에 산신제를 지낼 때는 “우리 동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는 나를 잘 되게 해 주십시오.”하고 지냈는데, 느티나무제는 강원도 지정목을 대상으로 지내기 때문에 산신제하고는 다르다.

산신제는 전통방식으로 옛날에 어른들이 해오던 방식으로 했는데, 느티나무제는 농악대가 처음 시작한 것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김록수)

3. 기린면 현리

박대감 서낭제



박대감 사당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09년 9월 1일 오후 2시

2009년 9월 2일 오전 10시

조사지: 현리 노인회관, 박대감 무덤, 사당

제보자: 김은필(82, 남) 기린면 현1리 노인회분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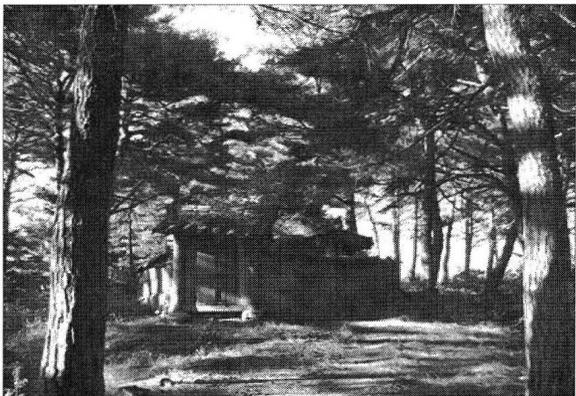
박산진(80, 남) 기린면 현1리

박주국(81, 남) 기린면 서리

(2) 마을유래와 개관

기린면 현리는 기린면소재지이다. 이 지역은 고려시대부터 기지군(基知郡)의 현(縣)이 있던 지역으로 현동(縣洞)이라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현리(縣里)라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리는 기린면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농업과 상업이 함께 발달했다. 특히 소양댐 건설



박대감 사당 전경(2009년)

이후 이 지역에 남면 관대리에 주둔해 있던 3군단이 옮겨 와 군사 요충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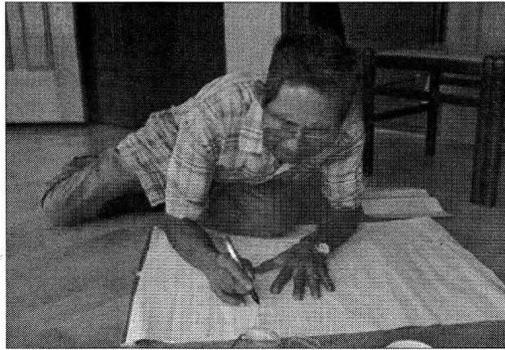
되었다. 3군단 사령부가 들어오면서 이곳에 있던 박 대감 묘를 현 위치인 면 사무소 뒤에 있는 태봉에 옮기게 되었다.

기린면 일대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내린천이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아주 많다. 이 지역은 내린천과 방동약수와 같은 천연자원이 잘 갖춰져 있어서 손님이 찾아와도 어떻게 대접할까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곧, 내린천에서 민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이고 방동약수를 떠서 밥을 해서 대접하면 최고의 예우를 한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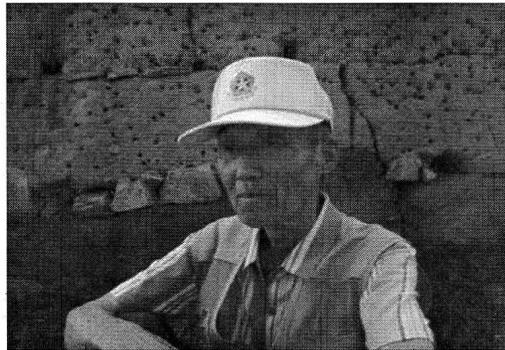
기린면 현리 일대에 춘천 박 씨의 시조인 박항의 장남 박원평이 고려 말에 살고 있었다. 박원평은 고려 공민왕 때 평장사라는 벼슬을 하였

다. 벼슬에 있다가 낙향하고자 하니, 당시 임금이 지금의 현리에 만호를 제수했다고 한다. 박원평은 현리에 있으면서 양양 방면으로 침범하는 왜구를 소탕하기도 하였다. 또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박원평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하다가 이곳에 유배되어 와서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 어찌됐든 박원평은 죽어서 이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다.

이 고장에는 마을신앙으로 유일하게 박 대감 사당에서 제사를 올리는 것



박주국 제보자



박산진 제보자

뿐이었다. 창말에서 도깨비를 먹이는 거리제가 있으나 서낭의 역할을 한 것은 박대감이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박 대감서낭제” 또는 “박 대감제”라고 한다. 박 대감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마을의 풍요와 안녕 및 모든 기원을 들어주는 동신(洞神)의 역할을 하였다. 박대감은 상당히 영험하고 위엄이 있었음을 전설을 통해 읽을 수 있다. 곧, 빨래를 무덤 앞에 걸면 빨래가 하나씩 없어지고, 말을 타고 앞을 지나가면 발굽이 붙어서 갈 수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하마로(下馬路)라는 지명까지 생기게 되었다. 게다가 이 지역에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기우제는 지금도 지내고 있다. 간단한 제물을 준비해서 축문을 써서 읊으면 비가 내린다고 박주국 제보자는 전했다.

2) 마을제사의 내용

기린면 박 대감제사를 채록하기 위해서 먼저 면사무소를 찾았다. 그러나 면사무소에서는 이 제사에 관해서 알지 못했다. 그래서 현1리의 노인회장인 김은필 제보자를 만났다. 전화를 했더니 면사무소로 나오겠다고 했다. 그래서 면사무소 귀퉁이에서 조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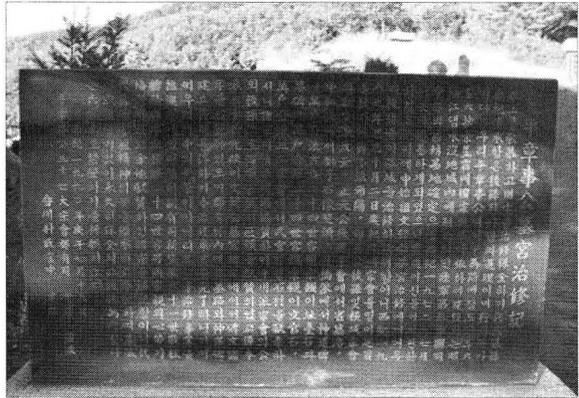
박 대감제사 조사를 끝내고는 기린면 무후제까지 조사를 했다. 무후제 사당을 열어보고 축문이며 갖가지 궁금한 점을 면담항목에 맞춰 물었다.

그 후 필자는 혼자서 노인회관 쪽으로 난 길을 따라 박대감 사당을 향해 갔다. 약



박대감 사당 안에 걸려 있는 옷

10분만 가면 보인다고 했는데 30여분을 가도 보이지 않았다. 의문이 들어서 태봉산에서 내려오는 어떤 등산객에게 물었으나 알지 못했다. 아무래도 사당을 지나친 것 같아 그 등산객과 같이 면사무소로 향하는 길로 내려왔



박 대감 묘 치수기

다. 그랬더니 그곳에 박 대감의 묘가 보였다. 그리고 멀지 않는 곳에 사당이 보였다. 그래서 묘 주변을 둘러보고, 사당으로 가서 사진을 찍고 채록을 하려는데, 어떤 노인이 등산을 하며 올라왔다.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박 대감에 대해서 잘 아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박 대감 후손이라고 했다. 곧, 박산진 제보자였다. 그래서 박산진 제보자의 안내를 받아서 사당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사당 옆에 앉아서 박 대감 제사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물어서 채록하였다.

이튿날 기린면 서리에 살고 있는 박주국 제보자를 찾았다. 박주국 제보자가 박 대감제사의 축문을 관리한다고 해서였다. 축문을 작성하다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에 전해 받기로 했다. 박주국 제보자에게서도 박 대감제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취재를 하였다. 이후 11월 26일에 다시 전화를 해서 축문과 진설도와 활기를 나중에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전화를 드려 부탁을 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만나기로 한 날짜에 출타중이어서 결국 축문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박주국 제보자는 현재 박 대감제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묘와 사당 관리는 서리에 살고 있는 박수환 씨가 한다고 한다.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박 대감 사당은 이 마을에서 서낭당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서낭이라고 일컫는다. 박 대감서낭당이다.

박 대감 사당은 현재 면사무소 뒤에 있는 태봉에 위치하고 있다. 면사무소에서 약 150여m정도 올라가면 산속에 사당이 나온다. 사당은 목조 건물



박대감 사당 내부

에 기와를 얹었다. 기와는 붉은 기와이고, 나무에도 붉은 색을 칠해 놓았다. 그리고 사당 주변을 돌아가면서 흙을 쌓아 울타리를 만들고 울타리 위에는 기와를 얹었다. 대문을 설치해서 대문을 통과하면 사당에 이를 수 있다.

옛날에 묘를 옮기기 전까지는 사당이 없었다. 제사를 박 대감 묘에서 지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단사령부가 들어와 묘를 옮길 때 이 사당도 같이 지었다.(김은필) 사당은 원래 여기에 있었다. 묘만 군단사령부안에 있어서 이곳으로 옮겼다.(박산진)

사당 내부에 들어서면 콘크리트로 바닥과 벽을 해 놓았다. 제단은 콘크리트로 단을 쌓고 그 위에 대리석을 올려놓았다. 대리석 뒤편에는 검은 대리석으로 신위를 해서 세웠는데, 한자로 “高麗大匡門下平章事 朴大監 神位(고려대광문하평장사 박대감 신위)”라고 하였다. 제단에는 한자로 “高麗平章事 春川朴公元宏祠堂(고려평장사춘천박공원평사당)”이라고 쓰여 있다.

신위 뒤에는 예단으로 보이는 노랑, 분홍, 도라지색의 천이 몽쳐 놓여 있었다. 실타래도 있었다. 누가 갖다놓았냐고 했더니, 여기 기도하러 오는 사



박대감 묘 전경

람들이 놓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리석 양쪽에는 돌로 된 촛대가 양쪽에 있고 타다만 양초 두 자루가 꽂혀 있었다. 대리석 제단 앞에는 향로로 쓴 스테인레스 밥그릇이 모래가 담긴 채 놓여 있었다. 밥 그릇 위에는 타다만 담배도 있었다. 대리석 옆에는 양초, 향, 소주가 있었다.

사당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벽 모서리에는 남자 한복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그 옆에는 흰옷도 갖다가 놓았고, 신발도 두 켤레가 있다.

천장은 나무 조각과 흙으로 이겨서 했는데 오래 돼서인지 조금 흘러내렸다. 천장이 흘러내린 곳으로 상량문이 보였다. 상량문에는 실과 한지가 묶여 있었다. 아마도 상량을 할 때 매어 둔 것이리라. 상량문의 내용은 부분이 가려 있는데 다음과 같았다. 내용은 “龍乙卯年三月十二日原時立柱上樑龜(용을묘년삼월십이일원시입주상량구)”라고 하였다. 을묘년은 가장 최근부터 1975년, 1915년,

1855년이다. 그런데 사당의 기와재질과 위패의 대리석 등으로 봐서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지붕이 거의 다 썩어서 내려앉은 것으로 봐서는 관리소홀인지는 모르나 또 기간이



박대감 사당 상량문

꽤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제보자의 증언이 갈려서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왜냐면 기와는 나중에 다시 올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무의 상태로 봐서는 아주 오래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1975년이 아닌가 한다. 아마도 대문의 기와가 사당의 기와와 색이 다르고, 나무의 훼손 정도가 다른 것으로 봐서 사당은 나중에 중수했을 수도 있다. 박주국 제보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그대로 있었다고 했다.

이 사당은 원래 마을에서 동제를 지내는 곳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을 사람들은 하나도 오지 않고 춘천 박 씨 후손들만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그 원인은 남의 조상 제사에 왜 가느냐는 것이었다. 그 이후에도 이 사당은 마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치성을 드리고 간다. 아이가 아파도 오고,

개인의 소원이 있어도 온다. 그래서 아직도 이 사당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남아 있다.

박 대감이 이 마을에 와서 공헌한 기록이나 이야기는 없다.

지금 그 후손들이 많아서 후손들이 제사를 받들고 있다.

사당에서 약 100여m정도 산으로 더 올라가면 박대감의 무덤이 나온다. 이 무덤은 현재 군단사령부 안의 사열대 동남방 쪽 9m 앞에 있었다. 그러던 것을 1972년 7월에 현재 위치로 옮겼다. 무덤을 옮길 때 헌병대, 보안부, 검찰부에서 입회를 나갔다. 제보자는 검찰부에 있으면서 입회를 나가서 봤다. 유골은 없고 머리 부분이 흩어 까맣게 돼 있었다. 그 안에서 부장품이 나왔다. 부장품은 도자기가 나왔는데 밥그릇과 국그릇 정도였다.(김은필)

부장품으로 수저가 나왔는데 길이가 상당히 길었다. 중요한 유물이 없었다. 그걸 아마 여기 갔다가 도로 묻었을 것이다.(박산진)

묘를 파서 옮길 때 돼지도 잡고 제사를 크게 지냈다. 그때 참가한 사람은 수백 명이 되었다. 발굴 당시 수저가 길이가 긴 것(30cm 정도)이 나오고 고려청자로 된 접시가 나왔다. 그 접시는 문화재청에서 가져갔다. 그리고 보검이 푹푹 떨어지며 나왔다. 시신은 모두 까맣게 흩어 되었다. 그래서 이장을 할 때 흩을 파서 했다.(박주국)



박대감 신도비

묘 관리는 박 씨 문중에서 한다.

묘에는 무인석과 문인석이 2개씩 양쪽에 놓였고, 옛날에 세운 비석과 1990년에 세운 비석이 있다. 비석에는 “高麗平章事春川朴公元宏之墓 配羅州鄭氏(고려평장사춘천박공원평지묘 배나주정씨)”라 했고, 옛날 비석에는 “麗朝平章事朴公之墓(여조평장사박공지묘)”라 썼다. 그리고 묘 입구에는 “平章事公墓宮治修記(평장사공묘궁치수기)”가 있다.

박 대감은 기린면의 수호신으로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다음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곧, 필자가 2003년에 기린면에서 입수한 “기린면무사고기원대제축(麒麟面無事故祈願大祭祝)”에 의하면 이곳의 신은 3명으로 나타났다. 곧 “기린선사수호지신 신위, 방대점봉태봉진만지신 신위, 여조평장사춘천박공영상대감 신위(麒麟禪師守護之神 神位, 芳台占峰胎峰鎮巒之神 神位, 麗朝平章事春川朴公領相大監 神位)”라 하였다. 이처럼 박대감이 기린면의 수호신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도 유일한 인격신(人格神)이다. 나머지 두 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

박 씨가 아닌 사람도 집에서 치성을 드릴 때는 먼저 이곳 사당에 와서 고하고 집에서 치성을 드렸다. 곧, 텃고사를 지낼 때 시루떡을 두 개를 찌서 한 개는 이곳 서당에 와서 제사를 먼저 지내고, 나머지 한 개는 집에서 지냈다. 그렇게 엄했다.(박산진)

사당에서 면사무소 쪽으로 내려오면 면사무소 바로 뒤에 신도비가 있다. 신도비에는 1972년 7월 24일 하마로에서 현재 위치로 묘를 옮긴 사연이 적혀있다. 그리고 박원평의 약력이 적혀있다. 태어난 곳은 춘천 신북읍 발산리에서 박항의 맏아들로 태어났고, 박혁거세의 후손이라고 했다. 박원평은 충렬왕 때 원나라에 들어가 왕의 명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간신의 험담으로 많은 고초를 겪었고, 뒤에 낙향을 원하자 기린면 현리에 만호를 주었다. 그리고 동해안 양양에 침범하는 왜구를 물리치다가 충선왕 2년(1310) 경에 돌아왔다. 이에 의하면 『인제군사』에 전하는 귀양 어찌고 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면 조선조의 건국과는 80년이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박원공은 문무를 겸비한 충신이며, 죽은 후 이 지방의 수호신이 되었다. 신도비는 1990년에 세웠다.

동네 사람들은 박 대감 사당을 서낭당이라고 불렀다.(박주국)

(2) 마을제사의 준비

① 제의 날짜와 시간

제의 날짜는 원래 양력으로는 11월이고 음력으로는 10월경인데, 보통 사가에서 시제지낼 때였다. 그때 날짜를 받아서 제사를 지냈다.(김은필)

요즘은 음력 10월 2일에 제사를 지낸다. 10월 1일에는 춘천 샘밭에서 춘천 박 씨 시조 박항의 제사를 지낸다.(박산진)

제사를 지내는 날짜는 10월 2일이다. 제례는 옛날에는 새벽부터 가서 제의 준비를 해서 지냈다. 그런데 지금은 집(묘각)에서 제사를 올리고, 사당에는 별도로 제관이 갔다 온다.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오전 10시 경이다. 옛날에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제사에 같이 참가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옛날에는 10월 1일에 지냈는데, 10월 2일로 바뀐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불과 몇 십 년 정도 된다. 10월 1일은 춘천 박 씨 시조 제향이 있기 때문이다.(박주국)

② 제관과 도가선정

제관은 문중에서 원로 되는 사람이 맡아서 했다. 종헌관은 면장이 했다. 초헌과 아헌은 문중에서 했다.

도가는 따로 선정하지 않고 부인회에서 제물을 마련했다. 지금은 부녀회

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부인회라고 하였다.

③ 제비와 제물

옛날에는 반별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비를 거두었다. 그래서 집집이 5백 원씩 거둬서 제물을 마련했다. 제비를 거둬서 제물을 마련하는 것은 부인회에서 했다.

제물에는 돼지를 잡았다. 돼지를 잡아서 제상에 올리는 것은 돼지머리만 올렸다. 떡을 찌고, 메를 지어 올렸다. 떡과 메는 집에서 지어 가져갔다. 예전에는 메를 지을 때 특별한 금기가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메를 지을 때는 합이라고 해서 종이를 입에 물고한다. 이는 부정을 막기 위해서다. 해물은 비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린다.(김은필)

옛날 돼지를 잡을 때는 집에서 키워서 제사 준비를 하였다.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시향 차리는 사람이다. 제물에는 과일, 편 등을 차렸다. 편은 일반제사와 달리 아주 큰 것을 올렸다.(박산진)

옛날에는 돼지를 온 마리를 잡고, 떡을 몇 말을 하고, 메를 짓고 하였다. 제물을 마련할 때는 목욕재계하고 합을 입에 물어서 일체 말을 하지 않았다. 잡담을 하면 바로 벌을 받았다.

돼지를 올릴 때는 생 돼지로 온마리를 다 올리는데, 허파와 간과 콩팥도 올렸다. 떡은 집에서 찌서 올리는데 서 말서 되를 하였다. 떡을 올릴 때는 시루로 했다. 시루떡은 팔 시루였다. 그런데 지금은 절편을 올린다. 메도 집에서 지어 갔다. 메는 한 개만 놓았다. 과일은 흥동백서, 좌포우혜 등등을 올리는데 마치 환갑상 차리듯이 푸짐하게 올렸다.

2009년에는 돼지 정육을 산적 같이(썰어서 차곡차곡), 조기, 북어, 민어, 미나리, 참나물, 두릅, 메(합을 물고), 떡시루편, 인절미(참쌀), 대추, 밤, 감, 배, 잣, 육탕 3개 들을 올렸다.

예전에 슬은 청주라 해서 매년 별도로 담가서 썼다. 담는 장소는 집에서

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정종을 한 병 사서 쓴다.

이때 제물을 만드는 집은 재실이라고 한다. 재실에서 하는데 그 사람이 위답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고정적으로 제물을 준비했다. 이 사람은 제물을 만들 때 금하는 것이 많았다.

그 때는 위토가 논이 1,500평이고, 밭이 3,000평이 있었다. 그러니 떡을 그렇게 많이 해서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어도 되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를 지내면 동네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모두 모였다.(박주국)

④ 제수준비

제수는 면장이 주관하기 때문에 아주 푸짐하게 했다. 쌀이나 기타 제수는 마을에서 거둔 돈으로 구입했다.(김은필)

쌀은 별도로 담아 두었다가 제사에 썼다. 쌀을 보관할 때는 벼를 두었다가 제사 준비를 할 때 방아에 찧어서 사용했다. 쌀을 찧을 때는 정성을 다해 밭 방아에서 일곱 번을 찧었다. 이 쌀로 떡도 하고 메도 지었다. 쌀의 양은 원래 사람이 많으므로 밥을 많이 지어서 나눠 먹었다.(박주국)

⑤ 금기방법

제당 앞에 금줄을 쳤다. 금줄은 원새끼에 한지와 색이 있는 천 조각을 꿰었다. 색은 붉은 색, 검은 색, 흰색이다. 제삿날을 받으면 바로 쳤는데 보통 5일 전쯤 된다. 제사가 끝나면 금줄은 거둬서 태웠다.

부정한 사람은 본인이 알아서 제물 준비할 때와 제사를 지낼 때 참가하지 않았다.(김은필)

옛날에는 부정을 많이 가렸다. 그래서 날짜가 가까워지면 원새끼를 꼬고 송아리(솔가지)를 꺾고, 솥검뎅이를 도가집에 쳤다.(박산진)

제물을 만들기 전에는 부정을 금하기 위해서 송침을 했다. 송침은 원새끼

를 꼬고 거기에 소나무 아지를 몇 개 꽂아서 집 앞에다 걸었다. 한지 조각도 꽂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보통 3일 전에 금줄을 쳤다. 사당에도 쳤다.(박주국)

(3) 마을제사의 진행

① 제의절차

제삿날을 받으면 기린면에서 주관하여 제각과 주변지역 대청소를 했다.

초헌 아헌 종헌을 끝내고, 거기 모인 사람들 보고 와서 절을 하라고 하면 모두 가서 절을 했다.

고수례는 음복을 하기 전에 한다. 제상에 놓인 제물을 조금씩 떼어서 한 지에 싸서 제각 옆에 놓고 술을 사당 네 귀퉁이 기둥 주춧돌에 한 잔씩 다 붓는다. 술을 붓는 사람은 초헌관이다. 그리고 복 많이 받게 해달라고 한다.

음복은 보통 제관과 나이 많은 노인들만 한다.

제사가 끝나면 지방과 축문을 소각을 했다. 따로 소지를 올리지는 않는다. 이때 금줄을 올렸던 것을 내려서 같이 태운다.

제사 후에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떡이며 음식을 모두 나눠 주었다. 그 당시는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하여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아이고 어른이고 아주 많이 모였다. 그래서 제상에 올리는 떡 이외에도 많은 여분의 떡을 해서 가져갔다. 떡을 나눠 줄 때는 싸리가지에 몇 개의 떡을 꼬치처럼 끼워서 주었다. 떡꼬치는 아주 커서 식성이 좋은 사람도 한 번에 다 먹기가 힘들었다.

참가자는 보통 2~3백 명은 되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큰 행사였다. (김은필) 현재는 문중 사람들만 참가하므로 30여 명 정도 된다. 내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후손들이 잘 참가할 것인데, 자꾸 노인들이 사망해서 내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참가자가 줄어든다.(박산진)

옛날에는 참가자가 많았다. 그런데 요즘은 참가자가 많지 않아서 제사를

사당에 가서 지내지 않고 묘각(집)에서 지낸다. 사당에는 제관이 별도로 갖다 온다.

제사 순서는 장손이 먼저 초헌을 하고, 아헌은 나이 많은 연장자가 하고, 종헌도 자손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이 한다. 옛날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냈는데, 면장과 이장도 함께 참가해서 헌작을 하였다. 제사가 끝나고 소지를 올릴 때 먼저 마을 소지를 올린다. 그때 제관은 세 번 절을 하였다. 소지가 잘 올라가면 신이 응감을 했다고 했다. 고수레는 하지 않았다. 음복은 초헌관부터 한다. 돼지는 나중에 삶아서 그곳에서 다 먹는다. 음식을 먹을 때는 묘역에서 했다.

지금은 박수환 씨 댁에서 모든 것을 한다. 그런데 돼지도 편육을 해서 올리고, 따로 잡지는 않는다. 지금은 아주 약식으로 한다. 기제사상 차리는 것과 같다. 신위는 함을 만들어서 올렸다가 내린다. 참가지는 한 30여 명 된다. 옛날에 마을에서 지낼 때 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었다. (박주국)

② 축문

축문은 서리의 박주국 제보자가 읽는다. 다음 축문은 1996년에 치러진 제사에서 독축한 것이다.

維歲次丙子正月丙辰朔十五日庚子 獻官○○○虔告于
 유세차병자정월병진삭십오일경자 헌관○○○건고우
 土主山川守護之神 祝而奠靈 氣序流易 時惟孟春 致此誠施
 토주산천수호지신 축이전령 기서유역 시유맹춘 치차성시
 國泰民安 雨順風調 百穀豐登 百災不侵 官民和合 面內亨通
 國태민안 우순풍조 백곡풍등 백재불침 관민화합 면내형통
 謹以酒果 庶羞陳此 于神尙饗²⁴⁾
 근이주과 서수진차 우신상향

24) 남근우·박신경, “인제군의 민속문화(1)”,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한림대 박물관, 1996), 95쪽.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또 한 해가 지나 병자년 정월 15일이 되었습니다.
 현관○○○는 신령님께 정성을 다해 고합니다.
 이 땅의 주인이시며 산천의 수호신이신 높으신 신령님께 비나이다.
 세월이 흘러 바뀌어 때는 맹춘이 되어 이 정성을 베풀어 다합니다.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편안하며 비는 순조롭고 바람이 고르며
 온갖 곡식은 풍년이 들고 온갖 재난은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관청과 백성이 화합하고 기린면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삼가 술과 과일로써 여러 제물을 이에 진설하였으니
 신께서는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문에 의하면 분명히 맹춘이라고 하였다. 제보자들 모두 10월로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기록을 옮길 때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

또 박대감 사당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올린다. 기우제를 올릴 때 읍는 축문을 소개한다. 이 축문은 박주국 제보자가 작성한 것이다. 이 축문을 이곳에 놓기 위하여 필자는 원고가 완성된 상태에서 전화를 걸고 찾아갔다. 그날 할머니가 끓여주신 커피며 닭고기를 잘 먹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한다.

祈雨祭
 기우제

維歲次 干支某月某日日辰 獻官 麒麟面長○○○
 유세차 간지모월모일일진 현관 기린면장○○○
 麗朝春川朴公領相大監
 여조춘천박공영상대감
 悠久歲月無雨 萬民生活塗炭
 유구세월무우 만민생활도탄
 億兆蒼生所望 大雨方數萬里
 억조창생소망 대우방수만리

洽足解決 祈願 尙饗
흡족해결 기원 상향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기우제

세월이 바뀌어 모년모월모일이 되었습니다.

헌관 기린면장○○○은 아뢰니다.

고려조에 영상대감을 지낸 박 대감 신이시여

오랜 세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여러 백성들의 생활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바라는 비는 수만리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려 흡족하게 해결되는 것
입니다. 기원을 드리오니 신께서는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린면에서 지낸 무사고 기원제의 축문을 병기하여 둔다. 이 축문
은 2002년 1월 20일에 지낸 것이다.

麒麟面無事故祈願大祭祝
기린면무사고기원대제축

維

유

歲次癸未元旦乙巳朔二十日甲子

세차계미원단을사삭이십일갑자

麒麟面長 張憲權

기린면장 장헌권

敢昭告于

감소고우

土地之神麗朝平章事春川朴公領相大監

토지지신여조평장사춘천박공영상대감

芳台占峰胎峰鎮巒之神

방태점봉태봉진만지신

麒麟禪師守護之神

기린선사수호지신

伏以 歲遷癸未 元旦二十日

복이 세천계미 원단이십일

至誠祈禱 鴻恩伏蒙

지성기도 홍은복몽

實賴神休 官民泰安

실뢰신휴 관민태안

雨順風調 百穀豐登

우순풍조 백곡풍등

謹以清酌 庶羞祇薦

근이청작 서수기천

三神尙

삼신상

饗²⁵⁾

향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기린면무사고기원대제축

세월이 바뀌어 계미년 정월 이십일입니다.

기린면장 장헌권은

삼가 신들께 고하나다.

토지신이신 고려조의 평장사를 지낸 춘천 박원평 영상대감

방태점봉의 태봉을 진압하는 신

기린면 선사수호신께 엎드려 뵙니다.

해가 바뀌어 계미년 정월 이십일입니다.

지성으로 기도드리니 크나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실로 신령님께 의지하니 관민이 크게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비는 순하고 바람은 고르며 온갖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25) 이 축문은 2002년도에 기린면 복지계 이승실 계장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바칩니다.
세 신께서는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4) 영험담

박 대감 사당은 마을의 유일한 기도처였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파도 여기서 빌고,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낳게 해 달라고 빌기도 하였고, 수험생이 있으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도 빌었다.(김은필)

박 대감과 관련한 영험담은 문헌에 전하는 것과 같다. 박 대감 묘가 보이는 곳에 빨래를 걸면 빨래가 없어졌다가 이튿날 가보면 빨래에 이곳에 열지 말라는 글씨가 써 있다는 것과 말을 타고 가면 말발굽이 붙어서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는 것이다.

박주국 제보지는 다음과 같은 영험담을 얘기했다.

〈묘를 팔 때 도저 삼밭이 부러진 이야기〉

옛날 박 대감의 묘가 있는 곳에 3군단 사령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군단을 이주하려고 그곳에 있는 묘를 전부 옮기게 되었어요. 당시 묘를 한 기 이주하는데 나온 보상비는 5천원이었어요. 엄청 비싼 돈이었어요. 그때 땅을 파며 터를 닦았는데 도저 삼밭이 무단히 3개가 부러졌어요. 거기엔 임반이 없이 모두 사질 양토인데도 도저삼밭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며, 전설과 한 가지로구나 하었어요. 그래서 박 대감 묘를 정성을 들여서 판어요.

박 대감 사당은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서낭이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많이 치성을 드렸어요. 몸이 아파도 노구메를 지어 가서 치성을 올렸는데, 가서 “살려주십시오.”하고 빌면 바로 병이 나왔어요. 그 만큼 영험한 분이었어요.(박주국)

〈호환에 갈 사람을 살려 준 이야기〉

함주선 씨라고 지금 계셨으면 한 100세 정도 될 것인데,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였어요. 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살았다고요.

왜냐하면 점봉방태산봉오리가 큰 산입니다. 옛날에도 시월이면 삼을 캐게 되었습니다. 약이 지금(가을)이라야 효과가 나지. 그 이전에 캔 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 가보면 삼이 여러 해 된 것은 빨깁니다. 옛날에는 산삼이 비쌌어요. 진짜 한 뿌리 5구나 6구정도 캐면 소가 몇 십 바리 되고 그랬어요.

그래 그렇게 함주선 씨 아버지와 여러 일행이 갔었는데, 그때 전지도 없고 그러니까 야외에서 지는데. 고목을 주어다가 크게 불을 해놓고 밤새도록 피웠지요. 그렇게 막을 해놓고 있었어요. 막도 아니고 그렇게 앉아서 밤을 새웁니다. 지금은 뭐 막도 치고 그러지만.

그래서 범이 나왔더랍니다. 아주 큰 호랑이가 옆에 와서 사람이 수십 명인데 있더랍니다. 근데 허연 옷인데. 당시는 전부 허연 옷입니다. 사람도 무서워 안하고 불도 무서워 안하고. 그래 뭐 억지로 그 놈이 새벽녘이나 돼서 가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잠도 못 이루고 그렇게 보냈대요. 아침에는. 그런데 주로 피를 토해서 뿌린 것은 함주선 씨 아버님에게 맞았대요. 그래 날 새니까. 다들 당신이 호환에 갈 팔자인데 당장 나가라고 우리까지 공포에 떨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날 왔다. 그 날 와서 노구메를 지어서. 메를 지어서 그 참 몇 번 일곱 번인가를 씻어서 깨끗하게 당에다 갖다놓고 또 그 앞에다 묘역에다 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빌었답니다.

“미련한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니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현몽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네가 호환에 갈 팔자인데 내 묘역에다 갖다가 여가리에다 나무를

갖다 박고서 그 피 묻은 옷을 걸어라. 그러면 내가 다 제거해주마.”

그래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니까. 그 옷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참 호환을 면했다. 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랬다. 이게 전설이 아니라. 실화로 들은 예예요.

(언제 들었어요?)

그것을 들은 지가 그러니까. 왜정 당시지요. 우리가 청년 시절에 들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하마로에 살았어요. 그 함주선이라고요. 지금 얼추 살았으면 100세는 얼추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빨래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호랑이에게 물려갈 팔자인데 옷이 없어졌다는 얘가지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영험하시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사셨노라. 그런 전설을 직접 들었어요. 전설이 아니라 실화로 들었어요. (박주국)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마을에서 가가호호 돈을 얼마씩 거둬서 제사를 지냈는데, 각 반장이 거두어 이장에게 쥐서 운영을 하였다.

3) 마을제사의 특징

원래 박 대감 제사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제비를 거둬서 지냈는데, 70년대 후반부터 동네 사람들은 제비를 내지 않았다. 그 원인은 동네 사람들이 박 대감을 춘천 박 씨의 조상신으로 인정하기 시작해서이다. 그래서 마을 공동의 신에서 씨족의 조상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도 개인은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메를 지어놓고 빌고 간다.

옛날에는 인근에 사찰이나 교회도 없었고, 오로지 박 대감 사당에 의존했다. 박 대감제사를 지낼 때는 마을의 축제였다.

제사를 지낼 때는 남자들만 했고, 제물을 준비할 때는 여자들이 했다.

이곳에는 박대감제와 거릿제사가 있었다고 한다. 현리에서는 오직 수호신이 박 대감뿐이었다. 박대감제를 다른 곳에서 지내지는 않았다. 한 곳뿐이다. 거릿제사는 일명 도깨비제사라고도 한다.

이곳에서는 가뭄이 심하면 박 대감 사당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근자에는 3,4년 전에 지냈다. 하도 가뭄이 심하니까 현리 노인회장이 주관을 해서 기린면의 기관장들이 모여서 기우제를 지내자고 했던 것이다. 제관은 김은필 노인회장과 면장이 하고, 박주국 제보자가 축관이 되었다. 음식은 돼지머리, 편육, 주과포, 메, 떡(백설기), 정종을 해서 제물로 썼다. 기우제를 지내고 나니 비가 왔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감님이 참으로 영험하다.”고 하셨다.

4) 문헌자료

『인제군사』에는 〈하마로(下馬路)와 박대감〉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박원평의 영험담을 이야기 하고 있다.

고려 말의 충신인 박원평(朴元宏)은 임금을 받들고 섬겨왔다. 그러나 고려가 망하자 이성계(李成桂)가 개성(開城)으로부터 한양(漢陽)에 도읍을 정하고 왕위에 오르자 그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끝내 이를 거부하자 왕명을 거역한 역적으로 몰려 그때 가장 험한 땅인 강원도(江原道)에 귀양 오게 됐다.

귀양에 오른 박원평이 이곳에서 여생을 보낼 것을 결심하고 밭을 일구어 그곳에서 한 많은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다가 부부는 세상을 떠났는데 그

시체는 지손들에 의해 하마로(下馬路) 언덕에 합장 되었다 한다.

그 후 세월이 흐르자 이 부부가 합장되어 있는 묘 주변에 영월 엄(寧越 嚴) 씨를 비롯한 많은 묘(墓)가 생겨서 이들의 후손들이 선조의 묘를 찾을 수 없게 됐다. 이러던 무렵 기린면(麒麟面) 현리(縣里) 하덕(下德)에 살고 있는 이들의 장손 한 집안 사람의 꿈에 박원평이 나타나 후손을 꾸짖고 “주변의 다른 묘는 옮기라.”고 말했다. 꿈에 선조를 만난 이 후손은 다른 묘를 전부 이장했으며 이때 박원평의 묘와 망두석(望頭石)까지 전부 되찾아 냈다.

그 후 이 묘 부근에 아낙네들이 빨래를 널면 꼭 한 가지씩 없어졌는데 그 다음 날 볼 것 같으면 빨래에 “다음부터는 이곳에 빨래를 널지 말라.”는 금기의 글이 쓰여져 묘 앞에 걸려 있는 것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부근 사람들은 지금까지 묘 앞에는 빨래를 널지 않는다고 한다.

또 이 앞에는 길이 나 있는데 이 묘가 생긴 후부터는 가마, 영구, 말 같은 것이 지나면 꼭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

그래서 평장사(平章事) 박원평을 모시고 얼마 안 되어 이곳 인제 현감이 새로 부임할 때의 일이었다.

신임현감은 심산유곡 호젓한 벽지에 꺼릴 것이 무엇이랴 싶어서 나귀등에 높이 올라 앉아 오만하게 평장공 묘 앞을 지나려고 했더라. 그때 묘 앞까지 온 나귀의 발굽이 갑자기 땅에 못 박힌 듯 붙어서 도무지 꼼짝을 못하게 되었다 한다. 놀란 현감은 금세 얼굴빛이 질렸다. 뒤 따르던 아전 구실아치 무리들도 눈이 휘둥그래지자 “이 어찌된 연고일고 뒤 까닭을 아는 자 없겠느냐?” 현감이 안타까이 주위를 돌아보며 물어 보았다. “예, 소인이 아는 바를 아뢰려고 하옵나이다.” 이 현아(縣衙)에 전부터 있던 벼슬아치가 현감 앞으로 나와 읍하였다. “네 아는 바를 직고하라.” “예,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여기는 승마고좌(乘馬高座)하고는 지나가지 못하는 곳이옵니다. 간좌원(艮坐原)에 평장공이 현영(顯靈)하시옵기로 하마 보행하여야만 비로소 통과 보행할 수 있나이다.” 그제야 현감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얼른 나귀등에서 내

렸다.

"웁도다. 평장공께서 예 계신 줄 미처 몰랐었노라." 현감은 깊이 깨우치고 이곳을 걸어서 지나갔다.

현감은 다음 날 이곳에 하마비(下馬碑)를 세워 놓았다 한다.

이로부터 누구나 이 길을 지날 때는 반드시 나귀에서 내려 걷게 되었고 하마로(下馬路)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²⁶⁾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는 <창말의 朴大監 서낭제와 거릿고사>라고 제목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縣1리는 기린면의 면 소재지로서 기린면의 교통과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흔히들 창말 혹은 倉村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창고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고려시대 이곳에 큰 창고를 지어놓고 군인들이 먹을 쌀을 쌓아 놓았다고 한다. 마을의 이름이 縣里이고 보면 이곳이 예부터 군사와 지방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현재 현1리는 수백호에 이르는 큰 마을이지만 예전엔 3,40호의 가구가 모여 논농사와 밭농사, 화전을 부쳐 먹던 작은 산간 농촌마을이었다.

현1리의 면사무소 뒷산에 오르면 잘 꾸며진 묘와 문간이 달린 제각 한 채를 볼 수 있다. 제각으로 오르는 길목 역시 깨끗이 정돈되어 있고 기념비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고려 말 이곳에 귀양왔다 생을 마감한 박대감을 기려 만든 것이다. 박대감은 고려 말엽의 인물로서 平章事를 지냈던 분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흥천군 내면에서 기린으로 귀양을 와, 이곳에서 귀양살이 끝에 생을 마친 분이라 한다. 평장사라는 직책을 지낸 분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예부터 대감님으로 불러오고 있다. 春川 朴氏의 증시조이고 이름은 宏이라 알려져 있다. 제각으로 오르는 길목에 세

26) 『인제군사』(인제군, 1996), 953-4쪽.

워진 기념비는 이 분의 후손인 춘천 박씨 종친회에서 세운 것이고 능과 제각 역시 이들이 중수한 것이다.

현재 면사무소 뒷산에 있는 묘는 원래의 자리가 아니고 1970년대에 이장을 한 것이다. 원래 능이 있던 자리에 군단사령부가 들어서게 되자 종친회에서 예부터 제각이 있던 면사무소 뒷산 제각 옆으로 이장을 하게 되었다. 원래 묘가 있던 곳은 下馬路라 하는데, 이곳을 지날 때면 누구라도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만 했다고 한다. 말을 타고 지나면 말의 다리가 땅에 붙어 뒹굴 수 없었다 전한다. 이곳은 지금 군단사령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장을 할 때 관속에서 주걱 크기보다 큰 손가락, 대접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장을 하면서 다시 묘에 안장하였다고 한다.

제당은 문간이 달린 단간 기와집이며, 문간에는 ‘수부’(혹은 ‘수배’라고도 한다)가 있다고 한다. ‘수부’는 박대감을 수호하고 당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 당 내부에는 촛대와 돛자리 등이 있고 오른쪽 벽에는 실타래와 한지가 걸려 있다. 위패에는 ‘高麗大匡門下平章事 朴大監神位’라 적혀 있다. 얼마 전 누가 치성을 드리고 간 듯 술이 담긴 소주병이 제단에 놓여 있었다. 해마다 정월에 지내는 박대감 서낭제에서는 박대감이 사후 이곳의 수호신이 되었음을 기리고 주민들이 병나지 않게, 곡식이 잘되게 기원을 한다. 박대감 서낭의 정확한 신격이 서낭신인지 산신인지는 뚜렷하지가 않다. 서낭이라는 명칭이 있긴 하지만 마을 뒷산이 ‘박대감산’이라 불리고, 또한 박대감이 그곳에 좌정하여 산과 마을을 관장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산신과 마을 수호신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해마다 정초가 되면 예부터 그래왔던 대로 마을 어른들이 모여 책을 보고 祭日을 정한 다음, 생기복덕을 가려 도가를 선출한다. 도가는 제물을 장만하고 初獻을 올리는 이를 말한다. 부정을 타지 않고 깨끗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중에서 부부의 생년월일시가 모두 그 해의 운과 맞는 이를 고른다. 생기복덕이 맞아 도가로 선정되면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역할을 해야만

한다. 도가가 初獻官이 되고 면장, 지서주임 같은 마을의 유지가 亞獻官과 終獻官을 맡게 된다. 일단 제일이 결정되면 제당에 금줄을 친다. 박대감 서낭에는 개인적으로 근심이 있거나 축원할 일이 있는 이들이 밥과 떡 등의 간단한 음식과 술을 싸들고 와 정성을 드리곤 하는데, 제일이 잡히면 이를 금하고 원문대로 부정한 이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다.

도가에서는 온갖 정성을 다해 제물을 마련한다. 특히 제수를 마련하는 아녀지는 여러 겹으로 접은 한지로 입을 봉하고 그 끝을 비녀에 꽂고 일을 해야 했다. 행여 침이라도 튕까 거듭 조심하기 위한 것인데, 그만큼 부정을 타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다는 것이다. 이는 박대감님이 워낙 영험하시기 때문인데, 도가집에서 떡을 하기 위해 담가놓은 떡살을 쪼개 먹은 닭이 없어지는 일도 허다했다고 전한다. 祭日 새벽에 제관들이 제당에 올라가 제물을 진설하고 향을 피우고 초를 켜다. 제물은 술과 떡, 고기, 메 한 그릇, 과일 등이다. 형편이 좋을 때는 소나 돼지를 잡기도 하였다. 초헌, 아헌, 종헌의 순서로 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다. 축문은 해마다 새로 쓰는데 제를 지내고 난 후 보관하고 있던 축문은 아래와 같다.

維歲次丙子正月丙辰朔十五日庚子 獻官○○○虔告于
 土主山川守護之神 祝而奠靈 氣序流易 時惟孟春 致此誠施
 國泰民安 雨順風調 百穀豐登 百災不侵 官民和合 面內亨通
 謹以酒果 庶羞陳此 于神尚饗

축을 읽은 후에 ‘받자소지’를 올린다. 박대감께서 음식을 잘 받으셨는가를 여쭙는 소지이다. 만약 소지가 잘 오르지 않으면 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며칠 내로 다시 제물을 차려 놓고 간단히 제를 올린다. 제사가 끝나면 대감께 올린 고기와 떡, 밥의 일부를 떼어 ‘수부’가 있는 문간에 놓아두고 온다. 이것으로 수부를 대접하는 것이다. 박대감 서낭제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식사를 하지 못하고 제가 끝나야 비로소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박대감을 중

시조로 모시는 춘천 박씨 종친회에서는 햇곡이 낱 때 쫄 따로 낱을 받아 제를 올리고 있다.

창말에서는 마을 전체가 정초에 박대감 서낭제를 지내고 가을에는 ‘거릿고사’를 지낸다. ‘거릿고사’는 ‘도깨비고사’라고도 하는데 형체가 없는 도깨비를 먹이는 것이라 한다. ‘거릿고사’는 마을 입구의 사거리에 나가 돼지나 개를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로 들어오는 疫疾이나 액운을 막는다고 한다. 이 때에도 도가를 정해 제물을 마련하고 ‘거릿고사’를 지낼 주변과 도가집에 금줄을 친다.

‘거릿고사’에 대해 주민들은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 개, 돼지를 잡고 떡, 술 등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친목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 한다. 물론 친목을 도모하면서 마을의 액운을 쫓기도 하는 것이다. 이때는 축을 읽지 않고 동네 사람 모두가 모여 먹고 마시며 수확의 기쁨을 나눈다. 박대감 서낭제가 이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박대감을 기리고 위하는 것이라면, ‘거릿고사’는 마을 입구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도깨비를 풀어 먹이고 동시에 마을 사람이 모여 잔치 분위기 속에 화합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²⁷⁾

『민속지』에서는 〈朴大監祭(박대감제)〉라 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인제군 기린면 縣 2里 下馬路 인근 泰鳳에 박대감의 祭堂이 있는데, 매년 음력 10월 1일에 門中이 모여 朴大監祭享을 올린다. 혈연 위주의 행사를 갖고 있으나 박대감의 묘 앞을 지날 때는 下馬해야 한다는 설화가 있듯이 인근에서는 신격화된 인물이다.

박대감은 고려 말의 충신인 朴元宏이다. 그는, 登文科하여 門下省의 贊成事를 역임한 충신으로서 널리 알려진 春川朴氏의 시조인 朴恒의 맏아들로 태어나 여말에 최고중앙의정기관인 內史門下省의 平章事(正二品)를 지냈

27)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앞의 책, 93-5쪽.

다. 그러나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가 집권하자 이를 거부한 죄로 강원도로 축출되었다. 부인과 함께 춘천을 거쳐 기린면 현 2리 下馬路에 이르자 그는 이곳에서 여생을 보낼 것을 결심하고 밭을 일구면서 살았다. 그러다가 부부가 세상을 떠났는데 자손들이 下馬路 언덕에다가 합장하였다. 세월이 흐르자 그 묘 주위에 영월엄씨를 비롯한 많은 묘가 생겨 후손들이 대감의 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 그 무렵 현리 下德에 사는 한 長孫의 꿈에 대감이 나타나 「주변의 다른 묘를 다 옮기라」고 하여 그대로 시행하였다. 그 후 이 묘지 부근에다가 빨래를 널면 꼭 한 가지씩 없어졌는데 다음날 보면 빨래가 묘 앞에 걸려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음부터는 이 근처에 빨래를 널지 말라」는 禁忌의 글이 써 있었다. 그 뒤로 빨래를 널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앞을 지날 때는 말탄 사람이 반드시 내려서 가야 하는 풍습이 생겼다. 언젠가 현감이 대감의 묘 앞을 말타고 지나다가 말 발굽이 땅에 붙어가지 못하자 현감이 연유를 알고서 내려서 지나갔다. 다음날 현감이 下馬碑를 세우고 그 길을 下馬路라 하였다 한다.²⁸⁾

28) 『민속지』(강원도, 1989), 268쪽.

4. 기린면 서1리 3반

물안골 산신제와 양지동 서낭제



양지동 서낭당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09년 9월 2일 오전 10시

조사지: 서리 마을 정자, 서낭당, 박주국 집

제보자: 박주국(81, 남) 기린면 서1리 4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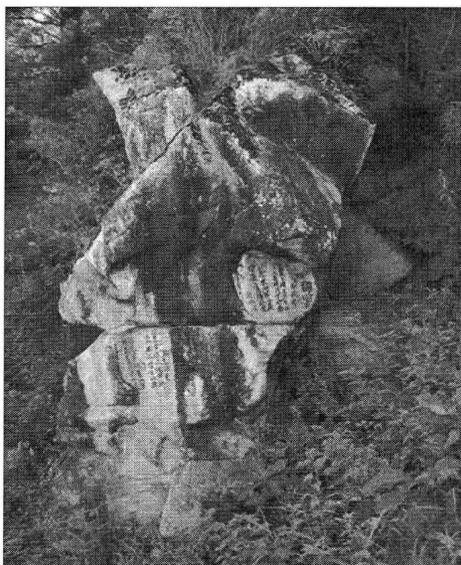
박종민(66, 남) 기린면 서1리 3반

(2) 마을유래와 개관

서리는 기린면 서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내린천을 건너가면 넓은 들판이 나오는데, 그곳이 서리이다.

이 지역은 대부분의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특히 요즘은 고랭지 채소를 많이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다.

마을을 가로 지르는 하죽천(下竹川)은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을 같이 하고 있다. 논농사의 젖줄이며, 마을제사 때 돼지를 잡는 곳이며, 여름에 더울 때 먹을 감는 곳이며, 천렵을 하며 마을사람들의 친목을 다지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서리 입석. 바위에 써진 글씨가 한시이다.

전설을 가진 내이기도 하다. 이 내(川)는 흘러서 내린천에 다다르고, 이어서 소양댐에 이른다. 양지동에는 죽천루(竹川樓)라는 정자를 지어 놓았다. 죽천루 정자에는 박주국 제보자가 써 놓은 한시가 있다. 그 한시는 아래에 입석에 있는 한시와 같다.

서리 입구에서 하죽천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오른 쪽에 바위 하나가 우뚝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바위를 일컬어 바위가 서 있다고 하여 입석(立石)이라 한다. 우리말로 하면 선바위가 된다. 이 바위 때문에 마을의 별칭이 입석동(立石洞)이라 한다고 박주국 제보자는 이야기했다. 일찍이 선바위는 어느 동네를 가나 그곳에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이 바위도 예외가 아니어서 앞개울의 움푹 들어간 장소를 풍소(豊沼)라 하는데 그에 얽힌 한시(漢詩)가 새겨져 있다. 이 한시는 엄봉섭(嚴鳳燮)과 박주국(朴柱國)이라는 분이 적어 놓은 것이었다. 글자가 지워진 것도 있고 하여 알기가 어려웠는데, 박주국 제보자가 외우고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豊豊沼 斜家花(풍풍소 사가화)〉

豊豊沼上路前斜 풍풍소 위 냇가와 앞산은 비껴있는데
 풍풍소상로전사
 立石洞門下竹家 입석동 입구엔 대나무집이 있고요
 입석동문하죽가
 騷客來向尋此景 시끌벅적 손님들이 찾으니 이 경치 좋을시고
 소객래향심차경
 明春三月待紅花 내년 삼월의 붉은 꽃이 기다려져요.(朴柱國)²⁹⁾
 명춘삼월대홍화

29) 박주국 제보자는 한시 쓰기를 좋아하였다. 다음은 農者天下之大本이라 제목한 한시다. 운자는 東風豊功窮을 하였다. 雨順風調共西東 비가 순하고 바람이 고르니 동서 양이 한가지이지/ 國泰農心熏南風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의 마음이 넉넉하려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하리/ 農村人心四海俗 농촌사람의 마음은 온 세상의 풍속이요./ 大野偉業萬邦豊 대야의 큰 업적은 모든 나라의 풍년이지요./ 農桑盛況天下本 농사와 잡업이 성함은 천하의 근본이리./ 戶口增派耕者功 인구가 늘는 것은 농부의 공이고/ 錦繡江山農者伴 금수강산도 농부와 짝하니/ 奄宅曲阜貧無窮 조그만 언덕 집에도 가난한 사람이 없구나. 靑江 朴柱國.

物外心身不染塵 세상 밖에 심신이 있으니 세사에 물들지 않고
 물외심신불염진
 一生事業本天真 평생의 사업은 본래 천성인 것을
 일생사업본천진
 靑山綠水道遙客 푸른 산 푸른 물에 노니는 객이여
 청산녹수소요객
 明月淸風主管人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의 주인이지요.(嚴鳳燮)
 명월청풍주관인

입석 밑에는 촛불을 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누군가 여기 와서 기도
 를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바위처럼 굳건히 오래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풍소는 얼마나 깊은지 명주꾸리가 하나 다 들어가도 모자랐다고 했다.

입석동 위의 마을은 오동곡(梧桐谷)이라 한다. 그 너머는 봉덕동(鳳德洞)
 이라고 한다. 그래서 봉황이라는 새가 오동나무가 아니면 자지 않으므로 이
 곳이 봉황과 관련된 마을이라고 한다. 봉황이 깃든 곳은 비결지이라 한다.
 그러므로 한국전쟁 때도 이곳의 사람들은 피해가 없었다. 제보자도 전혀 피
 해를 보지 않았다고 한다. 입석동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마을은 양지동
 (陽地洞)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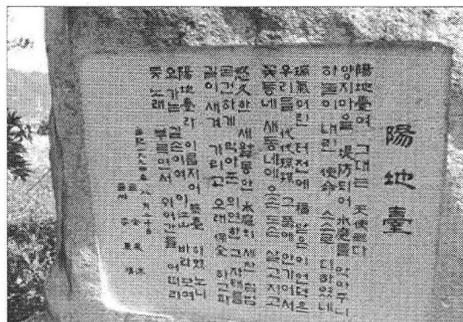
또한 이 마을 중간에 보면
 양지대(陽地臺)라는 표석이 있
 다. 제방으로 인해 수마(水魔)
 를 막은 기념으로 1994년에 세
 운 것이다. 글은 김장수(金長
 洙)가 짓고, 글씨는 이만전(金
 萬填)이 썼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지대 앞면

陽地臺

陽地臺여 그대는 天使로다
 양지마을 堤防되어 水魔를 막아주니
 하늘이 내린 使命 스스로 다하였네
 瑞氣어린 터전에 福받은 이 언덕은
 우리들 代代孫孫 그 품에 안기어서
 꽃동네 새동네에 오순도순 살고지고
 悠久한 세월동안 水魔의 세찬 침범
 굳건하게 막아준 의연한 그 자태를
 길이새겨 기리고 오래 보존 하고과
 陽地臺라 이름지어 築臺하였노니
 오가는 길손이여 이 江山 바라보며
 쿯노래 부르면서 쉬어간들 어찌리



양지대 뒷면

西紀 一九九四年 八月 二十日

인제군은 몇 번에 걸쳐 비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제방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양지마을의 이름을 따서 양지대라고 명명하여 기념한 것이다. 양지대의 글귀처럼 수만 년 동안 마을에 수마가 없기를 기원한다.³⁰⁾

답사일행이 서낭당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무덤이 몇 개 있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무덤 앞에 놓인 문인석이였다. 이 문인석은 키가 약 30cm 정도 되는 아담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의 무덤에 또 똑같은 문인석이 양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마을의 종교분포는 대부분 유교고, 간혹 가다가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

30) 인제군에서는 2006년에도 큰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때는 30명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가옥을 비롯한 다리유실 등이 많았다. 실종 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 탐침봉을 들고 강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몇날 며칠을 다녔다. 다행히 이때 전국에서 자원봉사자가 내방해서 흩더미에 덮인 집과 무너진 농토는 빨리 복구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인제에서는 그해 10월 10일에 합동위령제를 지냈다. 방효정, “수해의 이름과 합동위령제”, 『인제문화』21집(인제문화원, 2006), 80-87쪽.

도 있다. 결혼식 할 때 가보면 알 수 있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는데, 단양에 있는 구인사까지 가기도 한다. 그 분은 불교에 다니지만 향교에 가서 석전제를 같이 본다.

서리에는 몇 군데서 마을제사를 지내거나 과거에 지냈었다. 음지동은 서낭당이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제를 지내고 있고, 양지동은 큰 마을인데 산신당과 서낭당제사를 같이 지낸다. 보통 각 반별로 따로 지내는데, 그 중



서리 서낭당 아래에 있는 망부석

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3반 마을제사이다. 현재 5반은 몇 해째 지내지 않는다. 4반 서낭당은 한 3km 정도로 거리가 멀다. 그런데 현재 노약자들만 있어서 4반은 지내지 않는다. 당집은 현재 있다.

2) 마을제사의 내용

필자가 서리에 간 것은 2009년 9월 2일이다. 이날은 서리의 마을제사와 김부대왕제를 조사하려고 했다. 그래서 먼저 서리부터 가기로 했다. 문화원의 백창현 사무국장도 동행을 했다. 아침에 일찍 가고자 했으나 10시경으로 박주국 제보자와 약속을 한 터라 시간에 맞춰 서리에 도착했다. 3반을 지나 박주국 제보자 댁으로 들어서는데 입석에 한시가 적혀있어서 차를 세워놓고 관찰을 했다. 이 바위 때문에 이 마을을 입석동(立石洞)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입석동을 가로지르는 내는 하죽천(下竹川)이라고 했다.

박주국 제보자의 댁에 가서 옥수수 대접까지 받으면서 조사를 했다. 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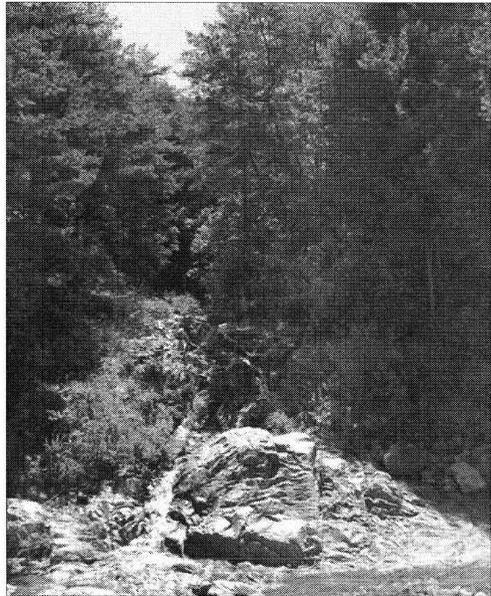
감제사와 서리의 산신제와 서낭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었다.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거실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물었다. 그리고 축문을 받으러 나중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배웅을 받으면서 돌아왔다.

오다가 3반에 들렀다.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3반 정자부근에서 박종민 제보자를 만났다. 박종민 제보자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배가 고프데도 불구하고 성심껏 대답을 해주었다. 그리고 서낭당까지 직접 안내를 해서 설명까지 해 주었다. 아울러 축문을 반장한테서 구해서 찾아가라고 전화까지 하였다.

두 분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양지동 마을제사는 산신당과 서낭당 두 곳에서 지낸다. 그 중에 산신당은 입석동 입구에서 하죽천을 건너 산으로 올라가 있다. 그 계곡을 물안골이라 한다. 산으로 난 계곡을 따라 오르다 보면 계곡 오른쪽에 산신당이 보인다. 산신당까지의 거리는 2km가 훨씬 넘는다. 그래서 한참(1시간 이상)을 걸어 올라가야만 산신당에 이를 수 있다. 이 당집은 처음에는 자연석에 의지해서 있었으나, 나중에는 짚으로 이엉을 해서 지붕을 해 이었다가, 지금은 나무로 기



물안골 산제당 오르는 길

등과 벽을 하고 슬레이트로 지붕을 해 덮어 비가 맞지 않게 하였다. 당 안에는 산신이라는 지위가 있다. 산신당을 찾기가 아는 사람이 아니면 어렵다. 숲이 우거차고 길이 멀고 외떨기 때문에 가서 찾기가 어렵다. 거기 가면 멧돼지도 있다고 한다.

산제당의 내부에는 “山川地神之位(산천지신지위)”라고 쓴 위패가 있고, 예단이 걸려 있다. 화상은 없다. 신령님은 한 명인데, 여신(女神)이라고 한다. 옛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여신이라고 했다. 여신의 실체는 알 수 없다.

산제당 옆에는 흐르는 물이 있어서 우물은 그것으로 쓴다. 메를 지을 때도 그곳의 우물을 쓴다. 풀이 깊으므로 물은 아주 깨끗하다. 당이 물과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다.(박주국)

제당은 고목나무이다. 원래 고목나무인데, 그 밑에다 슬레이트로 지붕을 하고, 그 안에 옹기로 작게 말을 빗어서 놓았다. 신은 여신이라고 한다. 그 여신의 이름은 알지 못한다. 여기서는 지당이라고 한다. 물안골에 있으므로 물안골 지당이라고 한다.(박종민)

서낭당은 양지동 마을 뒷산에 위치하고 있다. 산 이름은 특별한 것이 없고, 그냥 마을 이름을 따서 양짓말 산이라고 한다. 마을에서 부지런히 걸어 약 15분가량 걸어 올라가면 서낭당을 만날 수 있다. 처음 가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여름에는 풀이 우거차서 길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서리 3반 양지동 서낭당. 박종민 제보자와 문화원 백창현 국장

서낭당의 형태는 나무로 기둥과 골격을 만들고 슬레이트로 지붕과 벽면을 만들었다. 크기는 보통 사람의 키보다 약간 작다. 뒤에는 신수(神樹)로 소나무가 서 있다. 이를 당목이라 한다.

서낭당 내부는 땅으로부터 약 30cm 위에 나무판을 깔고 그 위에 “城隍神位(성황신위)”이라고 쓴 위패가 있다. 이 위패는 박종민 제보자의 조부께서 쓴 것이다. 조부께서 1960년대에 돌아가셨으므로 위패를 쓴 것은 아주 오래 됐다. 위패는 나무로 만들었다. 그 옆에는 촛대와 양초와 향 등이 놓여 있다. 그리고 위패 높이 보다 조금 높은 곳에 막대기를 가로질러 예단을 걸어 놓았다. 이 예단은 한지와 실을 거는데 해마다 바뀌어서 건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사를 지내고 다음에 제사를 지내려고 가보면 예단이 없어진다. 창호지는 바람에 날아갈 수 있지만, 실은 매어 두는데 없어진다. 누가 가져가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서낭당 안에는 산제당처럼 말(馬)이 없다.

옛날에 제보자가 어렸을 때 보니 서낭당 옆 나무에 학(鶴)이 집을 짓고 살았다. 학이 있을 때는 이 동네가 아주 잘 되었다. 그런데 우연히 학은 어디



양지마을 서낭당 내부

로 갔다. 학이 날아가고는 옛날보다 못하다.

서낭당은 옛날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1966년 김신조라고 북한의 대형 간첩단이 청와대를 습격하고자 나온 적이 있다. 그때 그 서낭당을 없앴다. 없앤 원인은 간첩들이 은거하는 장소가 된다고 해서이다. 없애고 나서 그 이듬 해 동네에서 젊은 청년들이 사고가 나면서 죽었다. 오토바이 사고, 전기사고 등이 잇따라 일어났다. 서낭당을 철거할 때 면사무소에서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서낭당을 철거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복원을 해서 우리가 제사를 모시던 것을 다시 모시겠다고 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서낭당을 다시 짓고 제사를 드렸다. 그랬더니 마을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다. 이것을 미신이니 뭐니 어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후부터는 동네가 아주 안일하게 지낼 수 있었다.

서낭신은 여신인지 남신인지 잘 모른다.(박종민)

(2) 마을제사의 준비

① 제의 날짜와 시간

제사는 일 년에 두 번을 지낸다. 정월과 7월에 날을 받아서 지낸다. 시간은 아침에 일찍 한다. 날 새자마자 올라간다. 제관들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늦게 나온다.

음지동은 옛날에 양지동과 같은 때 지내다가 이제는 2월과 8월에 지낸다.(박주국)

옛날에는 정월과 칠월에 지내는데 날을 받는다. 날을 받는 것은 산신령님이 하강하는 길일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칠월에 지내던 제사는 이제 없었다. 그래서 정월에만 날을 받아서 지낸다. 날을 받는 사람은 예전에 박주명 씨 조부님이 계셨을 때는 그 분이 하셨다. 그런데 그 분이 돌아가시고 부터는 다른 동네에 가서 받아온다. 서2리 하리촌에 최지만 씨라고 있다.

그분이 날을 잘 받으므로 그 분한테 가서 날을 받는다. 정월 초에 지내야 하는데, 정월초순에 날이 나지 않으면 중순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택일은 정월 초닷새 전에 가서 날을 받는다.

시간은 오전 10시경 된다. 제당까지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빨리 가면 3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

서낭당 제사는 지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와서 바로 점심 때 쭈메 지낸다.

제사가 다 끝나면 결산을 한다.(박종민)

② 제관과 도가선정

제관을 뽑을 때는 생기에 맞는 사람으로 한다. 생기복덕은 복덕생기 천의가 맞아야 한다. 이것은 천기내용과 책력을 봐서 선정한다. 일진도 황도길신이 드는 날이어야 한다. 황도는 청룡황도 명상황도 대덕황도 등이고, 흑도는 쓰지 않는다. 길신은 월덕합 천덕합 복덕합 등을 보고 선정한다. 흉신은 하괘니 천적이니 이런 날은 도둑을 맞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그래서 일진도 맞아야 한다. 아예 3헌관과 축관을 빼고는 산제당에 올라가지 않는다.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집에 놀러 오신 분이 학자이고 해서 지신제 날을 받아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분이 책을 보고 받아야 하는데, 그냥 손을 꼽아 받았다. 그런데 잘못 짚어서 그만 천적이 든 날을 받았다. 그래서 도적을 맞았다. 도적이 들어서 쌀 30말을 광에서 퍼갔다.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께서 엿을 골려고 나무를 하고 곤히 잠든 틈을 타서 새벽녘에 도적이 든 것이다. 날을 잘못 받아서 도적이 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도적을 잡으려고 쫓았는데 잡지 못했다.

도가는 주로 한 사람이 맡아서 한다. 제관은 하지 않지만 도가는 송침을 한다.(박주국)

제관은 생기가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날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동네 개발위원하고 반장하고 제관이 된다. 제관은 3명인데, 개발위원이 3명이다. 그리고 반장은 집사를 본다. 축관은 따로 있다.

도가집은 따로 선정한다. 도가를 선정할 때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생기가 맞아야 한다. 도가는 제물을 만드는 집이다.(박종민)

③ 제비와 제물

제비는 마을에서 거두는 것은 없다. 마을에 기금이 있어서 충당을 한다. 옛날에는 거두었는데, 지금은 마을기금으로 한다.(박종민)

제물 준비 가운데 돼지는 입석 앞의 풍풍소 부근에서 잡는다. 돼지를 선정할 때는 양돈장에 가서 직접 골라서 사 가지고 온다. 주로 암돼지를 쓴다. 여기서 돼지머리하고 간하고 콩팥 등을 들고 산제당으로 올라간다. 산제당이 너무 멀어서 통돼지를 가져가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통돼지를 지고 올라갔다. 산제당으로 올라갈 때는 제관 3명만 올라간다. 나머지 돼지는 같이 나눠 먹는다. 그리고 제주와 돛자리, 소지 등을 가지고 올라간다. 메는 거기 가서 지어 올린다. 메 양은 새옹메에다 하므로 옛날처럼 서 되서 흠을 하지는 않고, 약 한 되 정도 한다. 북어는 돼지를 올리므로 따로 하지 않는다. 떡도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은 하지 않는다.

술은 도가집에서 담갔다가 제사 당일엔 걸러서 가져갔다. 제당이 워낙 멀기 때문에 술을 제당 앞에 해서 묻을 수는 없었다.(박주국)

제물은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쓴다. 풍풍소 위에 잣나무 밑에서 잡는다. 돼지를 잡는 시간은 아침 6시경에 시작한다.

서낭당에서 쓰는 제물은 지당에서 제물로 쓰기 전에 따로 하나 남겨둔다. 여기는 머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육적이라고 해서 접시에 담아서 올린다. 술은 감주를 올린다. 옛날부터 감주를 올렸다. 산신당에도 감주를 올린다. 술을 만드는 것은 도가집에서 한다.

제물로 떡은 하지 않는다. 도가집에서 하는 것은 나물이라 해서 무나물을

하고, 포하고, 소지 준비를 한다. 메는 산에 가서 짓는다. 서낭당의 메는 도가집에서 지어 가져간다. 메를 지을 때는 뚜껑을 열지 않고 지어야 한다. 물이 끓어 넘치면 행주에다가 물을 적셔서 뚜껑 위를 닦는다. 산에 가서는 나무를 주워서 화덕에 솔을 걸고 메를 짓는다. 메가 다 되면 새옹메를 그대로 제단에 올린다. 그리고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쫓는다. 젓가락은 나물에 올린다.(박종민)

④ 제수준비

쌀은 따로 거두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박주국)

⑤ 금기방법

도가는 제사가 시작하기 며칠 전에 송침을 한다. 도가는 그밖에도 여러 가지를 금한다. 산신당을 물안골 골짜기 멀리 둔 것은 개짓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제를 지내야 된다고 해서 그랬다.(박주국)

도가집으로 선정되면 소나무 보데기를 세 개 찍어다가 처마에 꽂아 둔다. 꽃을 때가 없으면 끈을 양쪽으로 매서 걸어둔다. 새끼줄은 치지 않는다. 송침은 날을 받고 3~5일 전에 한다. 이는 부정한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다. 만약에 본의 아니게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도가를 선정하게 된다.

메를 지을 때는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넘치면 뚜껑 위에 행주를 적셔서 닦는다.(박종민)

(3) 마을제사의 진행

① 제의절차

제당의 청소는 하루 전에 가서 하는데 도가를 맡은 사람이 보통 한다.

제기는 따로 마련하기도 하지만, 도가집에서 마련한다. 옛날에는 제기를 잘 닦는다고 기와를 깨어 가루를 내어 제기를 닦았다. 왜냐면 유기그릇을 쓰기 때문이다. 유기그릇은 잘 닦아야 윤이 난다.

제사를 지내는 날은 아침에 일찍 풍풍소에 가서 돼지를 한 마리 잡는다. 돼지를 잡아서 머리를 자르고 간과 콩팥을 들고, 과일, 메, 소지 등을 지고 제관과 축관이 산제당으로 올라간다.

소지는 마을 공동의 안녕을 빌고 삼헌관이 소지를 올리고 세대주별로 다 올린다. 그리고 가축도 잘 되게 해달라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축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소지는 〇〇〇의 소지입니다. 소지 일 장에 감응하시고 일 년 365일 신수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산신님께서 살피주시기를 빕니다. 미련한 인간은 초지 한 장도 내다보지 못하오니 굽어 살피셔서 내내 태평을 비읍니다. 상 부상천하읍소서.

예전에는 산에 가서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박주국)

서낭당 제사는 지당에서 지내고 와서 따로 준비해 둔 육적을 접시에 올려서 제사를 지낸다.

지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먼저 진설을 한다. 그리고 분향재배, 젓가락 순가락을 꽂고, 절을 하고, 축문을 고하고 다시 재배를 하고 끝난다. 단 술잔은 단잔으로 끝난다.

제사가 끝나면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릴 때는 현재 3반이 34가구인데 34가구 모두 들추면서 한다. 그냥 일 년 동안 병도 없이 잘 지내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야 한다. 농사를 지으면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 축원축수를 하고, 공무원이면 공무원에 대

해서 축원을 하고, 운수사업을 한다든가 상업을 한다든가 하면 그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서 소지를 올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이라 하는데 소지를 올릴 때는 옛날부터 전해오듯이 해동조선국이라 한다. 그래서 “해동조선국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양지마을 오늘 길일을 택하여 산신령님께 오늘 제사를 올립니다. 이 소지는 ○○○소지입니다. …”라는 식으로 한다.

고수레라는 것은 없다. 다만 제사가 끝나면 제단에다가 한지를 깔고 밥 세 숟가락, 무나물 세 개를 두고 철수한다. 돼지고기며 다른 것은 한지에 남겨두지 않는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누가 먹는지 다 없어진다.

나머지 제물은 다 가져 온다. 원래 고수레가 아니라, 고시네라고 강조하였다.

음복은 감주로 한다.

제사그릇은 도가집에서 가져간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식을 하는 그릇은 동네에서 따로 마련한 것이 있다. 술이고 뭐고 창고에 다 보관해 뒀다가 쓴다. 그런데 거기 가서 지내는 것만큼은 도가집에서 정성을 드려서 가져간다.

제사가 끝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풍풍소에서 모여 회식을 한다. 그런데 반드시 지당에서 제관들이 내려와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절대로 먼저 먹지는 않는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가 제관이 내려오면 음식을 먹는다. 제관이 지당에서 내려오면 풍풍소에서 점심을 먹는다.

그러나 제관들은 점심을 먹지 않고 바로 서낭당에 가서 서낭제를 지낸다. 산제사 지내는 제관이 서낭제를 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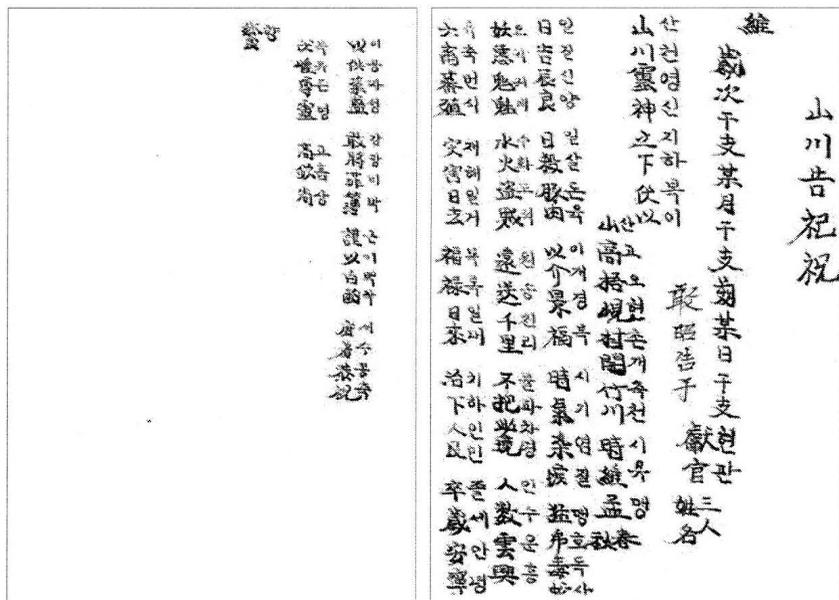
서낭제를 지내고 고수레를 할 때도 산신제 지내는 것과 같다. 곧, 한지를 깔고 그 위에 메와 무나물을 세 번씩 떠서 놓는다. 그러면 역시 나중에 와보면 감쪽같이 없어진다.(박종민)

② 축문

축문은 마을 반장 댁에서 보관을 한다. 필자는 9월 2일에 반장이 출타중 이라서 축문을 볼 수 없었다. 반장은 여반장이라 했다. 그래서 박종민 제보 자에게 부탁을 하고 돌아왔다. 며칠 후 박종민 제보자가 전화를 주어 축문 을 구해 놓았으니 찾아가라고 했다. 그 후 바쁜 일정 때문에 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9년 12월 2일에 백창현 사무국장이 서리를 방문하여 축문을 가져왔다.

아래에 축문의 원문과 번역문을 실는다.

『祝文』



양지동 산신제 축문2

양지동 산신제축문1

〈山川告祀祝(산천고사축)〉

維

유

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 獻官 三人 姓名
세차간지모월간지삭모일간지 헌관 삼인 성명

敢昭告于

감소고우

山川靈神之下伏以 山高梧峴村開竹川 時維孟春 秋
산천영신지하복이 산고오현촌개죽천 시유맹춘 추
日吉辰良 日殺豚肉 以介景福 時氣染疾 猛虎毒蛇
일길신양 일살돈육 이개경복 시기염질 맹호독사
妖惡鬼魅 水火盜賊 遠送千里 不把此境 人數雲興
요악귀매 수화도적 원송천리 불파차경 인수운흥
六畜繁殖 災害日去 福祿日來 治下人民 卒歲安寧
육축번식 재해일거 복록일래 치하인민 졸세안녕
以供粢盛 葷將菲薄 謹以白酌 庶羞恭祝 伏惟尊靈
이공자성 추장비박 근이백작 서수공축 복유존영
高歆尙

고흠상

饗

향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산천고사축〉

해가 바뀌어 모년 모월 모일에 헌관 누구 누구 누구는
감히 신령님께 고합니다.

산천영신의 아래에 엎드려 빕니다.

산 높은 오현과 마을을 여는 죽천에 때는 바야흐로 맹춘 맹추입니다.

길한 날과 좋은 때를 맞이하여 아침에 돼지를 잡아 올리니 아주 큰 복을 주십시오

오. 요즘 날씨는 질병에 걸리기 쉽고, 사나운 호랑이와 독을 품은 뱀이 득실거리고, 요사스럽고 악한 귀신과 도깨비가 창궐하며, 수해와 화재와 도적들이 많사오니 멀리 천리 밖으로 보내주셔서 이곳에서는 잡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인구가 구름처럼 일어나고, 온갖 집짐승이 번식하게 하시고, 재해는 그날로 제거하고 복록은 그날로 들게 하십시오. 아래의 인민들을 잘 다스려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에 공손히 기장을 담아 올리고 거친 나물과 적어서 변변치 못한 음식이나마 올리며 삼가 맑은 술로써 여러 가지를 차려 올리고 공손히 비나이다. 엎드려 오직 높은 신령님께 비오니 아주 기쁘게 차린 음식을 흠향하시기를 바랍니다.神明께서는 제물을 받으십시오.

〈城隍祭祝(성황제축)〉

維

유

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 獻官 三人 姓名

세차간지모월간지삭모일간지 헌관 삼인 성명

敢昭告于

감소고우

城隍之神 伏惟天壤之間 山爲最高 人物之內

성황지신 복유천양지간 산위최고 인물지내

神爲最靈 既庇德於 一境可以 堂以祀之 日吉辰良

신위최영 기비덕어 일경가이 당이사지 일길신양

酌清羞珍 神其來格 保佑闔境 逐災來神 口舌不作

작청수진 신기내격 보우합경 축재내신 구설부작

官災不興 三農是宜 六畜滋盛 一夫一婦 皆賴神休

관재불흥 삼농시의 육축자성 일부일부 개뢰신휴

謹以白酌 明薦于神尙

근이백작 명천우신상

饗

향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성황제축〉

해가 바뀌어 모년 모월 모일이 되었습니다. 현관 누구 누구 누구는
감히 신령님께 고합니다.

성황신령님께 엎드려 비나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산이 최고이며 인물로는 신령님이 가장 영험하십니다. 이미 신령님의 은덕에 힘입어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에서 신령님께 제사를 올립니다. 길한 날과 좋은 때를 맞이하여 맑은 술과 보배로운 제물을 바칩니다. 신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온 마을을 보우하시고, 재난을 쫓고자 신께서 오시고, 구설이 생기지 않으며, 관재도 일어나지 않고, 삼농(三農)을 바르고 마땅하게 하시고, 모든 짐짐승이 번성하게 하시고, 한 지아비에 한 부인이 있게 하심은 모두 신령님의 뛰어난 위력에 힘입은 바입니다. 삼가 맑은 술과 깨끗한 제물을 신령님께 올립니다. 신께서는 제물을 받으십시오.

축문은 한문으로 썼는데 한글로 음을 달았다. 축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긴 편이다. 아울러 현관 3인의 이름을 모두 거론한다.

참고로 4반은 처음 3반과 함께 지내다가 나뉘지내게 되었다. 그때 사용한 축문은 3반과 다르다. 이에 4반에서 쓰던 축문의 내용을 병기한다. 이 축문은 4반의 박주국 제보자가 제보한 것이다. 이는 입석동 산천제다. 이날 박주국 제보자를 방문하여 기우제 축문을 받고자 갔다. 집에 돌아와 있는데, 또 전화를 주어 4반 산천제 축문을 알려 주었다.

〈山川祭祀〉

維

유

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³¹⁾ 獻官○○○

세차간지모월간지삭모일간지 현관○○○

敢昭告于

감소고우

31) 전화로 축문을 받아 적었는데, 간지는 필자가 쓰지 않았다.

山川之神 時維孟春 歲功云始 以精禋祀 以介景福
 산천지신 시유맹춘 세공운시 이정인사 이개경복
 伏願 癘疫不入 猛獸不犯 盜賊不侵
 복원 여역불입 맹수불범 도적불침
 五穀豐登 六畜繁盛 一夫一婦 皆賴神休
 오곡풍등 육축번성 일부일부 개뢰신희
 謹以白酌 粢盛 明薦于神尚
 근이백작 자성 명천우신상
 饗
 향

〈산천제축〉

해가 바뀌어 모년 모월 모일이 되었습니다. 헌관 ○○○는
 삼가 산천신령님께 고합니다.

산천신령님 때는 바야흐로 봄입니다. 해마다 해야 할 일을 비로소 합니다. 정성
 으로 제사를 올리니 아주 큰 복을 주십시오.

엎드려 원합니다. 나쁜 질병은 들지 않게 하시고, 맹수도 범접치 않게 하시고, 도
 적도 침범치 않게 하시고, 오곡은 고루 잘 되고, 가축은 번성케 하십시오. 한 지아비
 에 한 부인이 있게 하심은 모두 신령님의 뛰어난 위력에 힘입은 바입니다. 삼가 맑
 은 술과 풍성하고 깨끗한 제물을 신령님께 올립니다. 신께서는 제물을 받으십시오.

(4) 영험담

제사를 지내고 나면 동네에 혼사가 생기고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산신 덕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산신당에서 특별히 뭐가 영험하다는 얘기
 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저 마을의 안녕을 빌 뿐이다. (박주국)

〈서낭당 없었다가 사고 난 사연〉

옛날에 제보자가 어렸을 때 보니 서낭당 옆 나무에 학이 집을 짓고 살았
 다. 학이 있을 때는 이 동네가 아주 잘 되었다. 그런데 우연히 학은 어디로

왔다. 학이 날아가고는 옛날보다 못하다.

1966년 김신조라고 북한의 대형 간첩단이 청와대를 습격하고자 나온 적이 있다. 그때 그 서낭당을 없앴다. 없앤 원인은 간첩들이 은거하는 장소가 된다고 해서이다. 없애고 나서 그 이듬 해 동네에서 젊은 청년들이 사고가 나면서 죽었다. 오토바이 사고, 전기사고 등이 잇따라 일어났다. 서낭당을 철거할 때 면사무소에서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서낭당을 철거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복원을 해서 우리가 제사를 모시던 것을 다시 모시겠다고 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서낭당을 다시 짓고 제사를 드렸다. 그랬더니 마을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다. 이것을 미신이니 뭐니 어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후부터는 동네가 아주 안일하게 지낼 수 있었다. (박종민)

〈제사 지내고 산삼 캔 이야기〉

1964년 7월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일이다.

그때는 7월에도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세 분이 산삼을 캐어요. 거기서. 산삼을 세 분이 캐는데, 한 분은 지금 작고하고 없는데. 그 분이 4뿌리 5뿌리 캐고, 한 분이 3뿌리 캐어요. 그것도 제관만. 제관만 산삼을 캐어요. 제관만 눈에 보여 가지고 거기서 다 캔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음복하고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그 달(산삼 열매)이 없잖아요. 7월 달이면 다 빨갭게 달이 보이니까. 저거 삼이 아니냐? 지금 돌아가신 박종훈 씨라고 그분이 나이가 지긋하고 그러니까. 산삼이다 이거야. 그래서 가서 캐고 그랬어요. 그게 다 정성이 지극하니까 산신령님이 감동을 했겠지요. (박종민)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제사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다는 것을 반장이 공개

석상에서 얘기를 한다. 옛날에는 제비를 거두어서 했는데, 지금은 마을 경비로 하므로, 반장이 제물을 사는데 얼마가 들었고 얼마의 마을기금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면 끝난다.(박종민)

3) 마을제사의 특징

양지동의 마을제사는 산신제와 서낭제를 같이 지낸다. 산신당은 닭소리 들리지 않는 곳에 해야 한다고 해서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서낭제는 산신제를 지내고 내려와서 산신제처럼 제관만 가서 지낸다.

고수레가 다른 지역과 다르다. 한지에 싸서 버린다는가, 따로 밖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다가 메와 무나물만 세 군데에 떠 놓는다.

술은 감주를 올리는데 단잔으로 끝낸다. 다른 곳처럼 3잔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4) 문헌자료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제목은 〈대내마을의 산제사와 서낭제사〉라 하였다.

기린면 서리 대내 마을은 현재 서1리의 옷대내에 80여호, 서2리의 아랫대내에 40여호가 살고 있다. 일제말기에는 약 300여호가 살고 있었던 큰 마을로 인제군에서는 유일하게 작년에 경지정리가 된 넓은 들을 갖고 있다. 이 들녘을 끼고 내린천을 따라 자리 잡고 있는 옷대내에는 양지말과 고은말(谷村), 음지말의 세 마을이 있으며, 이 중 옷대내의 중심지인 양지마을에서는 지금도 산제사와 서낭제사를 지내고 있다. 산제사는 매년 정월과 7월에 날을 받아 지내며, 서낭제사는 산제사가 끝나고 나서 지낸다.

먼저 산제사의 경우 설을 쇠고 나서 날받이가 제일(祭日)과 제관 2명, 도가 1명을 정한다. 제관은 대주의 생기복덕을 가려 선정하고, 도가집은 대주와 안대주의 생기복덕을 가려 정한다. 도가집 안대주의 생기와 복덕을 가리는 까닭은 그녀가 감주를 담고 음식들을 장만하기 때문이다. 제관과 도가집으로 뽑히게 되면, 그날부터 집안 처마 군데군데에 송침(소나무가지)을 꽂아 타인의 출입을 금하며, 스스로도 부정한 일을 삼간다. 산제사에 드는 비용은 각 집의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각출(釀出)한다. 도가집에서는 이 돈으로 산제사에 필요한 돼지를 잡고 포, 감주, 쌀, 사고지 등을 준비한다. 산제사 당일 아침에 도가집과 제관들이 음식을 준비하여 산지당에 오른다. 산지당은 마을에서 약 2킬로 정도 떨어진 물안골의 큰 바위이다. 이 바위에 예단을 깔고 그 앞에 새옹메를 지어 올린다. 아울러 돼지를 비롯한 준비된 음식을 모두 진설한다. 그 다음 도가와 제관들이 감주를 올려 예배를 하고 소지를 올린다. 먼저 마을소지를 올리고 도가집, 제관, 각 집 순서로 생년월일과 이름을 대며 소지를 올린다. 소지가 잘 오르지 않은 집에서는 개별적으로 다시 날을 잡아 산제사를 올리기도 한다. 산제사가 끝날 무렵 집집마다 자신들이 먹을 밥을 준비하여 산지당 밑에 모두 모여 음복을 한다. 산신령께 올린 돼지고기는 집집마다 골고루 나누어 가진다. 7월의 산제사 역시 위와 같은 절차로 지내고 있다. 다만 7월 산제사에서는 돼지 대신 북어를 사용하고 있다.

서낭님은 마을 뒷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을 올린 자그마한 당집에 '성황지신'이라 쓰여진 위패를 모시고 있다. 일제 말기까지는 매년 9월 9일에 서낭님을 위했다고 한다. 도가집에서 메와 떡, 술 등을 준비하여 먼저 마을소지를 올리고 나서 집집이 준비해 간 떡을 바치고 순서대로 소지를 올렸다. 산제사에는 반드시 감주를 쓰고 서낭제사에는 술을 쓴다고 한다. 서낭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떡들을 한 곳에 모아 섞어, 남녀노소 전부 모여 나누어 먹었다. 원래 9월 9일에 한 번 지내던 서낭제사는 해방 후에는 산신제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즉, 정월과 7월초에 날을 잡아 산제사를 먼저

올리고 나서 곧 바로 서낭님을 위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새마을운동으로 당집이 헐리고 서낭제사가 중단되자 마을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자주 생기게 되었다. 점을 쳐본 결과 ‘서낭탈’ 때문이라 하여, 약 10년 전에 지금의 당집을 새로 짓고 서낭제사를 다시 올리게 되었다.³²⁾

³²⁾ 남금우·박신정,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한림대박물관, 1996), 92-3쪽.

5. 남면 남전1리

대마지골 산신제



남전리 대마지골 산신당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09년 9월 1일 오후 1시 30분

조사지: 제보자 댁과 산제당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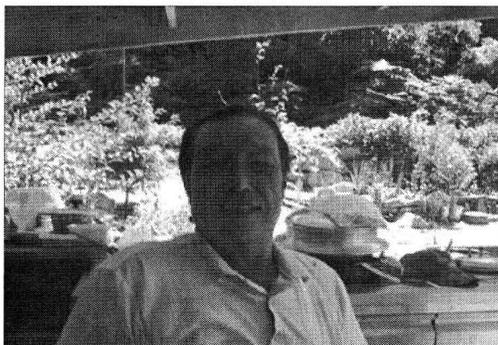
제보자: 최춘오랑(69, 남) 남전1리 1반 남밭골 또는 골말

김은준(75, 남) 남전1리 1반

(2) 마을유래와 개관

남전1리는 인제읍 방면으로 향하다가 보면 남전약수라는 표지판이 나온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오른쪽으로 옛날 다리가 있는 곳으로 가면 남전1리가 나온다.

이 지역의 명칭은 쪽 나무가 많다고 하여 붙여졌다. 그래서 쪽밭골, 남밭골, 남전동(藍田洞), 남전포(藍田浦) 등으로 불렸다. 현재 이 지역에는 쪽밭골약수터 또는 남전약수라는 약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최춘오랑(남, 69) 제보자

『인제군사』 지명유래 항목에 따르면, 쪽밭골약수터라 하고 “1969년 6월 15일 함경북도 명천 출신 이태근(李泰根)에 의하여 발견된 약수로 국도변에서 약 1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군 내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³³⁾라고 기록 돼 있다.

지금은 남전약수터라고 하는데, 이곳에 가면 오른쪽에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제단이 하나 있다. 아울러 제단 안에는 신의 화상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양초며 제기류 등이 흩어져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식당을 하는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이곳 약수터를 발견하게 된 경위와 제단에 대해서 제보를 해 주었다.

옛날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 현몽을 했다.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지금 약수가 나오는 곳을 파보라고 하였다. 파보면 귀한 물이 나올 거라고 했다. 귀한 물이 나오면 먹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와서 파보니 물이 뽀글뽀글 나오는데 붉은 색깔의 철분이 섞여 있었다. 그 물을 먹으니까 소화가 잘 되고 희한하게 좋았다. 그 길로 그곳의 물이 개발되어 다른 주인한테 몇 번에 걸쳐 넘어가고 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것이 한 5~60년 되었다. 지금까지도 사시사철 물의 양과 성분이 변하지 않고 똑 같이 나오고 있다.



남전약수터 산신당

지금 옆 제단에 모시고 있는 신은 그 당시 현몽을 했던 산신이다. 교인들이 와서 왜 저기다가 모셔놓았냐고 그러면 물 뜨러 오지 말라고 한다. 그 제단에는 여기 물 뜨러 오는 사람들이 사탕이며 술이며 담배며 사다 놓고 간다. 산신이 있는 곳에 여신이 함께 있다.

탱화에 보면 산신과 여신과 호랑이가 그려져 있다. 여기를 호랑이골이라고 한다. 이 골이 호랑이골이기 때문에 키우던 개가 일 년에 꼭 한 두 마리

33) 『인제군사』, 앞의 책, 1195쪽.

씩 죽어간다. 전하는 말이 이곳에서 짐승이 죽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간다고 한다. 그래서 개들이 죽는다. 개가 호랑이 밥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와서 여기 산신이 영험하다고 한단다. 수험생 어머니들이 수험 기간이면 항상 와서 기도를 하고 간다. 어떨 때는 열흘이고 보름이고 아침마다 와서 기도를 한다. 그래서 물으니까. 이곳 산신이 너무너무 잘 들어 준단다.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그 아이들이 언제나 대학에 합격을 하고,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한다. 그 때문에 그분들이 물 뜨러 올 때마다 사탕이며 먹을 것을 사다 놓고 간다.



여기 제보지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산제당 옆에 있는 남전리 숯 공장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곳에 가서 일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바로 일이 생긴다. 기도를 할 때는 다른 것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소주 한 병 갖다놓고 약수를 떠다 놓고 빈다. 그러면 거짓말 같이 일이 바로 생긴다.(약수터 제보자: 약수터 식당 주인(여, 50))

남전1리는 상류에서 흘러내리는 하천을 이용하여 바위가 4개 달린 수륙양용자동차를 타며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를 ‘아르고’라고 하는데 이는 수륙양용자동차를 만든 회사이름이라 한다. 이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그 경치가 아름답기가 형언할 수 없다. 계곡이 좁고 숲이 울창하며 사철 색을 달리하며 그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곳의 생산 작목은 농사와 산에서 나는 산채류가 많다. 또한 이곳에는 숯 공장이 있고, 그 안에서 찹질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 마을제사의 내용

필자가 남전1리에서 조사를 한 것은 2009년 9월 1일 오후 1시 30분이었다. 하루 전날 이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마을제사 조사를 간다고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최춘오랑 제보자를 추천해 주었다.

최춘오랑 제보자는 이름이 특이하다고 했더니, 바로 일본에서 태어나서 그랬다고 했다. 몇 번 이름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냥 가지고 가기로 했다. 일본말로 하루하루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제는 나이가 들고 하니 고치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쓰기로 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온 것은 광복 때였다고 한다. 광복이 되었으니 조상의 나라로 가자고 해서 들어왔다. 그때 온 식구가 같이 돌아왔다. 그때 나이는 6살 때였다. 한국에 들어와서 산 곳이 여기 남전리였다. 그러다가 소양댐으로 인해 물이 들어와서 한 30년 정도 외지에 나가 살다가 한 10년 전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

마을제사는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다. 반장을 하면서 몇 년간 제사를 주관해 왔다. 그래서 현재 마을제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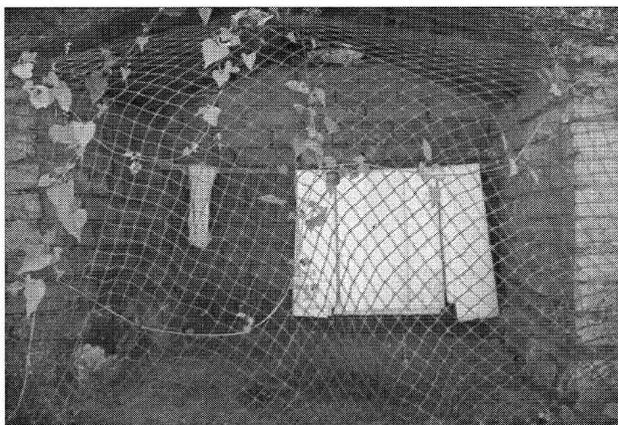
최춘오랑 제보자의 제보를 듣고, 김은준 제보자를 만나서 보충 조사를 하였다. 긴 얘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참고가 되었다.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남전1리 1반의 마을제당은 강원 참숯 공장 뒤 계곡에 위치해 있다. 이 계곡은 대마지골이라고 한다. 그래서 남전리의 산제당은 대마지골 산제당이라 부르기로 했다.

원래 이 계곡은 현재처럼 넓지 않았다. 그런데 물난리로 인해 지난해(2008년) 정비를 하면서 넓어졌다. 그 때문에 그곳에 있던 버드나무도 없어

졌고, 술을 묻어서
익혔던 장소도 없어
졌다. 이곳은 물이
깊고 좋았다. 그 물
로 돼지도 잡고 제
물을 장만했었다.
그런데 지난해 계곡
은 시멘트로 정비를
해놓았다.



남전리 대마지골 산신당 내부

산제당은 숲 공장
에서 약 10여m 뒤 계곡 건너편 산 밑에 있다. 큼직한 자연석과 신수 밑에 위
치하였다. 산제당의 크기는 가로 1.3m정도, 세로 약 90cm정도 된다. 재질은
돌단을 아래에 쌓고 그 위에 바닥은 콘크리트로 했고, 벽면은 벽돌로 양 옆과
뒷면을 쌓아올리고, 지붕은 철근을 놓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해 덮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신남에 사는 김국환이라는 사람
이 만들어 졌다. 김국환 씨는
신남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한다. 원래 이 마을 사람인지
는 몰라도 남전리를 위해서 일
을 많이 한다. 그리고 강원참
숯공장의 사장이 마을제사 때
편하게 사용하라고 물을 이용
할 수 있는 플라스틱 호스를 설
치해줬다.



남전리 산신당 옆의 술

제당 옆에는 제사 때 돼지를 끓여 먹는 무쇠 솥이 놓여 있었다. 이 솥을
제사 때는 잘 씻어서 돼지고기 요리를 하고, 두었다가 다시 쓴다.

옛날에는 현재처럼 제당을 시멘트로 해 놓지 않고 돌로 단을 쌓아 놓았었다. 지붕은 슬레이트로 했었고, 주위와 제단에는 돌을 쌓아서 산제당임을 표시했다.

신수는 옛날에 버드나무가 큰 것이 있었는데, 수해로 인해 떠내려갔다. 그래서 지금은 버드나무는 없고, 느릅나무가 있다.

제당 안에는 한지로 된 예단이 걸쳐 있고 실도 한 타래 걸려 있다. 그리고 제단 앞에는 푸른 색 그물을 쳐 놓았다. 다음 제사를 지낼 때는 예단을 모두 걸어서 태우고 새로 건다. 예단을 거는 의미는 잘 모르고, 옛날부터 어른들이 해 왔으므로 따라 하는 것뿐이다. 예단은 신이 5명이므로 5개를 건다.

현재 마을에서 모시는 신은 여신(女神)이다. 5명의 여신을 모시고 있다. 신의 명칭은 누구인지 모른다.

남전1리에는 동아실마을제사도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졌다. 없어진지는 오래 됐다. 그리고 비행기골에서도 마을제사를 지냈는데 소양댐 건설로 수몰 돼서 없어졌다. 그래서 1반의 대마지골만 마을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장이 마을 전체를 합쳐서 남전1리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제사를 만들고자 추진 중이라고 한다.

(2) 마을제사의 준비

① 제의 날짜와 시간

남전리 산신제는 3월 3일과 9월 9일 두 번 지낸다. 시간은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지낸다. 준비는 아침 8시 경부터 시작해서 11시에 제사를 지내고, 제사가 끝나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회식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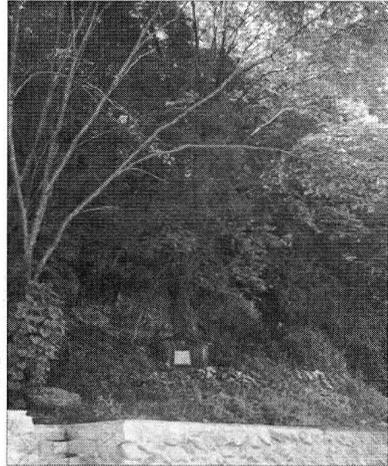
옛날에는 아침 새벽부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돼지를 손질하고 술도 거르고 하며 준비를 해서 역시 11시 경에 제사를 지냈다.

② 제관과 도가선정

제관은 반장이 한다. 옛날에는 동네 어른인 심기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귀 먹고 거동이 불편해서 하지 않는다. 그래서 1반 반장이 제관을 맡아서 한다. 이장은 동네 공동제사를 만들고 자 추진하고 있어서 바뀔 것이다.

도가는 따로 선정하지 않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제물을 마련한다. 제물을 사고 준비하는 것은 반장이 한다. 그러므로 실제 도가는 반장이다.

옛날에는 제관과 도가를 생기를 봐서 선정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보는 사람이 없어서 따로 선정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부정하지 않은 사람을 선정했다.



남전리 산제당 전경

③ 제비와 제물

제비는 반 돈으로 한다. 그리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1,2만원씩 내놓으면 다시 반 돈이 된다. 원래 반 돈은 얼마씩 거두어서 마련했다. 왜냐면 행사가 있을 때 써야 하는데 쓸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자꾸 늘어나서 현재는 마을제사와 같은 행사를 할 때 반 돈을 쓴다.

제물을 만드는 사람은 동네 부인회에서 아주머니들이 모여 한다. 준비과정은 모두 반장이 한다.

옛날에는 제당 앞에서 살아있는 돼지를 가져가서 잡아서 제물로 썼다. 제물로 올릴 때는 통돼지를 그냥 올렸다. 그런데 김은준 제보자는 제상에 올리는 것은 돼지머리만 했다고 한다. 제사를 지내고 머리는 잘라서 그 자리

에서 삶아 먹었다. 간과 같은 내장도 함께 끓여 먹었다. 그리고 제물로 쓰고 끓여 먹은 후 남는 것은 모두 나누어 가져갔다. 짬으로 각자 묶어서 집으로 가져갔다. 현재는 돼지머리만 가져가서 쓴다.

막걸리도 제당 앞에 단지에 묻어서 익혀서 썼다. 술을 이곳에 묻을 때는 3일 전에 했다.

제물로 편(떡)은 올리지 않는다. 편을 지난 가을에 올려봤더니 제단이 좁아서 올릴 수가 없었다. 원래부터 떡은 하지 않았다. 현재 제물로 올리는 것은 과일 세 가지, 포(통복어) 5마리, 메 1개에 수저 5개를 꽂고, 돼지머리 1개, 정화수 한 그릇을 올린다. 그리고 예단을 창호지로 해서 다섯 벌 올린다. 향을 피우고, 양초를 두 개 놓는다.

메는 제단 아래에 있는 개울에서 짓는다. 메를 지을 때 사용하는 물은 사방댐에 박혀있는 플라스틱 호스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사용한다. 불은 가스렌지를 가져가서 사용한다. 짓는 용기는 새옹을 사용한다. 메를 지을 때 절대로 잡담을 하거나 뚜껑을 열어봐서는 안 된다.

현재 술은 소주를 쓴다. 소주를 쓰기 전에는 막걸리를 담가서 썼고, 그리고 정종을 쓰기도 했다. 옛날에 막걸리를 담글 때는 제당 앞에서 누룩을 넣어 버물려 항아리를 문었다. 정종을 쓰다가 소주를 쓴 것은 3년 되었다. 소주로 바꾼 원인은 동네에서 술 먹는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신님들도 소주를 드실 것이라 해서 바꾸었다.

제기는 옛날에 따로 마련해서 보관했다. 제사를 지낼 때만 쓰고 잘 씻어서 회관에 보관한다.

④ 제수준비

메 쌀은 시장에서 따로 사서 썼다.

⑤ 금기방법

제사 지내기 3일 전에 제당에 가서 청소를 하고 금줄을 띄운다. 지금 금줄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론 줄로 만들어진 것을 앞에 가린다. 필자가 현장에 가서 보니 나이론으로 엮은 그물이 있었다. 이것이 금줄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본다. 아예 그물로 앞을 막아 놓았다.

옛날에는 금줄을 치거나 송침을 하지 않고 제관이 3일 전에 가서 황토를 갖다가 놓았다. 황토를 뿌리면 사람들이 가지 않았다. 뿌리는 방법은 제당 입구 길목 양쪽에 황토를 한 주먹 정도 놓아두었다.

제물을 만들 때 잡담은 일절 금한다. 메를 지을 때 뚜껑을 열어본다든가 하는 행위는 금한다. 제사지내기 전에는 죽 밥이든 고두밥이든 열지 않는다. 아울러 몸이 부정한 여자도 제물을 만들 때 참가하지 못한다.(최춘오랑)

옛날에는 마을제사를 지낼 때 도가로 선정되면 금줄을 쳤다. 금줄은 왼새끼에 한지와 송침을 했다. 날을 받아 놓고도 집안에서 초상이 나면 거기에 갔던 사람은 하지 못했다. 그때는 깨끗한 사람을 다시 뽑았다.

요즘은 여자들이 하지 않고 남자들이 한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가서 제물 준비를 했는데, 부정하면 갈 수 없어서 그때는 다른 사람이 가서 준비를 했다. 제당에는 여자들이 갈 수 없었다. 다만 밑에서만 마을제사를 도울 수 있었다.

도와 제당에는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들어가지 말라고 아예 금줄을 쳤다. 그런데 요즘은 하지 않는다.

메를 지을 때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고 해서 넘치려고 하면 물수건으로 뚜껑 부분을 닦았다. 그러면 넘치지 않고 밥이 잘 된다. 밥이 되는 것은 냄 새로 알 수 있다.(김은준)

(3) 마을제사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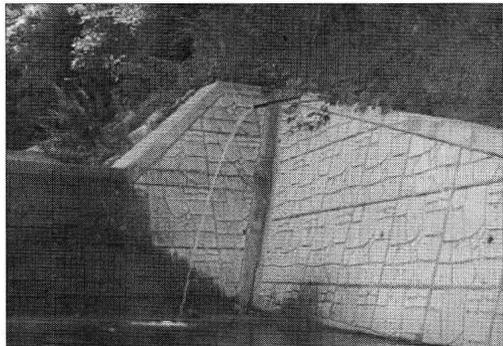
① 제의절차

청소는 제사 지내기 3일 전에 가서 한다. 청소를 맡은 사람은 제관이며 도가를 담당하고 있는 반장이다.

제사 당일에는 현장에 가서 메를 짓고, 준비해 온 제물을 제상에 차린다. 진설은 신이 여신으로 5명이기 때문에 술잔을 5개, 포 5마리, 수저 5개, 창호지 5개, 메 1개에 수저 5개, 돼지머리 1개를 올린다.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반장과 이장과 최춘오랑 제보자이다. 그래서 셋이 앉아서 제사를 지낸다.

초헌과 아헌과 종헌을 다 행한다. 이때 신이 5명이므로 술을 5잔 씩 3번을 따른다.



남전리 제사 때 쓰는 물

제관의 복장은 따로 갖추지 않고 평상복 가운데서 깨끗한 옷을 입는다. 색깔 있는 옷은 되도록 피한다. 목욕재개는 반드시 한다.

소지는 동네 세대주별로 빌면서 올린다. 올릴 때는 불을 붙여서 탈 때 축원을 한다. 축원은 해당자의 형편에 맞춰서 사설을 말한다. 현재 축원은 최제보자가 한다. 축원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설을 말한다. 가령, 그 사람이 몸이 아프면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고, 장사하는 집은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식이다.

고수레는 하지 않는다.

음복은 3번째(종헌) 마지막에 따라 놓은 술로 제관부터 시작해서 한다. 음복의 방법은 술을 마시고 사과라도 잘라서 안주를 먹는다.

제사가 끝나면 돼지머리를 술을 걸어 놓고 삶아서 동네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는다.

참가자는 보통 15~20명 정도 된다.

제관들에 의해서 제사가 끝나면 개인적으로 빌고 싶은 사람들은 절을 한다. 이때 막걸리를 들고 와서 잔을 따라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소주는 아예 한 상자를 사다 놓으므로 들고 가서 따르면 된다.

② 축문

현재 축문은 없다. 옛날에는 여기 살던 최 씨가 축문을 썼는데 그분은 홍천으로 이사를 갔다. 그 후 축문 없이 마을제사를 지낸다. 요즘은 축문 대신 소지를 올릴 때 축원을 한다. 축문이 없어지므로 해서 산신의 명칭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왜 신이 5명이며, 여신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 조사를 더 해 봐야 할 것이다.

(4) 영험담

제사를 지내고 나서 무엇이 좋더라는 것 보다 나쁜 일이 생기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평범하게 지내고 있다.

남전약수터에 있는 제단에서는 수험생들이 모두 합격을 하든가, 사업이 잘 안 될 때 기도를 하면 바로 일이 생기는 등의 영험담이 있었다. 게다가 매년 키우는 개가 한 두 마리씩 죽으며, 개가 죽지 않으면 사람이 다친다고 하였다. 또한 약수를 발견한 경위도 다른 약수터의 전설과 대동소이하나 영험담의 형태로 전승이 되고 있었다.

옛날에 양구 사람이 개인적으로 산제당에 치성을 드리고 꿈을 꾀서 대마지골에서 산삼을 캐다. 여기 사람들도 양구 사람처럼 큰 산삼은 캐지 못했지만 더러 캐다. 옛날에 보면 심마니들이 제당 근처에서 천막을 쳐 놓고 지내면서 제당에 치성을 드리고 산삼을 캐려고 머무는 것을 봤다. 심마니들끼리 따로 치성장소를 마련해 놓고 지내기도 한다.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마을 제사의 운영은 반비로 제비를 충당하고, 제사가 끝나면 반장이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제사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밝힌다.

3) 마을제사의 특징

남전리 산신제에는 남녀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막걸리 사 가지고 가서 따라 놓고 기도하고 싶으면 한다. 남녀 불문하고 절을 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할 수 있다.

신이 여신이며 5명이라고 하는데, 그 유래와 신의 명칭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원인은 축문이 전승되지 않고, 마을제사에 관여하던 노인들이 모두 세상을 떴기 때문이다.

남전리 마을제사의 특성 중 하나는 금줄에 있다. 금줄이 나이론 그물로 돼 있는 것이다. 아예 산제당 입구를 그물로 모두 가렸다. 이 그물은 제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 쳐 놓았다.

제사가 끝날 때 잡귀를 먹여 보내기 위하여 고수레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인데, 남전리에서는 고수레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전승이 끊어졌든가, 원래 전통이 그렇든가 둘 중의 하나이다.

또한 실제 마을과 많이 떨어진 곳에 제당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이했다. 현재 산제당과 마을의 거리는 약 2km 정도 될 것이다. 그것도 마을 뒷산이나 계곡이 아니고, 한길가로 나와서 있다는 것이다.

이 마을에는 대마지골 산신제가 유일한 마을제사였다. 장승, 솟대, 돌탑 등의 동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산신제는 이장이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에서 주축이 되어 지내고 있었다.

남전약수터 신앙은 동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신앙의 한

형태였다.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영험담까지 추출할 수 있으며, 호랑이 전설과 함께 새로운 신앙형태를 볼 수 있는 것이었다.

6. 남면 갑둔리

소재골 산신제와 서낭제



갑둔리 이정표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09년 9월 1일 오전 10시

조사지: 제보자의 집 거실과 산제당과 서낭당

제보자: 박유영(71, 남) 갑둔리 소치마을

박수천(80, 남) 갑둔리 소치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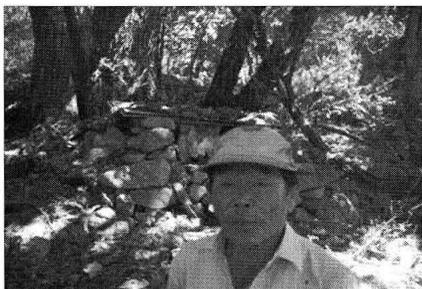
(2) 마을유래와 개관

갑둔리(甲屯里)는 임진왜란 때 군사들이 진을 쳤다하여 갑둔이라 한다는 설과 신라 말 마의태자가 태봉과 고려에 항쟁하기 위해서 군사를 훈련시킬 때 이곳에 병사들을 주둔시켰다하여 갑둔리라 부른다는 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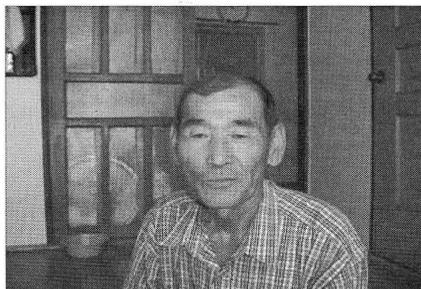
박수천 제보자는 김부대왕이 군사를 주둔시켜서 갑둔리라 한다고 제보를 했다. 곧, 김부대왕이 저기 가 있는데 군사가 같이 있으면 방해가 될까 봐 여기에 군사를 주둔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갑둔리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니 김부리에 왕이 와 있었는데 왕을 칠까 봐 군사를 주둔시켰다는 것이다.

이곳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소치리(所峙里)와 김부리(金富里) 일부를 병합하여 갑둔리라 명했다. 현재 원갑둔에는 육군과학화훈련단의 훈련장이 있어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 그래서 소치리라 일컫던 곳에만 사람들이 살며 갑둔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갑둔리 일대는 마의태자(김부대왕)와 깊은 인연을 맺은 고장이다. 역사적 진실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김부대왕이 마의태자를 일컫던 것임을 굳게 믿고 있다. 김부대왕(金富大王)이라는 칭호도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부르던 것이라고 한다.



갑둔리 박수천 제보자



갑둔리 박유영 제보자

이와 관련하여 이곳에서는 김부(金富)라는 명문이 새겨진 탑이 발견 되었다. 그것이 마의태자를 일컫는 것인지, 부자마을을 일컫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김부탑(金富塔)에는 분명히 김부(金富)라는 명문(銘文)이 있다.³⁴⁾

『인제군사』에는 김부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되어있다.

갑둔리에는 2개의 고풍스런 탑이 있는데 이 탑들은 탑둔지(혹은 탑골)에서 발견되었으며 특히 1987년 5월 5일 갑둔국교 교사로 재직하던 이태두(李泰斗)에 의하여 발굴된 탑은 오미자농장 정운희(鄭雲喜) 사장의 성금 지원으로 같은 해 10월 21일 복원되었다.

이 탑 기단부의 면석(面石)에는 해서체의 글씨가 음각되어 있는데 4행 34자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菩薩戒弟子仇上主 金富壽命長存家 五層石塔成永充供 養太平十六年丙子八月日(보살계제자구상주 김부수명장존가 오층석탑성영충공 양태평십육년병자팔월일)”

태평이란 연호는 글(거)안 성종 10년(1030)까지 밖에 사용치 않았으나 교통통신이 매우 불편했던 당시 실정으로 보아 건립 당시에 연호가 바뀌었음을 몰랐으므로 계속 사용 하였으리라 추측되며 태평 16년은 서기 1036년이 되므로 신라 패망 1백주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마의태자 나이 121세로 사망하던 해와 공교롭게도 같아서 김부대왕과 마의태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34) 향간에서는 마의태자의 이름이 김일(金鎰)인데 일(鎰)자는 넘칠 일(溢)자와 음이 같고, 이는 부자를 뜻하는 부(富)자와 향찰표기로 볼 때 같은 뜻을 지니고 있음으로 김부대왕(金富大王)은 곧 김일(金鎰)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의태자라고 한다.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이 고장에 전해오는 마의태자의 전설은 전설이 아닌 사실로 밝혀져 흥미롭다. 이태두 교사는 이 탑을 복원하면서 <김부리5층석탑>이라 명명(命名)하였다.³⁵⁾



김부탑 전경(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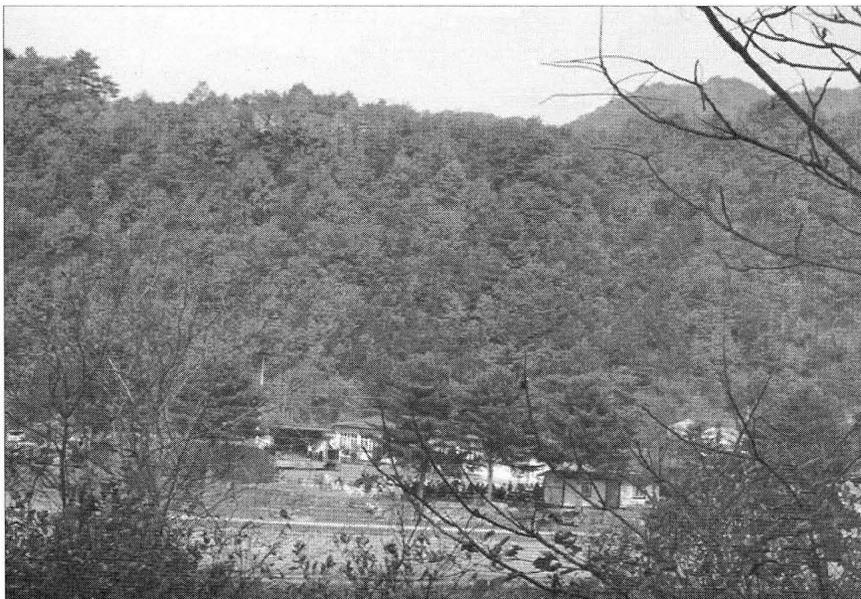
이 탑은 현재 원래 발견된 지점에 그대로 복원해 놓았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방문하여 탑을 보고 간다. 현재는 <김부탑>으로 일컫고 있다.

이 탑이 있는 원갑둔은 이제 민간인이 살지 않으므로 마을제사는 끊겼다. 그러나 과거에 소치리라고 하던 갑둔리에서는 아직도 성대하게 마을제사가 치러지고 있다.

이 마을은 정자리(亭子里)와 인접해 있으며, 신남으로 오기 위해서는 현재 소치고개로 알고 있는 산을 넘어야 했다. 이 고개는 현재 남면에서 매년 가을에 소치길 걷기와 함께 갑둔리에서 군민행사가 열리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이 길을 통해서 인민군과 중공군이 밀고 들어와서 마

35) 『인제군사』, 앞의 책, 192쪽. 한글 토는 필자가 붙였음.



갑둔리 전경. 소치길 걷기 행사 때

을에 피해를 많이 주었다.

지금은 부평리 방면으로 개울을 타고 길이 뚫려서 자동차가 다니고 있다. 이 길을 따라 가다보면 그 경치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한다.

마을의 형상은 솔 모양으로 생겼다. 정자리 쪽으로 가더라도 고개를 넘어 가야 하고, 신남으로 가도 고개를 넘어가야 한다. 이처럼 이 마을은 솔단지 모양으로 움푹 패여 있다고 하여 소치리라 했다. ‘솔이’를 발음할 때 연음으로 읽으면 ‘소치’가 된다. 그래서 그 발음에 한자를 넣어서 소치리(所峙里)라 했다. 고개 치(峙)자를 넣은 것은 이 마을이 어디를 가도 고개를 넘어가야 한다는 데에서 유래했다.

마을 사람들의 생업활동은 농업과 산림업을 주로 한다. 농업은 주로 논농사와 밭농사를 하고, 산림업은 송이버섯이 많이 난다. 특히 이 지역은 논농사가 잘 된다고 제보자는 자랑을 했다. 송이는 마을사람들이 각각의 호수마다 구획을 정해놓고 가을이면 송이를 채취한다. 송이 작목반이 있어서 공동

생산을 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화전민도 많았다. 화전민은 새마을 사업을 할 때 모두 철수시켰다. 그때가 70년대 중반이나 말 정도 된다. 화전민이 산에다 불을 놓아서 농사를 지으니까 여름 장마에 산사태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그 때문에 화전민을 철수 시켰다.

현재 마을의 인구는 45가구에 약 150여명정도 된다. 옛날에 초등학교가 있을 때는 가구 수가 8~90집정도 되었다. 그러다가 화전민이 나가고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었다.

2) 마을제사의 내용

필자가 갑둔리를 찾게 된 것은 갑둔리에 전하고 있는 전설 때문이었다. 갑둔리라는 명칭의 유래와 마의태자 또는 김부대왕과 관련한 여러 전설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이곳에 살고 있는 이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갑둔리 마을제사를 물었더니 노인회장을 만나보라고 하였다. 노인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방문하겠다고 하여 2009년 9월 1일 오전 10시에 마을을 찾았다.

마을로 가는 길은 더 없이 아름다웠다. 지난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피해 조사를 할 때 봤던 경치와는 사뭇 달랐다.³⁶⁾ 같은 갑둔리 사람들의 삶을 알아보는 것이지만,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경험을 듣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전쟁은 피해이지만, 마을제사는 안녕과 복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을제사에는 이 지역 사람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36) 지난해 인제군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피해조사를 할 때 필자가 남면지역을 담당했다. 김세건 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2008년 피해자 현황조사 용역사업 최종결과 보고서』 강원도 인제군 편(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2.12), 참고.

것이다. 그것도 언제부터인지 모를 산신과 서낭을 조상대대로 모셔오면서 그 전통을 잇고 있는 것이다. 가족이 아플 때 새벽에 메를 지어 올리며 병이 낫기를 축원했고,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기원했고, 자식이 시험을 치면 합격하기를 기원했고, 전쟁에 나가면 무사하기를 기원했던 곳이다. 온갖 예방과 소원을 기원하면서 가족의 안녕과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던 곳이다. 그 때문에 필자는 파괴와 기원이라는 두 상반된 개념을 해에 걸쳐 경험해야만 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마을제사를 조사하게 되었다.

이날 필자에게 직접 산제당과 서낭당까지 안내하며 설명을 해 준 박수천, 박유영 제보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다시 전한다.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마을에서 지내는 산신제는 소(쇠지)재골이 있고, 반별로 하는 것은 1반의 떡갈둔지에서 행하는 산신제가 있다. 떡갈둔지는 3월 3일과 9월9일에 제사를 지낸다. 떡갈둔지는 버덩말이라고도 한다. 폐교가 있는 곳이다.

갑둔리 마을 전체에서 지내는 산신제와 서낭제는 같은 날에 지낸다. 이 마을에는 산제당과 서낭당이 따로 있다. 산제당은 마을에서 정자리 방향으로 가다가 소재골(또는 쇠지골)³⁷⁾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 서낭당은 마을 중턱의 밭가에 위치하고 있다. 산신제를 지내는 당 이름이 뭐냐고 하니, 박유영 제보자는 산제당이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였다. 그래서 소재골(쇠지골)에 있으므로 ‘소재골(쇠지골) 산제당’이라고 하였다.

소재골에서 지내는 원인은 옛날부터 조상들이 이곳에서 지냈기 때문이다. 산제당이 있는 곳은 마을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깨끗하고, 그곳의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이다. 옆에 사철 마르지 않는 우물도 있고, 바위와

37) 소재골의 어원을 물었더니, 소치리(所峙里)의 원래 이름이라고 하였다. 골, 소치에서 치(峙)자는 재 또는 고개를, 리(里)는 골말을 나타내는 것이라 했다. 그런데 제보자들의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지만 자세히 물었더니 다시 쇠를 소로 발음하였다. 다시 제보를 할 때는 쇠지골이라 발음 했다.

터가 있어서 제사를 지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산제당은 가끔 보수를 한다. 산제당이 낡아서 비가 새면 안 되기 때문이

다. 현재 산제당은 보수한지가 한 십년 되었다. 옛날에는 산제당 지붕을 굴피로 했다. 그런데 오래 돼서 비가 새니, 새로 했다. 처음에는 그냥 굴피로 하자고 했는데, 오래 가는 것으로 하



갑둔리 제사도구보관창고

지고 해서 함석과 슬레이트를 사서 지붕을 덮었다.

필자와 박유영 제보자는 산제당으로 갔다. 승용차로 한 5분여 간 다음 차에서 내려 100여m 정도를 산으로 올라가서 산제당이 있었다. 처음 눈에 띄는 것은 나무판자로 3면을 하고 함석으로 지붕을 이은 제사도구보관창고이다. 멀리서 보면 꼭 제사도구보관창고가 산제당인 듯 착각을 한다. 제사도구보관창고 옆에 돼지를 잡을 때 밑에다 끼는 약 2m정도 크기의 철판이 놓여 있다. 철판에는 얼마 전에 돼지를 잡은 흔적이 있었다. 철판을 지나 3m 정도 오르면 제사도구보관창고 앞에 술을 걸고 음식을 한 화덕자리가 눈에 띈다. 또 제사도구보관창고 위로는 신수(神樹)와 제주(祭酒)를 묻어두었던 자리가 눈에 띈다. 신수는 느릅나무이다.

제사도구보관창고에는 무쇠솥, 저울, 양은 그릇, 칼반, 함지, 옛날 술, 가스통, 후추 등이 놓여있다. 저울은 돼지고기를 나눌 때 쓰는 것이다.

제사도구보관창고 앞에서 작은 개울을 건너면 산제당이 있다. 그 작은 개울이 정화수를 떠놓는 우물이며 돼지를 손질하고 각종 제물과 음식을 장만



갑둔리 소재(쇄지)골 산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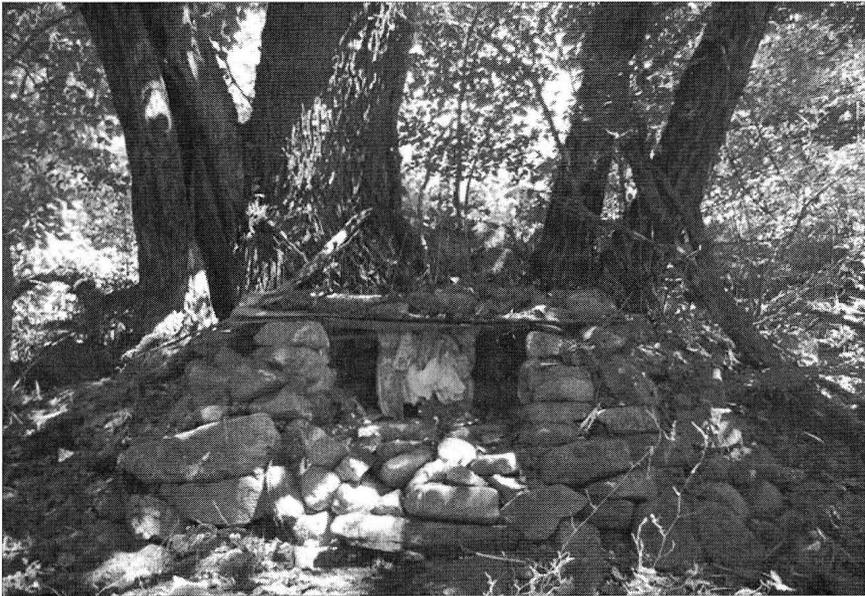
하는데 쓰는 물은 그 밑에 있다.

산제당은 큰 자연석 아래에 돌을 쌓아서 기초를 하고, 제당의 양옆도 같이 돌을 쌓았다. 그 돌을 쌓을 때 시멘트를 이용했다. 그리고 지붕은 나무를 가로지르고 함석과 슬레이트를 이용해서 덮었다. 지붕위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다. 산제당의 크기는 높이가 약 1m정도 되고, 폭은 1.5m정도 되었다.

산제당 내부는 가로지른 나무 막대에 한지로 된 예단이 집계에 집어 걸쳐 놓았다. 예단은 세 개가 걸쳐 있었다. 박유영 제보자에게 왜 세 개냐고 물었더니 자세한 사항은 몰랐다. 매년 세 개를 꽂아 둔다고 하였다. 그런데 박수천 제보자의 축문에 보면 산신령이 세분임을 알 수 있다. 그 세분의 산신령님께 각각의 예단을 드리는 것이다. 신주는 따로 없었다. 양초를 꽂은 촛대가 양쪽에 놓여 있었다. 향은 그릇에다 피운 흔적이 있었다. 정화수 뜨는 그릇이 두 개가 있었다.

서낭당은 2반에 있는데 산신제가 끝나고 이곳에 와서 제사를 또 올린다.

서낭당의 형태는 돌을 쌓아서 만들었다. 제당의 형태는 산제당과 비슷한데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돌로만 제단과 제당을 쌓았다. 제당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것으로 언제 쌓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지붕은 역시 함석으



갑둔리 서낭당

로 엮었고 그 위에 돌을 눌러서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방지했다. 제당의 크기는 산제당보다 훨씬 작다. 높이가 약 50cm정도 되고 폭은 80cm정도 되었다. 제당 안에는 나무막대를 가로 지르고 그곳에 예단을 묶어 놓았다. 예단은 한지와 실로 돼 있었다. 예단은 몇 년에 걸쳐 치우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옆에다 걸었다. 예단은 일 년에 두 번씩 제사를 올릴 때마다 건다.

서낭당 뒤에는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 이름은 엄나무이다. 수령은 몇 백년 된 듯 어른의 몇 아름 정도 되었다. 두 그루인데 한 그루는 죽고 한 그루는 살아있다.

박유동 제보자는 산신이 남신인지 여신인지는 모른다. 그런 소리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박수천 제보자는 본부산천 산신령 좌부산천 산신령 우

부산천 산신령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예단을 세 개를 건다.

서낭신은 본동 수구마님 만인간을 구제하는 도서낭님이라 한다.

서낭당에도 개인이 와서 메를 지어놓고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몸수 고이 낮게 해달라고 빌고 간다. 운수가 나쁘면 신수가 좋게 해달라고 빌기도 한다.

(2) 마을제사의 준비

① 제의 날짜와 시간

제사를 지내는 날짜는 정월과 칠월에 날을 받는다. 정월은 초하루에 날짜를 받고, 칠월도 초하루에 받는다. 날짜를 받을 때는 박수천 제보자가 손 없는 날을 택해서 받는다. 손을 육십갑자로 꼽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면서 마땅한 날짜를 받는다.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 한 밤 중이었다. 그래서 밤 1시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산제당에 가서 지키고 있다가 날 새면 돼지를 잡고 제물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요즘은 옛날처럼 하지 않는다.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지낸다. 보통 5~6시 경이면 간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이면 이장이 올라가자고 한다. 그러면 다들 산제당으로 가서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지낸다.

② 제관과 도가선정

제관은 박수천 제보자가 많아서 많이 한다. 박수천 제보자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선정한다. 박수천 제보자가 많이 하는 이유는 축원을 잘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장이 같이 한다.

옛날에는 도가를 정했으면 도가가 막걸리를 제당 앞에 가서 해 넣었다.

그래서 도가를 선정할 때는 아주 깨끗한 사람을 선정했다. 도가도 책을 보고 나이를 맞추어 선정했다. 그러나 요즘은 따로 도가를 선정하지 않고 이장이 알아서 한다.

③ 제비와 제물

치성비는 마을에서 거두어 쓴다. 이 치성비를 천집분정이라고 한다. 가령 30집이면 30집 모두 각각의 호수별로 얼마씩 거둔다.

제물은 돼지, 떡, 메, 소주, 냉수, 제주 등을 쓴다. 양쪽에 양초를 켜고, 향을 피운다.

과일은 올리지 않는다.

제주(祭酒)는 원래 산제당 앞에 있는 제사 그릇 보관집 뒤 나무 아래를 파고 막걸리를 묻어서 익으면 사용했다. 이곳에 가면 아직도 그때 땅을 팠던 흔적이 움푹하게 패여 있다. 그런데 지금은 막걸리를 담가서 사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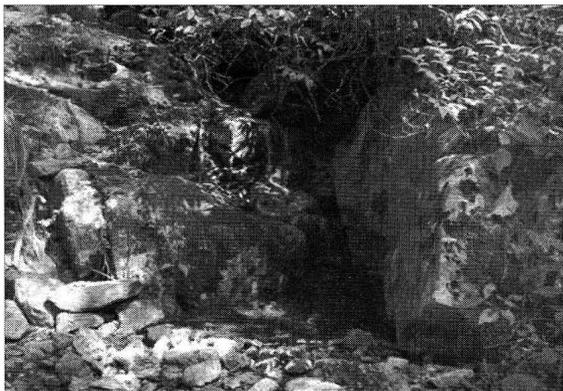
산제당 앞 돼지 잡는 곳

지 않고 소주를 사서 쓴다. 제주를 담글 때 땅이 얼어 있으면 불을 피워놓고 땅을 녹였다. 그리고 항아리에 누룩을 빻어 넣어서 땅에 묻었다. 보통 한 사흘 전에 했다. 그렇게 담갔던 술은 당일애 꺼내서 걸러 제주로 썼다.

떡은 옛날에는 집에서 했으나 지금은 신남 시내 떡집에다 맞춰서 사용하는다. 고사 지낼 떡이니까 정성껏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준다.

메는 아직도 산제당 앞에 가서 지어 올린다. 메를 짓는 사람은 제관이 하

는데, 옛날처럼 나무를 때지 않고 가스렌지를 사용해서 짓는다. 쌀을 씻을 때는 제당 앞의 우물을 사용한다. 이 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 메는 새옹메에 하나만 짓는다. 메를 지을 때는 뚜껑을 열지 않고, 뚜껑 위에 작은 돌 세 개를 얹어 놓아서 넘쳐 뚜껑이 열리는 것을 방지한다. 김만 나오는 것을 봐도 메가 다 됐는지를 알 수 있다.



갑둔리 산제사 때 쓰는 우물

돼지는 현장에서 잡는다. 돼지를 올릴 때는 차로 한다. 대후 있는 치는 제당 밑에까지 올라간다. 돼지를 잡을 때는 동네에서 좀 깨끗한 사람들 보고 오라고 하면 와서 한다. 돼지는 제사도구를 보관하는 움막 앞에 철망을 놓아 그 위에서 잡는다. 그리고 돼지 잡는 물은 밑에 흐르는 계곡물을 사용한다.

돼지는 잡아서 모두 각을 떠서 머리를 포함해서 한 마리를 통째로 올린다. 간까지 올린다. 제단에는 돼지 한 마리를 올릴 수 있는 돌로 된 공간이 있다. 이 머리는 나중에 서낭제 지낼 때 가져가서 다시 쓴다.

제사가 끝나면 돼지 내장은 모두 삶아서 먹고, 뼈와 살을 모두 발린다. 뼈는 끓여서 내장과 같이 먹고, 고기는 치성비라고 돈 낸 사람들이 - 이를 천 집분정이라고 하는데 - 고기를 똑 같이 나눈다.

산신제가 끝나면 서낭제사를 지낸다. 서낭제사는 산신제를 지낸 돼지머리를 가져가서 제물로 놓는다. 서낭제의 제물은 돼지머리, 이 홉소주 한 병, 소지 한 장, 메를 하나 지어서 올린다. 여기도 과일은 놓지 않는다. 메는 집에서 새옹메에 지어서 온다. 떡도 산신령님께만 올리고 여기는 놓지 않는다.

④ 제수준비

제수는 깨끗한 것으로 장만한다. 쌀은 옛날부터 따로 거두지 않고 사서 썼다. 돼지를 고를 때 암수를 가리지 않고, 돼지 파는데 가서 좋은 놈을 사 온다.

⑤ 금기방법

제당에 가면 제일 조심해야할 것이 입이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아무도 따로 금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옛날에는 금줄은 치지 않았는데, 송침을 쳤다. 송침은 소나무를 베어서 제당 앞 지붕에 꽂아서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도가로 선정되어도 집에다가 송침을 쳤다. 치는 시기는 제사 한 이틀 전이다.

서낭당에는 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따로 금줄을 치든가 송침을 하지는 않았다. 워낙 외져서 누가 올 일이 없다고 하였다.

(3) 마을제사의 진행

갑둔리의 마을제사 장면을 직접 보고 채록하고 싶었는데 본서를 준비하기 전에 벌써 올해의 제사가 끝났다. 그래서 직접 보지는 못하고, 제보자를 통해서 구술로 채록하였다.

① 제의절차

제사를 지내기 하루 전에 제당에 가서 확인을 한다. 이때 2개조로 짜서 제당 입구를 청소한다. 두 개조는 정월과 칠월에 나누어서 운영을 한다. 정

월달 조는 눈이 있으면 눈을 치고 얼음이 얼었으면 얼음을 깨고 우물을 청소해 놓는다. 제당 주변 청소도 한다. 또 한 개조는 칠월에 운영하는 조이다. 칠월에 운영하는 조는 제당까지 가는 길목에 있는 풀을 베고, 제당 주변의 청소를 한다. 그리고 우물 옆을 깨끗이 치운다. 보통 참가하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되면 반을 나누어 한 개조로 한다. 그래서 많을 때는 15명 정도 되고 적을 때는 10명 정도 된다.

제사를 지내려고 와서는 먼저 제사도구보관창고 앞에 황덕불(모닥불의 이칭)을 피워 놓고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제물로 쓸 돼지를 잡고, 메를 짓는다.

제사를 지낼 때 이장과 박수천 제보자가 들이 제당에 가서 초헌과 아헌과 종헌을 다 한다. 술을 따르는 순서는 누구랄 것이 없다.

음복은 제사가 끝나면 제관부터 한다. 그리고 같이 간 사람들도 할 사람은 음복을 한다.

고수레는 고기와 떡과 메는 조금 떼고, 간과 허파는 삶아서 먼저 찢어서 술을 묻었던 장소에다 놓고 술을 한잔 올린다. 고수레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설을 읊는다.

영산신네는 다 산신령님과 동서남북 무상출입을 할지라도 아주 만사 여의대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박수천)

영산신네는 다 산신령님과 일기 동참 하의 동반 하옵소서.(박수천)

서낭당에서 고수레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읊는다. 신령의 명칭만 산신령님에서 서낭신으로 바뀐다.

영산신네는 서낭님과 일기 동참 하의 동반 하옵소서.(박수천)

제의복장은 평상복 중에서 깨끗한 옷을 골라서 입었다.

소지는 마을소지와 대표소지를 올리고, 각 세대주별로 이름을 부르면서 소지를 올린다. 그러면 잘 올라가는 소지도 있고, 타다가 마는 소지도 있다. 잘 올라가지 않으면 다시 올린다.

산제당에서 소지를 올릴 때는 호당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한다.

일 년 열두 달에 동서남북 무상출입을 할지라도 만사가 여의대통을 하오 시고 몸소 고이 낮게 해달라고 소원이올시다. 또는 ‘소원이올시다.’ 부분 대신에 소지를 올리오니 좌우로다가 판단을 해주십시오-.(박수천)

이렇게 소지를 올려서 잘 올라가면 잘 된 것이고, 잘 올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운이 별로 안 좋은 것이다. 소지를 다시 올리지는 않는다.

서낭당에서 소지를 올릴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빈둥 수구만이 구제하는 도서낭님은 만 인간을 구제하는 도서낭님은 부락주민을 다가 만사가 여의 대통운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박수천)

위의 소지축원 내용에 의하면 갑둔리 서낭은 산신의 수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제물도 간단히 올리고, 서낭제사는 한 두 사람이 와서 예단을 올리고 축원을 한다.

산제사는 깨끗한 사람은 다 참가한다.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가에 갔던가 해서 부정한 사람이다. 보통 마을에서 반 정도 참가한다. 바쁜 사람도 참가하지 못한다.

제기는 제당 앞에 나무로 집을 지어놓고 보관을 한다. 제기를 보관하는 집은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온갖 제사도구들이 갖춰져 있다. 제기는 사용한 후에 씻어서 뒀다가 다음 제사 때에 다시 쓴다.

제사가 끝나면 그곳에 있는 술을 이용해서 돼지고기로 국을 끓여서 나눠 먹는다.

산신제가 끝나면 돼지머리와 메 등의 제물을 갖고 2반에 있는 서낭당의

로 가서 제사를 또 지낸다. 그래서 같은 날 아침에 산신제를 지내고 이어서 마을의 서낭에서 서낭제를 지낸다.

② 축문

갑둔리 마을제사에는 축문은 없고, 축원만 한다. 축원은 박수천 제보자가 주로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년 태세 월건 일진을 읽고)

갑둔리 동리 부락에 대해서 만사가 여의 대통운을 시켜주시고 본부산천 산신령 좌부산천 산신령 우부산천 산신령님은 물 좋고 정자 좋고 화초 만발 한 좌안에 안정 하시옵고 일 년이면 열두 달 유년이면 열석 달 대월로 30일 소월로 29일 하루 12시 수명장수 부귀공명 적위정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내용이 축문을 대신해서 읊는 축원 내용이다.

원래 이 마을에도 마을제사 때 축문을 읽었다. 그런데 축문이 한국전쟁 때 없어지고 나서는 축문을 읊지 않고 축원만 한다.

(4) 영험담

마을제사를 지내고는 마을에 별 탈이 없다. 혹이나 엉뚱한 일이 있으면 치성을 잘못 드리지 않았는지 생각을 한다. 특별하게 좋다는 것은 모르고, 마을이 별 탈 없이 지나가면 되는 것이다.

산제당의 나무는 함부로 베지 않는다. 옛날에 마을에 어떤 이가 산제당 부근의 나무를 베어서 땀감으로 썼다.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이 다치고 아프고 많이 힘들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필자가 산제당에 치성을 드리고 산삼을 캐든가 하는 좋은 일이 있었느냐

고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아주 오래된 얘이지만, 그 양반이 인제 노인네 살았으면 한 8,90 됐는데, 우리가 애들 적에 이장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어른들이, 그때 얘기니까 나도 모르지. 그런데 계속 어른들이 그냥 뭐 내려와서 한 얘긴데, 그 뭐 그 양반이 산삼을 캐다는 소리를 옛날부터 들었지요.

그 뭐 산삼 같이 좋은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거기 가서 빌고 그런다. 혼자 찾아가서 비는 경우도 많다. 산신령님이 마을을 많이 보호해 주신다.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낸 집이 한 20집이라면, 한 2만원씩 거두었다면 40만원이다. 그러면 돼지가 얼마, 쌀이 얼마, 소주가 얼마라는 식으로 그 값이 다 나온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그 자리에서 총 얼마를 거두었는데 얼마가 남는다든가 모자라든가를 얘기한다. 반장은 다 오기 때문에 바로 결산을 한다. 모자라면 얼마씩 더 거둬 와라 그렇게 하고, 남으면 두었다가 다음 제사에 쓴다고 한다.

3) 마을제사의 특징

제사에는 남자만 올라간다. 제물을 준비할 때도 남자들이 다 한다. 남자만 올라가는 원인은 잘 모르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습관이다.

이 마을은 서낭신 보다 산신제사가 중심이 된다. 산신이 본 신이고, 서낭신은 산신의 수구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당의 위치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산신제를 지낼 때 서낭제도 지내는데, 서낭제는 한 사람만 와서 지낸다.

여기는 장승제와 돌탑 등의 제시는 없다. 타 종교와 마찰도 없다. 세월이 지나면서 마을제사도 계속 바뀌었다.

7. 북면 용대2리 4,5,6반

매주골 산신제와 내가평 서낭제



용대2리 4,5,6반 매주골 산제당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09년 9월 9일

조사지: 제보자의 집. 서낭당. 산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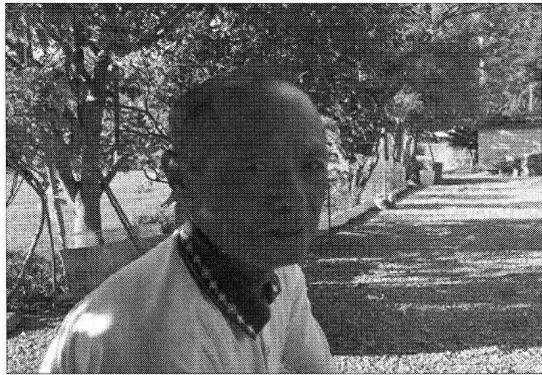
제보자: 안용수(75, 남) 북면 용대2리 6반

장근옥(87, 남) 북면 용대2리 6반³⁸⁾ 제관과 축원

(2) 마을유래와 개관

용대리(龍垞里)의 명칭은 용바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북면 용대리는 설악산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 비교적 다른 인제 지역에 비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계곡은 백담사가 위치하고 있어서 백담계곡이라 한다. 그 탓에 이 지역은 농사를 하는 사람도 많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많다. 장사는 민박과 기념품과 식당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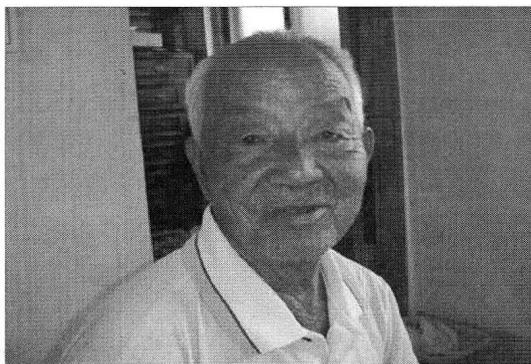
안용수(75, 남) 제보자

특히 용대리는 황태로 유명한 지역이다. 그래서 황태를 파는 가게와 황태를 주재료로 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다. 황태는 명태를 사다가 덕장에 넣어 말린 것이다. 겨울에 추운 기온을 이용해서 얼리고 녹임을 받

³⁸⁾ 제보자들이 사는 곳은 원래 5반이었는데, 인구가 많이 불어서 반을 갈랐다. 그래서 6반이 생겼다.

복하고 가끔 눈이 내려 적셔주기도 하여 이루어낸 걸작이다. 명태는 노가리, 생태, 명태, 황태 등으로 불리는 바다고기이다. 그 쓰임이 다양해서 많은 요리 재료가 된다. 탕, 구이, 찜, 무침, 국, 라면 등으로 만들어 진다.

또한 이 지역은 백담사와 만해마을이라는 인문자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백담사와 오세암은 역사를 거둬하면서 많은 선사가 찾은 곳이고, 심지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신을 해서 머문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설악산으로 등산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 때문인지 이곳은 아주 많은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인다. 게다가 인제군에서 만해마을을 조성해서 많은 시인묵객들이 발길을 멈추는 곳이 되었다.



장근욱(87, 남) 제보자

이 마을에서 조금만 더 가면 유명한 미시령이 나온다. 미시령은 금강산의 마지막 자락이다. 전설처럼 울산바위가 조금만 더 갔으면 금강산에 닿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멈추고 말았다. 그 때문에 설악산이 한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수 있지 않았겠는가.

미시령 옛길은 필자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군사용 비포장도로였다. 그래서 100km 행군을 할 때면 간성에서 속초를 거쳐 미시령을 넘어 진부령을 따라 걸었다. 그 길을 따라 28시간을 걸었던 생각이 아직도 생생하다. 중간에 가다가 도로가 파였으면 차를 통과시키기 위해 흙을 메우기도 하였다. 그때 그 길은 힘든 훈련 중이었지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다.

용대리는 수려한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이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기에 예부터 많은 선사와 시인묵객이 찾았

을 것이다. 누구든 한번 가면 시를 남겨야 하고, 발길을 뗄 수 없는 곳이었다.

십이선녀탕으로 이어지는 설악산 자락도 일품이다. 푸른 물결과 계곡의 단풍은 깨끗함과 붉은 자태가 몹시도 빼어났다. 땀 흘리며 산을 오르다가 풍덩 발이라도 담그면 시원하다 못해 시려서 참을 수 없다. 십이선녀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절경임은 자타가 인정한다.

원래 이 지역은 고성과 속초를 잇는 곳이었다. 그래서 동해바다에서 만든 소금과 생선을 가지고 와서 인제와 양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과 물물교환을 하며 시장(市場)이 서기도 했던 곳이다. 아직도 고성군 건봉사 주변지역에 가면 노인들이 대간령을 넘어 물물교환을 하던 얘기를 하곤 한다.

산이 깊은 곳이라 사람들은 대부분 산에 의지해서 삶을 이어갔다. 그 때문에 이 지역은 산신제를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오고 있다. 인공치하와 새마을운동을 할 때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맥을 끊을 수 없었다. 특히 설악산은 명산이라 신령도 영험하고, 산삼을 비롯해서 많은 영약을 주는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신에 대한 관념이 특별한 지역이다. 사람들은 마을 공동으로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산삼을 캐기를 원하면 제당에 와서 개인적으로 메를 지어놓고 기원을 했다. 어디 그 뿐이라, 자식기원도 하고 건강을 빌기도 하고 예쁜 색시 연기를 빌기도 하고 시험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기도 하였다.

현재 용대 2리의 인구는 200명이 넘는다. 요즘 들어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집을 짓고 내려와서 정착을 많이 했다.

이 지역의 소지명은 응지골, 양지동, 너래비(광역동) 등이 있다.

2) 마을제사의 내용

이 마을은 백담사로 들어서는 매표소 부근에 위치했다. 이 마을에서는 제보자를 구하는데 많은 애를 먹었다. 그래서 몇 번의 시도 끝에 노인회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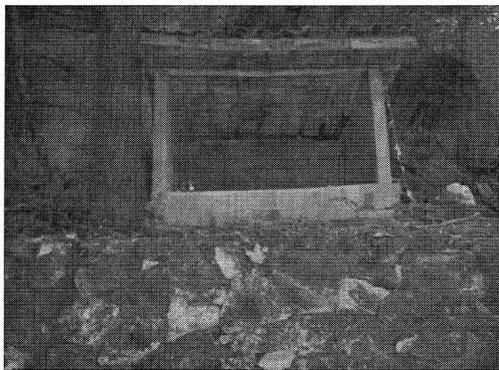
축원을 담당하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다.

안용수 제보자는 서낭당까지 직접 안내를 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안용수 제보자는 마당 앞에 있는 정자에서 제보를 해 주었다. 이 마을과 마을제사에 대해서 두 제보자는 잘 알고 있었다.

마지막에 장곤옥 제보자를 만난 것은 이 마을의 마을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보자를 만난 것이었다. 날이 더운 탓에 제보자는 문을 열어놓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장곤옥 제보자는 마을제사의 모든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래서 묻는 즉시 줄줄줄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데 시간이 늦어서 오랫동안 채록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마을에 들어서서 제보자를 구했는데 여의치 않았다.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모두 어디로 일하러 가든가 볼 일 보러 갔다. 그래서 필자는 먼저 산신당부터 가서 보고 사진을 찍어오기로 하였다. 마을 사람에게 물으니 백담사 쪽으로 가다가 무슨 모텔이 있는 곳으로 들어서서 산으로 가면 된다고 하였다. 다들 바쁜 탓에 안내를 받을 수도 없어서 혼자 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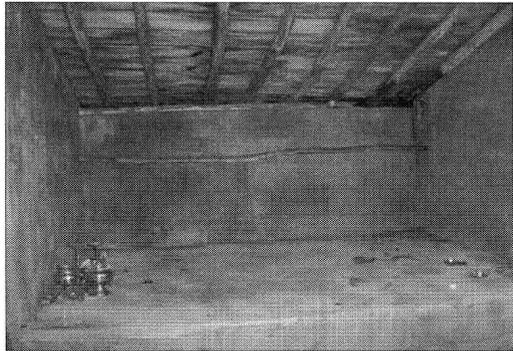


용대2리 6반 산신당

그런데 알려준 모텔에 도착했으나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모텔에 들어가 봤으나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산신당 위치를 알려준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위치를 물었다. 그랬더니 무조건 산으로

들어서면 길이 보인다고 하였다. 길로 접어들면 송이 발이 보이는데 그곳을 따라 올라가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무조건 산으로 접어들었다. 산에 접어들자 나무들이 얼마나 큰지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서 산신당을



용대 2리 6반 산신당 내부

을 향해 올랐다. 너무나 조용했다. 얼마나 올랐을까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 한참을 오르니 작은 개울이 나왔다. 그리고 개울을 건너 맞은 편 언덕 약 20m지점에 시멘트로 만든 제각이 나왔다. 개울에는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그 중 한 지점에 등글게 파 놓은 것으로 봐서 정화수를 뜰 때 사용한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여전히 숲이 우거져서 하늘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산신당에는 푸른 이끼가 끼어있었다. 붉은 기와를 올렸는데 이끼로 인해서 붉은 색은 거의 사라졌다. 마치 베트남의 최초소설 『전기만록』에 나오는 오래된 사당인 산원사 같았다. 그래도 필자는 용기를 내어 취재를 했다. 사진을 찍고 녹음기를 켜서 산신당의 형태와 집기류 및 주변흔적에 대해서 녹음을 했다.

산신당은 큰 암벽 앞에 있었다. 돌로 축대를 쌓고, 축대 위에 시멘트로 세벽과 바닥을 했다. 지붕은 나무를 걸쳐 놓고 그 위에 나무판자를 올리고 판자위에 붉은 기와를 얹었다. 언제 지었는지는 상량문이 따로 없어서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산신당 바로 옆에는 당목인 듯 아름드리 커다란 나무가 우뚝 솟아 있었다. 당목은 아마도 엄나무 같다. 산신당 옆에는 금줄이 걸려 있었다. 금줄은 원새끼에 한지를 끼워 두었다. 지난 제사 때 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어지러이 술병 등이 놓여 있었다.

내부에는 향로, 촛대, 동전 몇 개, 술잔이 놓여 있었다. 산신당 내부를 가로지르는 나무 막대는 예단을 거는 것 같은데, 예단은 없고 빈 나무막대만 있었다. 원래 예단은 세 개를 건다고 한다. 매번 제사를 지낼 때마다 세 개를 건다. 세 개를 거는 것은 신이 세 명이기 때문이다. 곧, 산신령님과 어인하고 수부하고 세 분이다. 어인은 산에 다니면서 산삼을 캐고 하던 사람을 말한다. 수부는 산에 같이 다니던 사람을 말한다. 예단이 없는 것은 바람에 떨어져 나갔을 것이라고 했다.



용대 2리 6반 서낭당 전경

취재를 마치고 올라오던 길로 다시 내려왔다. 9월 9일인데도 날씨는 더워 한 여름 같았다.

제당의 이름은 제당이 있는 골이 매주골(每酒洞)이므로 ‘매주골 산신제’라 명했다. 매주골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옛날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산삼을 봐두고 매일 술을 먹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일 가서 산삼을 보고 술만 먹었으므로 매양 매(每) 술 주(酒)를 써서 골 이름을 명명하였다. 제당 이름은 ‘매주골 산제당’이라 한다.

원래는 다리 옆 봉정식당 있는 위에 있었다. 그런데 누가 술을 먹고 산제당에 불을 놓아서 탔다. 그래서 현재 위치로 옮긴 것이다. 옮긴지는 한 20년 정도 된다. 제당을 옮긴 사연은 다음과 같다.

〈산제당을 옮긴 사연〉

원래 산제당은 여 밑에 있었는데. 옛날에 여기 한 몇 십 년 됐어요. 벌써. 여기 있었는데. 그 동생이 군인으로 있다가 대위로 제대를 했어. 그런데 경상도 사람인데 형하고 동생하고 여기 와서 살았어. 군인은 지금은 제대하면 정부에서 뭘 줘 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고. 군인들도 뭐 부대에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근데 형이 인제 저 어디 가서 심을 백담사 들어가는 데서 심을 캐다가 팔았는데. 형도 살아야 되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 형이 심을 캐가지고 그러는 걸 보니까. 자기도 심을 캐야 되겠거든. 그만 이게 실성을 했어. 그만. 아주 들었어. 그래 가지고. 산제당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여 곰굴 밑에 돌아가는데 있었어. 그런데. 거기 가서 제사지낸다고 막 자고 그러더니. 제 맘이 아니고 이게 들었어. 아주. 그래 가지고는 불이 나서 산제당이 탔어요. 그래 여기 돌아가셨지만 나이 많은 노인네가

“이 신은 으스스하고 조용한데가 좋으니까 인제는 사람들이 그 전과 달라 참 등산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도 많이 온다. 그러면서 저 옮기자고.”

그래 저 매주골로 옮겼어.

매주골은 왜 매주골이냐면, 옛날에 매주라는 술이 있거든. 옛날에. 그 심을 봐 놓고는 그걸 파가지고 팔리면 가을이면 인제 돈. 처서 지내야 파니까. 처서 전에 썬 심은 아무래도 약효가 없다고. 그래서 처서 지내서. 그래 그때 심을 캐면 준다고. 주막집에 가서 맨날 술만 먹었어. 그래서 매주골이야. 매주라는 술을 맨날 먹어서.

그래서 처서 지낸 다음에 가서 캐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컸나 보니까. 썩은 크거든. 이게. 이 얼마나 크나 하고. 이렇게 캐 봤다 말이야. 그런데 이게 썩었어. 썩어서 아주 없어. 심을 봐놓고 크나 작으나 얼마나 보냐면. 이렇게 돌려 보면 안 돼. 썩어요. 안 돼.

그래서 매주골에다 산제당을 지은 거지. 부락에서 집 짓고 저 기와도 다 해 이어서 비가 안 새요.³⁹⁾

산신은 여신(女神)이라고 한다. 여신이라고는 하는데 신의 이름은 알 수 없다.

이곳 사람들은 자식을 기원하든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산제당에

39) 장곤옥(87, 남) 제보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겼다.

가서 축원을 많이 했다. 자식은 절에 가서 빌기도 했으나 산을 타는 사람들은 산신께 절대적으로 의지했다.

마을에 와서 수소문을 해서 안용수 제보자를 만났다. 안용수 제보자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아서 마을제사에 관해 여러 질문을 했고, 성실히 답을 해주었다.

취재가 끝나고 안용수 제보자를 따라서 마을 서낭당으로 갔다. 서낭당은 마을 뒷산에 위치해 있었다. 거리는 얼마 되지 않으나 논두렁길로 꼬불꼬불



용대2리 6반 서낭당

돌아갔다. 서낭당이 있는 산은 서낭봉이라고 한다. 또는 수리가 많이 살았다고 해서 수리봉이라고도 한다.

서낭당은 벽돌로 세 벽을 야트막하게 쌓고 지붕은 통나무를 걸치고 그 위에 슬레이트를 얹었다. 서낭당의 크기는 밑면이 1.5m정도 되고 높이는 약 60~70cm정도 된다. 당목은 수명이 상당히 크게 보이는 큰 소나무였다. 수명이 300년은 넘어 보였다. 그 주변에는 이 같은 소나무가 많이 있었다. 그 중에

가장 크고 우람하게 보이는 것이 서낭목이었다. 서낭당 내부에는 예단이 두 개가 걸려 있었다. 원래는 서낭신이 세 분이므로 예단을 세 개를 걸었는데 하나가 없어졌다. 여기도 산제당의 신과 같이 서낭신과 어인신과 수부신이라 하였다. 어인과 수부는 서낭신의 부하이다. 예단은 실은 걸지 않고 한지만 건다. 그리고 서낭당 옆 작은 나무에도 예단이 걸려 있었다. 작은 나무에 걸려 있는 예단은 지난 예단을 버리지 않고 매어둔다. 그러면 자연히 없어진다.

서낭당의 명칭은 내가평에 있으므로 '내가평 서낭제'라 하였다. 마을 건너는 외가평이라 하고, 이쪽은 내가평이라 한다.

현재 서낭당은 6.25전쟁이 끝나고 새로 만든 것이다. 일제 강점기 때는 제사를 지냈으나 인공치하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못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후 수복이 되고 나서 마을제사를 다시 지내게 되었다. 인공치하 때는 집안의 제사도 지내지 못했다.

서낭당의 신은 남신(男神)이라고 한다.

(2) 마을제사의 준비

용대2리 4,5,6반의 마을제사인 산신제는 용대2리에서 가장 큰 마을제사이다. 그래서 참석인원이 상당히 많다.

① 제의 날짜와 시간

서낭당 제사는 3월 3일에 지낸다. 시간은 새벽이다. 몇 시랄 것도 없이 날이 새기 전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산신제사는 음력으로 9월 9일 새벽에 지낸다. 산신제사의 도가를 맡은 사람은 새벽에 배낭에다가 제물을 지고 올라간다. 그곳에서 메를 짓기 때문에 아주 일찍 올라간다.

② 제관과 도가선정

제관은 따로 뽑지 않고 동네에서 나이 많은 노인이 매번 제관을 한다. 노인은 장곤옥 제보자다. 각자 정성을 표시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관은 없어도 된다. 옛날에는 할아버지들이 생기를 봐서 사람을 따로 선정해서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 옛날에 도가를 선정할 때는 보통 일주일 전에 하는데, 부정을 가려 했다.

현재 마을제사 주관은 반장이 한다. 반장이 때가 되면 제사를 지내자고 해서 같이 간다. 그러니 도가도 반장이 되는 것이다.

③ 제비와 제물

제비는 집집이 얼마씩 거두어서 사용한다. 제비를 낸 사람은 모두 참가하고, 돈 낸 사람은 소지를 한 장씩 다 올린다. 산신제의 경우 3,4만 사람들도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와서 비용을 내고 함께 한다.

서낭제를 지낼 때 제물은 명태와 두부와 심당을 한다. 돼지를 쓰지는 않는다. 서낭제의 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종을 받아서 쓴다. 서낭제는 산신제보다 규모가 작다. 메는 새옹에다가 반장이 지어 온다. 떡은 현재는 올리지 않는다. 옛날에는 떡을 시루로 올렸다. 정화수는 그곳에 우물이 없으므로 반장 집에서 정화수를 떠간다. 정화수를 떠갈 때는 주전자나 페트병에다가 떠가서 그릇에 따른다.

제기는 동네 그릇을 쓰는데 낡고 오래돼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은 반장네 집에 있는 좋은 그릇을 가져다가 쓴다.

산신제는 소머리를 쓴다. 옛날에는 소를 잡든가 돼지를 잡든가 했다. 소머리를 여기서는 소머리라 하지 않고 마리라 한다.

소를 잡아서 올릴 때는 소를 통째로 다 올린다. 곧, 소를 잡아서 가족을

벗기고, 머리는 따로 올리고 큰 함지박에다 고기를 다 담아서 올렸다. 그리고 일부는 산적을 만들어서 고기를 불에 구워 올렸다. 싸리나무에 소고기를 끼어서 꼬치를 만들어 올린 것이다. 내장은 올리지 않고 간이나 콩팥 같은 장기만 같이 올렸다.

돼지를 잡을 때는 새벽에 강에 가서 돼지를 잡아 손질해서 날것을 통째로 올렸다. 이때 내장만 빼고 간이며 콩팥 등의 장기는 다 올렸다. 돼지를 잡아서 지계에 지고 올라갔다.

그러니 처음에는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올리다가,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올렸고, 지금은 소머리만 올린다. 소머리를 올릴 때는 삶아서 올린다.

메는 산에 가서 지어 올린다. 생쌀을 갖고 가서 산제당이 있는 앞개울에서 우물을 파고 쌀을 씻어서 메를 짓는다. 메는 새옹에다가 두 개를 지어 올렸다. 신은 세 명인데 메는 두 개만 한다. 숟가락은 한 개씩 꽂는데, 메를 산신에게 먼저 올리고, 새옹메를 옮겨서 수저를 다시 꽂아서 어인과 수부에게 또 올린다. 메를 지을 때는 절대 뚜껑을 열어보면 안 된다. 물이 넘치든 쌀이 제대로 익든 간에 그대로 뚜껑을 닫고 메를 짓는다. 나무는 작게 장작을 만들어서 불을 때면서 했다. 남자들이 메를 지었다. 지금은 가스렌지를 사용한다.

떡은 동네에서 시루떡을 찌서 지계에 지고 올라가서 제사에 썼다. 지금은 떡을 하지 않는다.

제단에 소머리 하나, 메 2개, 과일 3개(사과 배 밤), 향, 초, 소금을 올린다. 그리고 무나물을 3개 올린다. 탕은 3탕을 한다.

메를 지을 때 동네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황덕불을 해 놓고 둘러앉아서 제를 지낼 준비를 하였다.

옛날에는 산에 술을 담가서 썼다. 누룩을 빻어서 술을 직접 산제당 옆에 담가서 제사에 썼다. 옛날에는 도가를 특별히 지정해서 제물을 준비했으므로 도가가 술을 담는다. 술은 단지를 가져가고 산에서 직접 밥을 해서 술잎

을 따서 조금 넣고 누룩과 비벼서 단지에 넣어 문었다.

요즘은 정종을 사다가 쓴다.

④ 제수준비

제수는 시장에 가서 사서 쓰므로 특별히 가릴 것은 없지만, 되도록 깨끗한 것을 고른다. 다만 메를 지을 때 쓰는 쌀은 햅쌀이 나오면 따로 보관을 했다가 제사 때 쓴다.

⑤ 금기방법

서낭당에 옛날에는 금줄을 쳤으나 지금은 치지 않는다.

산제당에는 금줄을 친다. 금줄은 왼새끼에 한지를 꼿는다.

옛날에는 도가에도 금기를 했는데, 금기 방법은 송침을 꼿는 것이었다. 황토는 뿌리지 않고 송침만 하였다.

또한 술은 제당 옆에 땅을 파고 문었다가 꺼내서 썼는데, 술을 채반에 걸러 병에 담고는 부정을 가신다고 술가지를 쥐어 병 입구에 꼿었다.

메를 지을 때는 절대로 뚜껑을 열지 않고 하였다.

(3) 마을제사의 진행

① 제의절차

서낭당 제사에는 많은 사람이 참가한다. 동네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간다. 서낭당은 미리 가서 청소를 하지는 않고, 당일 날 아침에 가서 제당 청소를 한다.

서낭제사를 지낼 때 따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장근옥 제보자가 혼자서 다 한다. 절은 처음 시작할 때 다 같이 하고 끝날 때 또 다 같이 한다. 두 배 반 한다. 복장은 평상복으로 깨끗한 것을 골라 입는다. 옛날에는 한복을 다 갖춰 입고 가서 제사를 지냈다. 제사가 끝나면 세대주별로 소지를 올린다. 고수레는 바가지에 제물로 올렸던 것을 조금씩 담아서 옆에 버리면서 잡귀 잡신들 먹고 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음복을 한다. 음복은 제관부터 시작해서 한다. 제사가 끝나면 모두 반장 집으로 가서 아침밥을 같이 먹는다. 참가 인원은 30~40명 정도 된다.



필자와 장근옥 제보자 채록 장면
(사진제공 최종익)

산제당의 경우 옛날에는 도가가 산에 올라가는 길 청소를 하고 제당 주변 청소도 하였다. 그리고 우물도 함께 쳐놓았다. 보통 며칠 전에 가서 한다. 그리고 술을 산제당 옆에 땅을 파고 묻었으므로 도가는 미리 가서 금줄을 치고 술을 담갔다. 술을 담글 때는 술 단지를 묻을 곳에 땅을 파고 불을 해 놓아 땅을 따뜻하게 달군다. 그 다음에 밥을 해서 누룩과 비벼 넣은 후에 땅에 묻었다. 보통 술은 7일 전에 해 넣었다. 이 술은 채반을 가져가서 아침 일찍 걸러서 병에 따라서 썼다. 이때 병 마개 부분에는 소나무 가지를 꺾어 꽂았다. 소나무 가지는 부정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만든 술을 제주로 쓰고, 음복을 할 때 먹어보면 아주 맛이 좋았다.

요즘은 술을 정종을 사서 쓰기 때문에 담그지 않는다. 다만 도가가 하던 길청소와 제당과 우물청소는 반장이 가서 한다.

산제사의 메는 도가가 새벽에 남들보다 먼저 산에 가서 짓는다. 정희수는

그곳에 있는 물을 떠서 올린다. 절은 두 번 반씩 한다. 먼저 산신령님께 잔을 올리고 절을 한 다음, 어인신과 수부신께 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사 마지막에는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제사비용을 낸 사람만 올린다. 몇 십 명이 올라가더라도 모두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릴 때는 인제군에 사는 무슨 생 누구 무엇을 바라니 소지 잘 올라가게 해달라고 한다. 잘 오르지 않으면 한 번 더 올리는데, 그래도 올라가지 않으면 그만 올린다. 소지가 오르지 않고 남는 것을 낙점이라고 한다.

고수레는 바가지에 제물로 쓴 여러 음식을 조금씩 떼어서 담았다가 제당 옆에 뿌린다. 그러면서 잡귀 잡신 잘 먹고 가라고 한다.

음복은 역시 제관부터 돌아가면서 한다.

제사가 끝나면 동네 강가에서 음식을 끓여 같이 나눠 먹었다. 제사 지내는 곳에는 부정한 사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제당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고 바로 내려온다. 내려오면 강가에 술을 걸어놓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음식을 장만한다. 장소는 강가 떡바우소라는 곳이다. 떡바우소에서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하루 종일 놀았다. 떡바우소는 옛날에 그 바위에서 떡을 찧다 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바위가 넓고 반반해서 떡을 치기에 좋았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떡을 쳐서 모양을 내 왔다.

제사 복장은 옛날에는 한복에다 두루마기를 갖춰서 입었다. 그런데 요즘은 평상복 중에 깨끗한 옷을 입고 간다.

② 축문

축은 따로 없고, 제관이 축원으로 대신한다. 옛날에는 축문을 써서 읊었는데 축문을 쓰던 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축원만 한다.

심마니제의 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메와 술을 준비해 가서 빈다.

(먼저 연월일을 초들고) 산신님께 노구메 올립니다. 부정하지만 부정하다 마시고 내려 시망하시오. 뽕뚜루 감사합소사. 산신님께 산에 들어와서 뽕 부정한 일을 하더라도 산신님께서 그저 다 짐작을 불에가 합소사. 이 쇠술로 밥을 먹어도 초지일장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인간이 산신님만 믿고 이 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노구메를 올립니다. 그저 산신님께서서는 우리 마니를 언제든지 높은데 올라갈 때는 위로 올려 주시고, 또 내려올 적에는 안아 내려주시고, 그저 하탈들이 불천하시는 산신님께서 그저 풀어해라 하시고서 이 마니들을 많이 돌봐주시면 그저 산신님 복인 줄 알겠습니다.⁴⁰⁾

라고 축원한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있어도 맘이 든든하다. 나쁜 짓 안 하고, 설악산 같은 명산에 들어갈 때는 보신탕 같은 것을 조심해야 한다. 보신탕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한다. 돼지나 소고기는 먹어도 괜찮으나 보신탕은 나쁘니 먹지 말아야 한다. 그걸 먹으면 몸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축원을 이렇게 하고 산에 들어가면 밤에 잘 때도 든든하다. 심마니제를 지낼 때 제상에는 메, 술, 정화수, 향, 초를 올린다. 바람이 많이 불면 그냥 불을 켜지 말고 초를 쫓는다. 심마니제를 지내면서 소지를 올릴 때는 “산신님이 나를 잘 돌봐서 깨끗하게 하산할 때까지 돌봐주시오. 그렇다면 소지로 알려주시오. 우리 인간은 모르니까 산신님께서 좀 잘 봐주시오.”라고 한다. 이때 소지가 잘 올라가면 좋다고 한다.

집안에서 산신제를 지낼 때는 대주부터 내려오면서 축원을 한다. 종이를 말아서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말하는 순간에 다 타기 때문에 불이 타는 동안에 말을 빨리 한다.

산신님께, 우리 이 인간은 쇠술로 밥을 먹어도 초지일장을 내다보지 못하니 산신님께서 이 인간이 요번에 산신님 덕을 많이 본다고 하옵거든 소지 승천하옵소사....

40) 이 축원은 장곤옥 제보자가 제보한 것인데, 마을제사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산삼을 캐러갈 때 하는 것이다. 간혹 들을 수 없이 말을 흐려서 잘못 적은 곳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술처자(下銑妻子)⁴¹⁾하고, 내 몸이 금년에 아주 깨끗이 낡다고 하거든 소지 승천하옵소서.

라는 식으로 올린다. 그 다음에 불을 대려 올리면 아주 좋으면 종이가 반도 타지 않았는데도 하늘로 높이 올라간다. 직성이 나쁘면 빌면서 “이 인간은 모르니까 그저 산신님께서 부정하고 누추하고 재미 못 본다고 하옵거든 소지를 저울 부수다⁴²⁾해야 아웁니다.”하면 소지가 타다가 남는다. 그러면 나쁘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 남는 것은 자우를 둔다고 한다. 자우는 네가 암만 그래도 네가 드린 정성을 내가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직성이 나쁘다는 뜻이다. 그런데 소지가 잘 올라가면 내 몸이 개운한 것이 좋다는 뜻이다.

산에 올라가면 막을 치고 자더라도 뱀 같은 것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몸이 깨끗하지 않으면,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짐승도 보이고 하니 산신님께 그런 것을 제해 달라고 축원하는 것이다.

서낭당에는 서낭신이 있고, 서낭신을 보좌하는 수부가 있고, 어인이라고 노구메 지으려고 장사하던 것이 있다. 수부는 균인으로 말하면 대장 연락병과 같은 것이다. 어인마니는 산에 들어가 산삼 캐러가서 많이 빌고 이런 사람들이 사망해서 된 신이다. 또 산삼캐고 장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산 고개 넘어갈 때 서낭당에 빌면서 서낭님 이번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빌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서낭치성 들이던 사람들인데 죽어서 서낭님 퇴반(退飯)을 받아먹고 지낸다. 그래서 종이로 예단이라고 해서 세 군데에 건다. 산신도 그렇다. 그러니 맨 꼭대기부터 내려오면서 서낭신, 수부, 어인마니 순으로 한다.

나중에 고수레를 할 땐 맥없이 전쟁하다 죽은 귀신, 돌에 맞아 죽은 귀신, 물에 빠져 죽은 귀신 같은 잡귀들은 다 빌고 나서 밥이랑 명태대가리 등을

41) 식구를 데려갈 때 부르는 표현이다.

42) 타지 않는다는 뜻임.

때어서 버리면서 “이 꼴짜기에 서낭님 퇴반 받아먹고 다니는 잡귀들은 다 물러나고, 우리 하는 일에 객도질 하지 말고 이 퇴반 받아먹고 물러나라.”고 한다. 이는 산신당과 서낭당 모두 또 같이 한다.

빌 때는 날짜와 서낭님 산신님의 대상만 다를 뿐 내용은 다 같다. 산에 들어가면 아무 때고 아침저녁으로 밥을 해서 지내는 사람도 있다. 밥을 해서 그냥 먹지 않고 산신한테 빌면서 오늘 큰 소망을 달라고 한다. 산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설악산은 명산이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4) 영험담

옛날 이 마을에 살던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산제당에 가서 불을 놓았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곳으로 산제당을 옮겼다. 불을 지른 사람은 얼마 있다가 바로 죽었다. 불을 일부러 지른 것은 아니고, 산삼을 캐려고 산제당에 가서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기도할 때 켜 놓은 촛불을 끄지 않고 나뒀는데 그것이 옮겨 붙어서 불이 났다. 그 사람 형이 산에 가서 산삼을 캐는데, 본인도 산삼을 캐려고 기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그 사람도 산삼을 캐기는 했는데, 또 캐려고 하다가 그랬다.

제사를 지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을에 특별히 안 좋은 일은 생기지 않는다.

옛날에는 산제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산삼을 캐면 돼지를 잡아서 산삼을 캐게 해 줘서 고맙다고 제사를 또 지냈다. 그래서 다들 산을 잘 모셨다.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서낭당의 제사는 아예 비용이 드는 만큼 제비를 거둬서 쓴다. 반장이 제

물을 사오면 뭐가 얼마씩 해서 전체 얼마가 들었다고 하면, 집집이 똑 같이 나눠서 부담을 한다.

산제사가 끝나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결산을 한다. 결산을 하는 방법은 서낭당제사와 같다. 얼마를 거뒀는데 제비로 얼마를 썼다고 얘기한다.

결산을 할 때 다음 해 도가를 선정하지는 않는다. 도기는 제사 며칠 전에 선정하기 때문이다.

3) 마을제사의 특징

이 마을에는 제사를 일 년에 두 번 지낸다. 봄에는 서낭제사를 지내고, 가을에는 산신제사를 지내고 있다. 서낭은 남신이고, 산신은 여신이다. 그 규모는 산신제사가 더 크다.

서낭당 제사는 남녀 모두 참가한다. 보통 그 집에 호주가 참석한다. 그런데 산신제사는 남자들만 올라간다. 메를 지을 때도 남자들이 한다.

이 지역의 산신제사는 그 규모가 상당히 컸음을 소를 잡아 제사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아울러 영험성도 대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삼을 캐 때는 산제사를 지냈고, 산삼을 캐면 고맙다고 해서 돼지를 잡아 또 산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금기 중에서 술을 거른 후 병 입구에 부정을 가시기 위해 술가지를 쫓았다고 해서 특이했다.

이 마을에는 산신제와 서낭제사 외에는 다른 제사가 없다고 한다.

8. 북면 용대2리 2반

아니오니 산신제



용대2리 2반 아니오니 산제당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09년 9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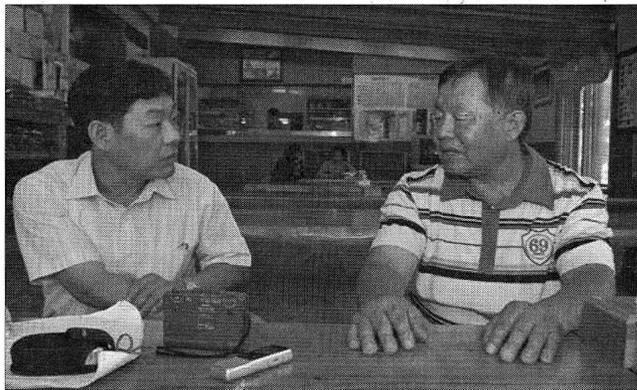
조사지: 제보자의 식당. 산제당.

제보자: 장범수(66, 남) 북면 용대2리 5반. 제시는 2반에서 지냄.

(2) 마을유래와 개관

인제군 북면 용대2리는 백담사 입구에 위치한 마을이다. 백담사 입구로 완전히 접어들기 전 오른 쪽에 위치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와 음식점 같은 장사로 살아가고 있다. 곳곳에 민박집, 음식점, 찻집 등이 있다. 용대2리 2반의 지명은 구만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산신각이 있는 곳은 아니오니라고 한다.

마을로 들어서
는 곳에는 설악
산의 입구답게
절경을 예고하는
것처럼 그 자태
가 다르게 느껴
졌다. 마을 앞을
흐르는 내(川)는
그야말로 절경이



장범수 제보자와 필자의 채록 장면
(사진제공 최증익)

다. 가끔 폭우로 인해 우마(雨魔)가 마을을 뒤덮고 가서 인명피해를 내기도

하지만 역시 아름다운 내는 그 자태를 숨길 수 없었다.

이곳의 내에는 예전부터 열목어, 산천어 등이 서식하고 있었고, 물이 맑기로 소문이 나있다. 그 때문인지 요즘 용대리에서는 겨울에 열목어축제를 하고 있다. 아직은 찾는 손님이 적지만 조금만 더 활성화되면 마을주민이 움직이면 마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황태축제와 결부하면 또 다른 볼거리와 먹거리로 인제의 이미지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을 확신한다.

용대리 2반에서는 3월 3일 아침에 산신당에 가서 제사를 한 번만 지낸다. 용대리 4,5반에는 마을제사를 일 년에 두 번 지낸다. 곧 3월 3일과 9월 9일에 지낸다. 1반도 따로 3월 3일에 제사를 지내고, 3반은 마을제사가 없다. 그래서 3반에서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4,5반 제사에 동참한다.

필자가 아니오니는 왜 그렇게 부르냐고 물었더니 제보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니오니의 유래〉

옛날 아니오니 쪽으로 가면 김 부자 터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는 나무가 덜 나서 그런데, 거기 메, 엄청난 산지기 부자가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끌짜기로 들어간 사람은 아예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그래서, 한 번 들어간 사람은 못나온다고 그래서 간 사람은 안 온다고 그래서 아니오니. 한 번 가서 못 오니까 아니오니. 아예 들어가서, (조사자: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 왜, 드라마도 많이 나오잖아요. 산지기들, 산 두목들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 붙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붙들어 가지고 농사짓고 그렇게 살았겠지요. 옛날에, (조사자: 아 그러니까 산 도적들이네요.) 예, 그런 식이죠. 그런데 엄청나게 넓어요. 그 터가 거기가 산이.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이름 들이 나무가 몇 백년 흘렀으니까, 그 전설이 그렇게 흘러 내려오니까, 저희들은 알지요.

거기 들어가는 데가 입구가 문이 얼마 안 커요. 그리로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산 능선으로 가게 돼 있고, 그러니 거기가 길이 이렇게 좁아져요. 거기 지키고 있다가 들어오면 붙들어가고 했겠지요. 그랬다고 그래요. 옛날 전설이 내려오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 확실한 것은 모르지요.⁴³⁾

아니오니 입구에 산신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2반은 37~40가구 정도 살고 있다.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 인구도 있으나, 불교 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민속종교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마을제사의 참석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거의 100%에 가깝다. 직접 참가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지만, 명단은 마을 사람 모두 한다. 여기는 자신의 종교를 떠나서 마을제사에 동참하고 있다.

마을의 주요 소득원은 민박과 식당 등이다. 농사짓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1980년대 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 모두가 농사를 했으나, 차츰 농사를 짓지 않더니, 이제 논농사하는 사람은 한 명만 있다. 밭농사는 조금 있다.

2) 마을제사의 내용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용대2리 2반은 3월 3일에 산신당에서 산신제를 따로 지낸다. 산신각의 명칭은 “아니오니 산신각”이라 한다.

용대2리 4,5반에서는 일 년에 두 번 제사를 지낸다. 그런데 3월 3일은 마을에 있는 서낭에서



아니오니 서낭당 내부

지낸다. 따로 제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나무에서 지낸다. 그러니 소나무

43) 장범수(66, 남) 2009. 9. 9. 채록.

가 당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9월 9일에는 산신각에서 지낸다. 산신각은 따로 만들어 놓았다.

2반에서 지내는 제사는 그냥 3월 삼진날 산신제 지낸다고 한다.

제당까지 거리는 마을 뒤로 난 길을 따라 차를 몰고 가다가, 청소년 수련 시설을 만든 곳에서 차를 세우고 걸어 들어간다. 발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얼마정도 가면 길가에 연이어 제당을 볼 수 있다.



아니오니 마니당 내부

제당의 형태는 자연적으로 된 암석 밑에다가 모셨다. 제당은 암석 밑에 돌을 쌓아서 만들었다. 모두 세 칸으로 이뤄져 있다. 산 쪽부터 마을 방면으로 산신당, 서낭당, 마니당 순으로 되어 있다. 산신당과 서낭당은 같은 높이로 만들었고, 마니당은 조금 낮게 쌓았다. 당의 지붕은 나무를 가로 걸치고 함석을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나무막대를 걸치고 예단을 걸어 놨는데, 산신당은 하나, 서낭당은 둘, 마니당은 셋을 걸어 놓았다. 예단은 한지에 오색 천과 실 타래를 둘러놓았다. 오색 천을 걸어놓은 이유는 알 수 없다. 옛날부터 마을

어른들이 오색 천을 걸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할 뿐이다. 예단은 봄에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모두 거둬서 없애고, 다시 건다. 거둔 오색 천은 마니당 옆에 보관했다가 많이 쌓이면 쓰레기봉투에 넣어 마을에 가서 태운다.

나름대로 독특하고 운치 있는 당의 형태이다. 시멘트로 해 놓은 것과는 달리 정감이 가는 모습이다. 당의 아래에는 계곡물이 시원하게 흘러가고, 그 경치 또한 아름다웠다. 군데군데 웅덩이를 이루며, 주변의 나무들과 조화를 이뤄 그야말로 절경이다.

누가 다녀갔는지, 돈 천원과 사탕과 정화수가 놓여 있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예전에는 마니당이 없었다. 산신당과 서낭당만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현재 마니당 아래에 불을 놓아서 뒤에 있는 돌이 연기에 그을려 검게 변했다. 그 후 마을에서는 마니당을 쌓고 불을 놓지 못하게 하였다.

여기는 옛날부터 산신, 서낭, 심메마니라 해서 셋을 모신다. 신은 산신님 한 분, 서낭님 두 분, 그리고 마니신 세 분해서 잔을 6잔을 붓는다. 그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옛 날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따라할 뿐이다.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셔서 알 수 없다. 신의 명칭도 알 수 없다. 옛날에 축문을 읊을 때는 알았던 것 같은데, 6.25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다시 지냈으므로 알 수 없게 되었다. 인공통치와 전쟁으로 인해서 전승이 되지 못하고 잊히게 되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비는데, 대체로 자식기원이나 합격기원은 절에 가서 많이 한다.

(2) 마을제사의 준비

① 제의 날짜와 시간

용대2리 2반은 3월 3일에만 아침에 산신당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시간

은 아침 7시 경이다. 7시에 준비를 해서 지내고 나면 아침 9시 정도 된다. 9월 9일은 마을 공동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만 가서 지낸다.

용대2리 4,5반의 마을제사는 3월 3일과 9월 9일에 지낸다. 시간은 아침 6시이다. 3월 3일은 서낭제이고, 9월 9일은 산신제이다. 산신제와 서낭제는 날짜를 달리해서 따로 지낸다. 1반도 따로 3월 3일에 제사를 지내는데, 3반은 지내지 않는다. 3반은 희망자에 한해서 4,5반 제사에 동참한다.

② 제관과 도가선정

옛날에는 제관과 도가를 생기를 봐서 따로 선정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변하다 보니 예전처럼 엄격하게 하지는 않는다. 다만 3일 전쯤 제삿날이 다가오면 누구보고 좀 해라 하는 식으로 선정한다. 주로 2반에는 반장이 한다. 그러면 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서 제사를 준비한다.

제관은 반장이 하고, 도가는 반장이 봐서 할 수 있는 집을 선정한다. 요즘은 강변식당 집이 3년째 하고 있다.

옛날에는 도가를 선정할 때 아주 엄하게 가릴 것을 가려 했다. 그래서 도가로 선정되면 부부가 같이 잠자리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가리는 것도 많았다. 목욕재계도 하고, 젓밥을 지어서 가져갔다. 또한 도가를 선정할 때 아주 깨끗한 사람을 가려 뽑았다. 도가는 일 년 전에 선정을 했다.

③ 제비와 제물

제비는 마을에 기금이 있어서 그 이자로 충당을 했다. 요즘은 기금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집집이 얼마씩 거둬서 사용한다. 올 해까지는 크게 돈을 거두지 않았다. 마을 기금이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외지에서 펜션 같은 것을 지어서 온 사람들이 얼마씩 기부를 해서 지낸다. 어떤



아니오니 산신당 내부

이는 돼지를 한 마리 내고, 어떤 이는 돈을 조금 내고 해서 그것으로 제비를 충당했다.

제물은 비교적 간단하게 차린다. 돼지머리, 과일, 메밥은 각각의 신마다 한 개씩 놓는다. 그런데 요즘은 따로 놓지 않고 수저만 신의 숫자대로 놓는다. 떡은 시루채로 하는데, 산신각에 먼저 올리고 다음 서낭신께 올리고 다음은 마니신께 올리는 식으로 한 개의 시루로 모두 지낸다. 산신이 제일 높으시니까 산신부터 서낭신 마니신순으로 한다.

메를 지을 때는 몸이 깨끗한 사람이 한다. 현장에서 하지는 않고 집에서 지어 간다. 현장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산불 때문이다. 일체 불과 관련된 것은 현장에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메와 떡을 모두 집에서 지어 온다. 다만 촛불만 겨우 켜 놓을 따름이다.

옛날에는 모두 현장에서 했다. 메도 현장에서 짓고, 떡도 산신각 앞에서 찌서 올렸다.

메를 지을 때 끓어 넘치더라도 뚜껑을 열지 않고 그냥 닫아 두어야 한다. 절대 열어보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현장에서 뚜껑을 연다. 메를 짓는 술은 냄비라고 한다.

요즘은 떡을 아예 맞춰서 가져온다. 옛날에는 떡을 한 말 정도 했기 때문에 시루가 아주 컸다. 왜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했다. 떡 뿐이 아니었다. 그곳의 골짜기가 좋으니까 그곳에서 아예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내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천렵을 했다. 그래서 계곡에서 돼지를 삶아 먹고 술을 마시면서 한 나절 동안 놀다가 산에서 내려왔다.

제기는 일회용 접시를 쓴다. 따로 마련한 것이 없다. 옛날에 비해서는 너무 간단하게 지내고, 성의도 많이 줄었다.

술은 정종을 쓴다. 산신께 먼저 따르고 서낭신께 따르고 마니신께 따른다. 옛날에는 막걸리를 썼다. 도가가 막걸리를 비롯해서 모두 해서 가져왔는데 요즘은 그냥 슈퍼에 가서 정종이나 소주를 사다가 쓴다.

준비하는 과정은 반장이 하는데, 반장이 차리는 집하고 같이 가서 장을 봐서 준비를 한다.

돼지는 이곳에서 돼지라 하지 않고 마리라 한다.

④ 제수준비

제수는 예전처럼 따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슈퍼에 가서 사서 쓴다. 쌀이며, 모두 사 온다. 옛날에는 따로 제수를 독에 두었다가 썼다. 왜냐면 도가를 일 년 전에 정했기 때문에 그 집이 하나씩 준비를 했다. 집에서 가장 먼 저 나는 것, 깨끗한 것을 따로 준비했다가 썼다.

⑤ 금기방법

뿔가 죽은 것을 봤던가 하는 사람은 산신각에 갈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동네 사람들 거의 다 가듯이 하니까 누가 뿔 봤는지도 모른다.

옛날에는 도가가 정해지고 제사 날짜가 다가오면 금줄을 치고 일체 외부인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다.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금기를 했다. 그런데 요즘은 금줄을 치지 않는다.

(3) 마을제사의 진행

① 제의절차

제사 날짜가 되면 아침 일찍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제당 주변의 청소이다. 사람들이 여럿 가서 청소하면서 준비를 한다.

정화수는 계곡의 물을 깨끗한 그릇에 떠서 올린다. 따로 우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계곡 물은 원래 깨끗하니 따로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정해진 것은 없다. 그래서 먼저 절하는 사람이 술을 따르고 같이 빈다. 같이 절을 하면서 각자 바라는 바를 빈다.

복장은 자유복이다. 따로 제복을 정한 것은 없다. 각자 집에서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온다.

소지는 이름을 적어가서 부르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한다. 소지는 마을 전체 소지를 먼저 올리고, 개개인은 올리지 않고 세대주만 올린다. 한 4-50장정도 올린다. 마지막엔 산신님께서 잘 받아 잡수셔서 고맙다고 한 장을 올린다.

축원은 소지를 올리면서 한다. 가령, 이 소지는 아무 개 소지인데 차를 몰고 다니면 무사하게 해달라고 하고, 공무원이면 아무 탈 없이 승진 잘 되게 해달라고 빈다. 그러면서 마지막엔 ‘잘 받아 잡수셔서 고맙습니다.’고 한다. 여기는 소지가 잘 안 올라갔다고 해서 다시 올리지는 않는다. 왜냐면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람이 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잘 오른다.

소지를 올리고는 여
럿이서 다 같이 배례를
하면 마을제사는 끝난다.

고수례는 사과 배 돼
지 등을 조금씩 떼어서
접시에 담아 산신각 옆에
둔다. 두면서 산신님이
잘 잡수셨으니, 여러 잡
귀들 여기서 먹고 가라고



아니오니 우물

한다. 그러면서 절을 한 번 한다. 고수례를 할 때 산신각에 따랐던 술을 모
두 붙는다. 이때는 술 뿐 아니라, 떡 등 모든 것을 다 조금씩 떼서 놓는다.
정화수도 함께 붙는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가보면 고수례 했던 것이 모두
없어진다. 뭐 짐승이 먹었을 것이다.

음복은 나이 많은 순으로 한다.

참가 인원은 보통 20명 정도이다. 마을의 가구 수가 40여 가구가 되는데
20여 명이 참가하니 반은 참가하는 것이다.

② 축문

축문은 따로 없다. 다만 동네 사람들 명단을 적어가서 소지를 올리면서
축원을 한다. 오래 전부터 축문을 읊는 것은 보지 못했다.

축원의 내용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2반이 구만동이므로 구만동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다. 시작은 대한민국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2리
2반 주민일동이 오늘 정성을 드리러 왔으니 산신님께서 그저 잘 돌봐 달라
고 빈다. 그리고 같이 절을 한다.

마지막에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불나지 않게 해달라고 빈다. 그리고 설악
산에 사람이 많이 찾아와서 잘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빈다.

(4) 영험담

제사를 지내고 고수레를 해 둔 것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모두 없어진다. 뭇 짐승이 먹었겠지만 접시만 남고 내용물은 모두 없어진다.

좋은 일보다도 예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지내지 않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자꾸 교통사고도 나고 하였다. 그래서 이젠 마을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그런다고 동네 사람들이 같이 인식을 했다. 그 이후에 다 같이 마을제사를 이어가게 되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마을이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가고 있다.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결산은 연말에 가서한다. 가령, 용대2리 2반 총 재산이 얼마인데 이번 산신제 지내는데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남았다고 한다. 그때는 구체적으로 돼지 얼마 등으로 얘기를 한다.

3) 마을제사의 특징

국립공원 정비할 때 마을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뒀는데, 개인이 하는 제당은 모두 철거를 하였다. 그런데 마을에서 지내는 제사는 없애지 않았다. 그래서 요즘은 제사를 지낼 때 마을에서 국립공원공단에 미리 연락을 해서 허가를 받는다.

이곳의 마을제사는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동체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인공치하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신의 명칭을 잊었든가 축문이 없어지기도 하였다.

산불 때문에 메와 떡을 집에서 쪄 오고, 마을 사람들의 회식이 계곡에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예전과 다른 것이었다. 아울러 예전에는 살아있는 돼지를 가져가서 잡고 함께 나눠 먹었으나, 요즘은 돼지머리만 올리고, 계곡에서 하던 회식이 없어졌다.

재미있는 것은 신격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성황신이 유입되면서 산신신앙이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곳은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신과 성황과 마니신을 함께 모시고 있었다.

특히 마니신은 심메마니신이라고 하였다. 심메마니는 산삼 캐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마을에는 과거에 산삼을 캐는 사람들이 많았다든가, 산삼을 캐기를 기원할 때 이곳 산신당에서 제사를 올리고 갔음을 의미한다.



아니오니 산신당과 제보자

가끔 가서 보면 술잔도 색 다른 것이 있고, 사탕도 놓여있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간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등산로 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제사 참가는 남녀 모두 하나 산에 올라가는 것은 남자만 하지 여자는 올라가지 않는다. 집에 내려와서 먹을 때는 여자들이 해 온다.

이 지역에서 특별히 비는 것은 3가지다. 하나는 마을 사람들 아무 탈 없이 지내게 해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국립공원 아무 탈 없이 해달라는 것이고, 셋째는 초등학교 잘 되게 해 달라는 것이다. 국립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하기가야 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설악산에 의지

해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가 산신제의 주요한 기원대상이라는 것은 이주 특이하다. 이는 초등학교가 마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나타낸다. 교육에 대한 인식도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마을에는 솟대와 장승제는 없다. 장승은 해 세우기는 했으나 제사를 지내지는 않는다.

9. 북면 한계1리 2반

뒷골 새 산신제



한계1리 2반 산제당 앞 저수지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09년 9월 9일 10시

조사지: 제보자의 작업장. 산제당.

제보자: 허근(73, 남) 북면 한계1리 2반

한주림(70, 남) 북면 한계1리 2반. 축원

이인준(78, 남) 북면 한계1리 2반

(2) 마을유래와 개관

한계리(寒溪里)는 원통에서 양양군과 속초시 방향으로 가다 보면 한계산이 나온다. 한계산 조금 못 미쳐 한계령과 미시령 및 진부령으로 가는 갈림길에 위치해 있다. 이 갈림길은 오른쪽으로 가면 한계령이고, 왼쪽으로 가면 미시령과 진부령으로 향한다. 이번에 조사한 한계1리 2반은 미시령 방향으로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자연부락 이름은 관평(1반), 옛날에 관공서가 있던 곳이라 해서 고원통(2반)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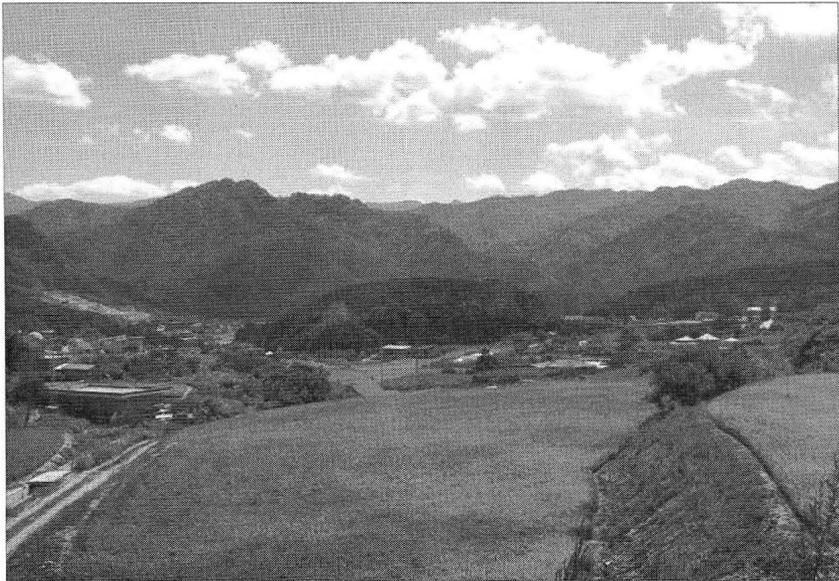
한계(寒溪)는 한자에서 보듯이 찬 시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인제군사』에서는 마의태자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다. 곧, 마의태자 일행이 한계산에 도착했을 때 몹시 추웠던 것을 되새겨 한계라 했을 것이라 했다. 이를 옮겨 본다.

신라김씨대종원(新羅金氏大宗院)의 기록을 보면 “마의태자(麻衣太子)가 경주를 떠난 것은 단기 3268년(935) 10월 하순이었고, 지금의 한계리에 도

착한 때는 살을 에이는듯한 추위와 눈보라가 심한 한 겨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들 일행이 몹시 추웠던 것을 되새겨 한계(寒溪)라 이름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이 지역에는 한계고성(寒溪古城)이 있으며 이 성에서 몽고병과 싸운 기록도 있다.

남면에도 그러하듯 이곳에도 마의태자(麻衣太子)와 관련된 한계산성, 재내 등 지명(地名)과 설화(說話)가 많이 전해 오고 있다.⁴⁴⁾



저수지에서 내려다 본 마을전경

한계리는 한계산 아래에 있다고 하여 한계동(寒溪洞)이라 하였다. 한계동이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한계리로 되었다고 한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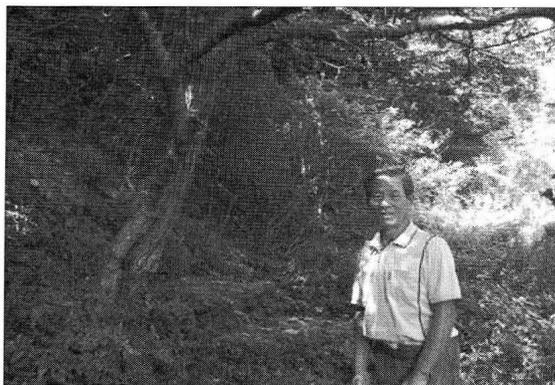
이처럼 한계리는 역사적으로 마의태자와 몽고항쟁 등과 깊은 관련이 있

44) 『인제군사』(인제군, 1966), 199-200쪽. 또한 <한계산성 발굴 복원 왜 필요한가>(2008.11.27)라는 오정진·정병석의 글에서도 마의태자가 한계산성을 보루로 광복운동을 펼쳤음이 신라사 연구회의 학술발표(세종문화회관, 1999.12.3)에서 밝혀졌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지명으로 대궐터와 재내 등이 있다.

45) 『한국지명총람』2, 강원도편(한글학회, 1966), 355쪽.

는 곳이다. 앞으로 이를 잘 활용하여 인제 발전의 터전으로 만들어야할 것이다.⁴⁶⁾ 지역의 사실을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꾀하지는 것이다. 이른바 스토리텔링을 하여 보다 멋진 인제를 가꾸어 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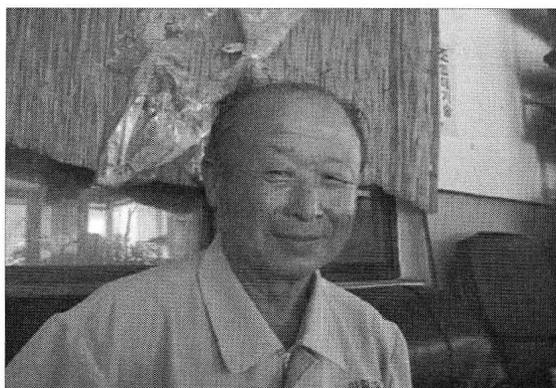
한계1리에는 예술인촌이 들어와 있다. 예술인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허근 제보자와 당목과 제당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토박이들과 생활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이 많다. 그래서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토박이 마을 주민들

과 교류가 많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제사를 지낼 때 예술인촌의 사람들은 참가를 하지 않는다. 예술인촌에는



한주림 제보자

서예, 화가, 작가 등이 들어와 있다. 생긴 지는 아마도 한 10여년 정도 된다고 한다. 예술인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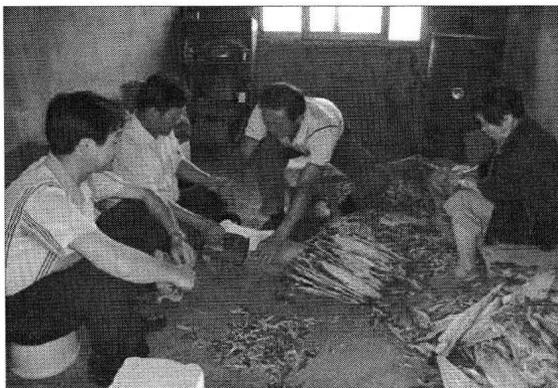
이 생긴 계기는 자연발생적이라고 한다. 처음부터 예술인촌을 만들겠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한 명씩 들어오다 보니 형성되었고, 나중에 군의 지원

⁴⁶⁾ 이학주, “신앙과 전설 속 마의태자와 명품마을 가꾸기”, 『인제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 심포지엄』(강원도민일보, 2009.12.17). 참조.

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의 주 소득원은 농사이다.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마을 위쪽 산신당 아래쪽에 보를 막아서 물을 가둬 둔 저수지가 있다. 저수지에는 민물고기를 풀어서 한동안 낚시터로 사용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산과 어우러진 풍광이 일품이었다.

마을사람들이 부업으로 황태깍질을 까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황태깍질을 까는 작업도 숙달이 돼야만 그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 황태를 잔뜩 쌓아두고 작은 칼로 뿔 곳을 오린 후에 손으로 잡아 당기면 껍질이 까졌다.



허근 제보자와 필자와 백창현 사무국장
황태 작업하는 장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을 입구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따라 식당과 가게가 있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앞으로 새로 뚫려서 물건을 사러 오고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 훨씬 줄어들었다.

마을에는 농산물 작업장이 있다. 특히 이곳에는 고추를 많이 한다. 고추를 따다가 선별하는 일을 마을 작업장에서 했다.

마을에서는 종교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주변에 유명한 사찰이 많으므로 불교신자들도 있고, 최근에는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도 늘어났는데, 그래도 아직은 마을 고유의 민속종교가 그 주류를 이룬다. 기독교는 한계2리에 감리교가 있다. 원통의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도 있다. 모두 합해서 기독교는 5~6명 정도고, 불교는 3명이다. 불교는 백담사, 석황사, 구인사에 보통 간다.

이 지역은 과거에 38°선이 가로 놓이면서 북한의 통치를 받았다. 그래서 이쪽의 젊은이는 인민군도 갔다 오고 국군도 갔다 왔다. 이북 통치시절에는 인민군에 들어가야 했고, 수북이 되고는 국군에 입대하여 생활을 해야 했다. 당시는 시키면 다 해야 했다. 전쟁 중에는 민간인의 피해가 많았다. 인민군과 국군이 서로 지역을 점령할 때마다 고초를 겪어야 했다.

2) 마을제사의 내용

허근 제보자의 황태 작업장에서 기초 조사가 끝나고, 제보자의 안내에 따라서 제당으로 향했다. 마을 저수지 아래 차를 세우고 저수지 옆으로 걸어 제당에 이르렀다. 끝까지 안내를 해 준 제보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한계1리에는 현재 3군데서 마을제사를 지내고 있다. 한계1리는 3반까지 있는데 3개 반이 모두 따로 제사를 지낸다. 1반은 말상골에 있고 제사 날짜는 3월 3일과 9월 9일이다. 2반은 지당골⁴⁷⁾에서 지내는데, 3월 3일과 9월 9일이다. 3반



한계1리2반 박대통령 집권 때 산신당터

은 제당골에서 3월 3일과 9월 9일에 지낸다. 2반과 3반은 골 명칭이 모두 제당골이나 골의 위치가 다르다. 예전에는 한계1리 2반과 3반이 같이 제사를

⁴⁷⁾ 원래는 ‘뒷골 새’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산신제를 지내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지당골이라고 부른다.

지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갈라지게 되었다. 같이 지내던 장소는 현재 3반에서 지내는 곳이었다. 참고로 한계2리는 리에서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낸다.

이번 조사는 2반을 조사하였다.

이 마을에는 산제당만 있고, 서낭당은 없다. 3반도 산제당만 있다. 1반만 산제당과 서낭당이 같이 있다.

2반의 산제당이 있는 골을 가기 위해서는 승용차로 마을 저수지 밑에까지 가서 걸어가야 한다. 마을 저수지는 마을이 다 내려다보이는 높은 위치에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수지의 역할이 마을 논에 물을 대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저수지 오른쪽으로 잡초가 무성하게 난 곳을 가로질러 산 계곡으로 오르면 저수지가 끝나는 지점에 다다르게 된다.

저수지 끝부분 작은 계곡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는데, 제를 지낼 때는 이 물이 우물을 대신한다. 제당에서 조금 올라간 지점에 계곡을 조금 파고 주변을 청소하여 우물로 쓴다.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제당 앞에 있는 개울에 탕을 세 개를 만들었다. 곧, 상탕 중탕 하탕이라고 하였다. 상탕은 정화수와 쌀을 씻고, 중탕은 제관들 세수하고, 하탕은 설거지하는 탕이었다.

우물 아래 지점으로 약 2~3m정도 되는 깎아지른 언덕을 내려가서 계곡을 건넌다. 계곡을 지나 맞은 편 산 쪽으로 계곡을 따라 약 15m정도 내려가면 산제당이 나온다.

원래 옛날 산제당은 지금 있는 윗부분으로 30m정도 올라가 있었다. 제보자와 함께 올라가 보니 그 터만 있을 뿐 아무 것도 없었다. 원래 있던 제당은 당집을 짓고 지붕도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당시 미신타파 한다고 해서 부수었다. 산제당을 부술 때가 한 1973~4년도 된다. 새마을운동을 할 때이다.⁴⁸⁾ 바쁜데 산에 가서 밥을 해놓고 논다고 그랬다. 곧, 낭비라고 해서 못하게 한 것이다. 산제당을 부술 때 이인준과 허근 제보자가 동네사

48) 참고로 새마을운동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제창한 것이다. 근면 자조 협동의 기치아래 펼쳐진 조국 근대화의 개념으로 시작한 것이다.



한계1리 2반 산신당과 당목

람들하고 같이 가서 빌었다. 나라에서 시키는 일이라 어쩔 수 없으니 산신님은 굽어 살펴달라고 하였다. 나라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니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산제당을 부셨다. 그렇게 빌어서 그런지 산제당을 부수고 특별한 일은 없었다.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제당을 원래 자리로 옮겨 다시 산제사를 지냈다. 그 다음부터는 마음 놓고 지냈다.

또 이 지역은 인민군의 통치를 받을 때도 마을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다. 그때도 미신타파라고 해서 제당도 있고 다 있었으나 지내지 못하게 해서 할 수가 없었다. 하다못해 자기 할아버지제사도 맘대로 지낼 수가 없었다. 그러면 자가비판을 하라고 해서 여러 사람 앞에 서서 비판을 했다. 가족들끼리도 마음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이처럼 이 마을은 두 번씩이나 마을제사 탄압을 받았다. 곧, 인민군 통치와 박정희 대통령 때이다. 명목은 모두 미신타파였다.

현재 산제당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한 뒤 한 2년 정도 지나서 동네에서 다시 만든 것이다. 그때가 1981년경 될 것이다. 그래서 시멘트로 단을 쌓아 놓은 것이 전부이다.

허근 제보자는 마을제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현재 지내는 장소가 박정희 대통령이 제당을 부수라고 할 때 있던 곳이다.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제당은 박정희 대통령 몰래 마을주민이 와서 제당을 마련해 놓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그 후 제사를 맘 놓고 다시 지낼 수 있었을 때 원래 지내던 장소인 현재 위치로 제당을 옮겼다.

제사를 한 번도 거른 적은 없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감시의 눈을 피해서 몰래 지내기는 했으나 한 해도 제사를 거르지는 않았다.

옛날 산제당 모습은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올려놓을 정도의 크기였다. 여기는 과거에 돼지를 통 마리로 올렸다. 그리고 밑에 절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다. 현재는 위의 사진에서 보듯이 제단이 있고 제단 밑에는 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멘트로 만들어 두었다. 현재 제단 앞에는 먼저 제사 때 걸어둔 한지와 실이 걸려있었다. 제단 옆에는 신목이 있다. 신목은 단풍나무이다.

제당과 저수지까지의 거리는 약 30m정도 되었다.

2반의 산제당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수복 후에 만들어졌다. 한국전쟁 전에는 현재 3반에 있는 지당골에 있었다. 그런데 2반과 3반이 같이 지내다가 보니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았다. 그래서 제보자가 반장을 볼 때 두 반의 제사가 나눠지게 되었다. 곧, 우리가 마을고사를 지내는 것은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것인데, 술 먹고 싸우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갈라지게 되었다. 갈라서서 현재 위치로 옮긴 것은 1964년도부터이다. 그때부터 2반만 따로 지내게 되었다. 여기 장소로 지내게 된 것은 이곳이 산제당으로 적당하기 때문이었다. 곧, 물도 있고, 산수도 좋으니 하자고 한 것이다. 여기 골 이름은 옛날에는 '뒷골 새'라 했다. 그러니 이 지역의 산신제는 <뒷골 새 산신제>가 되는 것이다. 제당터는 마을이장이 동네에서 쓸 수 있도록 회사한 것이다.

신의 명칭은 산신(山神)이고, 당 이름은 산제당이라 한다. 모시는 신은 여자신(女子神)이다. 이곳 설악산 일대는 대부분 여신(女神)이라고 한다. 그 여신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이 제당에는 마을 공동제사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바라는 바가 있으면 메를 지어놓고 기원을 한다.(허근)

이 동네에는 따로 서낭당이 없다. 그런데 기린면 하남에는 산신당도 있고 서낭당도 있다. 이를 마을에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여기서는 산신당에서 먼저 지내고 서낭당에 와서 지낸다. 예전에는 하루 전에 밤을 새워가면서 마리를 손질하고, 안주는 다른 것을 먹으면서 술도 한 잔하였다. 이때 마리는 제사를 지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이가 모두 객지로 나가 있음으로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한주립)

(2) 마을제사의 준비

① 제의 날짜와 시간

마을제사는 일 년에 두 번 지낸다. 3월 3일과 9월 9일이다. 시간은 아주 일찍 새벽에 가서 지낸다. 사람들 보지 않을 때 지내야 된다고 해서이다. 그 원인은 이곳에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내기 전에 지내야 한다고 해서이다. 보통 7시 경이면 산제당에 올라간다. 아침 7시경에 제물로 쓸 돼지 손질이 끝나기 때문이다.

② 제관과 도가선정

여기는 도가를 맡은 사람이 제관이 된다. 도가를 선정할 때 옛날에는 생기를 봐서 했다. 그런데 생기를 봐서 하니까 하는 사람만 계속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개인에게 따로 이익 되는 것이 없으니,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자 세대주가 있는 집에 한해서 돌아가면서 하자고 했다. 이렇게 한지는 한 10년 조금 넘었다.

축관은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현재는 한주립 씨가 한다. 축을 따로 쓰지는 않고 축원을 한다.

도가를 선정했는데 만약 부정한 일이 있으면 사람을 교체했다. 도가가 부정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날짜를 변경하지는 않았다.(허근)

도가를 선정할 때 생기를 봐서 부부가 함께 있는 집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그런데 이제는 부부가 다 있는 집이 많지 않다. 그래서 해마다 하는 집이 도가를 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돌아가면서 도가를 하자고 하였다. 그래도 혼자 사는 집은 할 수 없고 부부가 함께 있는 집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었다. 여기는 도가가 자동으로 제주가 된다.(한주립)

③ 제비와 제물

제사비용은 누가 참가하는지 알려고 호당 5천 원씩 거두고, 나머지는 반자금에서 충당한다.

제사를 지낼 때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쓴다. 돼지를 잡을 때는 제사 지내는 날 새벽에 한다. 옛날부터 봄가을로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 암돼지 수돼지를 가리지 않는데, 수돼지가 맛이 없으니까 암돼지를 많이 잡는다.

돼지를 사는 곳은 양돈농가이다. 돼지를 잡는 곳은 이제는 마을창고 겸 작업장의 옆에서 한다. 돼지를 밖에서 잡으니까 보기도 뭐 하고 해서이다. 옛날에는 돼지를 잡을 때 도가집에서 했다. 도가집에서 하기 전 옛날에는 산제당 앞에 돼지를 몰고 가서 잡아 썼다. 지금은 도가집에서 양념 같은 것만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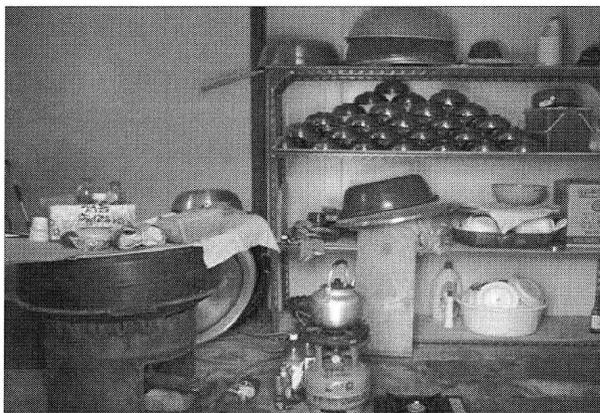
산제당 앞에서 돼지를 잡아서 쓸 때는 통 마리를 올렸으나,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가 70살이 넘고 해서 힘이 들어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머리와 간과 콩팥 같은 것을 떼서 올린다. 돼지머리는 날것으로 올린다.

제사에 쓰고 남은 고기는 집집이 나누어 가져간다. 내장 같은 것은 손질을 해서 술을 걸어놓고 끓여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 자리에서 먹는다. 제사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고기를 가져갈 돈을 내 놓으면 똑 같이 고기를 나눠 준다. 그렇지 않고 소지만 올려달라고 정성을 보이면 소지만 올려준다.

다른 제물로는 과일은 올리지 않고, 메는 햅쌀이 나오면 햅쌀로 해서 깨끗이 정성을 다해 올린다. 메밥은 한 개만 새옹메에 지어서 쓴다. 메를 지을 때는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한다. 메를 지을 때는 절대 열어보지 않고, 넘치려고 하면 행주에 물을 묻혀서 뚜껑을 닦아주면 된다.

떡은 올리지 않는다.

정화수는 첫째 탕에서 물을 떠서 올린다.



한계1리 2반의 제기

술은 지금은 사온다. 옛날에는 도가집에서 항아리에다 술을 담가 제사를 지낼 때 쓸 만큼 가져갔다. 제당 앞에 묻는 것은 보지 못했다. 요즘 쓰는 술은 약주를 쓴다.

제단에 올리는 제물은 정화수와 메와 돼지가 전부이다.

순가락과 젓가락은 아예 그곳에만 쓰는 것으로 따로 마련되어 있다. 마을 창고에 제물을 준비하는 모든 도구를 보관하고 있다. 술과 가스통과 그릇 등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 옛날에는 그릇을 보관하는 집이 따로 있었다. 현재 쓰고 있는 제기는 마을에서 지난해 마을기금으로 따로 마련하였다.(허근)

돼지를 이 마을에서는 ‘마리’라고 한다. 예전에는 돼지를 통으로 가져가서 올렸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들고 하니까 머리, 발 네 개, 간, 콩팥 등을 꺼내서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한주립)

④ 제수준비

제수를 관리하는 사람은 반장이 한다. 반장이 도가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치성드릴 제수를 준비한다.

제수 중 돼지를 준비할 때는 특별히 가리는 것은 없다. 양돈농가에서 제물로 쓸 것이니 깨끗한 것으로 달라고 해서 산다.

쌀은 가을에는 햅쌀로 쓰고, 봄에는 깨끗한 것으로 쓴다. 도가집에 모든 비용을 미리 주므로 도가집에서 알아서 한다.

⑤ 금기방법

예전에는 도가에 선정되면 한 이틀 전에 소나무 아지를 잘라서 왼새끼에 문종이와 송침을 해서 걸었다. 황토를 뿌리지는 않았다. 도가는 특히 제사 지내는 날은 목욕재계를 하였다. 도가로 선정되면 개고기 먹지 말고, 상가에 가지 말아야 한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산제당에 가서도 금줄을 쳤다. 산제당 금줄도 도가집 금줄과 같다.

그리고 남들 지내기 전에 가서 마을제사는 지내야 한다. 개인들은 양심이 있으므로 마을제사를 지낼 때는 나중에 한다.

요즘은 금줄을 치지 않는다. 금줄 치는 것이 없어진 것은 약 15년 정도 된다.

지금도 부정한 사람은 제사에 참가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아주 엄격했다. 제삿날이 가까이 다가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철저히 금기를 했다. 혹시나 어디 개죽은 것이라도 볼까봐 전전긍긍하였다.

(3) 마을제사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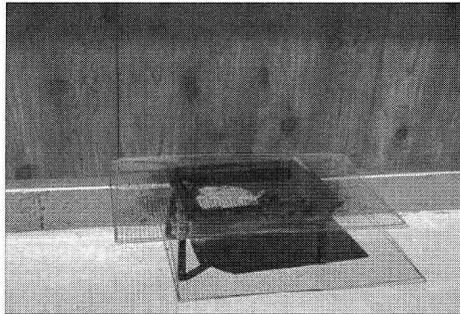
한계1리 2반의 마을제사는 필자가 직접 참관하지 못했다. 이날 인제군에 서는 아주 많은 곳에서 제사가 행해졌다. 그래서 채록을 하지 못한 서화리에 갔기 때문이다. 다만 여름에 이곳에 들러서 비교적 자세히 채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다.

① 제의절차

제사를 지내기 전날 도가집에서 제당 청소를 한다. 제당청소는 주변의 잡초가 있으면 뽑고, 우물을 쳐서 깨끗하게 한다.

옛날에 금줄을 칠 때는 금줄을 쳤다가 거둘 때는 소지올릴 때다. 금줄은 거둬서 불에 태웠다.

요즘은 메를 도가집에서 지어 가기 때문에 제당 앞에서 제물을 마련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 옛날에는 메를 짓고, 돼지를 잡는 것을 제당 앞에 가서 했기 때문에 아주 분주했다. 지금은 돼지도 마을 창고 옆에서 잡아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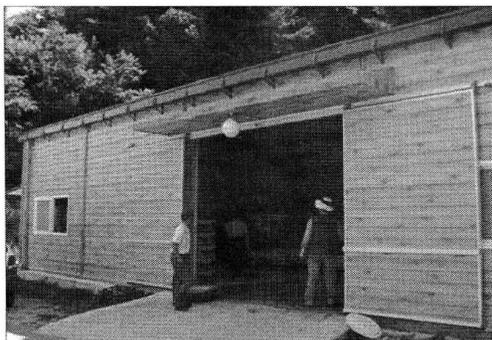


회식 때 돼지 굽는 곳

여기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따로 없다. 옛날부터 도가 한 사람이 단잔을 올린다. 옛날에 축관은 따로 있어서 축을 고했다. 그런데 지금은 축관이 축원만 한다. 절은 삼배를 한다.

그 다음에는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마을 전체와 세대주별로 모두 올린다. 소지를 올릴 때도 잘 되게 해달라고 축원을 한다. 소지의 내용은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 소지 올립니다. 아무 집안에 병고 없이 일년 잘 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올린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남들은 다 잘 타는데 꼭 조금 남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해준다. 그리고 내려와서 소지가 잘 안 올랐다고 하면, 본인이 알아서 정성을 다시 드린다. 소지가 다 타지 않은 것을 보고 ‘자위(또는 자리) 남졌다.’고 한다.



한계1리 2반 마을창고 및 작업장

제복은 따로 하지 않고 평상복 중에서 깨끗한 것을 골라 입는다.

제사가 끝나면 고수례를 한다. 고수례는 제상에 올렸던 돼지 귀와 주둥이 조금 떼고, 메를 세 손가락 떼서 풀잎에 싸서 제단 위에 둔다.

음복은 제관부터 한 잔씩 한다. 돼지는 날것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먹을 수는 없다. 간은 생간이지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복을 하면서 안주로 먹는다.

참가자는 3명뿐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밑에서 음식준비를 한다. 제사 지내러 갔던 사람들이 내려오면 도가집에서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나면 다들 헤어진다.

② 축문

축문은 과거에 읊었으나, 현재는 축원만 한다.

옛날에 문규희 씨가 여기 살아 있을 때는 축을 써서 읊었다. 그 이후는 축을 쓸 사람이 없었다. 이때 축문을 마을에 물려주지 못하였다.

현재 축원은 이 마을에 사는 한주림(70) 제보자가 한다. 한주림 제보자에게 제당에 가서 진짜 하는 것처럼 축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사설을 말했다. 제주는 도가가 자동으로 되므로 도가가 잔을 올리고, 다음에 축관이 잔을 올리고 축원을 한다.

대한민국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1리 2반 전 주민이 합심하여 마리와 잔을 올리오니 산신님께서는 흠향하시고, 우리 마을 주민들이 아무 탈 없이 그저 일 년 내내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잘 그저 이뤄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도가집에 소지를 먼저 올려주고,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소지를 올린다. 각 가정마다 소지축원 내용은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다. 가령, 제보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이 소지는 한주림 소지올시다. 일 년 내내 가정도 편안하고 그저 하는 일이다 순조롭게 뜻대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집안에 노인들이 있으면 노인들 건강부터 기원한다.

(4) 영험담

마을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잘 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을에 큰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다.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마을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할 때 제사에 대한 결산을 한다. 돈을 얼마를 거둔 것부터 돼지 얼마 들어가고 해서 얼마가 남았다는 것을 마을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한다.

제사는 순번제이기 때문에 따로 다음 제사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3) 마을제사의 특징

이 마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때 마을제당을 헐라고 하였다. 그래서 마을제당을 헐었는데 없앨 수는 없어서 원래 위치에서 30여m 위로 옮겼다. 이곳은 풀이 우거져서 아래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 후 박 대통령이 서거한 후에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겨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제관이 여럿 있는 것이 아니라 제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한다. 이것은 가아2리와 서화리의 제사도 그런 것으로 봐서 이 지역의 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제물을 올릴 때 메와 돼지만 올리는 것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었다.

축문이 없이 축원만 한다. 그리고 마을제사가 분화된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곧, 3반에서 같이 지내던 장소가 불화로 인해서 나누어진 것이다.

제사를 지내기 전까지 여자들은 참석할 수 없다. 제당 근처에 올라가서도 제사가 끝나지 않으면 멀리서 있다가 제사가 끝나면 같이 와서 음식을 나눠 먹었다. 제물을 만들 때도 모두 남자들이 했다.

기독교 다니는 사람은 아예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마찰은 없다.

외지인들도 참가비만 내면 누구든 참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소지도 올려주고 돼지고기도 나눠주고 모두 똑같이 한다.

이 지역에는 산신제 외에는 아무런 전통제의가 없다.

10. 상남면 방아다리 마을

흑다리 산신제



방아다리 마을 할아버지당 진설장면(2009년 음력 8월 14일)
(사진제공 최종익)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05년 2월 22일 9-15시

조사지: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 방아다리마을

제보자: 임성재(49, 남):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 이장. 초헌관.

민병렬(73, 남):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

최계화(64, 여):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

윤양순(65, 여):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

김원철(68, 남):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 아헌관.

김성렬(93, 남):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 종헌관. 축관.

(2) 마을유래와 개관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는 원래 기린면 지역이었다. 옛 기린현의 남쪽 위가 되므로 상남(上南)이라 하였다.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엄수동, 방아다리, 아홉사리, 자포대, 봉남대를 병합하여 상남리라 하였다. 1945년 38선이 그어짐에 따라 그해 9월 18일에 홍천군 신남면에 편입되었다가 1954년 수복지구 행정이양에 따라 인제군 기린면으로 환원되었으며, 1983년 1월 10일 기린면 상남 출장소가 상남면으로 승격되면서 상남면으로 편입되었다. 이 가운데 상남 3리가 방아다리 마을이다.

방아다리는 마을의 형국이 디딜방아 다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이며, 실제로 이곳에 디딜방아가 있기도 했다. 다리 형국 사이에는 소(沼)가 있었는데 물이 많이 흐르면서 토사가 쌓여서 현재는 소가 없어졌다. 이는 사람

에 비유하면 여성의 국부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곳 사람들은 방아다리라고 표현하였다.

이곳의 가구 수는 102가구이며, 인구는 290명 정도 인데 남자가 260명이고 여자가 30명으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여자가 적은 것은 학생들이 학교로 나가고, 젊은이들이 직장 때문에 자꾸 나가기 때문이다. 집성촌은 아니며 모두 각성이다. 현재 이 마을은 다른 농촌과는 다르게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다른 농촌과 마찬가지로 노총각이 많다.

초등학교는 예전에 두 개가 있었는데 폐교가 되고 상남초등학교에 모두 다닌다. 교통이 좋아서 약간 멀지만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 예전에는 서당이 있어서 대부분 한문을 수학하였다. 좌훈 보다는 번차를 주로 했다. 보름이나 한 달 정도씩 날을 잡아서 이집 저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서당이 열렸다. 훈장 어른은 마을에서 글 잘하는 어른을 세우기도 하고 외부에서 불러들이기도 하였다.

종교는 여러 종교가 있다. 교회는 이 마을에 없고 상남에 있는데 몇몇 다니는 사람이 있다. 불교는 이곳에 절이 세 곳 있는데, 문안사 대곡사 대경사이다. 꽤 오래된 절이라고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을 행사에는 모두들 적극적이라고 한다.

농사 작물은 고추, 피망, 토마토, 콩, 옥수수, 배추, 무 등으로 다양하다. 이곳은 해발 700m 이상이 되는 지역으로 특히 고랭지 채소가 생산되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마을의 진산은 가득산인데 해발 1480M이며 명산이다.

마의태자가 지나다가 머문 곳이라 하여 마의태자 비도 세워 두었다. 참고로 상남리 옆의 김부리에는 마의태자비와 김부대왕각이 세워져 있다. 김부리는 오로지 김부대왕각과 비만 남아 있고, 군사 시설 관계로 온 마을이 다른 곳으로 이주 하였다.

민 씨 며느리의 열녀각이 하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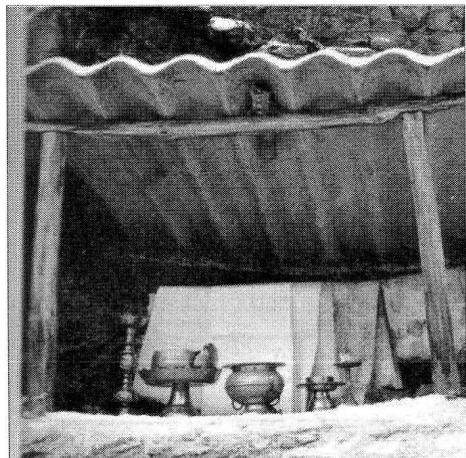
마을의 특징을 물었더니 <학진령>이라는 풍수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이곳에서 씨라는 사람이 살았다. 서 씨의 부친이 돌아가셔서 묘 자리를 찾고 있는데 어느 스님이 지나다가 한 자리를 잡아주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곳에 묘를 써야 한다고 하였다. 장남한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있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하관 시간에 맞추어 묘혈을 파다 보니까 너래(넓적바위)가 나왔다. 그러니 아무리 그래도 바위 위에다가 어떻게 시신을 모시냐고 말이 많았다. 스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곳에 쓰라고 했는데, 그만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래를 깨게 되었다. 너래를 깨자 그곳에서 학(鶴)이 나와서 날아갔다. 그래서 이 고개를 학진령이라고 한다. 스님이 시킨대로 너래를 깨지 않고 묘를 써야 하는데 너래를 깬기 때문에 큰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2) 동제의 내용

(1) 제당의 명칭과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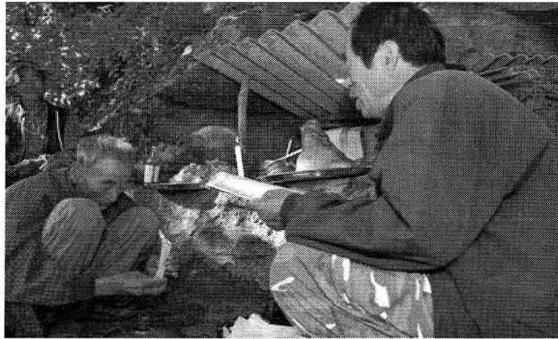
방아다리 마을의 동제는 정월 14일과 팔월 14일 오전에 행해진다. 일 년에 두 번 행해지고 있다.

산제당은 마을회관에서 뒤로 난 산으로 향해 약 1km 남짓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개울을 건너 150여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차도를 닦아놓아서 제당 바로 앞까지 자동차가 갈 수 있다. 그곳



할아버지당 장면(2005년)

은 제물을 장만할 충분한 공간과 소형트럭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꽤나 넓은 공간이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작은 개울이 흐르는데 한 겨울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산신제를 지낼 때는 이 물을 사용한다.



방아다리마을 할아버지당 소지축원(2009년)

제의의 명칭은 “흙다리산신제”라고 하는데, “할아버지 제당”과 “할머니 제당”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할아버지 제당이 본당이고 할머니 제당은 할아버지 제당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설치했다고 한다. 곧 산신도 남녀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여겨서란다. 음양이 서로 어울려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할아버지 제당은 개울 옆의 제물을 장만하는 곳에서 산으로 약 5m정도 올라가서 위치해 있다. 마치 범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한 바위 밑에다가 슬레이트로 지붕을 해서 덮고 밑에는 나무로 기둥을 해서 놓았다.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는 단은 시멘트로 평평하게 손질해 놓았다. 당 안에는 나무를 가로 놓고 한지를 걸어두었다. 당의 크기는 높이가 약 60cm정도이고 넓이가 약 1m정도로 그리 크지 않다. 당 주변에는 자연적으로 자란 많은 나무들이 즐비하게 서있다. 당의 위치가 비탈에 있으므로 그 밑에서 절을 할 때는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절을 하게 된다. 산제당으로 오르는 길목은 계단식으로 닦아 놓았다.

할머니 제당은 할아버지 제당에서 개울을 건너 약 30m정도 내려가면 큰 소나무 앞에 설치해 두었다. 지붕은 역시 슬레이트로 했는데 이중으로 덮여 있고, 그 밑에 돌을 쌓아서 양 벽을 만든 후 나무로 가로놓아 지붕을 엮었다.

크기는 할아버지 당보다 약간 작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몇 안 되는 제물이 꼭 들어찰 정도이다. 당 안에는 할아버지 당과 같이 나무를 가로놓고 한지를 걸어 두었다. 할머니 제당 주변에는 나무들이 뺨뺨이 들어차 있어서 어두컴컴하였다.

이곳은 산신과 성황당을 같이 모시므로 마을에는 산제당만 있고 따로 성황당이 없다. 옛날에는 수구막이라고 해서 마을 입구에 성황당이 있었으나 김성렬 옹이 성황신을 산신당에 같이 모신 이후로 성황당이 따로 없고 제의도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2) 동제의 준비

① 제관(祭官) 선정

제관과 축관과 비서하는 사람 및 도가가 있다. 이들은 나이를 보아 생기복덕을 맞추어서 선별하며 혹시나 집안에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이로 바꾼다. 한 일주일 전부터 선정을 하는데 이에 선정된 사람은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부정한 것을 하거나 보지도 말아야 하며, 집안에 달거리 하는 여인이 있어도 안 된다고 한다.

2005년 정월 산신제에는 초헌관이 마을 이장 임성재(49), 아헌관이 마을 총무 김완철(68), 종헌관이 김성렬(93)이며, 축관은 김성렬 옹이 같이 맡았다.

여기는 도가가 셋인데 세 집이 몸을 정결히 하고 서로 협의하여 제물을 준비한다. 2005년 정월 14일 산신제에 도가는 황귀환, 장홍수, 장남윤 님이 하였다. 제물을 세 집이 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 집이 서로 의논하여 한 곳에서 만든다. 그리고 도가에는 따로 금줄을 치지는 않았다.

② 제비(祭費)와 제물(祭物)

제사 비용 마련은 마을의 호수마다 정성으로 만원 내지 2만 원 정도를 거두어서 사용한다. 이곳에는 통돼지를 잡아서 쓰기 때문에 제의 비용이 좀 많이 든다.

원래 돼지는 산신제를 지내는 날 아침에 산제당 앞에까지 몰고 가서 잡아서 제물로 쓰는데, 2005년 정월 대보름 산신제에는 날이 추워서 미리 잡아 손질을 해 두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털과 내장을 제거한 돼지를 가져갔다. 돼지를 선정할 때는 옛날에 비해 조금 느슨해 졌다. 옛날에는 아주 정성스럽게 키운 집에서 사왔다. 지금은 돈사에서 키운 돼지 중에 한 마리를 사와서 희생물로 쓴다. 돼지를 고를 때는 새끼를 낳지 않은 암돼지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아직 교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선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마



메 짓는 장면(2005년)

치 옛날에 인신공희를 할 때 숫처녀를 올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였다. 깨끗하고 신선하면서도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고 하였다. 돼지는 머리와 다리 한쪽을 올린다. 나머지 부분은 제의가 끝나고 음복할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구워 먹는다.

제기는 늦그릇을 쓰는데 촛대, 향로, 메 그릇과 메 받침, 술잔과 술잔 받침에 국한 되었다. 이 늦그릇은 항시 이곳에 두었다가 쓰는 것 같았다. 처음 도착했을 때 보니 이미 그곳에 있었다. 나머지 제기는 나무로 된 것을 사용하였다. 다만 돼지를 올리는 그릇은 쟁반을 사용하였다. 메는 솔 채로 올려 놓았다. 제를 지낼 때 술잔과 술잔 받침은 늦그릇을 빼고 나무로 된 것을 사용하였다.

떡을 잘 찌면 신이 흠향했다고 여기며, 메를 짓고 나면 그 위에 발자국 같은 것이 생겨서 구멍이 송송나고 하면 부정이 안타고 마을에 좋은 일만 생긴다고 믿었다. 그러면 노인들은 만수무강하고 젊은이들은 건강하면서 하는 일 잘되고 풍년농사 이룬다고 하였다. 가을에는 팔월 14일에 농사를 잘 해주어서 고맙다고 또 지낸다. 떡의 경우도 떡 위에 어떤 현상이 나면 그렇게 생각했다. 떡은 팔 시루떡을 찌서 몇 조각을 잘라서 올렸다. 떡과 메는 산제당 앞에서 직접 찌고 지었다.

술은 원래 도가가 빚어서 할아버지 제당 밑에 묻어 두었다가 파내어서 제를 올리는데, 올해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땅을 팔 수가 없어서 약주를 사서 썼다. 제당을 중심으로 아랫부분 양쪽에 술을 묻었다고 한다. 제를 다 지내고 나서 돼지를 잡았던 사람이 옛날에 묻어두었던 술을 찾으러,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아, 그 술은 그때 이미 다 썼지. 지금까지 있는가?”라고 했다. 술을 빚을 때는 누룩하고 술이나 옥수수를 넣고 화학약품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했다. 가끔은 소주도 묻어두었다가 파내어서 먹기도 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묻어두면 술 맛이 아주 좋아진다고 한다.



떡찌는 장면(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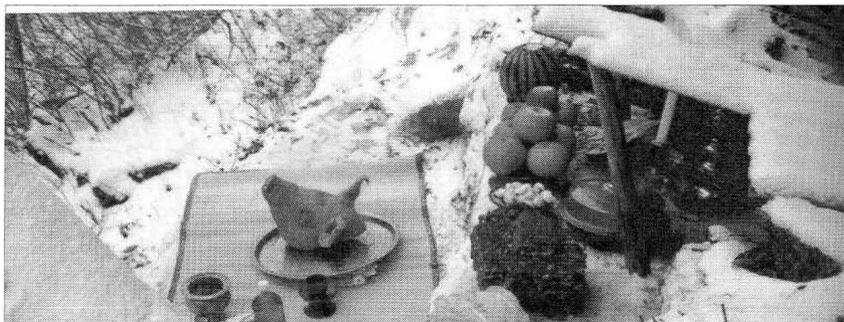
산신제상에 올라가는 제물은 북어포, 메, 팔 시루떡, 대추, 밤, 배, 사과, 수박, 물, 촛불 한 개를 위단에 올리고, 돼지 머리와 뒷다리를 각기 다른 쟁반에 놓은 것과 술과 향을 아랫단에 올려놓았다. 원래 아랫단은 제관이 절을 하는 곳인데 제물이 많아서 원래의 제단인 위단에 다 올리지 못해서 2단으로 제물을 올렸다. 그래서 실제로 제관이 절을 올릴 때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엉겨주춤 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절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못되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제당에 쓰는 제물은 할아버지 제당에 올렸던 돼지머리를 올리고 돼지다리는 따로 올리지 않았다. 메와 약주 및 떡 등만 새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쓰던 것을 그냥 올렸다.

③ 제수(祭需) 준비

방아다리 마을의 산신제는 다른 마을에 비해서 비교적 성대하게 치러지는 동제 중의 하나이다. 먼저 제관과 도가가 선정되면 흙다리 할아버지 산제당 앞에 금줄을 치고 청결한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한다. 제의에 쓰는 제물을 준비할 때도 쌀이며, 팔이며 깨끗한 것을 골라 정성을 들여 씻어서 사용한다. 돼지의 경우도 산신제를 지내는데 합당한 돼지를 골라야 한다. 과일이며 포 등은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사용한다.



할아버지당 제물 진설 장면(2005년)

방아다리 마을의 산신제 금줄은 할아버지 제당 앞에만 친다. 할머니 제당에는 치지 않는다. 그리고 2005년 정월 열나흘 산신제 때에는 도가가 세 집이 선정되었지만 어느 한 집도 금줄을 치지 않았다. 도가의 경우는 금줄을 치기도 하고 치지 않기도 한다. 올해의 금줄은 할아버지 제당 앞에 약 10여 m 정도로 원새끼에 한지를 군데군데 꽂아서 쳤다.

제수 비용은 위에서 보았듯이 마을 주민들이 정성으로 각 호수마다 1만원에서 2만 원 정도를 거두어서 사용한다. 예전에는 돈 대신 쌀을 거두어서 쓰기도 하였다. 이 마을에서는 돼지를 잡기 때문에 제의 비용이 다른 마을에 비해 조금 더 들어간다. 제수 비용은 동네에서 미리 거두어서 제물을 마련할 때 사용한다.

제주(祭酒)는 원래 제의 며칠 전에 도가에서 담가서 할아버지 제당 앞에 묻어두었다가 사용하는데, 올해는 날이 너무 추워 땅이 얼어서 술을 묻을 수 없으므로 시장에서 파는 약주를 사서 썼다. 이곳에다가 마을에서 담군 술이 아니라도 묻었다가 먹으면 술 맛이 훨씬 좋다고 한다.

희생 돼지는 예전에는 마을에서 아주 정성을 들여 키운 것을 사용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몇 마리씩 마을에서 기르는 돼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량으로 기르는 돈사에 가서 사서 쓴다. 돼지를 선정할 때는 아직 새끼를 낳지 않은 암돼지로 한다. 원인은 사람으로 치면 숫처녀와 같은 것으로 신성한 제물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돼지가 선정되면 원래 제당 앞에서 잡아서 희생물로 바치는데, 올해는 날이 너무 추워서 미리 잡아서 사용했다.

메와 떡으로 사용하는 쌀은 새 것으로 아주 정결한 것으로 사용한다. 농사지은 쌀 중에서 가장 먼저 떠 놓았던 것을 떠서 사용한다. 이 쌀은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현장에 가서 화덕을 걸어 놓고 메는 짓고 떡은 찐다. 메는 할아버지 제당과 할머니 제당에 바치는 것을 따로 술에다 한다. 떡은 팔 시루떡을 하는데 한 곳에 찌서 나누어 쓴다.

과일이며 포 등은 미리 시장에 가서 사다가 두었다가 사용한다.

음복 음식은 술과 돼지고기를 사용하고, 뒤풀이는 원래 산제당 앞에서 하는데, 날이 꺾어서 2005년 정월 열나흘에는 마을회관에서 상을 펴놓고 하였다. 뒤풀이 음식은 산신제를 지내고 난 떡 외에도 사람이 많으므로 밥을 더 하고 국을 끓여서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다.

(3) 동제의 진행

① 제의 절차

제당으로 들어오는 길은 매년 풀을 베고 제당 부근에도 말끔히 손질을 해 둔다고 한다.

제의를 하기 약 15일 전에 금줄을 치고 부정한 이의 출입을 금한다. 금줄은 원새끼에다가 한지 조각을 오려서 드문드문 끼워 두었다. 그 길이가 십여미터가 넘게 할아버지 제당 앞에 양쪽 나무에 매어 두었다.

눈이 오는 관계로 제당 앞부분에다가 비닐로 포장을 치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드럼통을 반으로 갈라 다리를 해서 세우고 그 안에는 숯을 넣어서 음복할 때 돼지를 구워 안주할 준비를 해 두었다.

처음 제당에 도착하여서는 빗자루로 제당과 주변을 깨끗이 청소를 하였다. 빗자루는 그곳에다가 이미 만들어 두었다. 싸리 빗자루이다. 그리고 얼어있는 우물을 도끼로 얼음을 깨어서 준비하였다. 물은 아주 맑고 차다.



고사우물(2005년)

이 우물로 준비해 온 쌀가루와 팥을 쪄서 넣은 팥 시루떡을 화덕에 올려놓고 쪄으며, 메도 할아버지 제당에 올릴 것과 할머니 제당에 올릴 것을 두 개를 하였다. 메물 역시 이곳의 우물을 바가지로 퍼서 양동이에 담아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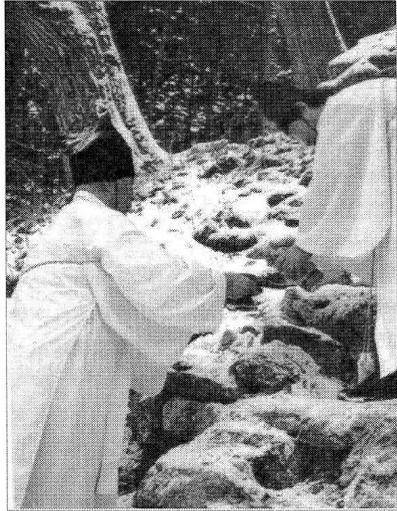
제물로 쓸 돼지는 원래 이곳에 와서 잡아서 쓰게 되어 있으나 날씨가 몹

시 추운 관계로 도가에서 잡아서 내장과 털을 손질을 해서 가져왔다. 가져올 때는 간과 염통을 통돼지와 함께 차에 싣고 가져왔다. 이곳에 와서 칼로 돼지 머리를 자르고 다리 한 짝을 잘라서 제물로 쓰고, 나머지는 도끼로 자 잘하게 찍어서 나중에 음복할 때 구워 먹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제물이 완성되자 진설을 하기 시작하였다. 진설을 할 때 위의 제물 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하였다. 그리고 촛불을 밝히고, 향을 사른 후에 제의가 진행되었다.

제의의 순서는 제물을 진설한 다음 제관이 배례를 하고, 잔을 올리고, 축 읽고, 소지 올리고, 음복하는 순이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방법이 같다고 한다. 초헌관은 마을 이장 임성재(49) 씨이고, 아헌은 집사가 하고, 종헌은 노인회장이 한다. 노인회장은 김성렬(남, 93) 옹이고, 집사는 총무로 김완철(남, 68) 옹이다. 이날은 눈이 많이 와서 소지 올리는 것은 생략을 했다. 제의 시간은 마을에서 오전 10시에 올라오기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러 준비를 하여 약 12시 경에 시작하였다. 제의를 할 때 흥기는 따로 하지 않았다.

이때 두 번의 제의가 있는데, 첫째는 할아버지 제당에서 행한다. 할아버지 제당에서 할 때는 상술한 바와 같이 그 절차를 아주 잘 이행하며 경건하게 진행한다. 모든 제관들은 제의 복장을 갖추어 입고 임했다. 기본적인 제의 절차가 끝나면 개인적으로 제당을 향해서 절을 두 번 반씩하고 자신의 소원을 말하였다. 마지막에는 그곳에서 제의 준비를 하던 아주머니들이 절을 하고 축원을 한 다음 끝났다.



할아버지당 제주 올리는 장면(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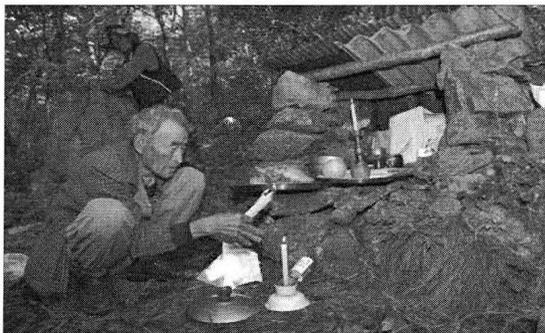
할아버지 제당에서 제의가 끝나자 제의 복을 벗어놓고 개울 건너 할머니 제당으로 모두들 향했다. 할머니 제당에서도 촛불 하나를 밝혀놓고 향을 사르고, 포, 배, 사과, 메, 대추, 밤을 놓고, 돼지는 할아버지 제당에서



할머니당 진설장면(2005년)

지내던 머리만 갖다가 놓고 입에다 나무젓가락을 꽂아놓았다. 돈은 필자가 놓은 것이다. 그리고 메는 솔 채로 놓는데 뚜껑을 열어 놓고 제를 지냈다.

술은 역시 약주를 썼고, 단잔 재배로 제의가 끝났다. 처음 잔을 올리면서 김성렬(남, 93) 할아버지가 “을유년 정월 열나흘 정성 드립니다.”라고 하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절을 하면서 축원을 하고 싶은 사람은 몇이서 하였



할머니당 소지축원(2009년)
(사진제공 최중익)

다. 이미 할아버지 제당에서 제의가 끝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복 준비를 하느라고 바빴다. 그래서 할머니 제당에는 참석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

할머니 제당에서 제의가 끝나자 제당 오른 쪽에 준비해 두었던 하얀 사발에다 음식을 조금씩 뜯어서 담아 놓았다. 이 음식을 버리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나머지 제단에 올렸던 음식은 다시 거두어 왔다.

할아버지제당과 할머니제당에서 제의절차가 모두 끝나자 미리 준비해 두었던 바비큐 판에다가 돼지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음복을 하였다. 그리고 나



할머니당 배례 장면(2005년)

머지 사람들은 철수 준비를 하였다. 눈이 오지 않으면 이곳에서 뒤풀이를 한다고 했으나 눈이 많이 와서 마을회관에서 뒤풀이를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음복을 끝내고는 모두들 짐을 챙겨서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마을회관에 오니 이미 동네 아주머니들이 뒤풀이를 할 음식을 준비해 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는 대로 차려진 음식상 주변으로 둘러앉아 한담을 나누면서 맛있게 음식을 들었다. 이때 시간이 약 오후 2시 가량 되었다.

마을회관에 오니 이미 동네 아주머니들이 뒤풀이를 할

방아다리마을은 음식 준비할 때부터 동네 아주머니 넷이서 같이 하였다. 아주머니들이 팔 시루떡을 찌고 메를 하였으며 뒤풀이 준비를 하였다. 복장은 한복을 갖추어 입고 앞치마를 했으며 날씨 탓에 두꺼운 겉옷을 하나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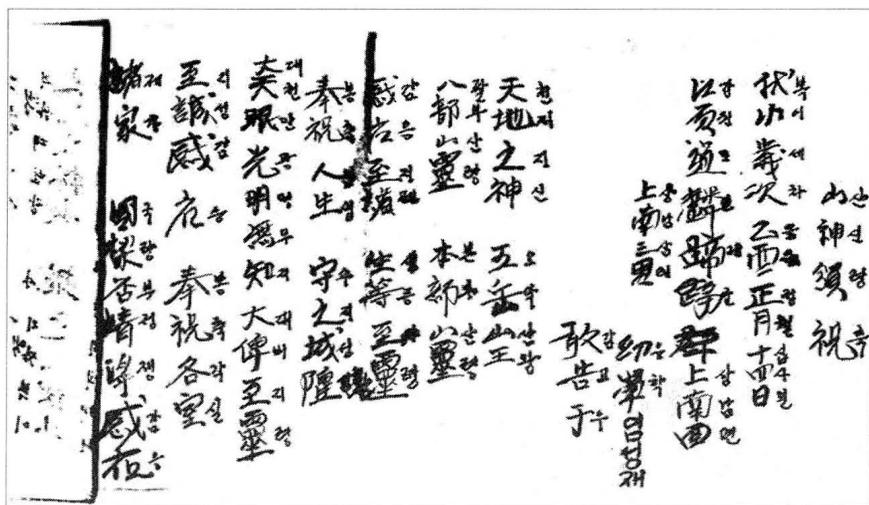


방아다리마을 산신제 고사우물 앞에서 제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모습(2009년)(사진제공 최중익)

걸쳐 입었다.

② 축문

축문의 규격은 세로 17cm이고 가로 80cm이며, 종이는 한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글씨는 붓으로 썼는데 한글과 한자를 병행했다. 먼저 한글을 쓰고 그 옆에 한자를 썼다. 어느 축문이나 마찬가지로 상남 3리의 경우도 그 주



상남면 상남3리 방아다리 산신제 축 앞부분(2005년)

요내용은 많은 신을 부르고 나서 마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고 나쁜 재앙을 물리쳐 달라는 것이다. 가끔 불교적 색채가 짙게 나타나기도 한다. 다른 지역보다 그 내용도 상당히 길게 나열되었다. 축문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편의 상 가로와 세로를 바꾸어 쓰고, 한자와 한글을 따로 기록하도록 하겠다.

山神靈祝
산신령축

伏以 歲次乙酉正月十四日
 복이 세차을유정월십사일
 江原道 麟蹄郡 上南面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上南三里 幼學 임성재
 상남삼리 유학 임성재
 敢告于
 감고우
 天地之神 五岳山王
 천지지신 오악산왕
 八部山靈 本部山靈
 팔부산령 본부산령
 感應至諸 生等至靈
 감응지제 생등지령
 奉祝人生 守之城隍
 봉축인생 수지성황
 大天眼 光明無知 大俾至靈
 대천안 광명무지 대비지령
 至誠感應 奉祝各室
 지성감응 봉축각실
 諸家 國樑否靖諍感應
 제가 국량부정쟁감응
 奉祝伏以之 一切衆生無量
 봉축복이지 일절중생무량
 功德感應 奉祝願明靈
 공덕감응 봉축원명령
 之下諸生等 三災九橫之厄
 지하제생등 삼재구횡지액
 水火木土 之厄牛馬失物
 수화목토 지액우마실물
 之厄田畝破落 之厄隣里
 지액전답파락 지액인리
 不和之厄 子孫短壽
 불화지액 자손단수
 불화지액 자손단수

之厄大林長 蛇之厄伏以
 지역대림장 사지역복이
 神靈之下 諸兇殺之厄海外
 신령지하 제흉살지역해외
 速出至誠 奉祝天眼
 속출지성 봉축천안
 光明大慈大俾 一體衆生
 광명대자대비 일체중생
 無量功德 安過泰平
 무량공덕 안과태평
 至誠奉祝 纒歲諸生
 지성봉축 강세제생
 流垂功德 山輕水博
 유수공덕 산경수박
 天高地下明明 之位不言奉祝
 천고지하명명 지위불언봉축
 敢以庶羞 佛哭小饌
 감이서수 불곡소찬
 玄酒小飾小芬 一哭伏願
 현주소식소분 일곡복원
 成祝飲之尙
 성축음지상
 饗
 향

<번역>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엿드려 비읍나니. 해가 바뀌어 을유년 1월 14일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에 사는 임성재는 감히 고합니다.
 천지신 오악산왕 팔부산령 본부산령 님
 감응하여 모두 이르렀고 생등에게는 존령들입니다.
 우리들이 봉축하오니 성황신께서는 지켜주십시오.

큰 천안과 광명을 알지 못하고 크게 존령께 복종합니다.
 지성으로 감응을 바라니 집집마다 봉축합니다.
 모든 집과 나라의 대들보에 조용히 감응하지 않겠습니까?
 엷드려 봉축하오니 모든 중생은 한량이 없습니다.
 공덕에 감응하십시오. 밝으신 신령을 봉축합니다.
 아래에 시는 모든 생등은 3재9황의 액과
 수화목토에서 우마를 잃는 액과
 논밭이 파괴되고 떨어져 나가는 액과 이웃의 액과
 불화의 액과 자손의 짧은 수명과
 큰 수풀이 자라는 액과 뱀의 액을 엷드려 비오니
 신령의 아래에 있는 모든 흉살 액을 바다 밖으로
 속히 쫓아내기를 지성으로 빕니다.
 받들어 천안께 축원하오니
 광명과 대자대비로써 일체 중생의
 헤아릴 수 없는 공덕으로 안과태평하게 해 주십시오.
 지성으로 봉축하오니 해마다 모든 사람에게
 물 흐르듯이 공덕을 내리시어
 산처럼 가볍게 물처럼 넓게 하십시오.
 높은 하늘에서부터 땅 아래까지 밝게 하시니
 위치하신 곳을 말씀하시지 않아도 봉축합니다.
 감히 여러 음식을 진설하고 부처님께 올면서 소찬을 올립니다.
 맑은 물과 작은 장식과 작은 향을 놓고
 한번 울고 엷드려 원합니다.
 그걸 마시도록 축원하오니
 신명계선 제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을 고하고 나서 축관이 다음과 같이 노래와 같은 사설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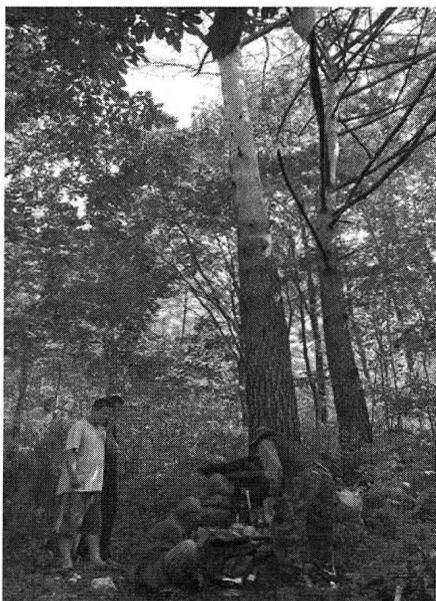
“산신님 전 이 정성 저 정성하고, 성황님 전에 다가 정성 올리오니 흠향
 받자 하옵시기를 복문 하옵나이다.”

이처럼 축문의 내용이 상당히 길게 작성되었는데, 글자가 중간에 약간씩

이상하며 해독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다. 축문을 읽을 때 두루마리를 풀듯이 감겨진 것을 한 쪽으로 풀어가면서 하였다.

(4) 영험담

동제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으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동제를 지내고는 이곳에서 비명횡사한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한다. 곧 교통사고 같은 것은 한 번도 없었다. 동제의 덕택인지는 모르지만 이 마을에는 90세 이상 된 노인이 많이 살고 있다.



할머니당 장면(2009년)
(사진제공 최종익)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낭비를 한다고 해서 산신제며 마을 성황제를 못하게 한 일이 있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촌사람들이 괜히 밥이나 해서 버리며 일은 안하고 시간 낭비만 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뜻은 마을의 산신제나 성황제를 지내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천렵을 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술타령만 하면서 청년들이 놀기만 한다고 한 것인데, 글썄 어떤 사람이 아예 올라가서 성황당을 때려 부수고 그곳에다가 “이 성황당을 복원하는 사람은 처벌을 할 것이다.”라고 써 붙여 놓았다. 산신과 성황신을 모시는 것은 방탕하게 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을과 개인이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김성렬 옹이 올라가서 다시 돌을 들어 올리고

하여 성황당을 복원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잠을 지는데 “그 뭐 신이 있기는 있습니다.” 점잖은 노인이 옛날 대신들이 입는 그런 관복을 입고 나타나더니만 “글쎄 오늘 어떤 놈이 나 집을 부셔서 갈 데가 없어 그랬더니, 네가 와서 이렇게 잘 해줬구나.”라고 꿈에 현몽을 하였다.

그리고 이 밑에 “수구당”이라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소도 갔다가 매고 해서 소똥이며 개똥이며 막 흩어져 있었다. 그래서 김성렬 옹이 “성황님 제가 산신님 계신 곳에 같이 모셔드릴 테니 그곳에 가서 깨끗한 곳에 같이 계십시오.”라고 하면서 산신님께 모셔드렸다. 그랬더니 역시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영롱하지는 않지만 “집을 지어줘서 고맙다.”고 하였다. 단지 그것 뿐이다.

오늘은 눈이 워낙 많이 와서 소지를 올리지 못했지만, 예전에 소지를 올리는데 소지가 위로 잘 올라가야 하는데 오르지 못하고 뚝 떨어지면 그 집이 뭐 앓든지 하였다. 소지를 올릴 때는 집집마다 대주 이름을 쳐들면서 한다.

(5) 동제의 운영과 결산

제의의 비용은 마을에서 해마다 거두어서 사용한다. 행사비용은 자신들의 정성이 들어가므로 언제나 넉넉하게 거둔다. 남으면 다음 제의 비용으로 쓴다. 이 비용은 마을의 총무가 있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 돼지 가격은 해마다 다르므로 가격이 매번 다르다.

올해의 경우는 제수비용이 16만원 돼지가 35만 원해서 약 52만 원정도 들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포 5천원, 배 만5천원, 대추 6천원, 수박 만2천원, 밤이 4천원, 정종이 한 병 9천원이 들고, 그밖에 소지, 쌀, 초, 향 등해서 16만 원정도 들었다.

제의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하

므로 뭐 잘 차렸다는니 못 차렸다는니 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면 모두 정성으로 하는데 얘기할 것이 있냐고 하였다. 그리고 매년 정월 14일과 팔월 14일 같은 날에 치러짐으로 차후의 계획을 의논한다거나 하는 일도 없다고 한다. 제의가 끝나면 마을회관에 와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한담을 하면서 정월 대보름에 있을 마을 행사 이야기를 한다.

3) 동제의 특징

마을 산신제를 하는 목적은 예부터 해오던 행사이므로 전통을 잇는다는 의미와 마을의 안녕과 평화와 단합에 있다. 그리고 시골에서 어려웠던 한해를 보내고 새로이 한 해를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주로 행해진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마을 공동의 기원과 개별적인 기원을 한다. 이 기원은 소지를 올릴 때 행하는데 올해는 눈이 많이 내리는 관계로 소지를 올리지 못해서 마음속으로 모두들 기원을 했다. 이 기원은 정월 대보름 날 달집태우기를 하면서 다시 하면 된다. 원래 이 기원은 개인적인 기원이 나중에 마을 단위로 바뀌었다.

방아다리 마을의 산신제는 남녀가 같이 참가한다. 제의를 주관하고 지내는 사람들은 남자들만 하는데, 메나 떡 같은 제물을 만들 때는 같이 한다. 그리고 나중에 제당에 가서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빌곤 한다.

외지에 있는 사람은 제의를 지내기 위해 직접 이곳까지 오지 않고, 이 마을에 이사를 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을 제의에 동참한다.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낼 때는 말로 한양 서울부터 쳐들면서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은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

이곳 방아다리마을은 산신과 성황신을 따로 모시지 않고 한 곳에다가 모신다.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사이인데 왜 한 곳에 모시지 않고 따로 두느냐고 하여 김성렬 옹이 마을 밑에 있던 성황신을 산신

이 계신 곳으로 모시고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있던 “수구당”이 없어졌다. 이 수구당이 곧 성황당이였다. 수구당이 마을에 같이 있다가 보니 사람들이 그 옆에다가 소를 매놓고 동네 개들이 그 옆에 똥을 싸고 해서 매우 지저분했다. 옛 사람들은 성황당에도 제의를 하고 산신당에도 했다. 그 역사는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이곳 산신당을 “흙다리산신당”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지금 산신당이 있는 곳에 나무와 흙으로 만든 다리가 있어서 그렇게 부른다.

정월 대보름에는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아주 많은 행사를 한다고 한다. 대보름 행사는 막국수를 누르고, 떡도 하고, 부치기도 하고, 널뛰기도 하고, 달집태우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연날리기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하루 동안 즐긴다. 달집태우기는 달이 뜰 때쯤에 하는데 집집마다 이름과 소원을 써서 달집 주위에 처진 새끼줄에 걸어서 같이 태운다. 장소는 마을회관 앞이다. 일정을 자세히 보면, 10시에 퇴비시연회, 10시 30분에 떡치기와 민속도속음식(인절미와 절편), 11시에 새농어촌건설발대식, 12시에 막국수로 점심 먹고, 13시에 연날리기, 13시30분에 짚신삼기, 14시에 널뛰기, 14시 30분에 윷놀이 행사, 18시에 달님에 소원 빌기(달집태우기). 18시 30분에 지신밟기와 사물놀이 행사, 20시에 끝낸다.

김성렬 옹은 이 마을이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피난처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야기를 구술에 따라 풀어 본다.

구한말 이곳에 김 진사라는 사람이 있었고, 김성렬 옹의 아버지도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높은 관직을 가졌던 사람들의 관직을 빼앗고 모두 쫓아냈다. 김 옹의 아버지도 그때 이곳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김 진사와 김 옹의 아버지가 장기나 바둑을 두면서 여기 문안의 오십 리에 피난처가 있다는데, 그래 서울서 오십 리가 어찌 피난처가 될 수 있냐고 자꾸 그랬다. 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땐가 김 옹의 아버지가 이곳에 왔다. 그때 어떤 이가 와서 문안에서 왔다

고 하니, 어디가 문안이나고 김 옹의 아버지가 물었다. 그랬더니 여기 저 위가 문안이라는 데가 아납니까? 하였다. 그랬더니 김 옹의 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면서 여기가 바로 피난처구나 하면서 김 옹을 보고 너 자손들이 나면 절대로 어디 가지 말고 이곳에서 살아라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후 6.25병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 인민군이 들어와서 죽이고 한 일도 없었다고 한다.

4) 문헌자료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는 <방아다리의 산신제>라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上南面 上南3리는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방아다리는 2반에 속한다. 이곳은 마을을 가리지르는 큰 개울이 있고 이를 건너다니기 위한 다리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방아다리에서는 해마다 봄, 가을에 산신제를 올리는데 그 날짜는 정월 14일과 8월 14일로 정해져 있다. 산신제를 지내는 목적은 산신께 정성을 드림으로써 자기의 신수를 좋게 하고 소원을 성취하며,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기 위한 것이라 한다. 마을 뒤 개울을 건너 제당 골에 오르면 빼곡한 잠목 숲 사이로 시멘트로 벽을 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두른 산신당이 있다. 이곳은 뱀이 많고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람이 가까이 가는 일이 적다고 한다.

제일이 다가오면 나이를 짚어 생기에 맞는 이를 골라 제관과 도가로 선출한다. 이들이 산신제를 주관하게 된다. 요즘에는 이장이 지목하는 이가 제관과 도가를 지내게 되는데, 대체로 동네에서 나이가 지긋한 이가 맡게 된다고 한다. 동네에서 얼마간의 돈을 걷어 제비를 마련해 주면 도가가 장에 나가 제수를 준비한다. 예전에는 쌀을 걷어 제비로 충당했다고 한다. 제물

로는 정한수와 메, 돼지머리와 간, 염통을 놓고 포와 과일을 올린다. 따로 술을 담가 올리기도 했으나 요즘은 사서 쓴다. 돼지도 제일에 잡아 쓰는 것이 원칙이나 형편이 여의치 않을 때는 장에 나가 산신제에 쓸 것이라 특별히 주문하여 고기를 받아다 쓴다.

제일 새벽이 되면 마을 사람 모두가 제당에 올라간다. 제관과 도가가 제당 근처에 불을 피우고 메를 짓는다. 술을 준비해 가서 미리 돼지머리를 삶고 탕을 끓여 제상에 올린다. 제의의 내용은 앞서 소개한 다른 마을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마을의 안녕과 단결을 부탁드리는 내용의 축원과 절이 제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사의 모든 절차는 제관과 도가가 주관하고 마을 사람들은 제당 주변에서 참관한다. 제사를 잘 받으셨느냐는 소지를 올리고 아울러 마을의 한 해 운수를 묻는 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제는 끝이 나고, 모였던 이들이 음복을 하게 된다. 제보지는 떠들썩한 마을 잔치였던 산신제가 요즘은 옛날만 못하고 정성도 그만 못하다며 안타까워하였다. 동리의 나이 지긋한 이들은 ‘지금도 지당골에서 까마귀가 울어대면 마을에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하고, 산신제의 규모가 축소되고 정성이 옛만 못하다는 점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고 한다.⁴⁹⁾

49) 남금우박신정,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한림대박물관, 1996), 98-9쪽.

11. 상남면 김부리

김부대왕제



김부대왕각(2009년)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마을〉

조사일시: 2009년 9월

조사지: 귀둔리 제보자의 집 거실

제보자: 윤희규(74, 남) 인제읍 귀둔리. 김부대왕제를 주관하던 본인.
과거주소는 김부리 1반. 대왕당과 집이 붙어 있었다.

〈문중〉

조사일시: 2009년 10월 26일(음 9월 9일) 오전 11시

조사지: 김부대왕각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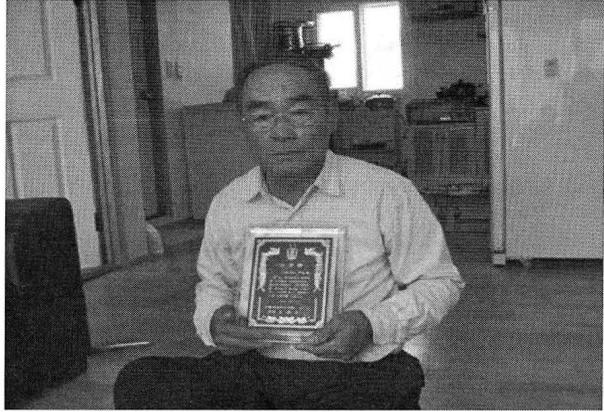
제보자: 김창원(남)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김 씨 대종회 회장

(2) 마을유래와 개관

김부대왕각이 있는 곳은 상남면 김부리이다. 지금은 육군과학화훈련단이 사용하는 훈련장으로 변해서 민간인은 한 명도 살지 않는다. 그러나 예전에 이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지금도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무너진 집, 장독대, 돌 울타리 등이 곳곳에 있으며,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던 지명과 문화유적들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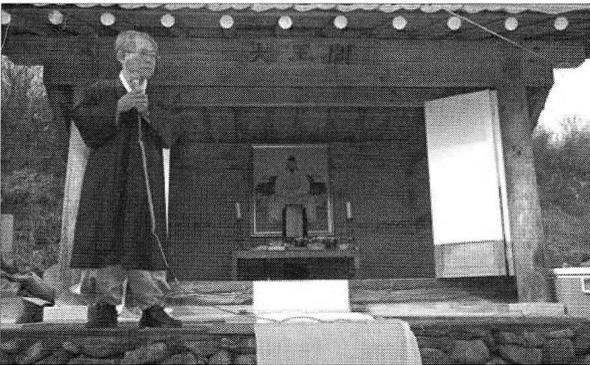
이곳을 김부리라고하는 것은 마의태자가 이곳에서 터를 잡고 나라를 되찾았다는 일념으로 군사를 훈련시키며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의태자를 이곳 사람들은 김부대왕이라 불렀다. 이곳과 주변에는 이를 입증

할만한 지명이 아주 많다. 귀둔리(貴屯里)와 갑둔리(甲屯里)는 모두 진찰
 둔 자를 쓰고 있다. 이는 마의태자가 병력을 주둔시켰다고 하며, 귀둔리에
 는 군량동(軍糧洞)이
 있고 양구에는 군량
 리(軍糧里)라는 마을
 이 있는데 이는 마의
 태자가 군사가 먹을
 양식을 생산하던 곳
 이라고 한다. 수레너
 미는 마의태자가 수
 레를 타고 넘은 고개
 란 뜻이고, 옥토봉은



윤홍규 제보자와 공로패. 귀둔리 거주

김부대왕이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 자녀를 낳게 해주었다고 해서 생긴 지명
 이다. 단지골과 옥터골은 죄인을 치죄하던 곳이라 하며, 옥새바위는 옥새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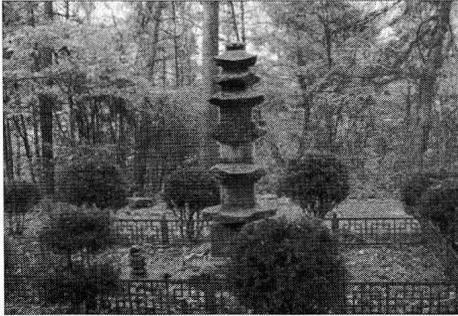
김창원 제보자. 부안 김 씨 종친회장(2009년)
 (사진제공 최종익)

숨겨둔 곳이라 한다.
 다물리는 고구려 말
 로 국권 회복을 뜻한
 다고 한다. 이밖에도
 김보왕촌, 김부동, 항
 병골, 부수동, 맹개
 골, 맹창골 등의 지명
 이 있음을 볼 수 있
 다. 이러한 지명은 우
 연히 이뤄진 것이 아

니라 본다.

윤홍규 제보자가 제보한 지명에 관한 것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김부리에 유래가 많다. 수레가 넘나들었다고 해서 술구네미, 옥쇄바위는 바위가 항상 덮였는데 그곳에 항상 뱀이 지키고 있었다. 밀뱀이라도 뱀은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뱀 잡으려고 큰 자키를 갖다가 들추고 돌맹이를



김부탑 전경

집어넣었다. 이 바위는 단지골이라는 데에 있는데 현재 그 돌맹이가 박혀 있다. 단지골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못 들었다. 넘어가게 되면 능이 있다. 탑이 5층탑이 있고, 다물리라는 데가 있다. 다물리는 담을 쌓아서 적이 오는 것을 막았던 데서 유래

한 지명이다.⁵⁰⁾ 다물리는 어른에서 올라오는 길목이다. 여기서 올라오면 갑둔리가 된다. 그리고 옥골이라는 데가 또 있다. 죄인들을 옥살이를 시켰다는 것이다. 옥토골이라는 데는 갑둔리에 있다. 옥토골이 옥살이를 시킨 골이다. 합병골은 병사를 합병 시켰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그래서 원래는 합병골인데 그것이 합병골이 됐다가 항병골로 현재는 불린다.



공로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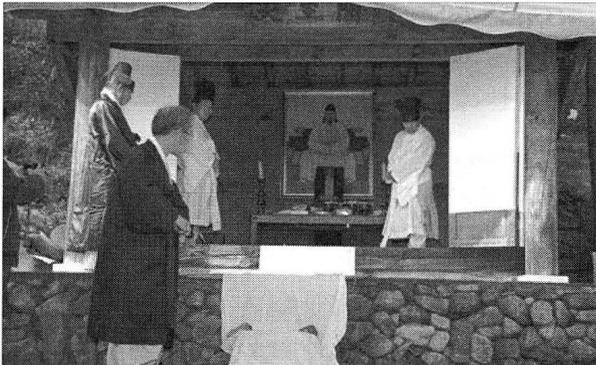
김부리에서 서낭골이 고개를 넘어 가면 김부대왕 무덤을 볼 수 있다. 김부대왕 무덤은 갑둔리에 있다. 원래 비석도 있었는데 그 옆으로 도로를 닦으면서 비석을 연못에 빠뜨리고 연못을 메웠다. 그리고 어떤 이가 김부대왕 무덤 위에 투장

50) 일반적으로 다물은 국권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진 고구려 말이라고 한다. 그런데 제보자는 적을 막기 위해서 담을 쌓았는데, 거기서 '담'이 '담울'이 '다물'로 변했다고 얘기했다.

을 했다가 집안이 망했다고 한다. 망부석도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무덤이 아주 크고 넓다.

김부왕무덤 옆에는 충신묘라는 것이 있었다. 비석도 아주 큰 것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그 비석을 가져다가 4H표지석을 만들었다. 비석이 오래돼서 글씨가 지워져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충신묘는 4개가 있었다. 봉분이 아주 컸다. 일반 묘는 오래되면 대체로 봉분이 없어지는데, 충신묘는 그대로 있었다. 다만 마을에서 충신묘라고만 전해질 뿐 어느 충신인지는 몰랐다.

또 맹창골이라는 데가 있다. 이 맹창골은 맹 씨네 산이 있어서 매년 시향을 지냈다. 맹 씨가 김부대왕의 신하였냐고 묻자. 그것은 모른다고 했다. 김



김부대왕제 장면(2009년)

부대왕과 맹 씨하고의 연관성은 모른다. 제보자도 맹 씨네가 시향을 볼 때 참여를 했다. 그때는 제보자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다.

김부대왕과 별로 연관이 없는 지명은

장자골, 비득재, 상단지동 하단지동 등이 있었다. 비득재는 구현동이라고도 했다. 구 자가 비둘기 구(鳩)자였다. 그 유래는 잘 모른다.(윤홍규, 지명관련)

무덤에서 산 쪽으로 들어가면 5층탑이 있다. 이 탑은 당시 이태두 갑둔초등학교 교감이 발견해서 복원을 했다. 그 탑에는 김부대왕에 대한 명문이 있다.

또한 마의태자와 관련된 유적으로는 한계산성, 김부대왕각, 김부탑, 김부

대왕유허비, 김부대왕 무덤 등이 있다. 그 중에 김부탑은 5층 석탑인데 그곳에는 “菩薩戒弟子仇上主/金富壽命長存家/五層石塔成永充供/養太平十六年丙子八月日(보살계제자구상주/김부수명장존가/오층석탑성영충공/양태평 십육년병자팔월일)”라는 명문이 있어서 김부대왕이 이곳에 살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김부대왕각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음력 5월 5일과 9월 9일에 걸쳐 일 년에 두 번씩 제사를 지냈으나, 지금은 음력 9월 9일에 부안 김 씨 후손들이 와서 제사를 지낸다. 부안 김 씨들이 이곳에 와서 제사를 지낸 것은 1978년부터라고 한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과 부안 김 씨 후손들이 1992년까지는 같이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군 훈련장으로 인해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 1993년부터는 부안 김 씨 후손들만 와서 제사를 지낸다.

원래 김부리는 김부동 등으로 불리다가 1843년에 김보리(金寶里)가 되었다. 이때는 춘천부의 관할이었다. 김부리라 불린 것은 1916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이다. 인제군 남면에 속했던 김부리는 1945년 광복과 함께 흥천군 신남면에 편입되었다. 1954년 수복지구행정이양에 따라 인제군 남면에 환원되었고, 1983년 2월 15일 기린면 상남출장소가 면으로 승격되면서 상남면 김부리가 되었다.

이곳에 육군의 과학화 훈련장이 된 것은 1993년부터라고 한다. 이때부터 이곳에는 마을 주민들이 한 명도 살지 않게 되었다. 다만 관광객의 내왕과 대왕제를 지낼 때만 민간인들이 찾는다.

2) 마을제사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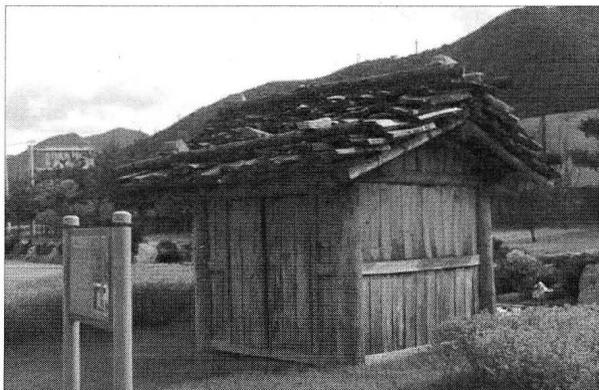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마을: 마을에서 부르는 제사 명칭은 “대왕당제사”라고 하였다. 이 제사는

선조 때부터 왕제사로 지냈는데 언제부터 지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곳에는 아기 못 낳는 사람도 여기 와서 빌기도 하였다.

김부리 대왕당제사는 원래 마을에서 지내던 것인데 김 씨 문중의 제사가 되었다. 윤홍규 제보자가 관리를 할 때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손님들이 오면 방명록까지 쓰게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김 씨 문중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9월 9일 제사 때에만 열어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이곳을 대왕이 계신 곳이라 하여 일반적인 서낭의 개념과는 달리 생각했다. 대왕은 서낭신이 아니라 인격신이라는 것이다. 간혹 서낭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보면 그냥 일반 신 모시는 것처럼 했다. 그래서 제보자가 이장을 볼 때 이것은 서낭당 식으로 지낼 것이 아니라 왕이면 왕의 제사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제 산촌박물관에 복원해 놓은 옛 대왕당 (사진 『인제군 유적 지명 전설』)

그러다 보니 김 씨 네가 처음에 경주에서 나타났다. 신라 김

씨 어찌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7~8년간을 지냈는데, 김종권 교수라는 사람이 와서 보았다. 그 후 교수들도 많이 오고 대학생도 많이 왔다. 그래서 9월 9일에도 오고 4월 8일에도 오고했다. 그러더니 제사를 지낼 때마다 김 씨네들이 미어지는 것이었다.

대왕각에는 옛날에 무쇠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또 뒤시기 강원문화 거기서 가져갔다. 말은 두 마리였다.⁵¹⁾ 옛날에 관리를 할 때는 키를 채우고 그

51) 이곳에 무쇠 말 두 마리가 있었다는 기록은 다음에도 보인다. 장정룡, “말(馬)승배”, 『월간태백』(강원일보사, 1989.6), 92쪽.

렸는데, 이제는 그 후손들이 자기네들이 와서 그런다.

동네에서는 그냥 ‘대왕’ 또는 ‘김부왕’이라고 했다. 그리고 김부왕이라고 하여 그곳을 일컫는 지명이 있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다가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 “김부왕 가요.”라고 대답을 했다. 동네에서는 마의태자인지, 경순왕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다만 ‘김부왕’이라고만 불렀다. 그래서 그냥 김부왕이라고만 알고 제사를 지냈고, 그 동네를 김부왕마을이라고 불렀다. 나중에 김종권 교수가 김부왕을 경순왕이니 마의태자니 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제보자도 아직까지 김부왕이 마의태자인지, 경순왕인지 알 수 없다.

이 마을에 왕이 온 이유는 잘 모르고 있었다.

대왕당은 처음에 농애집이었다. 농애집에 지위만 모셨다.⁵²⁾ 그랬는데 마을에서 6.25나고 그 이듬해에 새로 지었다. 그리고 또 초라하다고 해서 김씨네들이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또 각을 다시 지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집이 그대로 있다. 원래 대왕당은 지금처럼 그렇게 크지 않고, 협소했다. 그런데 6.25 후에 제재소의 송판을 가져다가 잘 지었다. 그 전에는 그리 크지 않았다.

부안은 부안대로, 경주는 경주대로 자기네 들이 큰집이라고 한다. 그 후에 버스가 7~8대가 제사를 지낼 때마다 왔다.

그때 그 대왕각이 윤홍규 제보자 집 굴뚝 옆에 있었다. 대왕각의 관리인이 윤홍규 제보자의 역대 할아버지였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곳에서 계속 해서 이장이 나왔다.

대왕당의 신위는 두 번 바뀌었다. 6.25를 전후해서 바뀌었는데, 6.25전에는 “大王之神位(대왕지신위)”라 했다. 그리고 윤홍규 제보자는 화상은 없고 지위만 있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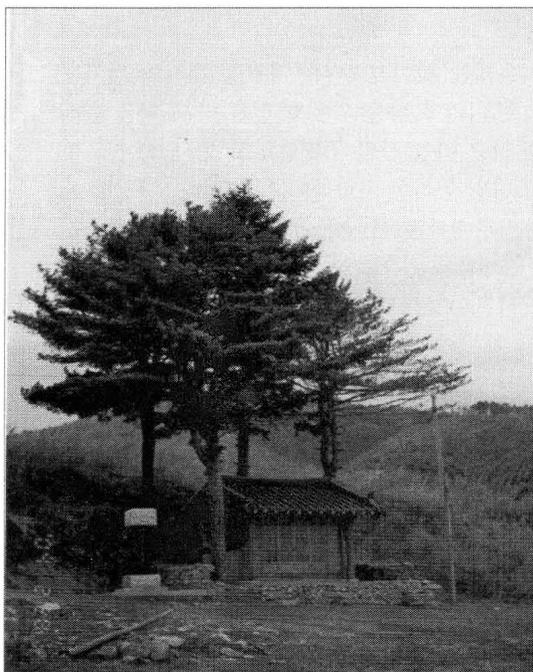
김부리에서 김부대왕은 마을의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마

52) 기록에 의하면 대왕당을 증수한 것이 1944년에 한 번 있었다. 현재 대왕각 옆에 있는 “마의태자유허비”; 신종원, 『한국대왕신앙의 역사와 현장』(일지사, 2008), 87쪽. 참고.

을에는 3군데나 대왕당이 있었고, 3군데 모두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집안에 일이 있을 때는 메를 지어 가서 제를 올렸다.

제당은 대부분 돌담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잘갓게 되어 요즘과 같은 형태의 제각을 볼 수 있었다. 그 명칭도 “김부대왕당”이라 했다. 현재 부안 김 씨 문중에서 써 놓은 것은 “대왕각”인데 이는 이 때 바뀐 것이다. 곧, 마을에서는 일종의 당집이었는데, 후손들이 제각으로 격상한 것이다.

지금 제각이 있기 전에 있었던 당집을 인제산촌박물관이 건립되면서 옛



대왕각(2004년)

날에 있던 것을 복원해 놓아서 그 변화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나무를 이용해서 기둥과 4면을 만들고 지붕은 너와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크기는 현재의 제각에 비해 작다.

『인제군유적·지명·전설』(인제문화원, 2007)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의하면 그 명칭이 “김부 대왕당(金富大王堂)”이라 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부기해 둔다.

상남면 김부1리에 있는 대왕당을 이전의 형태로 복원한 것이다.

상남면 일대에 널리 전승되는 인물 신앙의 한 형태이다. 제사일은 매년 5

월 5일과 9월 9일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제사를 지냈다. 제물은 그 해의 형편을 보아 제비가 넉넉할 때에는 소나 돼지를 잡기도 하였다. 술, 포, 과일 등을 마련하고 단오에는 취떡과 미나리 적, 중앙절에는 시루떡이나 절편을 준비했다. 단오 취떡은 김부대왕이 생전에 즐겨 드



대왕각 상량문

시던 것이기 때문에 대왕님께 올리는 것이라 한다. 대왕당 제사의 절차는 마을의 나이 지긋한 초헌관이 초를 켜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잔을 올리는 형식이다. 초헌관이 잔을 올리고 마을 사람이 편안하고 농사 잘 짓도록 지켜주십사하는 축원을 올리고 나면 참석한 사람들이 절을 한다. 대왕당 제사에는 소지를 올리지 않는데 김부대왕은 어디까지나 마을의 어른이지 신령님이 아니기 때문에 소지를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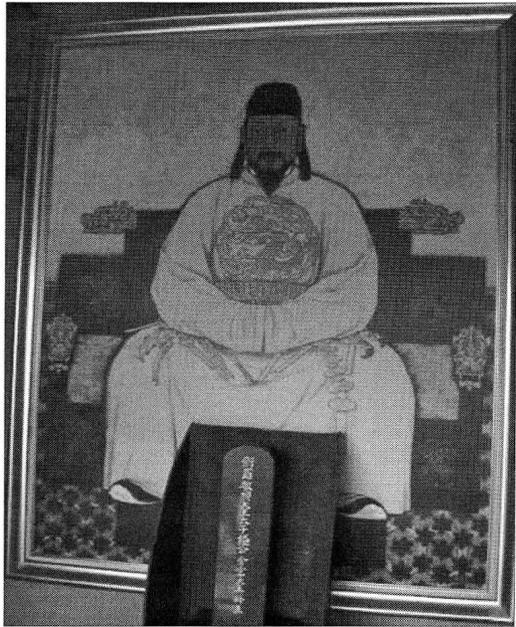
대왕이 위치한 김부리는 군사훈련장으로 편입되면서 마을이 해체되어 마을 차원에서 전승되던 대왕당 제사의 맥은 끊어지게 되었다. 대왕당의 역사상이나 가치로 볼 때 이는 무척 안타까운 일이므로 박물관 개관과 더불어 오랜 전통의 맥을 잇고자 하는 염원에서 예전 형태로 이전 복원하였다.(78 쪽)

문중: 현재 대왕각은 부안 김 씨 문중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새로 지은 것이다. 지은 시기는 2001년 10월 15일 오시(午時)라고 상량문에 썼다. 상량문의 내용은 한자로 썼는데 다음과 같다.

龍 新羅紀元二千五十八年西紀二千一年辛巳十月十五日午時上樑 羅以王子 救國丹心 未遠大義 麻衣草食 千載之下 瑞光長照 義氣稟稟 千秋遺恨 入山修道 以終餘年 雲仍大發 香大不替 龜(용 신라기원이천오십팔년서기이천 일년신사십일십오일오시상량 라이왕자 구국단심 미원대의 마의초식 천재

지하 서광장조 의기품품 천 추유한 입산수도 이종여년 운잉대발 향대불체 구)

용처럼 찬란하고, 신라 기원 2058년 서기 2001년 10월 15일 오시에 대들보를 올린다. 마의태지는 신라의 왕자로써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오직 한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긴 세월 동안 아직 대의를 이루지 못하고 배운을 입고 풀을 먹으면서 지냈다. 어언 천년이 지나 이제 상서로운 빛이 길게 비추었다. 의기를 품고 천추의 한을 남기고 입산수도 하면서 남은 생을 마쳤다. 구름처럼 크게 일어나 향기로운 대의를 폐하지 말지어다. 거북처럼 오래가라.



영정과 위패

대왕각 현판은 한자로 “大王閣(대왕각)”이라고 쓰고, 그 옆에는 “太子公三十三世孫 扶寧金炯珠書(태자공33세손 부령김형주서)”라고 현판을 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대왕각은 나무로 만들고 지붕은 기와를 얹었다. 주변에는 잣나무가 네 구루 서 있고 돌로 얹은 울타리를 쳐 놓았다. 대왕각 오른 쪽에는 통천 김 씨 대종회에서 세워놓은 마의태자유적비가 있다. 그 유적비에는 마의태자의 약력을 간단히 기록해 놓았다.

대왕각 내부에는 김부대왕의 영정이 있고, 영정 앞에는 위패가 있고, 위패 앞에는 제상이 놓여 있다. 영정은 부안 김 씨 문중에서 4000만원을 들여서 그려 놓은 것인데, 여기 것은 진품이 아니고 복사본이라고 하였다. 영정의 얼굴은 충주 월악산 미륵사지에 있는 마의태자가 만들었다는 미륵불을 보고 그린 것이라 한다. 그 미륵불의 모습이 마의태자와 닮았다는 전설에

기인했다. 위패에는 한자로 “新羅敬順大王太子鎰公金富大王神位(신라경순 대왕태자일공김부대왕신위)”라 하였다. 위패는 나무함을 만들어 그 안에 대리석에 글자를 써서 보관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나무함을 닫았다가 제사가 시작될 때 함을 열었다. 일상적으로 위패나 사진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둘 다 사용하고 있다.

제상 앞에는 자리를 깔고, 자리 앞으로 길게 광목을 깔았다. 그 광목은 김부대왕의 신이 들어가는 통로, 곧 신도(神道)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으로 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모두 광목의 좌우로 다녔다. 현관도 신도로는 갈 수 없다.

(2) 마을제사의 준비

① 제의 날짜와 시간

마을: 마을에서는 계속 내려오면서 제사가 매년 9월 9일하고, 4월 8일에 지냈다.⁵³⁾ 지금은 마을에서 지내지 않는다. 그것은 육군과학화부대가 훈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마을에서만 지냈다. 그러다가 부안 김 씨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마을에서 먼저 지내고, 나중에 부안 김 씨들이 제사를 지내는 식으로 하루에 두 번 지냈다. 마을에서 지낼 때는 될 수 있으면 아침에 일찍 지냈다. 정성으로 지내는 제사니까 아침 7시 경에는 지냈다. 부안 김 씨들은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관광 삼아 와서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많이 올 때는 차가 7~8대까지 왔다. 그분들은 오전 11시 경에 지냈다. 한 동안은 마을 사람들에게 와서 점심식사를 하라고 그러기도 했다. 지금은 부

⁵³⁾ 다른 문헌에는 김부대왕제사가 5월 5일과 9월 9일에 지내는 것으로 기록 되었는데, 윤홍규 제보자는 4월 8일과 9월 9일에 제사를 지낸다고 시종일관 얘기를 했다. 그래서 다시 물었더니, 6.25를 기점으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6.25 한국전쟁 전에는 5월 5일과 9월 9일에 지냈는데, 전쟁 후에는 4월 8일과 9월 9일로 날짜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모르겠다고 하였다.

안 김 씨들이 제물을 전부 해 와서 지내고 간다.

문중: 매년 음력 9월 9일 11시에 지낸다. 2009년의 경우는 다음과 같았다. 부안에서 온 사람들은 하루 전에 인제군 남면에 소재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에 마의태자와 관련된 명문이 있는 갑둔리의 김부답을 관람하고 김부리에 소재한 김부대왕각에 도착했다. 대왕각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경이었다. 대왕각에 이르러서는 제의 준비를 하였다. 준비를 하는 시간은 약 1시간가량 소요되었다. 이때 제관과 알자 및 축관 등의 소임을 맡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도착하지 않아서 조금 기다렸다. 이윽고 11시가 조금 넘자 각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온 부안 김 씨 후손들이 속속 도착했다. 소임을 맡은 사람들이 도착하자 제의는 바로 진행되었다.

② 제관과 도가선정

마을: 초헌관은 제보자 윤흥규의 아버지 윤복익(尹福益) 씨가 했다.⁵⁴⁾ 제보자가 이장을 해도 초헌관을 하지 못했다. 아헌관은 이장이 하고, 종헌관은 마을 사람 중에 선택을 했다.

도가는 마을에서 했다. 도가는 쌀 장례를 맡은 사람이 했다.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떡과 술을 해 왔다. 그것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마을에서 돈을 거둬서 돼지



통천 김 씨 문중에서 세운 마의태자유적비

⁵⁴⁾ 윤복익 씨가 당시 제관을 할 때 찍은 사진이 있다고 했는데, 찾을 수 없었다. 김부리를 떠나 두 번의 이사를 했는데, 그때 없어진 것 같다고 했다.

를 잡았다. 그래서 김 씨 문중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점심을 제공했다. 그러면 김 씨 문중에서 식사 값을 주고 갔다.

문중: 제관은 매년 바뀐다. 제관을 선정할 때는 따로 특별히 금기하는 일은 없는데 알아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온다.

제관선정은 부안 김 씨 파별로 돌아가면서 한다. 3헌관 모두 그렇게 한다. 2009년에는 초헌이 김동엽, 아헌이 김병근, 종헌은 김영식 씨가 했다. 측관은 김형세, 도집례는 김태철 씨가 했다.

도가는 특별히 선정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부안 김 씨 종중에서 회관에 모여 제물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③ 제비와 제물

마을: 원래 제비는 산판하는 데서 목상들과 국유림 관리소의 제제소에서 얼마의 돈을 내서 마련했다. 그리고 모자라면 마을에서 충당을 했다. 옛날에 제제소는 산판하는 곳을 따라 옮겨 다니면서 했다.

그때 쌀 한 가마니를 목상이 주었다. 원래는 마을에서 돈을 거둬서 제사를 지냈는데, 목상이 준 쌀을 받아서 그것을 불려 마을제사를 지냈다. 그것을 장례쌀이라고 하였다. 장례쌀은 닛 말씩 두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그래서 장례쌀을 먹고 한 사람은 술 한 동이 하고, 한 사람은 떡을 내었다. 그것도 봄가을로 번갈아 가며 그렇게 제물을 내서 제사를 지냈다. 오히려 어려웠을 때는 장례쌀이 비쌌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제사를 충분히 지냈다. 술은 도가에서 담가서 왔다. 대왕당 앞에 땅을 파고 묻지는 않았다.

그 외중에 부안 김 씨들이 방송을 통해 알고 와서 자신들이 제사를 지내겠다고 했다. 그러다가 그곳이 군사훈련장이 되기 직전에는 그분들이 제사를 아예 가져가서 지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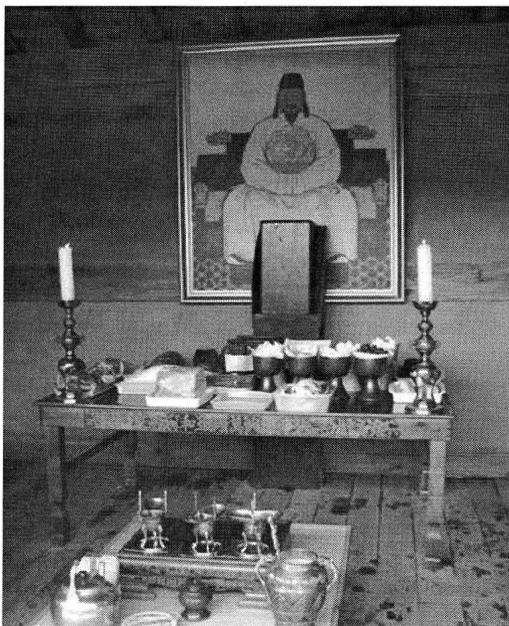
봄에는 돼지를 잡지 않았지만, 9월 9일에는 돼지를 잡고 음식을 아주 푸

집하게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축제 같이 마을 잔치를 하였다. 동네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지냈던 제사에서도 돼지를 잡았다.

제상에는 돼지를 잡아서 머리를 삶아서 올리고, 또 부위별로 갖다 놓았다. 다른 것은 생것으로 놓았다가 다시 삶아서 동네 사람들이 나눠 먹었다. 떡은 시루를 찌서 갖다 놓고, 메는 한 개를 지어서 올렸다. 과일도 대추를 세 개씩 올렸다. 취떡과 미나리적을 올렸다. 촛불 켜고 한지와 실타래를 걸었는데, 나중에는 실을 걸지 않았다.

제기는 마을 것을 썼다. 옛날에는 제기가 따로 없어서 사발 같은 그릇을 갖다가 썼는데 나중에는 마을에서 제기를 준비해서 썼다.

옛날에도 대왕당제사는 서낭당 제사처럼 간단하게 하지는 않았다. 그야말로 정중하게 차려서 했다.



김부대왕제 진설 장면1

문중: 문중에서 제사를 맡고부터는 문중 기금으로 제물을 준비한다. 떡과 술을 제외하고 모든 제물은 익히지 않은 날것으로 사용했다. 그 원인을 물었더니 두 가지 대답을 하였다. 하나는 궁중의 제례법도를 따른다는 것이었다. 곧, 궁중에서는 숙(熟)을 쓰지 않고 향(羹)을 쓰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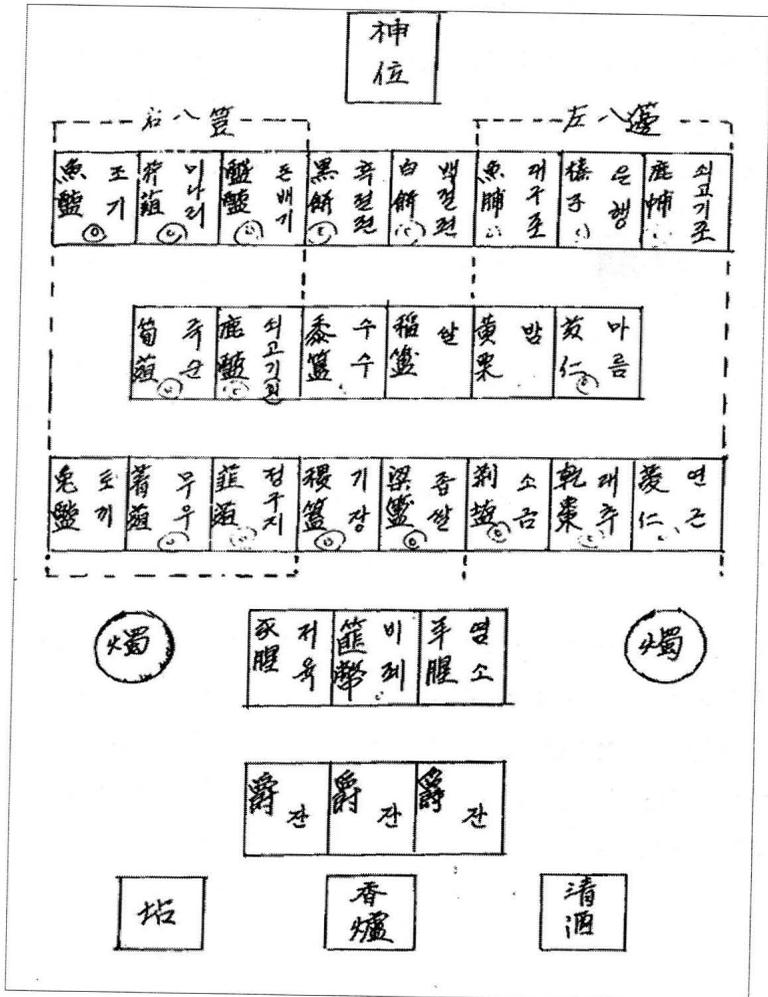
김부대왕제 진설장면2

의태자는 신라의 태자이며 김부대왕이라는 칭호를 얻었기 때문에 궁중의 예법을 따른다고 하였다. 또 하나는 마의태자가 살아생전에 익은 음식 보다는 날 음식을 먹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생식을 주로 올린다. 옛날 마을에서 올릴 때 와서 보니 일반 제사 올리듯이 제물을 익혀서 올렸다. 그런데 이렇게 생식으로 올리는 것은 부안 김 씨 종중에서 제사를 올리면서부터이다.

이때 반드시 올리는 음식은 돌미나리이다.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김부리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곧 마의태자가 생전에 즐겨먹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날은 돌미나리가 아니라 재배 미나리가 제상에 올랐다. 그리고 원래는 양고기를 올려야 하는데 양고기를 구할 수 없어서 대신 토끼고기를 날것으로 올렸다. 돌미나리와 함께 빠지지 않고 올리는 제물은 취떡이다. 이것도 김부대왕이 생전에 즐겨 먹던 음식이기 때문이다. 취떡과 돌미나리는 마을에서 김부대왕동제를 지낼 때부터 그대로 전승되어 오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이 떡을 흑절편이라고 한다. 흑절편은 곧 취떡을 말한다. 그래서 시루떡을 올리지 않고 흑절편과 흰절편을 같이 올렸다.

金富大王(太子公)陳設圖



김부대왕제 제물진설도(부안김 씨 대종회 제공)

제물 준비는 부안대종회에서 모두 준비해서 가져왔다. 대부분 시장에서

사 오는데 제주(祭酒)는 부안 김 씨 대종회장이 직접 담가 왔다고 했다. 술 종류는 동동주라고 하는데 먹어보니 막걸리였다. 많이 가져와서 음복을 할 때 다 같이 나누어 한 잔씩 마셨다. 술을 담글 때는 금기시 하는 것이 있다. 곧, 몸을 정결히 하고, 새벽이슬 맞지 않고, 밤에 빗어 넣는 것이다. 술은 보통 4~5일 정도 걸린다. 양은 서 되 서 홉 정도 담근다.

생쌀을 올리기 때문에 메를 따로 짓지는 않았다.

제기는 대나무로 엮어서 만든 것과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으로 하였다. 대나무를 쓰는 것은 궁중의 법도라고 집례를 보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

부안 김 씨 문중에서 9월 9일에 지내는 제사의 진설도는 다음과 같다. 이 문중에서는 아예 진설도(陳設圖)를 그려 여러 장 복사해서 갖고 있었다. 진설도는 대왕진설도이기 때문에 종종외 제사와는 다르다.

④ 제수준비

마을: 제사를 지내는 쌀은 아주 정성을 드려서 따로 마련해서 썼다. 잘 썰어서 깨끗하게 장만했다. 그냥 집에서 먹는 쌀과는 달랐다.

문중: 제수는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김부대왕제는 떡과 술만 빼고 모두 생식을 올린다. 그래서 재료를 깨끗하게 관리할 뿐이다. 마을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모든 음식을 익혀서 올렸는데, 문중에서 제를 지내면서부터는 생식으로 올리게 되었다. 그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대왕제의 격식에 따른 것이고, 또 하나는 김부대왕 시절에 주로 생식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⑤ 금기방법

마을: 금줄은 치지 않았다. 부정은 타지 않는다고 하였다.

문중: 특별히 금기하는 것은 없고, 제주를 담글 때 새벽이슬을 맞지 않는 것이다.

(3) 마을제사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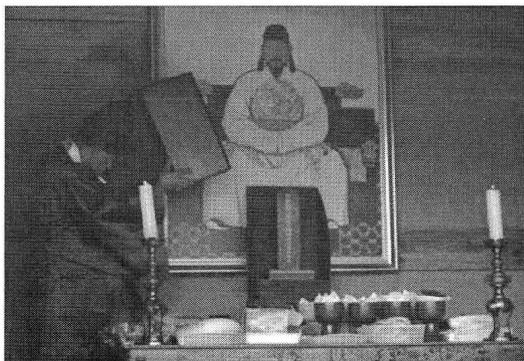
① 제의절차

마을: 제당 청소는 매일 했다. 집 마당을 쓸 때 먼저 대왕당 청소를 하였다. 왜냐면 대왕당이 제보자의 집과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제보자 집의 굴뚝과 닿아 있었다. 거기 잣나무가 있는데 집과 아주 연결이 되어 있었다. 잣나무는 네 개고 전나무가 하나 있었다. 제보자의 마당은 쓸지 못해도 대왕당은 매일 나가서 청소를 하고 주변의 풀을 뽑고 새들이 집을 지으면 쫓아내고 하였다.

금줄은 따로 치지 않았다. 원래 복장은 평상복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지냈다. 그런데 김 씨네가 같이 참여하고부터는 관복 같은 복장을 따로 해서 입었다.

소지는 올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낭당처럼 잘살게 해달라는 제사하고는 달랐다. 제보자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혹시나 무당이나 개인적으로 와서 징을 치면서 기도를 하면 하지 말라고 쫓았다. 여기는 대왕을 모시는 곳이므로 그런 곳이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아예 소지는 올리지 않았다.

고수레는 옛날에는 다 했다. 음식에는 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제사가 끝나면



위패의 뚜껑을 여는 장면

고수례를 했다. 그런데 제보자가 이장을 하면서 고수례를 하지 않았다. 왜냐면 이 제사는 대왕을 모시는 제사였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산신제처럼 똑같이 고수례를 하였다.

음복은 제사 지내고 나서 초헌관부터 시작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했다. 동네잔치 같은 것이니까 다들 마시고 놀았다.

옛날 노인들은 그냥 서낭제 지내는 것과 같이 절을 했다. 곧 두 번 받을 했다. 그런데 김 씨네가 오면서부터 4배를 했다. 왜냐면 왕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축원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누가 아프면 대왕당에 와서 메를 지어놓고 하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능력으로 집안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박 대감이라고 기린에서 하는 식이나 마찬가지로였다.

문중: 복장은 왕(王)제사를 지내는 복장으로 한다. 초헌관은 황금색 모자에 붉은 색 옷을 걸쳤고, 아헌관과 종헌관은 황금색 모자에 푸른 색 옷을 입었다. 집례와 알자 등은 탕관에 흰옷을 입었다. 헌관의 모자에는 비녀를 뒤에 꽂는데, 비녀 옆에는 한자로 “天下泰平(천하태평)”이라고 썼다. 띠를 들렀는데 옥이 박혀 있었으며, 하얀 홀을 손에 들고 옷 앞에는 홀을 꽂는 곳이 마련되어 있다.

절차는 2009년의 경우 다음과 같다.

11시 10분에 집례가 자리 정돈을 했다. 제각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헌관과 축관 및 집례자가 서고, 오른쪽에는 참례자들이 섰다.

집례자가 “2009년 기축년 춘향대제를 봉행하겠습니다.”



헌관 및 집례자의 복장

라고 선언을 했다. 이어서 문중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문중회장은 참여를 감사하고, 날씨 인사가 있었으며, 엄숙하게 춘향대제를 지낼 것을 부탁했다. 이어서 외부인사의 내빈소개를 했다. 그리고 마의태자 후손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이어서 집례자의 헌관소개가 있었다. 초헌관은 김동엽, 이헌관은 김병근, 종헌관은 김영식, 도집례는 김택현, 축관은 김형세, 집례는 젊은 두 분, 알자는 김윤철 씨가 맡았다고 했다.

이어서 도집례가 공수를 말한다. 남자는 왼손이 위로 올라가고,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간다고 함. 그리고 흘기에 따라 낭송하면서 제례를 치렀다. 흘기는 한자와 한글을 병기했는데, 그것은 한자로 하면 잘 알아듣지 못해서라고 했다. 흘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지: 新羅金富大王 大王閣享祀笏記

속지: 王廟大祭笏記

○謁者引獻官入就位 謁者は 獻官을 자리에 모십시오. ○謁者引初獻官升自東階點視陳設 謁者は 初獻官이 東쪽 階段으로 올라 陳設을 點檢하십시오. ○還去 되돌아가십시오. ○贊者謁者贊引 찬자, 알자와 찬인은 ○俱就階間拜位 다같이 拜位 자리에 서십시오. ○四拜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절을 四拜합니다. 몸을 約干 구부리고 배흥배흥배흥배흥평신 ○各就位 각자 제자리리로 돌아가시오. ○謁者進獻官左白有司謹具請行事 謁者は 獻官 왼쪽으로 가서 行事 準備가 끝났음을 告하십시오. ※行事準備가 끝났습니다. ○祝官進神位前開樓退復位 祝官은 神位前에 나가 位牌函을 열고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行奠幣禮 奠幣禮를 奉行하겠습니다.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北向立 謁者は 獻官을 모시고 洗手대 北쪽을 向하여 서십시오. ○搯笏 笏을 넣으시오. ○盥水洗手 洗手를 하시오. ○執笏焚香 笏을 잡으시고 焚香준비를 하시오. ○因詣香案前跪搯笏三上香 香案前에 나가 서서 꿇어앉으시고 笏을 넣으신 후 향을 세 번 사르시오. ○大祝升入 祝官은 일어서시오. ○初獻官執幣以授大祝 初獻官은 幣帛을 祝官에게 건네십시오. ○大祝以幣奠于神位前坵土 祝官은 幣帛을 神位前에 올리시오. ○降神灌酒茅

上 降神禮로 祭酒를 띠 위에 따르시오. ○執笏俯伏興平身 笏을 잡으시고 부복하시고 일어나시오. 평신. ○謁者引初獻官降復位 謁者は 初獻官을 제자리로 모십시오. ○參神獻官及枉位者 皆四拜 參神禮로 獻官과 여기에 계신 全員은 四拜하십시오. ○鞠躬拜興拜興拜興平身 몸을 約干 굽히시고 배흉배흉배흉배 흉평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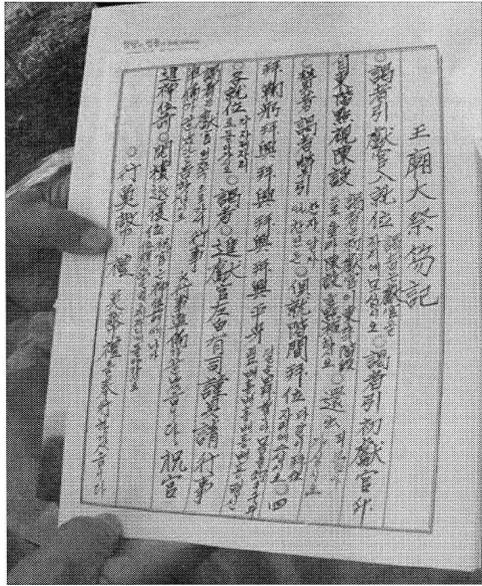
○行初獻禮 初獻禮를 奉行하겠습니다.

○謁者引初獻官詣奠所西向立 謁者は 初獻官을 奠所로 모시고 西向立하십시오. ○酌酒謁者

引初獻官詣神位前跪 謁者は 初獻官을 神位前에 모십시오. 跪하십시오. ○搢笏獻爵扱(挿)匙正箸執笏俯伏興平身 笏을 넣으시고 箸를 올리며 삼시정저 후 笏을 잡으시고 부복 일어나시고 평신. ○小退跪在位者皆俯伏 約干 물러서시오. 몸을 꿇어앉으시오. 全參祀者は 부복을 하시오. ○讀祝祝 進獻官之左東何跪 讀祝을 準備하시고 祝官은 初獻官 좌측에서 東向跪하십시오. ○讀祝文興平身在位者皆興 讀祝을 하시오. 全員 平身 일어나시오. ○謁者引初獻官降侍(?)位執事者撤爵 謁者は 初獻官을 제자리에 모시고 執事는 箸를 물리시오.

○行亞獻禮 亞獻禮를 올리겠습니다.

○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搢笏盥水洗位 謁者は 亞獻官을 洗水자리로 案内하시고 北向을 향해 서시고 笏을 넣으시고 세수를 하시오. ○執笏因詣奠所西向立酌酒 笏을 잡으시고 祭床앞으로 나가시고 西向를 하시고 술을 따르시오. ○謁者引亞獻官詣神位前跪搢笏獻爵奠爵 謁者は 亞獻官을 神位前에 引導하시고 꿇어앉으시고 笏을 넣으시고 술잔을 올리시오. ○執笏俯伏興平身 笏을 잡으시고 몸을 구부리시고 다시 일어나시오. 몸을 평신. ○謁者引亞獻官降復位執事者撤爵 謁者は 亞獻官을 원자리로 인도하시고 執事는 잔을 물리시오.



김부대왕제 흥기 첫 장



제주 푸는 장면

○行終獻禮 終獻禮를 奉行하셨습니다.

○謁者引終獻官詣盥洗位北向立搯笏盥水洗手 謁者は 終獻官을 洗手台에 모시고 北쪽을 향해 서시오. 笏을 넣은 뒤 洗手를 하시오. ○執笏因詣奠所西向立酌酒謁者引終獻官詣神位前跪搯笏獻爵奠爵 笏을 잡으시고 終獻官은 奠所에서 西向하시고 盞에 술을 따른 후 謁者は 神位 앞에서 꿇어앉으신 후 笏을 넣으시고 술잔을 올리시오. ○執笏俯伏興平身 笏을 잡으신 후 俯伏했다 일어나시고 平身 ○謁者引終獻官降復位獻官皆四拜鞠躬拜興拜興拜興 謁者は 終獻官을

제자리로 모십시오. 獻官全員四拜를 올립니다. 鞠躬배흥배흥배흥배흥 ○平身 평신하십시오. ○祝闔門獻官及在位者皆俯伏肅候 祝官은 門을 닫으시고 獻官 및 參祭官은 全員俯伏하시고 조용히 계시오. ○祝嘻歆三聲乃入啓門 祝官은 嘻歆三聲하실 門을 열고 들어가시오. ○撤爵撤羹進茶點茶撤茶合飯盖下匙箸 잔과 국을 물리시고 茶을 올렸다 點檢한 후 茶도 내리시고 메의 개를 덮은 후 저분을 내리시오.

○獻官以下皆興 獻官 이하 全員 일어나시오.

○行飲福禮 飲福禮를 奉行 하셨습니다.

○謁者引初獻官詣飲福位西向跪搯笏受爵飲啐爵 謁者は 初獻官을 飲福 자리로 안내하시고 西向 후 꿇어앉으시고 홀을 넣으시고 잔을 받고 음복하시오. ○祝取胙肉盛於盤北向跪以授獻官獻官受胙還授執事者 祝官은 고기를 떼어서 소반에 올리고 北向하고 꿇어앉은 뒤 獻官에게 드리고 獻官은 고기를 받고 飯福 후 執事에게 돌려보낸다. ○執笏興平身謁者引初獻官降復位 홀을 잡고 일어나 몸 바르게 하고 謁者は 初獻官을 제자리로 案内하시오. ○祝升入撤籩豆 祝官은 祭物을 撤示하시오. ○辭身 辭身입니다. ○獻官及在位者皆四拜 獻官과 參祭者는 全員 四拜를 합니다. ○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鞠躬할 배흥배흥배흥배흥 몸을 바르게 하시오.

○行望燎禮 望燎禮를 行事하셨습니다.

○ 謁者引初獻官詣望燎位西向立 謁者是 初獻官을 望燎位置로 引導하시고 西向立 하시오. ○ 祝以篚取祝文及幣帛 祝官은 대바구니에 祝文과 幣帛을 넣으시오. ○ 降自西階 置於坎可燎 西쪽으로 내려가서 구덩이에 넣고 불사르시오. ○ 謁者引初獻官降復位 謁者是 初獻官을 제 자리로 모시오. ○ 謁者進獻官之左告禮畢謁者引獻官



독축장면

去 謁者是 獻官의 左쪽으로 나가서 行事가 畢하였음을 告하시고 獻官을 모시고 나가시오. ○ 祝及諸執事俱復階間拜位四拜 祝官 및 諸執事は 다같이 절을



헌작 장면

을 자리에 서시오. 四拜를 올리겠습니다. ○ 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鞠躬배흥배흥배흥배흥 平身 하시오. ○ 執禮率贊者謁者贊引俱復階間拜 執禮는 贊者謁者贊者를 引率하시고 다같이 拜位자리로 가시오. ○ 四拜去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掌饌者撤禮饌闔門以降及退 四拜를 올리고 나가시오. 鞠躬拜興

拜興拜興拜興平身하시고 祭物을 責任진 분은 祭物을 撤席하고서 문을 닫고 내려가 물러나시오.

이상이 김부대왕제 홀기 전문이다. 표지까지 모두 8장이다.

절은 4배를 하는데 이도 왕제사이기 때문이다.

참가자는 정확히 세지는 않았으나, 문중회장의 말을 빌면 150명 정도 되었다.

제례가 홀기 순서대로 해서 끝났다. 제례가 끝나자 부안 김 씨의 후손의

한 사람인 김형철이라는 시인이 자작시를 낭송하였다. 낭송한 시는 다음과 같다.

〈김부대왕 전하〉

시린 초승달이
 대왕각 지붕을 밝혀
 찬 바람 문풍지 휘돌아서
 김부대왕 혼령이 부르신다.
 나를 두고 종성이라고 찾는
 부령·통천 김가들이
 망국의 한을 달래 주는구나
 천년을 김부리 이슬 먹고
 구름 찾아 헤매이던 나날
 원망이 하늘에 다 주민들 재화가 따르더니
 매년 5·5, 9·9 춘추 시제 받았지
 부령이 내 얼굴 씻어 주고
 통천이 내 머리 감겨줘
 밝은 햇살 보렸더니
 통천은 떠나고 주민은 흩어져
 3군의 요새지되어
 풀과 들꽃 잣나무 그늘만 길어간다.
 천궁사 청광 스님에게 현몽하여
 내 무덤 찾으라 일렀으니
 오늘 제향 예필 후 부김 왕손들은
 승자의 찬칼에 누더기가 된
 내 육신과 영혼을 찾아 복락을 누리라. (『옹겨 다니는 촛불』에서)

시의 격조가 높지는 못하지만, 후손의 입장에서 조상을 노래하는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시의 내용은 김부대왕의 입장에서 그간에 있었던 대왕제와 관련한 내용을 읊은 것이다.

시 낭송 후 이곳에 참가한 부안 김 씨 후손들은 대왕각 앞에서 단체 기념

촬영을 하였다.

기념촬영이 끝난 후에는 대왕제를 지낼 때 사용한 제주와 떡으로 음복을 하였다. 그리고 역시 부안 김 씨 후손인데 상남리에 사는 사람이 국밥으로 점심을 준비하여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제공했다. 국밥은 한우사골을 삶아서 고기를 찢어 넣고 각두기와 배추김치를 곁들여 점심으로 하였다.

② 축문

마을: 옛날 6.25 전에는 축을 고하지 않았다. 그냥 지내고 축원만 했다. 김 씨네들이 참가하면서 축을 고했다. 그 당시는 조상제사에 지위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축을 고하겠냐. 그냥 ‘벽 제사’⁵⁵⁾를 지냈다.

문중: 2009년 9월 9일의 제사에는 김형세(72) 씨가 축관이 되었다. 부안 김 씨는 제사를 지낼 때 각 파별로 돌아가면서 제관 등의 역할을 한다. 제의 준비는 대종회에서 하지만 그 역할은 파별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종회에서 준비해 온 축문을 축관으로 선정된 사람이 고축을 한다. 2009년의 축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원문은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다.

(한문 원문)

維 歲次

新羅紀元二千六十六年己丑九月丙申朔九日甲辰

二十四代孫 金東擘 敢昭告于

新羅

敬順大王太子鑑公金富大王 伏以

誠深衛國 義大存宗 烈烈其心

卓卓其節 一間遺祠 萬古洞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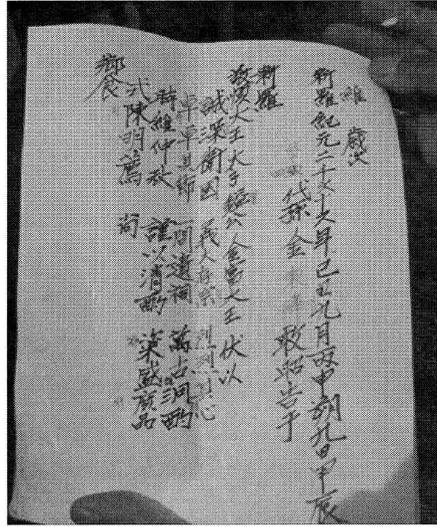
時維仲秋 謹以清酌 黍盛庶品

55) 벽 제사는 조상의 사진을 놓거나 지방을 쓰지 않고 벽에 다 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式陳明薦 尙
饗

(한글)

유 세차
신라기원이천육십육년기축구월병신
삭구일갑진
이십사대손 김동엽 감소고우
신라
경순대왕태자일공김부대왕 복이
성심위국 의대존중 열열기심
탁탁기절 일간유사 만고형작
시유중추 근이청작 자성서품
식진명천 상
향



김부대왕제 축문

(번역문)

해가 바뀌어
신라기원 2066년 9월 9일이 되었습니다.
24대 손 김동엽은
신라 경순대왕 태자 김일공 김부대왕님께 엎드려 감히 고합니다.
정성을 다해 나라를 구하고자 한 큰 의리는 아주 높습니다.
세차고 굳센 그 마음과 높고 높은 그 절개
한 칸 사당에 남겼으니 만고에 길이 잔을 올릴 것입니다.
중추의 시절을 맞이하여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푸짐하게
법식에 맞춰 진설하여 신령님께 올리니 흠향하시옵소서.

위 축문에서 보듯이 신령은 김부대왕이고, 날짜는 신라기원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마의태자의 절개를 높이 사고 오랫동안 흠모하는 제의를 행할 것을 말하고 있다.

날짜를 신라기원으로 한다는 것이 일반 제사와 다른데 이는 김 씨들의 조상을 기리는 형식이 가미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동제에서 마을의 안

녕과 복락을 기원하는 것과 달리 마의태자의 마음과 절개를 말할 뿐이다. 이로 보면 김부대왕제는 마을제사에서 씨족의 시조와 충절을 기리는 제사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4) 영험담

마을: 김홍규 제보자에게 대왕당에서 비는 사람이 많았냐고 묻자, 아주 반색을 하면서 그렇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도 했다.

대왕각에는 아들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빌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대왕당은 아픈 사람들도 와서 빌고 가면 병이 나았다. 소원이 있어도 와서 빌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화수 떠놓고 빌기도 하고, 복술을 들어서 정화수를 떠놓고 대왕당에 와서 비는 것을 많이 봤다.

대왕당이 있으니 상당히 든든했다. 대왕당을 돌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때는 잘 사는 편이었다.

〈수레너미에 칩이 뺏지 못하는 이유〉

옛날 노인들 말이 저기 술구네미리는 데가 칩이 아주 많이 뺏어있었데요. 그래서 수레가 자꾸 걸리니까. 김부왕이 부적을 써서 그게 다람 칩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엔 칩이 못 뺏어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칩이 뺏는데 거기는 칩이 뺏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쪽에서도 술구네미고개라 하고 저쪽에서도 술구네미고개라고 해요. 그게 수레너미인데, 술구네미가 된 거예요.(윤홍규)

『인제군사』에 보면 〈토끼봉전설〉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김부대왕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이야기를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

갑둔초등학교 동쪽 천지봉에서 북쪽으로 뺏어 내린 해발 680m의 자그마한 산이 있다. 이 산은 마치 토끼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토

끼봉이라 한다. 또 이 산 앞 북쪽 냇가에 우뚝 솟은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두꺼비바위라고 한다.

옛날에 이곳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3년이 되어도 슬하에 자식이 없는 것이 한이었다. 이 부부는 생각다 못해 김부대왕께 찾아가 그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김부



김부대왕제 장면

대왕은 이들의 딱한 사정을 들은 후 이들 부부에게 절을 짓고 부처님께 백일 기도를 드려보라고 일러주었다.

그날부터 두 부부는 지금의 토끼봉과 두꺼비 바위 사이에 절을 짓고 탑을 세웠다. 절을 다 지은 다음 곧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하루는 빠짐없이 새벽에 일어나 깨끗한 물과 매를 지어 부처님 앞에 놓고 정성을 다하여 빌었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과 토끼 같은 딸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또 빌어 백 일째 되는 날에는 하dis 시루떡을 해다 놓고 마치 막으로 빌었다. 이때 인근 천지산(天志山)에 있던 토끼와 천지곡(天志谷)에 있던 두꺼비는 매일 같이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보면 부처님께서 밥을 혼자 먹어치우기 때문에 항상 입맛만 다시고 돌아갔다. 백 일째 되는 날도 토끼와 두꺼비가 와보니 먹음직스런 시루떡이 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여느 날과 달리 부처님은 그 떡을 먹지 않고 토끼와 두꺼비에게 먹으라고 하였다.

토끼와 두꺼비는 어찌나 반가웠던지 서로 많이 먹으려고 다투었다. 부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살아 있는 것들의 못난 짓이구나.”

하시며 떡시루를 집어서 개울 건너로 던져버렸다. 토끼는 부끄러워 머리를 돌렸고 두꺼비는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앞발을 쳐들었다. 이때 하늘에서는 번개가 일고 천둥이 쳤다.

그러자 토끼와 두꺼비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던져버린 시루떡은 세 조각으로 갈라져 큰 바위가 되었다. 그 후 이들 부부에게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과

토끼 같은 딸 쌍둥이를 낳아 잘 기르게 되었다고 한다.⁵⁶⁾

같은 책 지명유래항목에는 후일담까지 전하고 있다. 이때 태어난 남매는 김부대왕이 죽은 후에 은혜를 갚기 위하여 김부대왕각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⁵⁷⁾

문중: 영험담은 특별한 것이 없다.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마을: 마을의 자금은 이장이 취급하므로 연말 결산 때 했다. 연말에 결산을 하는 것을 대동회라고 했는데, 그때 마을제사에 대한 결산도 함께 했다. 대왕당 제사 때 뭐가 얼마를 썼고, 남고 모자랐다고 얘기를 했다.

문중: 부안 김 씨 종중에서 매년 같은 제물을 준비하고 홀기에 따라 제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따로 운영과 결산은 하지 않고 문중회의 때 논의가 된다.

3) 마을제사의 특징

마을: 대왕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마을의 축제와 같았다. 이때는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마을제사가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얻어먹으려고 오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서 마을에서 9월 9일에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해서 나눠 먹었다. 돼지도 잡아서 끓여 먹었다. 4월 8일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놀았

56) 『인제군사』, 앞의 책, 941-2쪽.

57) 위의 책, 1191-2쪽.

다. 마치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다.

제사는 남자들만 했으나, 음식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했다. 마을 축제 분위기니까 마을 사람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를 했다. 지금은 시군에서 무슨 축제라고 하면서 크게 지내지만, 옛날에 김부리에서는 대왕당제사가 가장 큰 축제였다.

김부리에서는 대왕당제사 외에도 각 반별로 치성제가 있었다.

문중: 동제를 지낼 때는 제당을 대왕당이라 했는데, 문중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제각으로 바뀌어 대왕각이라 하였다. 이때가 1983년으로 군비(郡費)로 제각을 새로 지을 때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래 있던 제당을 1944년에 개축을 했다고 한다. 이때 위패가 “敬順大王一子之神位”였던 것이 “敬順王第一子金富之神位(경순왕제 일자김부지신위)”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후 1982년 부안 김 씨들이 개입하면서 위패도 바뀐다. 곧, “新羅敬順大王太子金公鑑之神位(신라경순대왕태자김공일지신위)”라고 하였다.⁵⁸⁾ 그 후 2001년 부안 김 씨 종중에서 대왕각을 다시 짓고 위패를 마련하였다. 그 위패는 곧, “新羅敬順大王太子鑑公金富大王神位(신라경순대왕태자일공김부대왕신위)”가 되었다. 드디어 위패에서 대왕의 칭호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마을에서도 후손들로부터도 대왕의 칭호를 듣고 있었다. 일반인들이 마의태자라고 일컫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었다.

김부대왕제는 마을에서 문중으로 옮겨졌다. 그 시기는 1993년 이 지역이 육군과학화훈련지역이 되면서부터였다. 문중으로 옮겨지면서 동제로부터 문중에서 치르는 제사로 넘어간 것이다. 그러면서 제사의 형식도 바뀌었다. 곧, 제물, 진설, 홀기 등이 모두 바뀌었다. 과거 마을에서 지낼 때 당의 명칭

⁵⁸⁾ 신종원, 앞의 책, 86-9쪽. 그런데 윤흥규 제보자에게서 들은 바는 “大王之神位”라고 6.25전에 썼다고 했다. 그러니 경순왕이니 김부대왕이니 하는 말은 후대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은 대왕당이지만 제를 지내는 격식은 동제였다. 그러나 문중으로 제사가 넘어가면서 왕의 제사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을 사람 대신 마의태자 후손들이 제사를 지낸다.

4) 문헌자료

김부대왕제와 관련한 문헌자료의 내용을 옮겨 적는다.

〈金富大王 洞祭〉

상남면 김부리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제이다.

대왕각은 김부리 일대에 3곳이 있었는데(현재는 1개소만 현존하고 있음) 매년 단오(음력 5월 5일)와 중앙절(음력 9월 9일)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제사를 드리는 행사로 천 년간이나 이어오고 있다.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 자체로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을 운용하여 그 이자로 제물을 만들어 동제를 지내왔다고 한다.

김부대왕각 동제에 빠짐없이 마련하는 제물 중에 미나리적과 취떡이 있다고 한다. 미나리적은 김부대왕이 무척 즐겨 먹던 음식이었으



참가자 단체사진(2009년)

므로 꼭 제상에 놓았다고 하며, 취떡은 동제가 끝난 후 갈잎에 싸서 몰래 근처의 나뭇가지에 올려놓은 것을 젊은이들이 서로 찾아 먹으려 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남자가 찾아 먹으면 글공부를 잘하게 되고, 여자가 찾아 먹으면 질쌘을 잘하게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제사 지내는 방법은 동네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제주가 되어 제물을 차려 놓고 향을 피웠으며 축을 고하였고 온 동리 사람들이 함께 절을 하면서 동리의 안녕과 집안의 복을 기원하였다.

제사가 끝난 후 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하루를 즐겼다고 한다.

1983년부터는 부안 김 씨와 용천 김 씨 문중에서 그들의 관시조인 김부마의태자의 사당으로 모셔 제향을 올리고 있다. (9월9일)

특히 항병골 대왕각에는 위패가 없었는데 위패를 쓸 사람이 없어서 창호지를 나뭇가지에 걸어 놓고 제사를 지냈으며 제사에 쓸 술은 미리 대왕각 옆 땅 속에 항아리를 묻고 술을 담갔다가 사용하였고, 향로는 오목한 자연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소원이 있으면 이곳에 메를 지어 놓고 빌기도 했다는 것이다.⁵⁹⁾

〈김부 대왕각〉

상남면 김부1리에 있는 비각(碑閣)이다. 건립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이 지방 사람들은 이 비각을 일러 김부대왕각이라 불러오고 있으며 연년세세(年年世世) 동제(洞祭)를 지내오고 있다.

비각 내에는 『新羅敬順大王太子金公鑑之神(신라경순대왕태자김공일지신)』이라는 위패가 모셔져 있다. 원래 위패 내용은 『新羅敬順王第一子之神位(신라경순왕제일자지신위)』로 새겨져 있었으나 훗날 어느 후손에 의하여 지금의 내용으로 바뀌었다.

마의태지는 경순왕이 고려 태조에게 항복하자 천년사직을 그대로 내 놓을 수 없다하여 그의 추종 세력을 거느리고 인제 땅으로 와 신라 재건을 위하여 군사를 모으고 훈련을 시켰다고 하며 추종세력들에 의하여 김부대왕

59) 『인제군사』, 앞의 책, 925-6쪽.

(金富大王)으로 추대되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이와 공교롭게도 대왕각이 위치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최근 5층석탑이 발견되었고, 그 석탑에 새겨진 문구에 “…金富壽命長存家(김부수 명장존가)…”라는 내용이 있어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⁶⁰⁾

〈대왕당제사〉

김부리 동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산치성과 서낭제 이외에도 대왕당 제사를 따로 지낸다는 점에 있다. 김부리의 중심부, 본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왕당에서는 金傅大王을 모시고 있다. 김부대왕은 사람에 따라 신라 마지막 임금 경순왕이라 하기도 하고 마의태자라 하기도 한다. 김부리에서 언제부터 김부대왕을 모셨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 산치성, 서낭제와 같이 예전부터 위해 온 것이라 한다. 대왕당 제사는 매년 5월 5일 단오와 9월 9일 중앙절에 지낸다.

대왕당은 예부터 현재의 자리(마을 공동창고 뒤)에 있었다 한다. 현재의 당집은 세 번 중수한 것으로 예전 능아집이 있던 자리에 송판과 기와로 지었다가 다시 벽돌과 기와로 재건한 것이다. 예전의 능아집(능애집이라고도 한다.)은 기둥을 세우고 나무를 쪼개 지붕을 덮고 벽 없이 만들어 지은 집이었다. 제보자들에 의하면 1960년대 마을 뒷산에서 나무를 해가던 木商이 송판과 기와 등을 회사하여 허름한 능아집을 개축하였다고 한다. 이것을 김제수 군수가 벽돌과 기와로 중수한 것이 현재의 대왕당이다. 대왕당 안에는 위패가 모셔져 있고 촛대와 돛자리 등 간단한 祭器가 있다. 현재의 위패는 1983년 부안 김 씨 문중에서 새로 제작한 것으로 ‘新羅敬順大王太子金公之神位’라 적혀 있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이전의 위패는 ‘敬順大王第一子金傅之神位’라 적혀 있었다 한다. 대왕당 주변에는 양옆으로 큰 잣나무가 서 있다.

60) 위의 책, 838쪽.

김부리에는 본동의 대왕당 이외에 항병골과 단지골에도 대왕당이 있다고 한다. 두 곳 모두 소실되어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 있다. 이 두 곳의 대왕당을 충신각이라고도 부른다. 원래는 본동의 대왕당에 김부리의 모든 자연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를 올리던 것을 항병골과 단지골의 인구가 늘면서 모셔간 것이라 한다. 그러나 6.25동란 등으로 소실되고 인구가 줄면서 다시 본동의 대왕각 제사로 모여들게 되었다.

김부리 대왕당 제사는 해마다 단오와 중앙절에 마을 사람 모두가 모여 지낸다. 예전엔 여러 자연마을에서 차례를 정해 돌아가면서 제를 올리곤 했다. 개개 마을에서 제비를 추렴하여 제물을 마련하고 생기복덕을 가려 깨끗한 이로 제주를 두 명 선출하였다. 이 두 명이 단오와 중앙절에 제를 올리게 되는 것이다. 제주는 제물을 마련하는 도가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상을 당한 이는 제주로 선출될 수가 없었다. 도가는 각 반의 반장들이 반 단위로 걷은 제비를 가지고 제물을 마련하고 술을 담갔다. 초헌관이라 하여 제사를 주관하는 이를 따로 두었는데 대개 마을에서 나이가 지긋하고 제사 경험이 많은 이가 맡았다.

제물로는 그 해의 형편을 보아 제비가 넉넉할 때에는 소나 돼지를 잡기도 하였다. 술과 적, 포, 과일 등을 마련하고 단오에는 취떡과 미나리적을, 중앙절에는 시루떡이나 절편을 준비했다. 단오에 마련하는 취떡은 인근 지방에서 썩떡 대신에 많이 만들어 먹던 것으로, 주민들에 의하면 김부대왕이 생전에 즐겨 먹었던 것이기 때문에 대왕님께 올리는 것이라 한다. 미나리는 개울가에 자생하는 돌미나리를 넣어 만든 것으로, 이 역시 인근 주민들이 잔치 때 차려놓고 즐겨 먹었던 것으로 ‘기정떡’이라고도 한다.

대왕당 제사의 절차는 마을의 나이 지긋한 초헌관이 초를 켜고 향을 피우고 나서 절을 하고 잔을 올리는 것으로, 일반 가정의 조상제사와 유사하다. 초헌관이 잔을 올리고 마을 사람이 평안하고 농사 잘 짓도록 지켜주십사는 축원을 올리고 나면, 참석한 이들이 절을 올린다. 대왕당 제사에서는 산치

성과 달리 소지를 올리지 않는다. 김부대왕은 어디까지나 마을의 어른이지 신령님이 아니기 때문에 소지를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본동의 대왕당 제사 때에는 쏘뿔의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오전의 제사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기도 하고 여자들은 그네를 뛰며 즐겼다 한다. 또한 취떡을 갈잎에 싸 근처의 나뭇가지에 숨겨놓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찾아 먹도록 하였다. 이것을 남자가 먹으면 글공부를 잘하게 되고 여자가 먹으면 길쌈을 잘하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인구가 늘면서 항병골과 단지골에서 대왕각을 따로 모셔 간 후, 그곳 사람들은 본동 대왕당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각기 자기 마을 대왕당에 모여 제를 올렸다. 그러던 것이 대왕당이 소실되고 인구가 줄면서 다시 본동의 대왕당 제사에 모이게 되었다고 한다.

60년대에는 木商이 회사한 쌀 한 가마니를 제비로 삼아 이장이 관리하고, 이것을 '장리쌀'이라 하여 봄에 한 가마를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한 뒤 닷말을 이자로 쳐 갚도록 하였다. 한 때는 이 '장리쌀'을 서로 먹으려 하였으나 지금은 원하는 이가 없어 이장이 관리하고, 제주로 뿔뿔히 집에 돈으로 제비를 지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해마다 정초가 되면 대왕당에 하루 두 자루씩 초를 켜 놓고 이를 보름까지 매일 반복한다. 지금도 행하고 있다.

한편 이곳의 대왕제가 관청의 조사와 홍보로 방송전파를 타게 된 이후, 마의태자를 시조로 모시는 부안 김 씨 자손들이 찾아와 제를 따로 올리게 되었다. 이들은 제당을 새로이 단장하고 위패를 새로 만들어 '新羅敬順大王太子金公之神位'라 써 놓고 1987년경부터 해마다 중앙절에 와 제사를 올리고 있다. 따라서 단오의 제시는 마을 공동으로 올리게 되고 중앙절의 제사는 오전엔 마을 사람들이, 오후엔 부안 김 씨들이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금년 단오 때의 대왕제는 치러지지 않았다. 올해가 마지막 대왕당 제사라 하여 나이 많은 이들이 아쉬워하나, 농번기라 분주한 탓도 있고 그나마도 인구가 적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가 없다 보니 지내지 못하게 된 것

이다. 앞으로 마을이 해체된 후, 대왕당 제사는 치러질 수 없다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다. 부안 김 씨 문중에서 모셔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현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을의 해체와 대왕당 철거에 따라,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김부리 대왕당 제사의 맥이 끊기게 된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⁶¹⁾

5) 김부리 치성제

김부리에서는 대왕당제사 외에도 각 반별로 치성제가 있었다. 김부리가 6개 반이었는데, 6개 반 모두 치성제를 지냈다. 이를 산치성이라 하기도 하고 서낭치성이라 하기도 하였다. 치성제는 2월 초 정일(丁日)과 8월 초 정일에 지냈다. 그날은 도가라 해서 지정을 해주면 음식을 다 만들어서 지냈다. 치성비라고 해서 마을에서 가가호호 거둬서 했다. 산치성에서는 돼지까지 잡는 것은 못 봤다. 보통 돼지머리를 쓰던가, 복어를 쓰기도 했다.

치성제를 지내는 당집도 모두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당시 미신이라고 하여 모두 부수라고 해서 부셨다. 그런데 당집을 부수고 나서는 청년들이 자꾸 죽어 나가는 등의 마을에 재가 들어서 다시 예단을 걸어 놓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 그 후부터는 청년들이 죽어나가지 않았다. 다시 당집을 짓지는 못했다. 제사를 지내던 장소는 바위 앞인데 물도 나고 한다. 청년들이 죽을 때는 이상하게 약을 먹고 죽었다.

옛날 제당은 그곳이 숲이었는데 제당을 없애고 나서는 치성장소를 옮겼다.

제당이 가장 좋은 곳은 비득재에 있던 제당이다. 숲도 우거지고 나무가 모두 이름드리였다. 제당은 산판에서 남은 것을 갖다가 지었다. 그밖에 다른 곳은 그냥 바위 앞에서 하였다. 제당에 위패는 없었다.

61) 남근우박신정, 앞의 책, 102-4쪽.

그냥 종이만 걸어 놓고 음식 해 놓고 양초를 켜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메는 현장에서 지었다. 새옹이라는 것애다가 새옹메를 지어 올렸다. 메를 지을 때는 떠들어서도 안 되고, 아주 깨끗하게 몸단장 하고, 술에서 물이 넘치면 술가지에 물을 묻혀서 뚜껑 위에 얹으면 넘치지 않았다. 절대 열어봐서는 안 된다. 한 번 물을 부어서 메를 얹으면 다 되어서 제상에 올릴 때까지는 그대로 있어야 한다. 떡도 집에서 찰 때는 젓가락으로 김이 잘 오르게 하느라 찢어보고 하면서 하는데, 고사떡은 한번 찌기 시작하면 절대 열어보지 않았다. 술과 시루를 붙여놓은 부분이 터져서 김이 새도 그대로 불을 세게 해서 찼다. 그렇게 해야 부정이 없다고 하였다. 아주머니들이 김이 잘 오르면 괜찮지만 잘 오르지 않으면 아주 애를 먹었다. 떡도 현장에서 찼다. 떡과 메는 도가에서 했다.

서낭제에는 금줄을 쳤다. 도가로 선정되면 집에는 송침을 했다. 송침은 집에 따라서 수효가 달랐다. 집이 커서 넓으면 3개를 꽂고, 집에 들어오는 입구가 작으면 한 개를 꽂았다. 송침은 술 보대기를 베어서 아주 크게 했다. 제당에는 금줄만 띠었다. 원새끼에 종이만 끼웠다.

산제사 치성을 드리고 나서 보는 결산은 그 자리에서 바로 했다.

쌀은 특별히 거두어서 썼는데, 지금은 기금으로 해서 사서 쓴다. 원 기금이 있으면 거두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쌀을 한 되씩 거두어서 메도 짓고 떡도 하고 팔아서 돼지머리도 사오고 하였다.⁶²⁾

⁶²⁾ 윤홍규(74, 남), 2009년 9월 2일. 채록 필자.

12. 서화면 서화1리

99골 서낭제



서화리 서낭제 재배 장면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09년 10월 26일 오전 5시~8시

조사지: 서화면 서화1리 마을회관과 서낭당

제보자: 권용기(남, 49) 서화1리 토박이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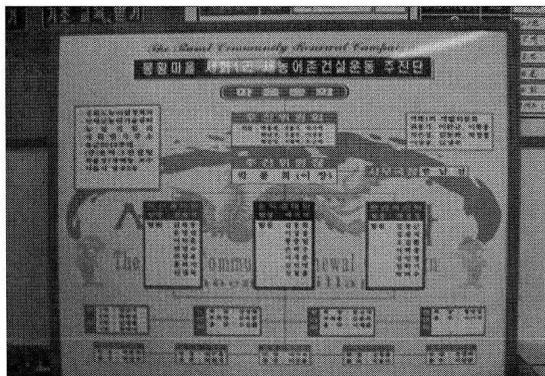
신경묵(남, 78) 서화1리 3반

어익훈(남, 73) 서화1리

(2) 마을유래와 개관

서화리(瑞和里)는 1945년 38선이 그어지면서 북한 땅이 되었다. 1951년 수복되기 전까지 북한이 통치를 하였다. 수복이 되고 나서도 미군정이 이 지역을 통치하고, 민간인은 출입을 할 수 없었다. 그 후 1955년 천도리는 민간인이 들어가 살 수 있었다. 1958년 3월부터 서화리까지 민간인이 들어가서 살게 하였다. 그 때문에 1945년부터 1958년까지 13년간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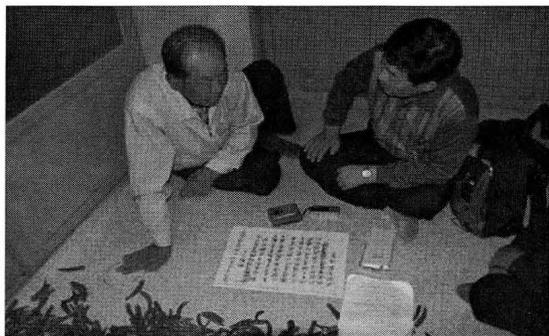
1958년 이후 이 지역에 민간인이 살면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비록 북한과 접경을 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넓은 강



서화1리 새농어촌건설 추진단도

과 농토는 사람이 살기에 최적지였다. 서화천은 수량이 풍부하고 농토를 비옥하게 만들고도 남았다. 그래서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들어서 옛날의 호황을 다시 누리게 되었다.

원래 서화리가 서화면의 면소재지였으나, 천도리가 1955년부터 민간인이 살면서 먼저 면소재지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경목 제보자와 채록 장면

마을 사람들이 주로 하는 업종은 농사이다. 서화리에서 생산되는 작목은 벼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농사 품목이 주를 이룬다. 풋고추를 많이 하는데 농협에서 수매를 해 간다. 그리고 최근에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자금으로 마을에 파프리카 단지를 만들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밖에 인삼, 더덕, 산나물(참나물) 등이 있다. 참나물은 보관이 오래되지 않아서 삶아 말려 묵나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서화1리에 사는 사람들은 현재 약 400명 정도 된다. 가구는 90가구 정도이다. 이 중에는 민간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인 가족이 포함된 숫자이다. 군인가족은 100여명 된다.

최근에 이곳에 강원도에서 DMZ평화생명동산을 세웠다. 지금까지는 마을의 이익과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마을에서는 그곳에 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마을제사의 내용

필자는 서화리 마을제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인제에서 잠을 잤다. 제사가

아침 5시에 시작된다고 하여 3시 40분에 여관에서 잠을 깨서 4시에 여관을 나왔다. 여관을 나와서 최종익 인제문화원 이사를 만나기로 한 정중앙휴게소에 도착했다. 최종익 이사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만나서 서화면을 향해 차를 몰았다. 이른 아침이어서인지 인적은 드물고 안개도 간혹 끼어 있었다.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4시 40분경에 도착했다.

서화리에 도착해서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디로 오라고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몇 번 전화를 하고 헤매다가 마을회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노인회장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회관 안에는 아무도 안 왔는지 불이 꺼져 있었다. 새벽녘이라 날씨도 몹시 추웠다. 겨울 외투를 가져가지 않은 것이 몹시 후회되었다. 그래서 노인회장에게 마을제사에 관해서 물어볼 겸 승용차 뒷좌석에서 면담을 하였다.



서화리 마을제당 예단걸기

노인회장은 이 마을에 온 지 1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을에 대해서 아직 잘 몰랐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고 하니, 황해도 안악이라고 했다. 17살 때 안악에서 남한으로 왔다고 하였다. 그때 기억이 나냐고 하니 많이 난다고 하였다. 그래서 황해도 마을제사에 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였다. 그때 들었던 내용은 서화리 마을제사 끝에 보유로 달아 놓았다. 많이 물어볼 수 없었던 것이 그때 마침 동네 사람들이 마을회관으로

하나 둘 들어왔기 때문이다. 노인회장으로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관을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원래 마을제사를 주관하던 분은 상가에 갔다 와서 오늘 제사에는 참가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마을회관에 들어가니 몇 사람이 회관 부엌에 와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제물 준비와 회식준비를 하고 있었다. 필자는 제물 준비에 관해 몇 가지 여쭙보았다.

그리고도 한참이 지나 이장을 비롯하여 제사를 지낼 사람들이 모두 승합차에 제물을 싣고 제사장소로 이동했다. 필자와 최 이사는 승용차를 타고 뒤를 따랐다.

마을회관에서 제물을 승용차로 옮겨 싣는데 그 옆에는 마을전통농기구 전시관이 2007년 7월 30일에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다.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마을 제사를 지낼 일행이 탄 승합차가 도착한 것은 마을회관에서 그리 많이 떨어진 곳이 아니었다. 승합차가 멈추자 우리도 급히 차에서 내려 뒤를 따랐다. 약 10m정도 거리에 마을제당이 있었다.

마을제당 뒤에는 큰 소나무가 있었다. 아마 수령은 200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그 나무 앞에 돌로 쌓은 제당이 있었다. 자연적으로 쌓아 만든 제당의 크기는 넓이가 약 1.2m 정도이고, 높이는 약 60cm 정도였다.



서화1리 마을제당 모습 할아버지당

그리고 제당 뒤쪽에 나무를 걸쳐 놓고 그 위에 예단을 걸어 놓았다. 지붕은 없다.

제보자 권용기에 의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제당이 있었다고 한다. 제당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할아버지 당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할머니 당이라 하였다. 할머니 당은 돌제단도 없고 오로지 여러 가닥으로 난 단풍나무뿐이었다.

신경목 제보자는 위에 있는 서낭⁶³⁾은 원 서낭이고, 아래에 있는 서낭은 수구라고 해서 서낭의 종이라고 하였다. 서낭신이 자신이 할 때도 있지만, 귀찮을 때는 수구를 시켜서 일을 보게 하였다. 옛날부터 수구라는 것이 있었다. 원 서낭신은 남자이고 수구신은 여자이다. 내외는 아니고 주인과 하인관계이다. 그래서 원 서낭에서 제사를 지내고 수구에게는 술을 한 잔 부어 올린다.

서낭당 나무 이름은 그냥 ‘숲’이라고 한다.

여기는 원래 산신이 아니고 서낭당이다. 성황당이 아니고 서낭당이다. 서낭신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남신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빌 때는 모두 산신령님이라고 한다.

여기 골짜기 이름은 99골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한국전쟁 때 육군 99대가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해서 99골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서화2리 사람들도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었다. 그



서화리 독축 장면

⁶³⁾ 산제당이 아니라 서낭이라고 표현함.

러한 정황으로 봐서 여기 서낭이 서화리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한다. 가미제 골은 자기네들이 모여 가지고 또 서낭제를 지낸다. 그 옆에 있던 제보자가 말하기를 여기 서낭신이 우두머리가 아니고 그 전에는 서화1.2리가 한 개리였다. 그래서 이곳 한 곳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서화리가 행정리로 1.2로 갈라졌다. 그 후에 2리가 따로 서낭제를 지내게 되어 갈라졌다.

원래 이곳의 제당은 지금 제당으로 올라가는 길목의 오른쪽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곳에 있었다. 그런데 군인들이 그때는 대민지원을 하러 많이 다녔다. 군인들이 여기 와서 잠을 자면서 며칠간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가곤 하였다. 그러다가 군인들이 밤에 술을 마시고 그 옆을 지나다가 제당을 때려 부셨다. 이까짓 것 제당 뭐냐고 하면서 부셨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때려 부순 그 자리에 또 제당을 짓고 다시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중론을 모았다. 그래서 현 위치로 서낭당을 옮기게 되었다. 그때 서낭당은 당집을



위에서 본 제의장면과 제당

지었다. 지금 서낭당도 당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두었다.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이 미신타파 한다고 할 때였다. 그 후 그 군인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아마도 대통령이 미신타파 한다고 한

것이니, 별 탈 없었을 것이다. 제단을 새로 지은 것은 40년 정도 되었다. 옛날 서낭당에는 위패가 있었는데 당집을 부순 이후로는 위패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다.

당을 현재처럼 만든 것은 다음과 같다. 당은 어떤 당이든 나무가 첫째이므로 훌륭한 나무를 골라야 한다. 돌 제단은 돌이 오래가므로 주변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가로 질러 놓은 것은 예단을 걸기 위한 것이다. 무당들도 이곳에 와서 개인별로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그 나뭇가지에다 예단을 건다.

당집 보수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새로 지을 때는 돈을 좀 들여서 제대로 지어야 한다고 했다. 언젠가는 새로 근사하게 당집을 지을 것이라 했다.

(2) 마을제사의 준비

① 제의 날짜와 시간

제의 일시는 매년 음력 9월 9일 아침 6시이다. 원래는 3월 3일과 9월 9일 일 년에 두 번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어른들이 마을제사인데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일 년에 한번하게 되었다. 그래서 3월 3일은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 삼짇날은 너무 춥고 하니 가을에 지내기로 하였다. 이렇게 바뀐 것은 약 7년 정도 되었다.

② 제관과 도가선정

도가를 선정할 때는 전임 노인회장이 생년월일과 부정여부를 봐서 선정한다. 그때는 마을하고 연때가 맞아야 된다. 올해도 생기를 봐서 선정했는데 올해 2009년도 도가는 권용기(남, 49)이다. 도가는 매년 선정을 한다. 어떤 때는 마을이장이 지정을 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생기를 봐서 도가로 선정되면 반드시 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이 하고 싶어야만 한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도가로 선정되면 마을제당 청소와 음식을 책임졌다. 청소는 노인회에서 많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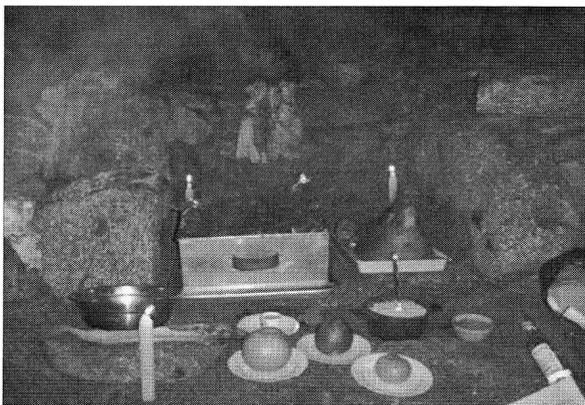
옛날에는 생기를 볼 때 동네에 있는 점쟁이한테 가서 봤다. 지금은 점쟁

이한테 가서 보지 않는다.

③ 제비와 제물

제비는 마을기금으로 했는데, 교회(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이 참가하지 않아서 제비를 거두어서 사용한다. 공동기금인데 참가하지 않으니 쓸 수 없어서이다. 올해 제비는 5천 원씩 거두었다.

제물은 도가가 원통장에 가서 하루 전에 사다가 쓴다. 포, 창호지, 실 등을 사왔다. 제물도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사왔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다 보니 간단하게 구입하는 추세라고 했다.



서화리 제물진설 장면

제물은 마을회관에 서 준비를 했다. 마을회관에는 부엌에 가스통을 비롯해서 취사도구가 갖춰져 있었다. 도가와 반장 부인들이 주방에 들어가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제물을 준비했다. 가스에 불을 붙이더니, 돼지머리를 삶고, 쌀을 새 포대를 가져와서 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쌀은 여기서 회식을 할 때 먹을 것이었다.

메는 이장이 직접 지어 왔다면서 새옹메를 가져왔다. 돼지머리는 삶아서 제당에 가져갔다. 원래는 소머리를 썼는데 손질이 어려워서 돼지머리로 바꾸었다. 옛날에는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제물로 썼다.

제기는 다른 곳에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회관에서는 음식을 먹을 그릇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다.

떡은 시루떡을 정미소에 부탁해서 가져왔다.

④ 제수준비

제수는 도가와 이장이 관리하는데, 깨끗한 것으로 한다.

⑤ 금기방법

상가에 갔다 왔을 때, 보지 못할 것을 봤을 때는 제사에 참가하지 않는다. 신경목 제보자도 상가에 갔다 왔다고 올해는 제사에 참가하지 못했다.

짐을 이고 올라갈 때는 여자들도 그곳에 올라갈 수 있으나, 젊은 여자들은 가린다. 몸에 이상이 있거나(달거리) 보지 못할 것을 봤을 때는 아예 가지 않는다.

옛날에는 원새끼를 꼬아서 한지를 꺾어서 쳤는데, 현재는 금줄을 치거나 황토를 뿌리지는 않는다.

(3) 마을제사의 진행

① 제의절차

마을제사는 도가와 제관을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하루 전날 마을제당 주변청소를 한다. 청소는 도가로 선정된 사람이 하거나 노인회에서 한다.

6시 25분에 제물을 마을회관에서 승합차로 옮겨 싣기 시작했다. 승합차가 마을회관을 떠나 제당에 도착한 시간은 약 5분여가 소요되어 6시 30분이 약간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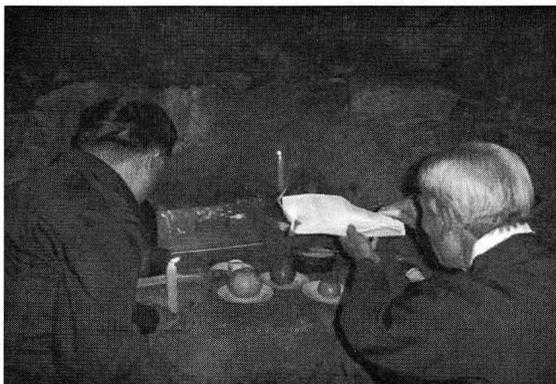
제물을 싣고 제관일행이 탄 승합차가 멈추자, 사람들은 제물을 꺼내서 제당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각자 한 상자씩 들고 제당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제당까지는 약 10m 정도 되었다. 제당에 도착하자, 분주히 상자를 열어서

제단에다 제물을 진설하기 시작했다.

제의 복장은 제관만 두루마기를 입고, 다른 사람들은 평상복이었다.

진설은 팔 시루떡, 돼지머리, 메, 북어포, 과일(사과, 감), 물, 수저, 술(백세주), 양초 양쪽에 2개를 올렸다. 향은 막대향을 사용했다.

순서는 먼저 잔을 한 잔 올리고 절을 다 같이 한 다음에 제관인 노인회장이 축문을 앞에 두고 재배를 하였다. 그 다음 축관의 독축이 있었다. 독축은



원정희 제관이 축 사르는 장면

원정희 제관이 축 사르는 장면
용기 도가가 소지를 사르면서 축원을 하였다. 소지는 박용희 현 이장부터 시작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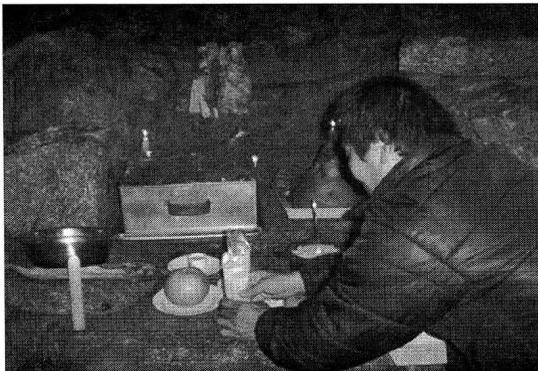
제관인 노인회장이 하였다. 처음이라서 그런지 약간 서툴렀다. 축문은 한글로 적혀 있었다. 어두워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손전등을 밝혔다. 독축이 있는 후에는 축을 불에 살랐다.

축을 사른 후에는 권

이 소지는 이장님 박용희 이장님의 소지입니다. 마을을 위해서 불철주야 사방 전국방방곡곡을 다니는 우리 이장님 올해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일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소지는 노인회장님 소지입니다. 노인회관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소지 올리오니 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지는 마을 분들의 오늘 치성을 드리는 분들의 소지입니다. 농사 잘 되고 또 차량 운전하는데서 아무 사고 없이 잘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소지를 올립니다. (아이고 잘 올라간다.)



권용기 제보자가 소지 올리는 장면

이 소지는 이장님의 소지입니다 아까 두 장을 올렸더니 안 올라가서 한 장으로 다시 올리니 잘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잘 올라가네.)

이 소지는 권용기 소지입니다. 장사하고 차량 운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전국방방곡곡 다녀도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다니

게 해주시옵소서.(어이구 잘 올라간다.)

이 소지는 손택수 씨 소지입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한데 올하는 아픈데 없고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아이고 야 잘 올라간다.)

이 소지는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신 기자님(필자를 기자라고 함)들의 소지입니다. 인제군 전체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의 소지이오니 정성을 다해서 올리겠습니다.(어이구 제일 잘 올라가네)

이 소지는 마을 전체의 소지입니다. 우마 키우고 또 농사하는 것 잘 되기를 비는 소지입니다. 이 소지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지만 소지를 받으시고 잘 되기를 바라며 올립니다. 잘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만사형통 하시겠어요.”(필자)

“예, 예”

소지를 올렸다. 소지는 이장부터 시작해서 제관과 제례에 참석한 사람의 소지를 올리고, 마을 전체의 소지를 올리고 맺었다.

소지를 올리고는 예단을 준비했다. 예단은 권용기 도가가 걸었다. 한지를 실에 묶어서 가로지른 나무에다 걸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기 전에 산신께 먼저 한 잔을 부어드리고 아래로 내려갔다. 아래에는 서낭을 모시고 다니는 수구가 있는데 수구는 특정 나무에 좌정해 있다. 이 수구를 마을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였다. 위에 것은 남자고 아래 것은 여자로 인식했다. 그러니까 남신과 여신으로 본



수구당(할머니당) 예단걸기

것이다. 아래로 간 사람은 제관이었다. 제관은 실과 창호지와 술을 들고 아래로 내려갔다. 나무는 단풍나무인데 여러 가닥이 비비꼬여서 한 줄기를 이루고 있는 모양이다.

단풍나무에 이르러서는 예단을 먼저 나무에 걸고, 술을 부어서 올린 후에 재배를 하였다. 재배 후 따랐던 술을 거기다가 붓고, 술과 술잔을 들고 원래 제당으로 향했다.

남녀신에게 제사를 다 지내고 나서 위 제당에서 고수레를 했다. 고수레는 메 뚜껑에다가 제상에 차렸던 모든 제물을 조금씩 떼어서 놓고, 제당 왼쪽 위로 가서 던졌다.

제사가 끝나고 간단한 음복을 하였다. 그리고 모든 제물을 거두어서 썬는데, 배와 사과만 남겨 두었다.

제사가 끝나고 마을회관으로 돌아왔다. 마을회



고수레를 하기 위해 제물을 담은 장면

관에서는 동네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을 음식준비에 한창이었다. 음식은 갈비탕을 끓여서 밥을 말아서 한 그릇씩 나눠 먹었다. 그러니까 제물은 돼지머리를 쓰고, 회식을 할 때는 소고기를 먹는다.

옛날에는 회식을 제당 앞에서 하였다. 그때는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제물로 썼는데, 돼지를 잡을 때는 새벽에 산에 가서 잡아서 손질을 해서 제물로 썼다. 제물로 쓸 때는 돼지머리만 쓰므로 나머지는 술을 걸어 놓고 끓여 먹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해서 고기를 끓여 먹으며 하루 놀았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치성 드린 사람과 그곳에서 일한 사람들만 그곳에서 조금 끓여 먹고, 나머지는 마을로 내려와서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모두 모여서 회식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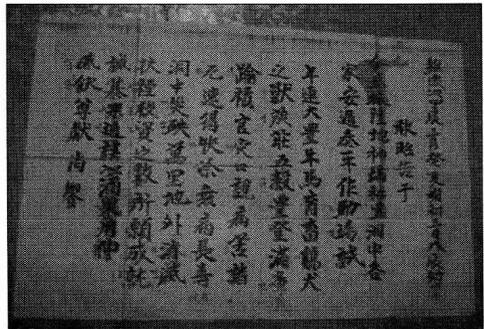
② 축문

서화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보관해 온 축문이 있다. 축문은 한자로 돼 있는데, 2009년 9월 9일에는 한글로 옮겨서 읊었다. 원인은 새로 선임된 노인 회장이 축관을 했는데 한자에 서툴러서였다. 제사가 끝나고 필자는 다시 수소문하여 한자로 써진 축문을 구했다. 이 축문은 갑진년에 제사한 축문인데 날짜는 9월 9일이 아닌 3월 3일로 되어 있었다. 한글축문과 비교해 보니 내용은 같았다. 매년 날짜와 제관의 성명만 바꾸어서 독축한다.

원래 이 축문은 마을 자체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인제향교에 의뢰했더니 보내 온 것이라고 한다.

〈축 원문과 한글〉

維歲次甲辰三月癸亥朔初三日
戊辰幼學



서화리 축문

유세차갑진삼월계해삭초삼일무진유학

敢昭告于

감소고우

今爲城隍地神瑞和里洞中各

금위성황지신서화리동중각

家安過泰平作助竭誠

가안과태평작조갈성

年連大豐牛馬育畜鷄犬

연연대풍우마육축계견

之獸茂莊五穀豐登滿庫

지수무장오곡풍등만고

踰積官災口說病苦諸

유적관재구설병고제

厄速得快差無病長壽

역속득쾌차무병장수

洞中災殃萬里地外消滅

동중재앙만리지외소멸

扶禋投資之數所願成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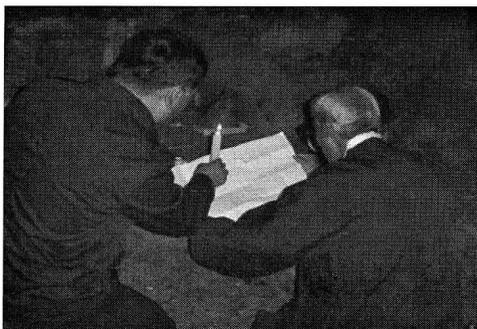
부인투자지수소원성취

誠慕深適謹以酒果用伸

성모심적근이주과용신

感飲尊獻尙饗

감음존헌상향



제관의 독축 장면

〈축문 번역〉

해가 바뀌어 갑진년 3월 3일이 되었습니다.

유학 ○○○는 감히 신령님께 밝게 고합니다.

오늘 성황지신은 다음을 되게 하십시오.

서화리 각 가정이 안과태평하고 정성을 다하여 도움을 주시고

해마다 큰 풍년이 들고

우마와 기르는 가축인 닭과 개 같은 짐승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오곡이 풍년이 들어 창고에 가득하게 쌓아 넘치게 하시고

관재구설과 병의 고통과 모든 액은 속히 쾌차하게 하시고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을의 재앙은 만 리 땅 밖으로 소멸하여 주시고
 제사에 투자한 수만큼 소원성취를 도와주시고
 신령님을 사모하여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감히 술과 과일과 제물을 펼쳐놓고
 감음하시도록 높이 받들어 올리니
 신명께서는 제물을 받으십시오.

축문의 내용이 모든 액을 물리치고 마을 사람들이 안녕하고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바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신령은 성황신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성황지신(城隍之神)”이라고 보통 쓰는데 여기서는 “성황지신(城隍地神)”이라고 하여 땅 지자를 쓰고 있다.

(4) 영험담

특별히 영험담을 들어 본 것은 없다. 여기는 제당 청소를 할 때는 ‘숲’의 가지를 치기도 한다. 그래도 특별히 탈나거나 하지는 않는다. 다른 동네의 경우는 서낭당 나무는 땅에 떨어져도 쭈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는다. 나무도 나이가 많으면 말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화리 마을제사의 영험담을 물었더니 신경목 제보자는 천도리 얘기를 해주었다. 현재 천도리로 넘어오는 길목에 서낭당이 있었는데 길을 내면서 서낭당을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서낭당을 옮기고 천도리 사람들이 무단히 많이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92년부터 동네에서 제사를 크게 지내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다. 여기 길을 내고 현재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일 때문에 공원이름을 지을 때 평화공원이라고 하자고 해서 그렇게 지었다.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서화1리는 4반까지 있는데 전체 42명이 5,000원씩 거둬서 21만원이 모였

다. 이걸로 경비를 쓰고 모자라면 이장이 보탠다. 회관에서 회식을 하면서 다음 제사에 대한 약간의 논의가 있었다. 곧, 내년에는 돼지 한 마리를 잡자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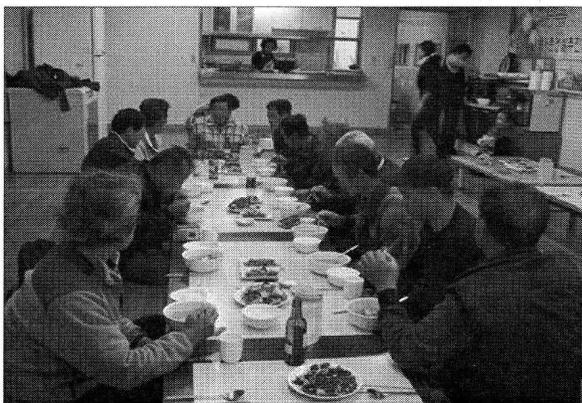
3) 마을제사의 특징

옛날과 지금이 달라진 것은 주민의 참여여부에 있다. 옛날에는 주민 전부가 참여하였는데, 요즘은 교회(기독교)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인원이 조금 줄었다.

옛날에는 제사지내는 현장에 가서 아침 식사를 했는데, 요즘은 마을회관에서 한다.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현장에 다 갔다. 그래서 현장에서 술을 걸어놓고 음식을 마련해서 같이 나눠 먹었다. 그러나 요즘은 제례 지내는 사람만 현장에 가고 나머지는 마을회관에 모여서 아침식사만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마을제사가 있는 날은 마을 사람 모두가 참가해서 왁자지껄 하였다. 그래서 소를 잡든가 돼지 한 마리는 잡았었다.

여기 제당에는 마을에서 지내는 것과 개인이 지내는 것과 무당이 지내는 것이 있다. 개인이 빌 때도 본인이 잘 빌지 못하면 무당을 데리고 가서 대신 빌어달라고 한다. 이런 경우가 더러 있다.



서화리 회식 장면

이 마을에는 서낭제를 제외하고 장승제 같은 다른 마을제사는 없다.

옛날에 비하면 현재의 마을제사는 많이 약해졌다. 옛날에는 마을사람 대부분이 제사현장에 가서 같이 축원을 하였는데, 지금은 돈만 내고 현장에는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유: 황해도 안악군 서면 1리 봉황마을 제사이야기

제보자: 원정희(77, 남) 황해도 출생인데 다른 곳에 살다가 이 마을에 들어온 지는 10년이 되었다. 황해도에서 나올 때가 17살이었다. 이때는 해마다 마을제사에 따라 다녔다. 필자가 서화리 마을제사 조사를 하려고 하니, 본인은 여기를 잘 모른다고 하면서 황해도 얘기를 들려주었다. 짧지만 마을제사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원정희 씨가 2009년 제사의 제관이었다. 황해도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제사 명칭은 당제사라고 하였다. 마을 뒤에 있는 동산 꼭대기에 당집이 있었다. 당집 안에는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

옛날 황해도에서는 제관으로 선정되면 7일간 고기도 먹지 못하고 굶다시피 하였다. 음식은 야채밖에 못 먹었다. 그리고 목욕재계하면서 아주 깨끗이 하였다. 제관이 밖에 나오면 눈이 더러워진다고 하였다.

도가에서는 떡을 하고 술을 담갔다. 제사를 지낼 때는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산신당에 올라갔다. 올라가서는 제관 등이 제사를 지냈다. 제사가 끝나면 가마술에다 고기를 끓여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둘러앉아서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다.

9월9일에 한 번 지냈다. 이날 지내는 것은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이다.

음식 만드는 집은 계주라고 하였다. 계주집을 선정하면 금줄도 치고 아예 출입을 하지 않았다. 계주를 선정할 때는 일 년 내 우환이 없어야 하고, 행

동이 바른 사람을 했다. 우환이 없으면 깨끗하기 때문이다.

금줄은 원새끼에 한지조각만 끼웠다.

제물은 사과 배 과질 떡시루 메 돼지머리나 소머리 등을 올렸다. 이런 제물은 계주집에서 다 했다.

남한 제사하고 차이는 거의 없다. 지역적으로 풍습에 따라 약간 다를 뿐이다.

13. 서화면 천도2리 1,2반

피안골 산신제



천도2리 1,2반 산신당 내부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09년 10월 25일 오후 2시~4시

조사지: 서화면 천도2리 1.2반 산신당과 김양동 제보자의 마당

제보자: 이인섭(남, 79) 천도2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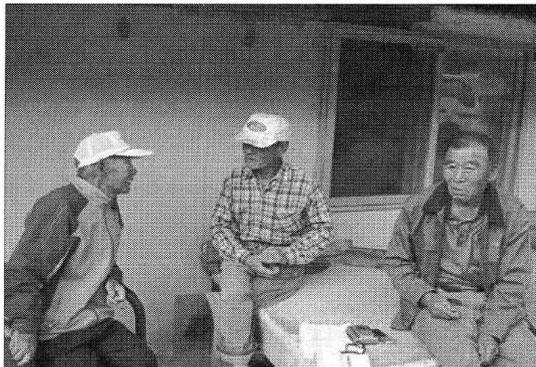
김양동(남, 79) 천도2리

김오수(남, 75) 천도2리

(2) 마을유래와 개관

천도리(天桃里)는 현재 서화면소재지이다. 이 마을은 예전에 천도촌(天桃村)으로 명명 되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천도리라 하였다.

천도리 지역은 1945년 광복과 함께 38선 이북지역이므로 북한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 후 1951년 한국 전쟁 때 국군이 탈환하였으나, 휴전선과 접경 지역이므로 민간인은 살지 않고 군인들만 기거를 했다. 따라서 이때까지는 이 지역에서 민간인에 의한 어



천도2리 1.2반 산신제 제보자 왼쪽부터 이인섭, 김오수, 김양동

떤 신앙행위도 있을 수 없었다. 이곳에 민간인이 들어와 살게 된 것은 1955년 5월부터이다. 특히 이 지역은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군인을 상대로 하는

상업이 발달해 있었다. 농토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므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많았다.

천도리라는 명칭은 전설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그 내력은 다음과 같다.

옛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큰 복숭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것을 본 마을의 한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길 징조라 생각해서 복숭아가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집을 지었다 한다. 그랬더니 그곳에 집을 짓고 사는지 불과 몇 해 되지 않아 그 지방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인근에 알려지자 사람들이 모두 모여와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여 몇 해 안 가 이곳에 한 마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웃마을에서는 이 마을을 하늘로부터 복숭아가 떨어진 곳이라 하여 천도리(天桃里)라 불렀다 한다.⁶⁴⁾

하늘이 내려 준 마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던 마을이 남북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천도리에서 마을제사를 지낸 것은 이곳에 마을사람들이 이주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봄에 산에서 나는 산나물이 많고, 가을에는 단풍이 곱게 들어서 보기가 좋다.

학교는 중학교까지 있어서 교육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현재 이곳에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산신제를 다 지내고 있다. 천도1리에서도 제사를 지내고, 4리는 여내골에서 지내고 있다.

2) 마을제사의 내용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64) 『인제군사』, 앞의 책, 962쪽.

천도2리 1.2반 산신당은 마을에서 앞에 있는 산 쪽으로 가면 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움푹 패여 있는 자연석이 약 5m정도 크기로 있는데 그 아래 돌과 시멘트로 단을 쌓아 놓았다. 단 위에는 50cm 정도의 나뭇가지를 버팀



천도2리 1.2반 산신당

으로 설치해 놓고, 그 위에 실과 한지로 접은 예단을 걸쳐 놓았다. 그 옆에는 타다만 양초와 빈 술병이 놓여 있었다. 그 아래에는 메 그릇이 놓여 있었다.

원래 이 마을의 산신당은 현재 군부대가 있는 곳에 있었으나, 매년 제사를 지낼 때마다 군부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로 옮긴 것이다. 여기로 옮긴 것은 약 25년 정도 되었다. 제당은 따로 당집을 지은 것은 아니고, 밤나무 밑이 제당이어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다.

원래 제당 있는 곳은 군부대가 없었는데 나중에 군부대가 들어왔다. 군부대가 들어오기도 처음에는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나중에 군부대에서 제사 지내러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현 위치로 옮기게 되었다.

옮길 때 장소를 물색하는데 워낙 현 위치가 생기기도 잘 생겨서 택하게 되었다. 바위 이름은 특별히 부르는 것이 없다. 현재는 그냥 산제당 있는 곳이라 한다.

산제당 앞에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의 물로 메와 떡을 짓고 정화수를 올렸다. 그런데 우물이 지저분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 골짜기를 피안골이라 하는데, 피안골의 뜻은 아마도 피난골에서 유래

됐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필자가 “피안골 산신제”라고 했다. 원래는 그냥 “동네치성”이라고 한다. 그 위치가 피안골에 있으므로 필자가 이름을 붙였다. 제당 이름은 “산제당”이라고 한다.

여기 산제당에 좌정한 신은 여신(女神)이다. 여기 산 자체를 여신이 계신 산이라고 한다. 산신령님이 여자이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서 제사를 지낸 것은 마을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부터이다. 그것이 벌써 50년이 훨씬 넘었다.

(2) 마을제사의 준비

① 제의 날짜와 시간

예전에는 제사를 1년에 두 번 지냈다. 곧, 음력으로 3월 3일과 9월 9일이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만 지내자고 해서 이제는 3월 3일에만 지낸다. 삼짱날로만 바꾼 것은 약 5년 정도 되었다.

시간은 새벽에 동이 뜨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데, 보통 5시 정도면 지낸다. 이렇게 일찍 지내는 원인은 혹시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지낼까봐서 그런 것이다. 이곳에는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산삼을 캔다든가 약초를 캐는 사람들이 산제당에 와서 기도를 올리고 가기 때문이다. 산신한테 먼저 제사를 지내고 응감을 하시게 하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타인이 와서 먼저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 오기 전에 먼저 지내는 것이다.

② 제관과 도가선정

예전에는 도가를 김양동 제보자가 했는데, 이제는 나이도 많고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물려줬다. 그래서 이장이 제사 지내기 며칠 전에 도가를 선정한

다. 선정할 때는 특별한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음식을 만드는 장소는 이장 댁이다. 이장 댁에서 반장 부인들이 모여서 제물을 준비한다.

옛날에 제관을 선정할 때는 동네에서 한문도 좀 알고 유식한 분이 책을 보고 생기에 맞는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다 돌아가시고 없어서, 그냥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이장이 선정한다. 자신이 봐서 부정이 없고 깨끗하다고 생각이 돼야 한다.

③ 제비와 제물

제비는 치성을 드리기 약 5일 전에 집집이 돌면서 거둔다. 그때 정해진 액수는 없고 성의껏 얼마씩 돈을 낸다. 이 돈으로 제물을 사고, 제사가 끝난 후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장 집에서 회식을 한다. 거두는 사람은 반장이다. 반장이 거둬서 이장한테 갖다 준다. 이장이 모든 관리를 한다. 물건을 사는 것부터 제를 지내고 나중에 회식을 하는 것까지 모두 이장 소관이다. 옛날에는 도가와 이장이 같이 했는데 지금은 이장이 혼자서 한다.

제물은 현재 이장 댁에서 반장 부인들이 모여서 마련한다. 옛날에는 도가로 선정된 집에서 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막걸리를 담가서 제당 앞에 땅을 파고 묻었다가 제주로 썼다. 지금은 제주를 정중으로 한 병 사다가 쓴다.

제물은 돼지머리, 떡, 메, 사과, 배, 포 등을 쓴다. 포는 북어포나 오징어포를 쓴다. 제기는 동네그릇이 있어서 해마다 그걸로 쓴다.

메는 새옹메를 쓰는데, 제당 앞에 와서 짓는다. 메를 지을 적에는 화덕을 만들어 그 안에다 나무로 불을 때서 지으며, 다 될 때까지 절대 뚜껑을 열지 않는다. 불을 조정해서 메가 제대로 되게 한다. 하도 많이 해봐서 금방 알 수 있다. 산치성해 본 사람은 어떻게 짓는지 다 안다. 눈이 많이 온다든가 바람이 심하게 불어 날씨가 좋지 않으면 도가에서 지어올 때도 있다. 현장에서 하는 것은 현재 메뿐이다.

떡은 방앗간에서 찌다가 놓고 지낸다. 옛날에는 백설기를 제당 앞에서 찌

서 올렸다. 그런데 요즘은 번거롭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쉽게 하고자 해서 방앗간에 맞춰서 해 온다.

정화수는 옛날 그곳에 우물이 있어서 사용했는데, 자꾸 지저분해져서 지금은 집에서 깨끗한 물을 떠가서 사용한다.

제주는 지금 정종을 사다가 쓰는데, 옛날에는 술을 직접 담가서 썼다. 제사 지내기 며칠 전에 술을 빚어서 작은 항아리에 담아 제당 앞에 땅을 파고 묻었다. 묻어두는 기간은 약 15일 정도였다. 제당 앞에 묻는 술은 오래 뒤야 제대로 익는다. 이렇게 묻었다가 제사를 지낼 때 땅을 파서 꺼내보면 위에 말갈개 술이 익어 있었다.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술, 곧 웃술을 떠서 제사를 지냈다. 제사가 끝나면 남은 술은 음복을 하면서 나눠 먹었다.

제물은 옛날과 지금 차이는 없다. 다만 만드는 장소가 다르고, 술이 막걸리에서 정종으로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제비를 거둘 때 기독교 신자는 제비를 내지 않는다.

④ 제수준비

쌀이나 모든 제수는 깨끗한 것을 가려서 했다.

⑤ 금기방법

일단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면 제사 장소에 가지 않는다. 곧, 나쁜 것을 봤으면 치성장소에 아예 가지 않는다.

금줄은 왼새끼에 한지조각을 사이사이에 끼워서 친다. 예전에는 고추도 달아매고 숯과 솔가지도 꽂았다. 숯과 고추와 솔가지는 잡귀가 침범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고추와 숯과 솔가지는 없어지고 이제는 한지조각만 꽂는다.

금줄은 하루 전에 제당을 청소할 때 같이 친다. 청소가 끝나고 나면 부정

한 것 들어오지 말라고 제당 앞에 걸쳐 놓는다.

옛날에는 도가에도 금줄을 쳤다. 황토도 뿌렸다.

그런데 갑자기 김양동 제보자가 근래에는 금줄을 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거두기도 뭐하고 젊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뭘 금줄이 있겠냐고 하였다.

(3) 마을제사의 진행

① 제의절차

제의는 하루 전에 청소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원래 이곳은 금줄까지 쳤는데, 근래에는 금줄을 치지 않는다고 한다. 금줄은 치지 않고 청소만 한다. 청소를 할 때는 주변의 잡풀을 치우는 것을 비롯해서 제단에 떨어진 쓰레기를 쓸고 제당 앞에 절하는 곳도 깨끗이 치운다. 그리고 제당까지 들어가는 길도 닦는다.

제상을 진설할 때는 양쪽에 양초를 꽂아 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제물을 놓는다. 일반제사 지내는 것과 그 방법은 같다고 한다.

절은 두 번 반을 한다. 초헌 아헌 종헌의 삼헌을 하는데, 제관이 절을 하면 이장과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절을 한다. 따로 초헌 아헌 종헌관이 정해 지지는 않는다.

복장은 따로 제복을 하지는 않는데, 평상복 중에서 깨끗한 옷을 입는다.

소지는 마을전체 소지를 올리고 나서 마을사람들 모두 올린다. 소지를 올릴 때 절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처음에 산신령에게 소지를 올리는데 잘 올라가지 않으면 두 번에 걸쳐서 올린다. 그 다음에는 이장 소지를 올린다. 다음에는 동네 어른들과 마을 사람들 모두 올린다. 소지를 올리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한다.

“피안골 산신령님. 우리 천도2리 마을에 아무 사고 없이 무사하게 해서

평화스럽게 살게 해주세요.”하고 산신령님께 하고, 그리고 이장한테 한다. 그리고 반장들 올리고 각 세대주별로 한다. 올릴 때 사설은 다음과 같다. 현장에서 올리는 것처럼 해달라고 했는데, 내용만 이야기 했다.

‘이 소지는 ○○○인데, 집안이 어떠어떠하고 산을 다니더라도 무과태평하게 그저 집안이 편안하게 해주십시오.’하면서 계속 한다. 그 사람의 특성을 일일이 얘기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니 아픈 사람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수험생이 있으면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한다. 소지올릴 때 당사자가 있으면 절을 하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한다.

고수레는 음식을 조금씩 떼어 제당 옆에 놓고 술잔을 부어준다. 고수레는 산신령을 보좌하는 신이 먹기도 하고, 잡귀들도 먹는다고 한다. 또는 별도로 복어나 오징어포를 마련하여 놓기도 한다.

음복은 잔을 다 부어놓고 한잔 씩 돌아가면서 사과 같은 것 깎아서 안주로 먹으면서 한다.

참가하는 인원은 5~10명 정도이다. 나머지 인원은 회식장으로 바로 간다. 식사하는 사람까지 하면 40명 정도 된다.

회식은 이장 집에서 하는데 요새는 이장 집이 도가이기 때문이다. 3월 3일은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밖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모여서 먹는 음식은 따로 장만을 한다.

② 축문

옛날에는 축문을 읊었으나 요즘에는 축문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읊지 않는다. 그래서 소지만 올리면서 축원을 한다.

축원을 하는 사람은 모셔다가 하는데, 마을 사람의 명단을 적어주면 명단을 보고 각자 다 해준다.

(4) 영험담

특별한 영험담은 들어보지 못했다. 따로 해코지에 대한 얘기도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미신타파라고 해서 마을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말리지는 않았다.

김양동 제보자가 어느 날 꿈을 꾸었다. 그때는 젊어서 산에도 다니고 할 때였다. 꿈에 피안골에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호랑이를 제보자에게 안겨주었다. 그리고 나서 둘째를 낳았다. 태몽을 그렇게 꾸었다.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장 댁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제사에 대해 얘기를 한다. 소지가 잘 올라갔다느니, 누구는 잘 안 올라가서 다시 올렸느니 하는 얘기를 한다.

비용 결산은 이장이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얼마를 거둬서 무엇을 어떻게 쓰고 얼마가 남았다고 얘기를 한다. 보통 남지 않고 모자라는 경우가 많다.

다음 제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를 하지 않는다. 왜냐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이장이 반장에게 얘기하면 반장이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기 때문이다.

3) 마을제사의 특징

제사를 지낼 때 남자들만 제당에 와서 한다. 여자들은 제사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이곳의 전통이다.

이 지역은 한국전쟁 전에는 마을제사를 어떻게 지냈는지를 잘 알 수 없

다. 한국전쟁 전에는 이곳이 북한 땅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이 끝나고 수복되고 나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마을제당이 피안골 안쪽에 있었는데 군부대가 들어오므로 해서 현재 위치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이는 분단의 현실로 인해 마을제사 장소도 변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나타낸 것이다.

수복 후 마을제사를 지내게 된 목적은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한다. 다만 모든 마을에서 지내니까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동네 잘 되게 해달라고 기원할 수 있는 곳이 산제당 뿐이었다고 한다. 아마도 전통은 세월이 흘러도 금방 사라지지 않는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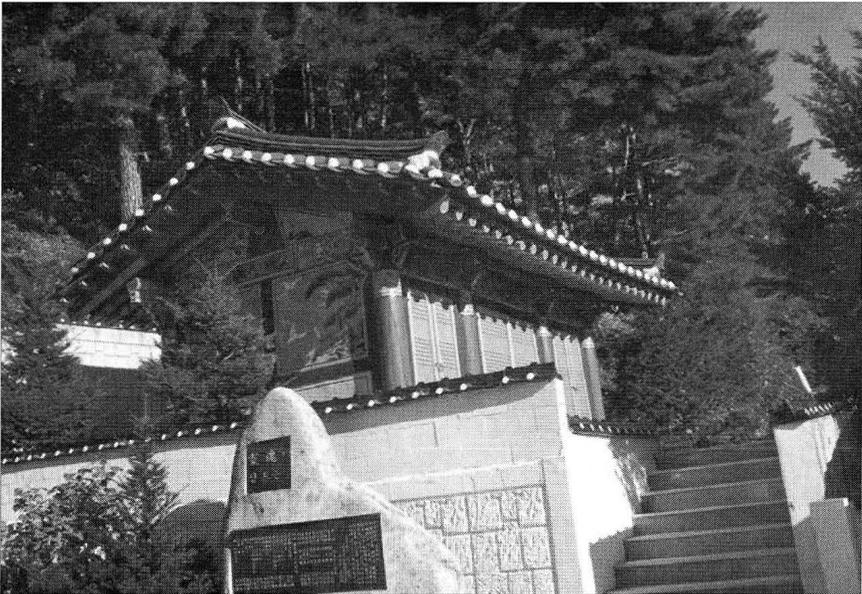
축문이 없어서 소지 올릴 때 축원만 한다.

기독교 다니는 사람과 특별한 마찰은 없는데, 치성비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참가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동네 치성을 올릴 때 참가하라는 소리도 하지 않는다. 동네치성을 올릴 때는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옛날에는 서낭제사를 따로 지냈다. 아침에 산신제를 지내고 저녁 8시 경에 서낭제를 지냈다. 언제 없어졌는지는 기억할 수 없다. 지내던 장소는 마을 앞에 큰 소나무 있는 곳이었다. 산제당에 올리는 제물과 같이 서낭당에도 올렸다. 서낭신도 예전에는 여성이었다. 이 마을에는 산신도 서낭신도 모두 여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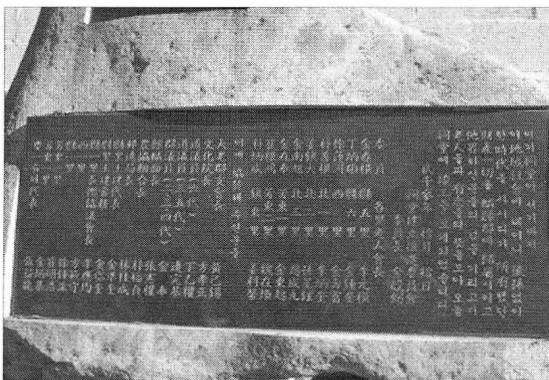
14. 기린면 현리

기린면 무후제



기린면 무후제 사당과 건축 기념비(2009년)

어느 날 송○○ 국회의원이 이곳에 왔다. 그래서 현 노인회장이 송 의원에게 무후자들의 사당을 건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 5천만 원이면 되겠냐고 했다. 땅도 남의 땅이고 하니 조금 더 대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송 의원이 5천만 원을 보내고, 인제군에서 2천만 원을 들여서 사당을 건립했다. 그리고 4년 후에 단청을 모두 했다.



현리 무후제각 건축 기념비

무후제각 건축 기념비를 아래에 세웠는데, 자연석에다가 대리석을 붙여 글자를 새겼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목은 “靈魂 잠드는 집”이라 했다.

여기 祠堂이 서기까지 이 地域社會에 태어나 後孫 없이 한 時代를 사시다가 所有했던 財產一切를 麟蹄郡에 歸屬시키고 他界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저 老人들과 有志들의 뜻을 모아 오늘 祠堂에 竣工을 보게 되었습니다.

貳千三年 拾月 拾日



무후제각 내부 진설 장면
(사진제공 최종익, 2009년)

그리고 영혼이 잠드는 집 옆에는 2008년 4월 5일 식목일에 주목 1그루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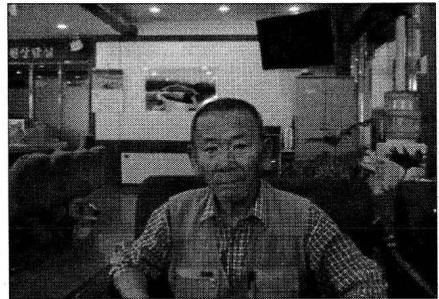
구상나무 1그루를 심고 식수기념비까지 세웠다. 나무는 두 그루를 심었는데, 그 비문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비문의 제목은 “植樹記念碑”라하고, “여기 祠堂에 造景을 爲해 寄贈받은 朱木(五十一年 生) 구상木(二十年 生) 各 한 그루를 第63回 植樹記念日을 맞아 植樹합니다. 西紀 二千八年 四月 五日”라고 하였다. 대리석에 이름을 파 새겼다.

4) 제의 일자

매년 양력으로 11월 첫째 주 금요일에 지낸다. 시간은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2002년에 이승실 계장으로부터 입수한 축문에 의하면 두 축문이 날짜가 다르게 표기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과거에는 날짜가 현재와 같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11월 첫 주 금요일로 확정을 한 것으로 본다.



김은필 제보자(2009년)

5) 참가자 현황

참가자는 모두 150~200명 정도이다. 군수와 기린면의 이장 및 노인회장들, 기관장들, 유지들, 군의원을 비롯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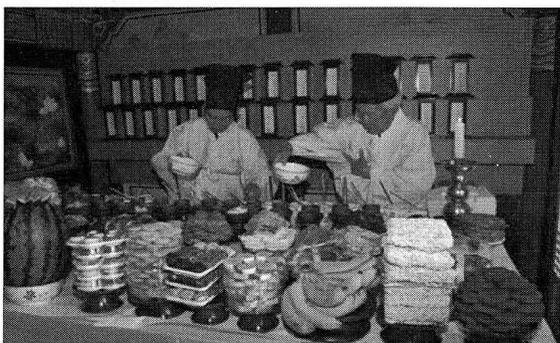
2009년에는 군수와 부군수는 바쁜 일정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자치행정과장이 대신 와서 초헌관을 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약 80명 정도였는데, 예년에 비하면 아주 적게 온 것이다.

참가자들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노인회관 마당에는 천막과 의자를 준비해 뒀다.

6) 제물준비 및 진설현황

제비는 군에서 지급되는데, 재작년까지는 100만원이 나왔는데, 지난해부터는 200만원이 나온다.

제물은 노인회관에서 할머니들이 모여서 한다. 진설도가 준비되지 않아서 진설할 때마다 진설위치가 다르다. 제상은 무후제각 안에 마련되어 있다. 위패를 모신 곳 바로 앞에 있다.



기린면 무후제 진설 장면
(사진제공 최종익,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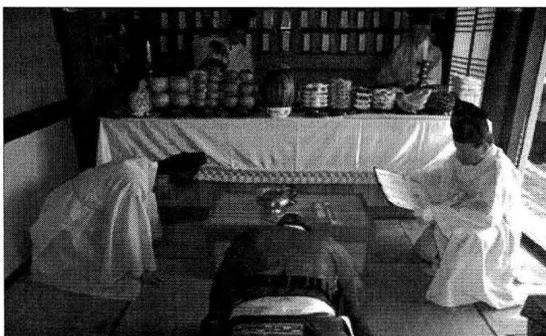
제물을 진설할 때는 모두 아주 크게 한다. 개인제사 지내는 것 하고는 모두 다르다. 육고기는 소고기산적, 돼지고기산적, 닭산적을 올린다. 과일은 대추, 밤, 배, 감, 사과, 수박, 바나나를 올리고, 과자류는 색깔 사탕과 비스킷, 약과를 올리고, 과일과 절편 등의 떡을 놓고, 튀김류와 채소류도 올린다.

28명 모두 메, 국, 잔, 수저를 놓는다. 술은 대접에다 들고 잔에 따라 놓는다.

7) 제의 절차

제의는 제각 내 외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상을 차리면서부터 시작한다. 제상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깨끗이 닦고 제상 보 위에 한지를 깔고 제

물을 올린다. 제물은 미리 준비하여 놓았으므로 가져다가 차례로 격식에 따라 제 위치에 놓으면 된다. 제물 진설이 끝나면 준비된 절차에 따라 제사를 시작한다. 따로 마련된 흥기는 없다. 그래서 일반 제사 지내는 절차와 같다.



무후제 독축 장면
(사진제공 최중익, 2009년)

제사를 시작할 때는 뒤로 돌려져 있던 무후자 28명의 위패를 앞으로 돌려 놓는다. 그 후 제사를 지내겠다고 집례자가 선언을 하고 제사는 시작된다.

2009년에는 초헌관이 인제군 자치행정과 안호열 과장이 맡았고, 아헌관은 김명중 기린면장이 했고, 종헌관은 김은필 기린면 노인회 분회장이 했고, 축관은 박성강 노인회원이 했고, 집례자는 강환성 노인회원이 했고, 좌우집사 중 좌 집사는 김인서 노인회원 우집사는 최근홍 노인회원이 했다.

제사를 지내는 복장으로 도포가 따로 노인회관에 마련되어 있는데, 올해는 특별한 복장을 준비해서 입었다. 곧, 현 면장인 김명중 면장이 인제군의 가장 큰 행사며 축제인 합강제를 지낼 때 입는 제례복과 같은 것을 구입해서 노인회에다 기증을 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초헌관과 아헌관과 종헌관의 복장이 갖춰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종헌관은 집례자와 좌우집사가 입은 옷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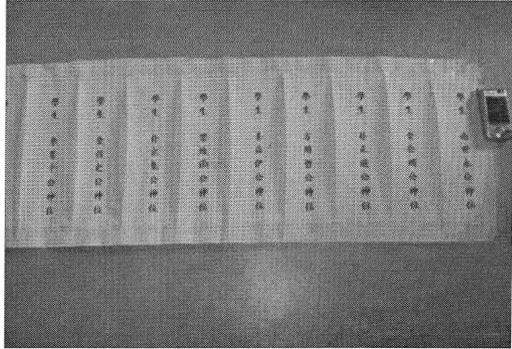


헌관 기념촬영과 복장
(사진제공 최중익, 2009년)

제사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철상을 한다. 그리고 노인회관에 마련된 음식상에 모두 모여서 회식을 했다.

8) 신위 수와 지방

기린면 무후지는 현재 모두 28위이다.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예전에 쓰던 무후제 신위 일부

學生 南世永公神位, 學生 金公州公神位, 學生 朴正道公神位, 學生 方用哲公神位, 學生 姜益伊公神位, 學生 梁致雨公神位, 學生 朴京集公神位, 學生 金召史公神位, 學生 李峯千公神位, 學生 裴傑釗公神位, 學生 姜僉知公神位, 學生 李敬律公神位, 學生 姜守芻公神位, 學生 崔順甫公神位, 學生 張納金公神位, 學生 白用云公神位, 學生 徐陳平公神位, 學生 安致先公神位, 學生 魯奉得公神位, 學生 池君僉公神位, 學生 金治京公神位, 學生 朴元雨公神位, 學生 金完仁公神位, 學生 千聖云公神位, 學生 崔伯道公神位, 學生 李寬九公神位, 學生 金敬八公神位, 學生 李致鳳公神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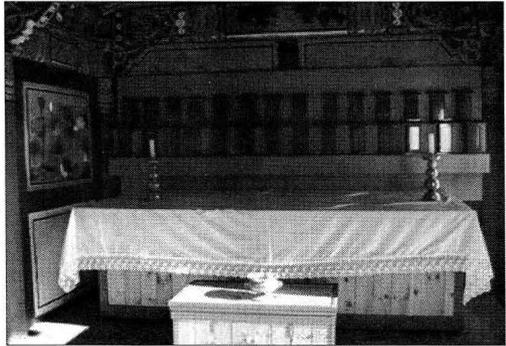
이들 28명의 명단을 세로쓰기를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게 나열해서 썼다.

지금은 신위함이 개인별로 나무로 다 짜서 보관한다. 이를 평상시에는 뒤로 해 놓았다가 제사를 지낼 때는 앞으로 돌려놓는다. 2단으로 세워 두었다.

9) 축문내용

기린면 무후제 축문은 필자가 2002년에 입수한 자료와 같았다. 내용은

시유맹동(時維孟冬)이 시유양령(時維陽令)으로 바뀌었다. 나머지 내용은 같은데 날짜와 제관의 명칭만 바뀐다. 아래 사진은 현재 노인회관에 보관하고 있는 축문이고, 기록해 놓은 것은 2002년에 면사무소 이승실 복지계장이 전해 준 것이다.



2003년에 제작한 신위함과 제상

《(임오년) 無後祭祝》

維歲次壬午十月丁丑朔十一日丁亥
유세차임오시월정축삭십일일정해

獻官 기린면장 虔告于
현관 기린면장 건고우

神位既成二十八位學生 氣序流易
신위기성이십팔위학생 기서유역
時惟孟冬 永遠仰慕 生而勤業
시유맹동 영원앙모 생이근업
死亦奉公 感其無嗣 致此公禮
사역봉공 감기무사 치차공인
永頌清德 以是謹慰 庶羞陳此
영송청덕 이시근위 서수진차
歲事 尙饗⁶⁵⁾

세사 상향

(번역)

해가 바뀌어 임오년 시월 십일일입니다.
현관 기린면장은 정성으로 고하나이다.

65) 제보자: 이승실 복지계장.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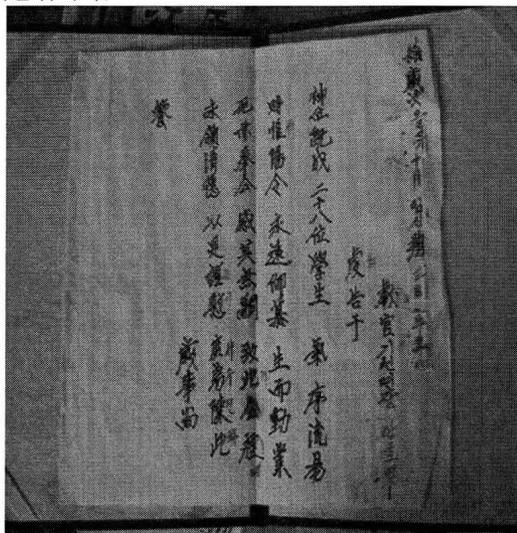
신위는 이미 28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월이 바뀌어 때는 바야흐로 초겨울입니다.

영원히 우러러 사모합니다.
살아서는 생업에 부지런하시고
죽어서는 또한 공적인 것을 받
들었습니다.

느껴온 것은 그 후사가 없음입
니다.

면에서 제사를 드림이 이에 이
르렀으니

영원히 맑은 덕을 기리고자
이에 삼가 위로를 드리며 여러
제물을 차례로 진설하고
연중행사로 하였습니다. 흠향
하십시오.



기린면 무후제 축문(2009)

다음은 같은 기린면의 무

후제 축인데 날짜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씩 다르다. 참고로 병기해 둔다.

〈무인년 무후제 축〉

維歲次戊寅十一月朔○日 獻官 某

유세차무인십일월삭○일 헌관 모

虔告于

건고우

神位既成二十八位學生 氣序流易 時惟仲冬

신위기성이십팔위학생 기서유역 시유중동

致此公禮憐無後嗣感其奉公 永頌清德

치차공인연무후사감기봉공 영송청덕

世人譽慕 虔誠慰靈 謹以酒果 庶羞

세인에도 건성위령 근이주과 서수

陳此成事 尚饗⁶⁶⁾

66) 제보자: 이승실 복지계장. 2002년.

진차성사 상 항

(번역)

해가 바뀌어 무인년 11월 ○일이 되었습니다.
 헌관 ○○○는 영령들께 정성을 다해 고합니다.
 신위는 이미 28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월이 바뀌어 때는 바야흐로 겨울의 중반입니다.
 이에 공들의 제사를 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여운 것은 후사가 없는 것이니
 느끼이 공들을 받들어
 길이 깨끗한 덕행을 기리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리고 사모하여
 정성을 다해 영령들을 위로 하고자
 삼가 술과 과일과 여러 제수를
 이에 진설하여 일을 이루고자 하오니
 영령들께서는 흠향하십시오.

10) 제의 시작시기와 계기

이곳의 무후자제사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제보자가 1978년에 군에서 제대를 하고 마을에 와보니 무후자제사를 면사무소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강연회 회장이 회장을 맡아가지고 면에서 지내던 무후자 제사를 노인회에서 맡아 지내게 해달라고 해서 옮겨 온 것이다. 그 해가 아마 1990년인가 될 것이다.

무후자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들은 자식이 없어서 자신들의 재산을 죽기 전에 면사무소에 회사를 한 것이다. 그래서 면에서 그들의 토지와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다가, 어느 해인가 군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모두 가져갔다. 이는 지방자치 기관이 면에서 군으로 바뀐 것이다.

여기 기린면에 군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다 무후자의 땅이다. 현재 그들

의 문서가 남아 있는지는 모른다.

11) 문헌자료

〈無後嗣祭(무후사제)〉

무후사제는 후손이 없는 귀신을 제사하는 동제 성격의 제의이다. 이러한 제의가 행사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조상숭배의식이 각별하다는 것을 보

여주며, 아울러 사후에 배고픔과 외로움으로 떠도는 넋을 위로하고자 하는 한국인의 휴머니즘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렇게 떠도는 귀신들을 위함으로써 그들의 해코지로부터 벗어나고자



무후제 헌작 장면
(사진제공 최종익, 2009년)

한 신앙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

우리의 관내에서는 남면(노인회 주관)에서 33위 기린면에서 28위의 무후사제를 올리고 있다. 남면은 무후자에 대한 명단을 소장하고 있지 않지만 기린면은 무후자에 대한 명단을 소장하고 있기에 참고로 기록해 둔다.

○ 기린면 무후자 명단

남세영 김공주 박지도 박용철 강입이 양치서 박경집 김소사 이봉천 배검소 강검지 이경을 강수돌 최순보 장납금 백용운 서진명 안치선 어봉득 지군첨 박원서 김완인 전성운 최백두 이관구 김경달 김치경 이치봉⁶⁷⁾

67) 『인제군사』, 앞의 책, 924-5쪽. 이름을 간혹 잘못 기록한 곳도 있다. 가령 강검지는 강첨지인데 첨(僉)을 검으로, 배결교(傑鉞)를 배검소로 잘못 썼다.

〈인제군 기린면 무후사제〉

인제군 기린면에서는 매년 11월 첫 주 금요일에 노인회관에서 무후사제를 지낸다. 무후제의 대상은 28位(남세영 外)로 그 이름이 온전히 전하고 있다. 기린면의 무후사제는 예전에 면장의 주관 하에 열렸으나, 약 12년 전부터는 절차 등의 이유로 기린면 현리 분회 노인회관에서 지내고 있다. 군에서 100만원의 제수비용을 지원 받는다.

초헌관은 면장이고, 아헌관은 노인회장이고, 종헌관은 도의원 또는 군의원이 맡아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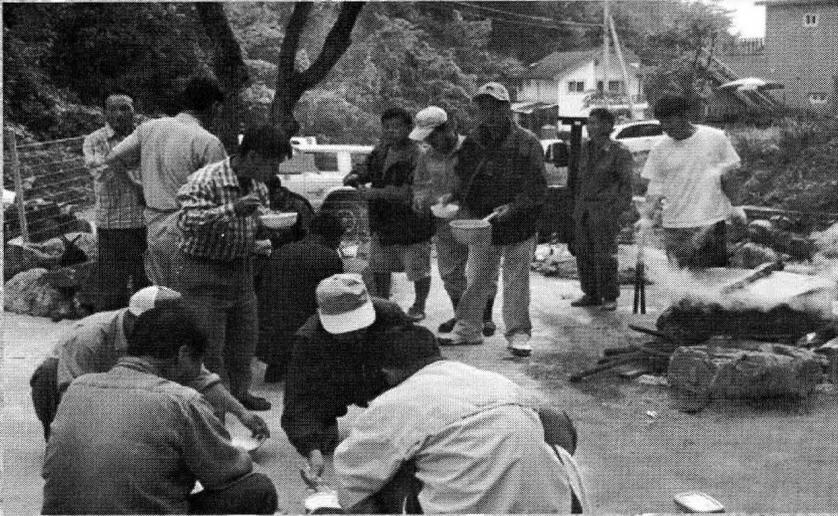
이 무후제가 시작된 것은 6.25이후가 아닌가 추측한다.(이승실(55), 인제군 기린면 현리. 복지계장. 2002년)⁶⁸⁾

68) 김의숙이학주, 『강원인의 일생의례』(민속원, 2005), 446쪽.

제3장



인제지역 마을제사의
활용방안과 과제



1. 인제지역 마을제사의 활용방안
2. 인제군의 조사연구과제

1. 인제지역 마을제사의 활용방안

필자는 지난 7월부터 약 반 년 동안 인제군의 마을제사를 조사 집필했다. 인력이 모자라서 혼자 동분서주하느라고 현장을 농친 경우도 더러 있다. 특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여러 곳에서 동제가 행해지므로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사정 때문에 연구보조원을 둘 수도 없는 형편이라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로 대신하기도 했다. 게다가 일일이 녹음테이프를 풀어가면서 정리하고 집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원인은 마을제사 집필에 그들의 감정까지 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벅찬 반년이었다.

그동안 마을제사를 조사해서 책으로 출판한 경우를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표를 활용해서 집필하는 경우이고,⁶⁹⁾ 하나는 마을민속지의 형태였다.⁷⁰⁾ 둘 다 장단점이 있다. 표를 활용하는 경우는 한 눈에 마을제사의 내역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세세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방법은 조사를 짧은 시간에 많은 곳을 할 수 있는 반면, 제사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감정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마을민속지 형태의 것은 이것저것을 다 실어서 집필하다보니 마을 전체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마을제사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도 함께 해서 이해의 폭을 넓혔다. 간혹 이 둘을 보완한 형태의 집필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보편적이지는

69) 대표적인 경우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1995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한 『한국의 마을제당』이다. 그 중 강원도편은 1997년에 출간했다. 그 후 각 지자체에서 이를 본받아 간행을 했는데, 그 중 강원도의 경우는 장정룡, 『양양군 마을제당 조사』(양양문화원, 2002)와 이영식, 『횡성의 서낭당』(횡성문화원, 2008) 등이 있다. 이 중에 이영식은 표로써 미진한 부분은 설명을 첨부해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했다.

70) 마을민속지 형태로 마을제사를 앞세워 낸 책으로는 이창식, 『제천의 오티 별신제』(제천문화원, 2001)와 강성복, 『장벌리 탐제와 동화제』(부여문화원, 2001) 등이 있다. 이 둘은 모두 마을제사를 앞세워서 민속지 형태로 조사를 해서 출간하였다. 마을제사와 함께 마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좋은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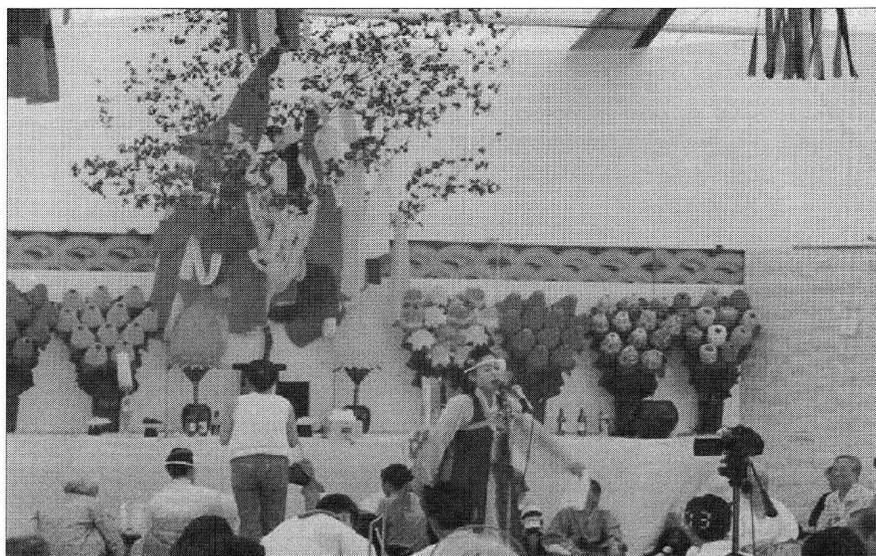
않았다. 이에 필자는 마을제사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마을제사에 대한 그 마을 사람의 인식과 현재 상황 및 활용방안까지 모색해 보기로 하였다.

근래에 우리나라 종묘제례악(2001.5.18), 판소리(2003.11.7), 강릉단오제(2005.11.25), 그리고 2009년 9월 30일에 강강술래·남사당놀이·영산재·제주 칠머리당영등굿·처용무 등이 세계무형유산걸작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쾌거를 낳았다. 이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높으니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제례와 관련된 것이 유달리 많다. 종묘제례악, 강릉단오제, 영산재, 제주칠머리당굿이 그것이다. 종묘제례는 나라에서 조선조 때 행하던 것이고, 영산재는 불교에서 행하던 것이다. 마을 행사로는 강릉단오제와 제주칠머리당굿이 해당한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때문에 위기에 처했던 종묘제례와 제례악은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아울러 그를 보존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이는 그 사람들의 문제에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삶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그런 조상을 둔 후손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지표도 제시한 것이다.

이 중에 관심을 끄는 것은 강릉단오제와 제주칠머리당굿이다. 이 둘은 모두 우리의 무당굿을 기저에 두고 있는 것이다. 제주칠머리당굿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강릉단오제도 무당굿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대관령 산신당에서 그 주신인 범일국사를 모시고 내려와서 남대천에서 굿마당을 설치해 두고 굿을 하면서 신을 즐겁게 해주며, 강릉사람들의 풍요와 안녕을 비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따라서 강릉단오제는 단순히 단오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의이며, 축제인 것이다. 이것이 세계적인 축제로 되면서 강릉단오제가 강릉사람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대단하다. 이는 강릉의 대표 상표가 되어서 강릉의 특산물이 세계적으로 팔려나가는 기틀을 제공했다. 또한 강릉의



강릉 단오굿의 한 장면(2003년)

이미지를 높이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강릉단오제는 강릉사람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효과를 동시에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강원도에는 유명한 제례의식이 많다. 그 중에 삼척의 해신당제와 태백산제 등은 아주 중요한 제의이다. 태백산제는 민족의 영산이라는 상표를 활용했고, 해신당제는 남녀의 사랑을 시작으로 자식기원이라는 생명에 대한 최고의 상표를 개발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인제의 경우는 전통적인 마을제사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비록 인공치하와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소 그 맥이 끊기기도 했으나 굳건히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아울러 각 고을마다 그 특성이 있어서 크게는 인제 전체의 상표로 키울 수도 있고, 작게는 마을 체험과 상징으로 남길 수도 있다. 그 중에 김부대왕제와 박대감제는 세계적인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김부대왕제는 마의태자라는 인격신이 제사를 받고 있다. 이를 인제에서 천년이상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그 가치

를 차마 말로 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는 마의태자와 관련해서 그 활용을 언급하고자 한다.

인제에서 잘 알려진 특산품은 황태 밖에 없다. 물론 치커리, 인진쑥, 고랭지 채소 등이 있으나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게다가 요즘은 모험을 중심으로 래프팅, 트래킹, 사발이 오토바이, 번지점프 등을 하고 있다.



한계산성

그런데 이러한 황태와 모험 관광은 인제에서 살았던 마의태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의태자는 인제에서 김부대왕이라 하여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셔왔다. 그리고 마의태자와 관련된 지명이며, 유적 등이 곳곳에 남아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보루를 삼고 고려와 일전(一戰)을 벌이고자 한 곳이 한계산성(寒溪山城)이다. 한계산성의 한계는 마의태자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마의태자가 이곳에 이르렀을 때 눈보라가 치며 아주 을씨년스런 날씨였다. 그때 추위에 떨면서 마신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성을 쌓고 한자로 찰 한(寒)자에 시내 계(溪)를 써서 한계산성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곳의 지명이 한계리가 된 것이다. 황태도 이 지역의 추운 겨울을 이용해서 만들

어지는 식재료(食材料)이다. 그렇다면 황태도 이 지역과 무관하지 않다. 황태에 마의태자이야기를 넣으면 그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아울러 마의태자가 이 지역에 들어와 마의(麻衣)를 입고 초식(草食)을 먹으면서 살았던 것은 신라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구국과 호국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신라의 정신이라고도 하는 화랑정신과도 결부시킬 수 있다. 또한 마의태자의 후손 금준이 중국에 들어가서 금나라를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인제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은 인제에서 천년 동제로 인제 사람들에게 영원한 수호신으로 남아있는 마의태자를 살려야 한다. 곧, 천년 전에 죽은 마의태자를 인제에



마의태자 노래비

부활시켜야 한다. 그 정신을 부활시키고, 그를 마을이름으로 살아있게 하고, 신앙과 전설과 지명과 유적과 상표와 상품으로 살아 있게 해야 한다. 인제사람들의 긍지로 살아 숨 쉬게 해야 한다. 마의태자가 살아서 인제에 활보하게 해야 한다. 수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마의를 입고 초식을 하며 신라의 부활을 꿈꾸는 마의태자마을로 인제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인제를 마의태자를 주제로 한 명품마을로 바꿀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명품마을의 조건으로 3가지를 주장했다.

첫째는 특색 있는 마을이다. 이는 지역의 전통성과 지역성을 말한다. 여기서 지역성은 향토성을 의미한다. 전통과 지역성이 없으면 새로 만들면 된

다. 화천에 산천어가 있어서 산천어축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 역시 함평에 나비가 많아서 나비축제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인제에는 천년 동제의 전통성과 많은 지명과 유적을 가진 지역성을 모두 갖고 있다.

둘째는 활력 있는 마을이다. 활력이 있으려면 궁지도 있고 돈도 돼야 한다. 정신과 물질이 같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신바람 나는 삶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마의태자의 가치는 인제사람들에게 궁지도 심어줄 수 있고, 잘 살게 해 줄 수도 있다. 조건이 있다면 관민이 함께 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제군은 마의태자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

셋째는 명품마을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곧, 끝없는 변화와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거둬나기, 낫설게 하기니 하는 말을 많이 한다. 이는 이미 이천년 전에 써진 『주역』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다. 곧, “유변소적(唯變所適)”과 “생생지위역(生生之謂易)”이라는 말이다. 이는 다름 아닌 변화와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계속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생각을 낳고 낳아야 하는 것이다. 잘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우리의 삶은 유교식으로 말하면 혼자만의 삶이 아니다. 내세가 없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과 육체는 자식들에게 그대로 계승된다. 효(孝)라는 한자에도 이러한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곧, 효의 로(老)는 아버이를 뜻하고, 자(子)는 자식을 뜻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글자를 풀 때 자식이 아버이를 업고 가는 것으로 말한다. 그러면 왜 업고 갈까? 바로 나를 낳아주고 생명을 계승시켜준 고마움으로 그러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낳아준 아버이의 고마움을 다 갚을 수 없다. 그야말로 『명심보감』에 있듯이 “욕보심은(欲報深恩)인데 호천망극(昊天罔極)이로다”이다.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하나 하늘처럼 넓고 커서 다함이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부모님께 못 다한 효도를 자손에게 하는 것이다. 효(孝)라는 글자를 반대로 풀면 아버이가 자식을 낳아 기르

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가 말하는 효는 나를 낳아 주고 길러주셔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칠정(七情)을 비롯한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준 고마움에 답하듯이, 우리는 자식을 낳아서 또한 길러야 하는 의무를 지닌 것이다. 이럴 때 또 하나 물려줄 것은 자손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을 해서 이겨 편안히 살 수 있는 땅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을 개척하고 활용하고 그 땅위에 살았던 조상의 숨결을 물려주어 자부심과 경제력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터전은 곧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할 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어떠한 지를 정확히 알고, 그 변화와 창조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끌어가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따라갈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소비자가 필요해서 구매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상품이 넘쳐나는 시대이다. 뭔가 우뚝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만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동(感動)'전략이다.

마의태자이야기는 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 신라의 경순왕이 나라를 고려에 바쳐 항복하자 태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라의 존망은 반드시 하늘에 있는 것이니 충신 의사들과 함께 민심을 수습해서 힘이 다한 뒤에야 그만둘 일입니다. 어찌 천년 사직을 경솔하게 남에게 내 주겠습니까?”하고 “왕지는 통곡하며 왕을 사별하고 곧 개골산으로 들어가 마의를 입고 풀을 먹고 살다가 세상을 마쳤다.”라고 했다.⁷¹⁾ 그런데 마의를 입고 초식을 하면서 그냥 세상을 하직 한 것이 아니었다. 인제에서 항전을 통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준비를 한 것이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가?

상품이 감동이 있으려면, 가격에 비해 품질이 워낙 뛰어나든가, 포장이

71) 김부식, 『삼국사기』상, 이병주 역(을유문화사, 1986), 243쪽.; 일 연, 『삼국유사』, 이민수 역(을유문화사, 1986), 146쪽.

아름답든가, 이야기가 있든가 해야 한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 해야 하겠지만, 일단은 이야기로 승부를 걸 수 있다. 그래서 그 첫째로 인제의 지명을 바꾸는 것이다. 곧 남면을 마의태자면으로, 상남면을 김부대왕면으로, 북면을 설악산면(항간에 설악산을 개골산으로 주장함)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담은 유적지코스개발, 모험이야기를 담은 어린이 놀이 공원과 레포츠시설, 전쟁과 관련한 숙박시설, 그리고 안동의 헛제사밥처럼 대왕제사상을 응용한 대왕음식 개발 등을 할 수 있다. 대왕음식은 마의태자가 생전에 미나리와 취떡을 좋아했다고 해서 아직도 제사상에 오르고 있다. 게다가 제사가 끝나고 취떡을 주변 나무에 숨기면 동네 처녀 총각이 찾아먹는 풍습도 있었다. 처녀가 찾으면 길쌈을 잘하고 시집을 잘 가며, 총각이 찾으면 글공부를 잘하고 장가를 잘 든다고 한다.⁷²⁾

이밖에도 마의태자 박물관 건립 및 연구소 설립, 상징물 설치, 마의태자 회사설립, 마의태자 명칭을 딴 산촌체험, 자연수풀·인문·미술·음악·심리치료 시설설치 등 할 것이 한 둘이 아니다.

이처럼 김부대왕제 하나만으로도 아주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인제의 민속자원을 바로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않아야 할 것이다.

72) 이학주, “신앙과 전설 속 마의태자와 명품마을 가꾸기”, 앞의 논문. 지금까지 마의태자와 김부대왕제의 활용방안은 모두 이 논문에서 추려 쓴 것이다.

2. 인제군의 조사연구과제

인제지역은 민속의 보고이다. 아직 전문인에 의해 제대로 조사 발굴되지 않아서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았을 따름이다. 그리고 할 것이 너무도 많다. 이는 빠른 시일 내에 할수록 인제의 발전은 앞당겨 진다.

민속은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이다. 선조부터 현재 우리와 미래의 우리 후손의 삶까지 모두 민속자원에 속한다. 우리의 삶은 흩어지면 아무런 가치를 느낄 수가 없다. 그러나 이를 기록하고 모아두면 엄청난 큰 자원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기초는 다름 아닌 모아둔 자료 곧, 집대성한 자료에서 주어진다. 기록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오천년 전 우리의 조상인 단군천자(檀君天子)의 내력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무덤과 같은 흔적과 『삼국유사』 같은 기록 때문이다. 역시 고구려 시조 동명황제(東明皇帝)의 실상도 이규보가 『동명왕편』이라는 서사시를 적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요즘 많은 역사 민속학자가 우리의 축제 등을 거론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구절은 역시 중국인들이 기록해둔 우리의 역사적 사실이다.⁷³⁾ 이처럼 기록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산업과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서 각종 건물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특히, 대단위 휴양시설과 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와 남면 갑둔리 일대에

73) 이는 중국정사 속의 조선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음과 같은 책이다. 이민수 역, 『조선전』(탐구당, 1984).; 『국역 중국정사 조선전』(국사편찬위원회, 1986).

육군과학화부대가 들어서면서 김부리와 갑둔리 일부가 모두 사라진 것이다. 당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삶은 하나도 채록하지 않은 채 말이다. 그래서 김부리와 원갑둔리 사람들의 삶은 모두 땅속에 묻히고 말았다. 훗날 이곳에 살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조상의 삶을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기록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 기록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보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기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많은 나라가 자신들의 역사적 실체를 발굴하고 보전하고자 그 많은 돈을 들이는지 알아야 한다. 바로 그 자체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크나큰 자원이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 중요한 역사적 자원이 있으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온다. 보러 온 사람은 그냥 가지 않고, 그 지역의 물건을 사가든 음식을 먹고 가든 잠을 자고 가든 한다. 이것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한 터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실체도 그에 대한 이야기와 그와 관련된 그 지역 사람들의 애환이 서려 있을 때 그 가치는 더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야기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그 이야기는 바로 그들의 삶이다. 그것을 누가 기록하고 전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중요한 자원도 결국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민속이라 말할 수 있다. 민속(民俗)은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이다. 이러한 민속을 분류하면, 일생의례, 세시풍속, 민속신앙(마을신앙, 가정신앙, 무속신앙, 속신, 풍수지리), 생산민속, 의식주, 수수께 가속신어·금기어·속담, 민요, 설화, 지명집, 민속사회(혈연, 지연, 사회생활), 민속예술과 놀이(민속극, 미술, 음악, 춤, 놀이), 민속축제, 민속유적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민속에 대한 기초자료를 올바르게 수집 정리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아주 중요하다. 가령, 인제군의 대표적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황태의 경우

는 민속에서 식민속(食民俗)에 해당한다. 그런데 필자가 알기로는 인제의 식민속인 황태에 관해 집대성해 놓은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안다. 황태를 홍보하고 여러 음식으로 만들어 판매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근간에는 황태라면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여 인제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수백 번 칭찬을 들어 당연하다. 그런데 그에 앞서 인제에서는 “황태 민속지”를 만들어야 한다.

황태에 관한 민속지는 황태의 역사와 제조과정에서부터 황태와 관련된 인제사람들의 삶과 판매, 황태축제, 황태에 대한 인식, 전통의식과 황태의 관계, 황태음식 조리법과 개발의 다양성, 황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한 권의 책으로 내는 것이다.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냈을 때 그 효과는 아주 대단하다. 이 자체가 홍보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주민들이 황태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황태에 대한 체계 있는 연구 개발로 인제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정 황태세상을 만들 수 있다.

현재 황태는 인제 뿐 아니라, 평창군 횡계와 삼척시 하장 등에서도 많이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 특히 횡계 쪽에서는 겨울철의 별미로 다양한 전략을 세워 판매하고 있다. 그곳에는 스키장을 비롯해서 강원도에서 수조 원을 들여서 세운 알펜시아리조트에 동계올림픽까지 유치하려고 벌써 세 번의 도전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횡계지역은 황태를 판매하는데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인제군에서 서둘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연구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인제의 황태명성은 옛 것이 되고 만다. 인제에서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횡계에서 횡계황태가 아니라, 인제황태의 이름을 걸고 팔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제군의 민속관련 서적을 보면 불모지나 다름없다. 이는 인제군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인제에서 그동안 펴낸 대략적인 민속관련 서지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는 필자가 수집하

지 못해서 빠뜨린 것도 있을 것이다.

『인제군지』(인제군, 1980); 남근우·이신정, 「인제군의 민속문화」(1),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한림대박물관, 1996); 『인제군사』(인제군, 1996); 이만철 편, 『우리 민속 가꾸기』(인제문화원, 1999); 이만철 편, 『인제 뗏목』(증보판; 인제문화원, 2002); 이만철 편, 『인제민속사』(재판; 인제문화원, 2004); 장정룡·이한길, 『인제뗏목과 뗏꾼들』(인제군, 2005); 이만철 편, 『인제군 유적·지명·전설』(인제문화원, 2007) 등이다. 이밖에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서 펴낸 단편적인 것이 몇 있다. 그리고 『인제문화』라는 잡지에 간혹 민속과 관련된 글이 실린다.

위의 자료에서 보면 군지는 인제군 자체의 것을 기록하기보다는 강원도 전체의 민속을 거론하는 중에 인제민속이 끼어든 느낌이 들고,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서는 현장에서 채록을 하여 제대로 편찬을 했으나, 문제는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선택조사에 그쳤다. 그 역시 민속전반을 다루지 못하고 부분에 그쳤다. 『우리민속 가꾸기』는 몇 번에 걸쳐 출판을 했는데, 문제는 세시풍속의 경우 인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것을 해서 인제의 특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뗏목』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고 조사를 착실히 하였다. 『인제민속사』는 그동안 인제에서 출판한 민속놀이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제목을 인제의 민속놀이를 해야 했다. 그리고 『인제군의 유적·지명·전설』은 『인제군사』의 것을 베껴서 편찬한 것으로 의의를 찾을 수가 없다. 그 중에 지명은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1966)에서 출간한 것을 그대로 베꼈다. 보완조사가 거의 되지 않았다. 이처럼 인제군에서 출간한 인제 민속에 대한 올바른 서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를 보면 인제군에서는 그동안 사상누각(沙上樓閣)을 지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서(『인제사람들의 마을신앙』)의 경우도 표본조사에 그쳤으므로 전수조사를 해서 완결판을 내야한다.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와 현재가 많이 단절된 것을 알 수 있다. 신령이 다섯인데 왜 다섯 명인지 모른다. 그리

고 그 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 아울러 제사의 절차와 인식 등이 한 해가 다르게 변하고 있음을 보았다. 마을신앙의 전수조사도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인제군은 세계 속의 명품도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명품도시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으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제대로 나가지 못했다. 기초가 튼튼한 인제 가꾸기는 이제부터다. 그것은 기초자료가 충실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인제군은 기초자료 수집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시골 도랑에 다리 하나 놓을 돈이면 몇 권의 자료집을 만들 수 있다.

훗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제가 되기 위해서는 인제인의 삶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것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 더 이상 중요한 제보자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제보를 받아 기록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성복. 『장벌리 탐제와 동화제』. 부여문화원. 2001.
- 『강원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 『국역 강원도지』. 강원도. 2005.
-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제39권, 민족문화추진회. 1969.
- 『국역 중국정사 조선전』. 국사편찬위원회. 1986.
- 권혁준. 「인제군 인물설화에 나타난 역사성」. 『강원민속학』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 김갑동. 「고려시대의 성황신앙과 지방통치」. 『한국사연구』74. 한국사 연구회. 1991.
- 김부식. 『삼국사기』. 이병주 역. 을유문화사. 1986.
- 김선일. 「인제지방에 살아 숨 쉬는 마의태자의 숨결」. 『인제문화』23집. 인제문화원. 2008.
- 김세건 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2008년 피해자 현황조사 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강원도 인제군 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2.12.
- 김영진. 「한국산신의 역사적 고찰」. 『인문과학논총』6집. 청주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987.
- 김의숙이창식. 『민속학이란 무엇인가』. 북스힐. 2003.
- 이학주. 『강원인의 일생의례』. 민속원. 2005.
- . 「서낭신고」. 『강원인문논총』.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 . 「민속신앙」. 『강원도사』 전통문화 편. 강원도. 1995.
- 김형철. 『옴겨 다니는 촛불』. 흐맘. 2005.

- 남근우·박신정.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박물관. 1996.
- 『민속지』. 강원도. 1989.
- 박성석. 『한국의 민속』. 영남서원. 1993.
- 방효정. 「수해의 아픔과 합동위령제」. 『인제문화』21집. 인제문화원. 2006.
- 『북역 고려사』제8책. 신서원. 1991.
- 신종원. 『한국대왕신앙의 역사와 현장』. 일지사. 2008.
- 이만철 편. 『우리 민속 가꾸기』. 인제문화원. 1999. 재판 2005.
- . 『인제 뗏목』 증보판. 인제문화원. 2002.
- . 『인제민속사』 재판. 인제문화원. 2004.
- . 『인제군 유적·지명·전설』 재판. 인제문화원. 2007.
- 이민수 역. 『조선전』. 탐구당. 1984.
- 이영식. 『횡성의 서낭당』. 횡성문화원. 2008.
- 이창식. 『제천시 오티 별신제』. 제천문화원. 2001.
- 이학주. 『아들 낳은 이야기』. 민속원. 2004.
- . 「강원지역 기자속의 유형과 특징」, 『박물관지』12.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05.
- . 「화천의 세시풍속 어부식에 대한 고찰」. 『강원민속학』21집. 강원도민속학회. 2007.
- . 『강원도 무후제 조사 연구』. 강원대학교중앙박물관. 2007.
- . 「지명의 생성배경과 바람직한 조사방법: 인제군 남면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지명유래집과 지명집 만들기』. 한국학중앙연구원·강원도민일보. 2009.11.21.
- . 「양양군 수동골 마을제사 연구」. 『어문논집』42집. 중앙대학교. 2009.12.
- . 「신앙과 전설 속 마의태자와 명품마을 가꾸기」. 『인제 문화유산 미래 가치 창출 심포지엄』. 강원도민일보. 2009.12.17.
- 『인제군사』. 인제군. 1996.

『인제읍지』. 인제군. 1996.

일연. 『삼국유사』. 이민수 역. 을유문화사. 1986.

장정룡. 「말송배」. 『월간태백』. 강원일보사. 1989.6.

----. 『양양군 마을제당 조사』. 양양문화원. 2002.

----. 『화천 어부식놀이 민속지』. 화천군. 2008.

----. 이한길. 『인제뗏목과 뗏꾼들』. 인제군. 2005.

전신재. 「김부대왕전설의 형성과 변모」. 『강원민속학』19집. 강원도민속학회. 2005.

----. 「인제군 지명전설」. 『강원민속학』22집. 강원도민속학회. 2008.

『한국의 마을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7.

『한국의 마을제당』 제2권. 강원도 편. 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지명총람』2. 한글학회. 1967.

문래(文來) 이학주(李學周)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문래리에서 태어나 꼴 베고 밭 갈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정월대보름이면 마을 서낭당에서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내고, 농악을 앞세워 집집이 돌며 걸립을 할 때 뒤꽂무니에서 춤을 췄다.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여자동창이 시집을 가자 신랑다루기를 주도해서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었다.

대학은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다녔고, 대학원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동아시아 전기소설의 예술적 특성연구〉라는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원대, 성균관대, 세명대, 한림성심대 등에서 강의를 하고, 광주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다. 강원불교대학에서 불교설화를 강의 한다. 민속문학축제분야의 자문, 농촌종합개발사업심사위원, 지역개발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컨설팅, 민속분야 강연과 용역사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낸 논저는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문학세계』, 『아들 낳은 이야기』, 『강원인의 일생의례』, 『화천 사람들의 삶과 민속문화』, 『화천 사람들의 축제와 구비문학』, 『강원도 무후제 조사연구』, 「허생전의 구조와 의미」, 「춘천 우두산 설화의 생성성」, 「동아시아 전기소설에 나타난 생사관의 미학」, 「화천의 세시풍속 어부식에 대한 고찰」, 「양양군 수동골 마을제사 연구」 등 수십 편이 있다.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인 쇄 ◦ 2009. 12. 23.
발 행 ◦ 2009. 12. 30.

지은이 ◦ 이 학 주
펴낸이 ◦ 정 병 석
펴낸 곳 ◦ 인제문화원
전 화 ◦ (033)461-6678
팩 스 ◦ (033)461-0220
인 쇄 ◦ (서울) 씨웍스
031-903-1711

※ 이 책은 군비 보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지은이: 휴대전화 016-802-1288, 전자주소 hakjuprof@hanmail.net

